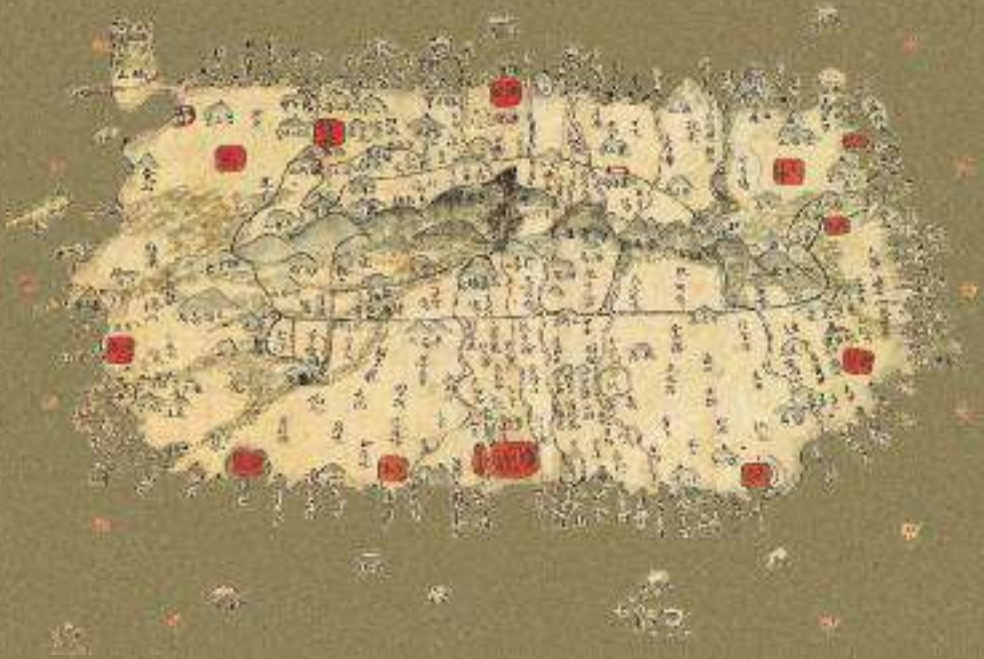


우리고장의 석문화



서귀포문화원



서귀포 문화원장 김 병 수

우리고장 서귀포는 반도의 최남단, 한라산을 중심으로 동서와 남쪽으로 펼쳐진 천혜의 비경을 자랑한다.

동으로 일출봉기암을 이루고 서귀포 칠십리 해안에 굽이치는 정방, 천지연 폭포를 만들고 중문 천제연 물줄기를 따라 서쪽으로 가면, 산방산기세가 송악산으로 뻗어 내려 가파도 마라도에 점을 찍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일찍이 이처럼 거룩한 터전에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거친 돌과 황무지를 일구며 고단한 삶을 살아왔고, 모진 바람과 거센 파도를 헤치는 온갖 어려움 속에 빛어진 설화와 신화어린 긴 역사를 이어 왔습니다.

이러한 설화속에는 제주만이 지닌 독특한 문화와 언어 풍토 그 위에 흘러간 역사를 엮어온 선조들의 꿈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귀중한 유형 무형의 유산을 정리 보존하고 전승하는 일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지워진 책무요 사명입니다.

사람이 사는 고장 이르는 곳마다 인물에 얹힌 이야기, 산과 바다, 지명 따위에 스며있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는 해학, 민담, 상상력을 뛰어넘은 허황된 꿈, 권선징악을 일깨우는 이야기 등 서민들의 삶과 애증, 애환을 담은 역사도 함께 전해져 옵니다.

우리고장에서 전해오는 이야기 자료들을 한데 모아 한권의 설화집으로 편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 자료가 선조들의 고단했던 삶을 꿈과 희망으로 승화시켜 온 삶의 지혜, 그리고 당시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한권의 책을 만들기 위해 이야기 자료를 모으고 편집에 애쓰신 정순호 사무국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인쇄를 맡아 수고하신 오디콤 오상현 사장님과 편집 교정에 힘쓰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일러두기

- 수록된 설화는 제주도 전설지(1985. 제주도), 서귀포시 문헌자료집(1998. 서귀포시), 남제주군지(2006. 남제주군)에 게재된 서귀포시 지역의 설화와 자체적으로 수집된 것을 수록하였다.
- 당시 제보자의 언어 그대로 채집된 것이나, 독해의 편의를 위하여 ()내에 표준어 문장으로 바꿔 기술하였다.
- 설화의 수록은 서귀포시의 읍, 면을 구분하여 배열하였다.
- 같은 소재의 설화도 다른 제보자에게서 여러편 수집된 경우 그대로 수록하였다.



목 차



제1장 한라산 편

I. 한라산, 그 경승의 형성

| | |
|-------------------------|----|
| 1. 선문대 활망의 한라산 창조 | 18 |
| 2. 백록담과 산방산의 형성 | 20 |
| 3. 신선(神仙)의 놀이터 | 20 |
| 4. 영실기암의 형성 | 23 |
| 5. 아흔아홉골 | 24 |
| 6. 한라산의 고려장 | 25 |

II. 한라산에서 태어난 神들

| | |
|-----------------------|----|
| 1. 호근 본향당신 | 27 |
| 2. 사계 큰물당신 | 28 |
| 3. 예촌 · 보목 본향당신 | 29 |
| 4. 상창 하르방당신 | 30 |
| 5. 중문 본향당신 | 32 |

제2장 대정읍 편

| | |
|----------------------|----|
| 1. 대정원 팽돌 | 37 |
| 2. 오찬이 궤 | 38 |
| 3. 가파도 아기엄게 바위 | 40 |
| 4. 이재수의 난(I) | 41 |
| 5. 이재수의 난(II) | 44 |

| | |
|-----------------------------|----|
| 6. 오 찰방(I) | 45 |
| 7. 오 찰방(II) | 50 |
| 8. 오 찰방 누님 | 55 |
| 9. 강태종 훈장 | 57 |
| 10. 의원 장의 | 63 |
| 11. 신도 충견무덤 | 64 |
| 12. 산호 해녀 | 68 |
| 13. 신 대정원 | 69 |
| 14. 채 똑똑이 | 70 |
| 15. 머리잘라 시부모 생일 차린 효부 | 73 |
| 16. 굿물 파혈지 | 75 |
| 17. 저승에 다녀온 강씨 | 76 |
| 18. 의견 빨랐던 이성교 참사 | 78 |
| 19. 관노 박경대의 목소리 | 79 |
| 20. 고 현감의 대정현감 도입 | 80 |
| 21. 강직의 겸손과 의협 | 82 |
| 22. 강백년 | 83 |

제3장 남원을 편

| | |
|-----------------------------|----|
| 1. 수영악 | 89 |
| 2. 오리수 | 90 |
| 3. 뜻을 못 펴서 죽은 날개달린 장수 | 92 |
| 4. 의귀리 김택 중 논하니 | 94 |
| 5. 용감한 열부 | 96 |

| | |
|-------------------------|-----|
| 6. 의귀리 경주 김택 조상..... | 99 |
| 7. 고 대정과 부 장령 | 102 |
| 8. 의귀리 김택의 막산이 | 105 |
| 9. 파혈된 고 좌수 무덤 | 106 |
| 10. 허택 젊은이 이야기 | 110 |
| 11. 장수 무덤 | 110 |
| 12. 장사 오창열 | 112 |
| 13. 옷귀 설촌과 호종단..... | 113 |
| 14. 양애왓 | 114 |
| 15. 신례2리-영등할망의 전설..... | 115 |
| 16. 설촌하신 할아버지의 전설..... | 115 |
| 17. 빌레가름 | 117 |
| 18. 벌러니 코지와 이무기..... | 117 |
| 19. 마매기 당과 큰 한집 | 118 |
| 20. 도훈장 양공 국장의 일화 | 119 |
| 21. 당의 유래 | 121 |
| 22. 당돌왓과 허 좌수 이야기 | 122 |

제4장 성산을 편

| | |
|----------------------|-----|
| 1. 성산일출봉 | 125 |
| 2. 용궁올레와 칼선드리 | 125 |
| 3. 혼인지 | 128 |
| 4. 영산이골 | 129 |
| 5. 구진개와 추근디 밭들 | 130 |
| 6. 시흥리 현씨 남매..... | 131 |

| | |
|---------------------------|-----|
| 7. 심돌 부 대각 | 133 |
| 8. 심돌 강씨 할망 | 135 |
| 9. 현 지관 | 136 |
| 10. 고성 홍 효자 | 138 |
| 11. 삭달제장과 삼등매 | 141 |
| 12. 난미 김씨 | 144 |
| 13. 오백이터 할망과 하르방 | 145 |
| 14. 오 훈장과 그의 계모(I) | 147 |
| 15. 오 훈장과 그의 계모(II) | 148 |
| 16. 도깨비 | 152 |
| 17. 온평리의 청룡 | 153 |
| 18. 부댕 도선묘 | 154 |
| 19. 오 훈장과 정 지관 | 154 |
| 20. 현씨 남매 | 157 |
| 21. 훈작 죽은 심방 | 159 |
| 22. 푸대쌈 | 160 |
| 23. 칠남발 김 훈장과 최씨 선묘 | 160 |
| 24. 이전물 | 161 |
| 25. 왕머들과 세종 강 서방 | 162 |
| 26. 영등할망 | 162 |
| 27. 심돌 | 163 |
| 28. 설문대 할망 | 164 |
| 29. 선돌/ 선녀바위 | 165 |
| 30. 삼달리 본향당 전설 | 166 |
| 31. 부부석 | 168 |

| | |
|-------------------------|-----|
| 32. 백중 | 168 |
| 33. 배공이 터와 버리동산 | 169 |
| 34. 물징거 | 170 |
| 35. 문씨 영감의 묘 | 170 |
| 36. 대봉이 터와 남매 | 171 |
| 37. 담배 한 대로 얻은 부자 | 172 |
| 38. 골매당 | 174 |

제5장 안덕면 편

| | |
|----------------------|-----|
| 1. 군산(軍山) | 177 |
| 2. 유반석과 무반석 | 180 |
| 3. 산방굴사 약수물 | 182 |
| 4. 형제섬(쥐섬) | 183 |
| 5. 고종달이 | 184 |
| 6. 창천리 지명 유래 | 187 |
| 7. 산방산과 방철 스님 | 188 |
| 8. 장사 정운디 | 192 |
| 9. 고성목과 산방덕 | 198 |
| 10. 장사 구운문 | 200 |
| 11. 적객 임관주 | 202 |
| 12. 창천리 강 별장 | 203 |
| 13. 막산이(I) | 206 |
| 14. 막산이(II) | 211 |
| 15. 광정당과 이 목사 | 217 |
| 16. 명당에 얹힌 이야기 | 221 |

| | |
|-----------------------------|-----|
| 17. 산방산 금장지 | 223 |
| 18. 광정당 말 무덤, 영천 이 목사 | 224 |
| 19. 소 목사와 오덕 묘 | 226 |
| 20. 소 목사와 강위빙 | 230 |
| 21. 병악과 강 별장 | 231 |
| 22. 도채비 전설 | 232 |
| 23. 까치 소리 해득한 김해 김씨 | 233 |

제6장 표선면 편

| | |
|-------------------------|-----|
| 1. 용궁 아들 삼형제와 매오름 | 237 |
| 2. 괴야 | 239 |
| 3. 탈산봉 | 240 |
| 4. 개무덤 | 240 |
| 5. 천년수 팽나무 | 242 |
| 6. 김덕이여 | 243 |
| 7. 거슨샘이와 늑단샘이 | 244 |
| 8. 곱은소(I) | 246 |
| 9. 곱은소(II) | 246 |
| 10. 넷기 송씨댁 며느리 | 247 |
| 11. 정의 홍 형방 | 249 |
| 12. 가시오름 강 당장 | 251 |
| 13. 오 별장 | 253 |
| 14. 어진 고 형방 | 256 |
| 15. 고 부윤 | 258 |

| | |
|---------------------------------|-----|
| 16. 토산뱀 | 260 |
| 17. 양남택과 구령팻 당신 | 262 |
| 18. 백 목사와 토산당 | 264 |
| 19. 영주산과 무선돌 | 266 |
| 20. 현 행방 이야기 | 267 |
| 21. 일렛당 전설 | 268 |
| 22. 여드렛 당 전설 | 268 |
| 23. 송 감찰 | 269 |
| 24. 설춘조의 선묘 이야기 | 270 |
| 25. 설맹디 할망과 백사장 | 273 |
| 26. 선산이왓 | 274 |
| 27. 말 다루는 솜씨로 동생을 출옥케한 송씨 | 275 |
| 28. 도채비 잡은 보말 하르방 | 276 |
| 29. 괴야동산 | 277 |
| 30. 강 엉덩눈 이야기 | 278 |
| 31. 강씨 하르방의 환상곡 | 279 |

제7장 구 서귀읍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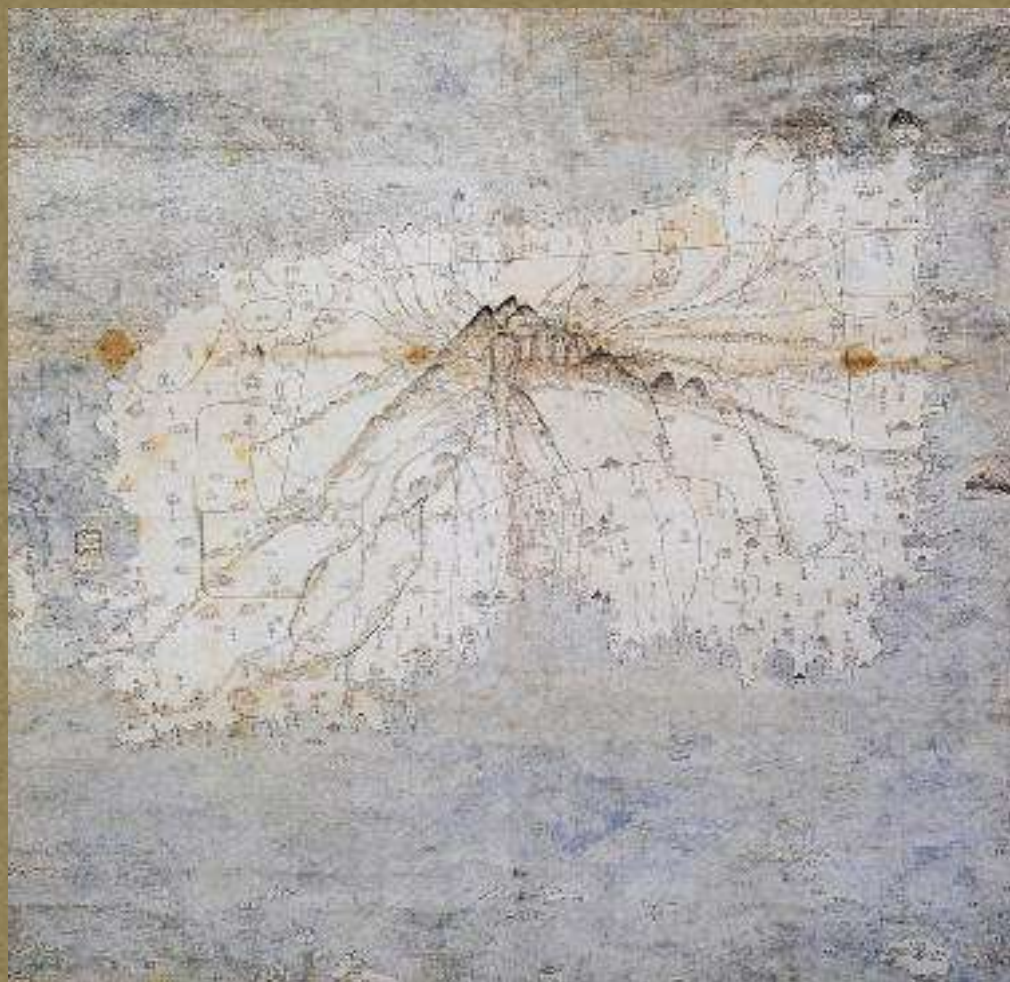
| | |
|---------------------|-----|
| 1. 천지연 | 283 |
| 2. 쇠섬과 뱀 | 286 |
| 3. 정방폭포와 서불과차 | 287 |
| 4. 고종달의 단혈 | 289 |
| 5. 열녀바위 | 291 |
| 6. 막숙의 지명 유래 | 292 |
| 7. 여우물 | 293 |

| | |
|--------------------|-----|
| 8. 현 유학 | 295 |
| 9. 오서자 | 299 |
| 10. 장사 양 태수 | 300 |
| 11. 가령 양 장의 | 302 |
| 12. 변인태 | 306 |
| 13. 홍리 고 대각 | 310 |
| 14. 보목리 조록이당 | 314 |

8장 구 중문면 편

| | |
|--------------------------------|-----|
| 1. 천제연과 효자 청년 | 321 |
| 2. 이천장물 여우귀신 | 324 |
| 3. 새당 할말 | 326 |
| 4. 대포리 설촌 이야기 | 327 |
| 5. 힘과 기예가 뛰어난 강씨 | 329 |
| 6. 김명헌 참판 | 332 |
| 7. 날개 돋은 아기 장수 | 333 |
| 8. 변 당장과 그 아들 | 335 |
| 9. 무우남발 이 좌수(Ⅰ) | 337 |
| 10. 무우남발 이 좌수(Ⅱ) | 343 |
| 11. 중문 고부 이택 선묘와 태종 강 훈장 | 353 |

제1장 한라산 편



제주삼읍도총지도

제1장 한라산 편



I 한라산, 그 경승의 형성

한라산이 얼마나 장엄하고 아름답고 신비로운 산인가는 직접 보지 않고는 모른다. 제주도를 뺄 돌아가며 어디서 바라보아도 각각 다른 위용(威容)으로 수려한 모습을 보여 주어 그 외모도 좋거니와 산 속 곳곳마다 펼쳐 있는 경승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은 더욱 더 좋다. 그러기에 한라산은 예로부터 삼신산의 하나로 불리어 그 수려함과 신비로움을 칭송해 왔다.

장엄하고 신비롭고 불가사의한 곳엔 전설이 얹힌다. 그 신비와 불가사의를 해설하려는 소박한 심성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 해설들은 비록 비합리적인 상상의 이야기지만, 오늘날의 합리적인 설명보다 그 신비와 불가사의를 몇 배나 더 직감하게 해 준다.

한라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웅장한 한라산이 어떻게 창조 되었을까? 산 속의 여러 경승들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 경승 속에서 어떤 신비한 일들이 벌어졌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소박한 상상의 날개를 펴 해설해 왔다.

1. 선문대할망의 한라산 창조

한라산이란 이름은 은하수(銀漢)를 어루만질 만큼 높은 산이라 해서 붙여진 것이라는 설명이 있다. 한문 투의 설명이어서 그 어원의 바른 해석은 아니지만, 한라산이 높은 산임을 실감케 하는 말임인 틀림없다.

이처럼 높은 한라산을 누가 어떻게 창조했을까? 이만큼 거대한 산을 만든 그는 적어도 한라산 높이의 몇 배가 되는 거대한 신인이었을 것이 분명하다. 이 창조작업을 한 거대한 신인이 바로 <선문대할망>이라는 여신이다.

선문대할망이 어디서 태어 났는지는 아는 이가 없다. 그러나 여신이 얼마나 거대했든가는 눈으로 본 것처럼 잘들 알고 있다.

옛날 옛적 선문대할망이라는 할머니가 있었다. 이 할머니는 한라산을 베개 삼고 누우면 다리는 제주시 앞 바다에 있는 관탈섬에 걸쳐졌다 한다.

이 할머니는 빨래를 하려면 빨래를 관탈섬(또는 楸子島)에 놓아 발로 밟고, 손은 한라산 꼭대기를 짚고 서서 발로 문질러 빨았다 한다. 또 다른 이야기에는 한라산을 엉덩이로 깔아앉아 한쪽 다리는 관탈섬에 디디고, 한쪽 다리는 서귀포시 앞바다의 지귀섬(地歸島)(또는 大靜邑 앞바다의 馬羅島)에 디디고 해서 구좌읍 소섬(牛島)을 빨래돌로 삼아 빨래를 했다 한다.

또 제주시 오라동 경의 한내(漢川)'고지렛도'라는 곳에 모자 모양으로 구멍이 패인 큰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는 선문대할망이 썼던 감투라 하며, 성산을 성산리 일출봉에 높이 솟은 기암이 있는데, 이 바위는 선문대할망이 길삼을 할 때 접시불(또는 솔불)을 켜던 등잔이라 한다. 이 바위는 높이 솟은 바위 위에 다시 큰 바위를 얹어놓은 듯한 기암인데, 이것은 이 할머니가 불을 켜 보니 등잔이 얹으므로 다시 바위를 하나 더 올려 놓

아 등잔을 높인 것이라 한다. 선문대할망이 등잔으로 썼다 해서 이 바위를 지금도 등경돌(燈檠石)이라 부르고 있다.

이 여신의 거대한 모습을 설명하는 전설은 이 외에도 많다. 큰 바위가 띠엄띠엄 몇 개서 있으면 이 할머니가 솥을 걸어 밥을 해 먹은 바위라든지, 깊은 池沼가 있으면 이 할머니가 들어서서 발등까지 밖에 물이 닿지 않았다는지 하는 식의 단편적인 전설들이다. 개중에는 민담적 요소가 곁들여 소화(笑話)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다.

어떻든 이만큼한 이야기로도 이 여신이 얼마나 거대했었는가를 능히 알 수 있다. 이렇게 키가 너무 커 놓으니, 할머니는 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없을 것이 뻔하다. 그래서 할머니는 속옷 한 벌만 만들어 주면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 주겠다고 했다. 속옷 한 벌을 만드는 데는 명주 백동(1동은 50필)이 든다.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 준다는 말에 제주 백성들은 있는 힘을 다하여 명주를 모았으나 99동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속옷을 만들다가 완성하지 못했 고, 할머니는 다리를 조금 놓아가다가 중단해 버렸다. 그 자취가 조천면 조천리와 신촌리 앞바다에 있다 한다. 바다에 흘러 뺏어간 바위줄기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거대한 여신이니, 한라산 짙은 거뜬히 만들어 낼 수가 있을 것이다. 속옷은 없어도 치마는 입었던지, 이 여신은 치마폭에다 흙을 가득 담고 지금의 한라산이 있는 자리로 운반해 갔다. 치마는 험한 것이어서 치마폭의 터진 구멍으로 흙이 조금씩 세어 흐르니, 그것이 도내(道內)의 많은 오름(小火山)이 되고 마지막으로 날라간 흙을 부으니, 바로 한라산이 되었다 한다.

실로 간단하게 이루어진 창조작업인 것이다. 그러나, 선문대할망이 창조한 한라산은 오늘날의 모습 그대로는 아닌 모양이다. 한라산의 여기 저기에 펼쳐진 경승들은 그 후 갖가지 기이한 사연으로 이루어졌다는 전설들이 전승된다.

2. 백록담과 산방산의 형성

한라산 정상은 넓고 큰 분화구로 되어 있다. 그 둘레가 약 2km나 되고 기암절벽 고산 지대의 수림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못 속에는 맑은 물이 고여 있다. 여기가 이름하여 백록담(白鹿潭)이다.

백록담의 풍치는 사시사철 좋거니와 특히 이 곳의 설경은 절경이다. 속세인 마을들에는 초여름이 와 녹음이 짙어지려는 계절에 이 백록담에는 하얀 눈이 깔려 있어 보는이를 신비경으로 이끈다. 그래서 이를 녹담만설(鹿潭晩雪)이라 하여 영주십경(瀛州十景)의 하나로 쳐 극찬해왔다.

이러한 백록담이 어떻게 하여 이루어졌을까?

옛날 어떤 사냥꾼이 한라산에 사슴을 잡으러 갔다. 활을 메고 여기저기 돌아 다니는데, 사슴은 안 잡히고 한라산 정상에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한라산은 하도 높아 하늘에 닿을 만큼 했다. 사냥꾼은 사슴을 발견하여 급히 팔을 치켜들고 쫓았다. 그 때, 아차 실수하여 사냥꾼은 활 끝으로 옥황상제의 엉덩이를 건들 이고 말았다.

옥황상제는 화가 발각 났다. 그래서 곧 한라산 봉우리를 잡히는 대로 잡아 뽑고는 서쪽으로 내던져 버렸다. 그 봉우리는 날아와서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떨어지니 산방산 이되고, 봉우리를 뽑아 버린 자국은 움푹 패어져서 지금의 백록담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산방산은 기암괴석의 둥그스름한 바위 산이어서 그 모습이 마치 한라산 봉우리를 옮겨다 놓은 듯한 기괴한 산이다. 그러니, 이러한 설명이 제격이 아닐 수 없다.

3. 신선(神仙)의 놀이터

선문대할망의 창조작업으로 한라산이 이루어지고, 옥황상제가 그 봉우리를 뽑아 던짐으로써 백록담이 이루어지자, 경승은 점차 갖추어져 갔다.

한라산의 절경을 맨먼저 즐긴 이는 아마 신선이었으리라, 의식주의 걱정없이 불로장

생하는 신선들은 이 한라산을 무대로 생을 즐겼다.

한라산 가운데서도 특히 못 신선이 즐겨 산 곳은 백록담이다. 여기의 신선들은 백록을 타 다니며 백록을 기른다. 백록들은 그저 놓아 두면 한라산의 영주초(瀛州草)를 뜯어 먹어 살이 쪼다. 물은 백록담의 물을 먹여야 하니, 이 때만은 신선이 백록을 타고 사슴 떼를 몰아 물을 먹이러 온다. 그래서 한라산을 일명 영주산(瀛州山)이라 하고 그 정상에 못을 백록담이라 이름이 붙게 된 것이라 한다.

지금은 한라산을 이웃집 출입하듯 등산하지만, 옛날엔 신선밖에 올라갈 수가 없었다. 사람은 반쯤만 오르면 안개가 순식간에 짙 끼는 수가 일췌이고, 올라갈 때, 특히 고성(高聲)을 지르거나 하면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안개 뿐 아니라, 풍우가 몰아치기 마련이다. 이런 기상 변화는仙境(仙境)에 속세의 인간이 올라올 수 없도록 신선이 조화를 부린 때문이라한다.

신선이 백록을 타고 백록담에 물을 먹이러 온 것을 실지 본 사람도 있다. 이름은 자세하지 않으나, 옛날 어떤 사냥꾼이 사냥을 하러 갔다가 백록담에까지 올라갔다. 신비한 절경에 취하여 서 있더니, 안개가 자욱하게 몰아닥쳐 지척을 분간할 수는 없었다.

사냥꾼은 어쩔 수 없이 백록담가에 조용히 엎드려 있었다. 운무(雲霧)가 자욱한 못가에 우수수 소리가 나더니, 천처 몇 백의 사슴떼가 숲 속에서 한가이 모여오는 것이었다. 그중에 한 사슴은 빛이 백설같이 흰 놈이 있는데, 그 등엔 백발노인이 으젓이 타고 있었다. 활을 겨누고 있던 사냥꾼은 차마 범할 용기가 나지 않아, 멍하니 바라보다가 제 정신이 났다. 그래서 맨 뒤에 사슴 한 마리를 쏘았더니, 백록에 탔던 노인과 사슴떼는 홀연히 간 데 온 데 없이 사라져 버렸다 한다. 백록에 탄 노인은 분명 신선이었음에 틀림없다.

백록은 신선이 타는 말이어서 사냥꾼이 잡지 아니한다. 만일 백록을 쏘았다고 하면 그 사냥꾼은 천벌을 받아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된다고 한다.

옛날 조천면 교래리에 살던 안포수가 이런 백록을 쏜 일이 있었다. 그는 104살까지 살았는데, 일생 포수로서 살아온 사람이다. 그래서 짐승이 보였다 하면 백발백중 맞혀 잡았다. 어느날 그는 한라산 속을 돌며 짐승을 찾는데, 저쪽 숲에서 사슴 한 마리가 내닫는 곳을 얼른 볼 수 있었다. 안포수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팽하고 총을 쏘았다. 맞았는가 확인할 필요도 없이 여느때 처럼 달려가서 사슴 위를 덮치며 순간 칼을 빼어 사슴의 배

를 찢었다.

“이젠 한 놈 잡았다.”

이렇게 의식하는 순간에야 정신이 들어 짐승을 보니 이건 백록이 아닌가. 안포수는 정신이 아찔했다. 자신도 모르게 활 칼을 뽑으며 한 10보 물러나 엎드렸다.

“과연 몰라 뵈었습니다. 잘못 봐가지고 이런 대죄를 범했습니다”

머리를 땅에 대고 극진히 빌었다. 그래서 겨우 목숨이 살아났다. 만일 그렇게 빌지 않았더라면 그 자리에서 즉사를 면치 못했을 것이다.

이처럼 한라산은 신선이 즐기는 곳이니, 사람들들 아니 즐길 것이냐. 예로부터 시인 묵객(詩人墨客)들이 신선만큼이나 그리던 곳이 한라산이다.

특히 한라산 정상 백록담에 오르면 남쪽 멀리 남극 노인성(南極 老人星)이 보여서 선망의 적이 되었다. 노인성은 한번 보면 장수하는 법이다. 그래서 한라산의 경관도 즐길 겸 노인성도 볼 겸 해서 한라산을 무수히 찾아들었다.

더욱이 역대로 부임해 온 제주목사들은 거의가 이 한라산의 산유(山遊)를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았다. 그들은 백록담에 오르면 산정(山情)에 젖어 일률(一律)을 노래하고 잔치를 베풀어 즐기곤 했다.

목사들의 산유는 풍류가 있어 좋았지만, 그에 따른 백성들의 괴로움은 또 그만큼 컸었다

언제부터 생긴 풍습인지, 목사가 백록담에까지 올라 설 때 그 좌향(坐向)이 문제가 되었다. 남향하여 앉아 “거, 좋다”하고 즐기면 대정현에서 잔치를 베풀고, 동향하여 앉아 “거참, 이쪽이 좋다”고 하여 풍치를 즐기면 정의현에서 잔치를 마련한다. 마찬가지로 북향하여 앉아 즐기면 제주목에서 잔치를 차리게 되었던 것이다.

제주도가 제주, 정의, 대정, 삼현(三縣)으로 행정구역이 나누어졌던 이조 때 간계한 관리가 만들어 놓은 관습인 것이다. 이로 인해 목사가 산유를 하는 날이면 삼현에서 징발된 민간의 괴로움도 괴로움이려니와 그 비용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에 분격한姜 직(姜直)이란 이가 산유행차의 뒤를 따라가 백록담에 이르렀다. 마침 잔치를 벌려 할 때 그는 곤장을 맞아가며 민폐의 극심함을 고하여 만류했다. 이로부터 이런 잔치의 피해가 없어졌다 한다.

4. 영실기암의 형성

한라산의 경승은 백록담만이 아니다. 아마 또 하나의 걸작품을 찾는다면 영실기암을 들 것이다.

영실기암은 한라산 정상에서 서남쪽 약 3km쯤의 등허리에 있다. 울창한 숲 속에 천태만상의 기암괴석들이 수 백계 즐비하여 하늘을 찌른 것이 정히 장관이다. 이 기암괴석들은 한번 보면 활을 메고 나서는 장군들 같고, 다시 보면 도를 깨친 나한들이 늘어선 것도 같다. 그래서 그 수가 오백이나 된다 하여 오백장군(五百將軍) 또는 오백라한(五百羅漢)이라 부른다. 신이 빚어 놓은 듯한 이 절경이 하도 빼어나므로 이를 영주십경의 하나로 쳐 선인들이 내내 즐겨 왔다.

오백장군, 오백나한이란 이름은 그 기 암의 수가 오백이 된다는 데서 생겼지만, 실은 엄밀히 따지면 499개 밖에 안 된다고 한다. 그리고 장군(將軍)이니 나한(羅漢)이라 부르는 것도 겉만 보고 붙인 이름이지, 그 속을 캐어 보면 비화(悲話) 어린 화석임을 알게 된다.

아득한 옛날 일이겠다. 한 어머니가 아들 5백을 낳아 이 한라산에서 살고 있었다 식구는 많은데다 집이 가난하고 마침 흉년까지 겹치니 끼니를 이어가기가 힘들게 되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아들들에게 “어디 가서 양식을 구해 와야 죽이라도 끓여 먹고 살 게 아니냐”고 타일렀다. 오백형제가 모두 양식을 구하러 나갔다

어머니는 아들들이 돌아와 먹을 죽을 끓이기 시작했다. 큰 가마솥에다 불을 때고 솥 전위를 걸어 돌아다니며 죽을 저었다. 그러다가 그만 발을 잘못 디디어 어머니는 죽솥에 빠져 죽어 버렸다.

그런 줄도 모르고 오백 형제는 돌아와서 죽을 먹기 시작했다. 여느 때보다 죽이 맛이 좋았다.

맨 마지막에 돌아온 막내동생이 죽을 뜨려고 솥을 젖다가 이상하게도 뼈다귀를 발견했다. 다시 잘 저으며 살펴보니 사람의 뼈다귀임이 틀림없었다. 동생은 어머니가 빠져 죽었음이 틀림없음을 알았다

“어머니의 고기를 먹은 불효의 형들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다.”

동생은 이렇게 통탄하며 멀리 한경면 고산리 차귀섬(遮歸島)으로 달려가 한없이 올라가 그만 바위가 되어 버렸다.

이 것을 본 형들도 그제야 사실을 알고 여기저기 늘어서서 한없이 통곡하다가 모두 바위로 굳어져 버렸다. 그러니 영실에는 499장군이 있는 셈이고 차귀섬에 막내동생 하나가 떨어져 나와 있는 셈이다.

차귀섬의 오백장군은 대정읍의 바굼지오름(簞山)에서 환히 보인다. 어느 해 였든가, 어떤 지관(地官)이 바굼지오름에서 뒹자리를 보게 되었다. 지관은 정자리를 하나 고르고는 “이뒹자리는 좋긴 좋은데 차귀섬의 오백장군이 보이는 게 하나 흠이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은 상제는 “뒹자리만 좋으면 그것쯤 없애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고 차귀섬으로 건너갔다. 그래서 곧 도끼로 그 바위를 찍기 시작했으나 워낙 큰 바위라 없애 버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차귀섬의 오백장군에는 도끼로 찍어 턱이 진 자국이 지금도 남아 있다는 것이다.

5. 아흔아홉골

기암괴석이 늘어서 있는 경승은 영실기암만이 아니다. 한라산 서북쪽 밑, 곧 제주시 해안리경(海岸里境), 제2횡 단도로 가에 「아흔아홉골」이란 산이 있으니, 이 또한 색다른 풍치의 경승이다.

이 산은 크고 작은 골짜기가 마치 밧고랑처럼 무수히 뻗어 내린 기봉이다. 이 밧이랑 같은 기봉마다에는 갖가지 수림이 울창한데다 형형색색의 기암괴석이 저마다의 모습을 뽐내며 솟아 있고, 골짜기 마다에는 언제나 맑은 물이 한가이 흐른다 그 골짜기가 하도 많으니, 아흔 아홉 개가 있다 해서 이름을 「아흔아홉골」이라 한다.

전설에 따르면 이 골짜기가 하나만 더 있어 백 골이 되었더라면 제주에도 호랑이나 사자같은 맹수가 날 것이고 장군이나 임금 같은 인물이 날 것인데, 한 골이 모자라 아흔아홉골밖에 안되므로 맹수도 안 나고 인물도 안 난다고 한다.

일설(一說)에 따르면 아득한 옛날, 이 골짜기는 본래 백골이 있었다 하고, 그 때에는 많은 맹수가 나와 날뛰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 중국에서 스님 한 분이 건너와서 백성들을 모아 놓고 너희들을 괴롭히는 맹수를 없애 줄 터이니 “대극 동물대왕 입도(入島)”라고 큰 소리로 외치라고 했다. 호랑이나 사자 따위 무서운 짐승을 없애 준다고 하니, 백성들은 좋아해서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랬더니, 기이하게도 모든 맹수들이 이 백 골에 모여 들었다. 스님은 불경을 한참 외고 나서,

“너희들은 모두 살기 좋은 곳으로 가라, 이제 너희들이 나온 골짜기는 없어지리니, 만일 너희들이 또 오면 너희 종족이 멸하리라.”

맹수를 향해 소리치니, 호랑이 · 사자 · 곰 할것 없이 다 한 골짜기로 사라졌다. 그 순간 그 골짜기도 없어져 버렸다. 그 후 이 산은 아흔 아홉 골밖에 되지 않았고, 따라서 제주에는 맹수가 나지 않은다는 것이다.

실은 호랑이 사자 같은 맹수가 아니 나게 되자, 제주에는 왕도 큰 인물도 아니 나오게 되어 버린 것이 다.

선문대할망이 그 대충을 창조한 이래 이런 술한 사연을 남기며 한라산은 점점 완성되어갔다. 오늘의 웅자(雄姿)와 신비(神秘)와 절승(絶勝)이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되어 온 것이다.

6. 한라산의 고려장

신선의 놀이터로 이름 난 한라산은 못 사람들의 선망하는 신성한 산이었다. 불로장생을 희구하는 인간들은 한라산에서 절경을 즐기며 영생하는 신선이 그리울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한라산에 가서 신선이 되기를 열망하게 마련이다.

이런 때문에서인지, 옛날 제주도에서는 노인이 70세가 되도록 살면 이 사람은 신선이 될 사람이라 했다. 그래서 70세가 되는 날, 그 아들이 여러 가지 맛이 있는 음식을 차리고 아버지를 한라산으로 모셔 갔었다. 한라산 정상에올라가 이 음식을 차려 놓고 아버지를 앉혀 두고 오면 그날로 신선이 되어 올라간다는 것이다.

이 풍속은 이조 때까지 내려왔다 한다 세종 때 기건목사(奇虔牧使) 시절이었다.

어느 날 이방이 목사에게 아뢰었다.

“내일은 아버님이 신선이 되는 날이어서 일을 보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신선이 된다는 말이고?”

신선이 되는 날이어서 아버님을 한라산의 정상, 백록담에 모셔갔다 와야 하겠다는 이야기를 자세히 고했다.

목사는 이 말을 듣고 한참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음, 그러면 내가 옥황상제에게 편지를 한 장 써 보낼 터이니, 아버님께 전달해 주시도록 부탁해 줄 수 있을까?”

“예, 어렵지 않습니다.”

목사는 자그마한 봉투 하나를 넘기며 아버님의 가슴에 꼭 품게 해서 소중히 가져 가 넘기도록 했다.

이튿날 이방은 아버지를 모시고 한라산으로 올라가 작별했다.

이튿날 이방이 등청하자, 목사는 옥황상제에게 보내는 전지를 소중히 가슴에 품겼는가를 확인했다. 그랬다는 것이다.

“그러면 다시 한라산으로 올라가 보게. 아버님이 신선이 되어 잘 오르셨는지.”

이번엔 이방을 따라 목사도 같이 올라갔다. 신선이 되도록 아버지를 앞혀 둔 자리에서 가보니, 거기엔 커다란 뱀이 한 마리 죽어 넘어져 있었다.

목사는 그 뱀을 잡아 배를 갈라 보도록 했다. 배 속에는 이방의 아버지가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이방, 잘 보게. 내 옥황상제에게 보낸다는 편지는 편지가 아니라 독약이었네. 이래도 신선이 되어 올라간다는 말을 믿을 건가?”

그 후부터 70세가 된 노인을 한라산에 버리는 풍속이 없어졌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널리 분포하여 전승되는 고려장 이야기가 한라산과 기전목사에 결부된 것이지만, 이렇게 결부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한라산은 신성한 산이요, 신선이 와서 유람하는 산이라는 고래의 신앙이 이 이야기를 한라산에 결부시켜 놓은 것이요, 기전목사의 현명성을 보여 주기 위해 뱀에게의 공희(供犧) 이야기로 결말을 맺게 된 것이다.

Ⅱ. 漢拏山에서 태어난 神들

한라산은 예로부터 신성시해 왔다. 신성시 해 왔다는 것은 거기에 신령이 있음을 믿어 왔기 때문이다.

제주도민은 한라산을 신성시하고, 한라산신의 존재를 믿어 그들의 복리(福利)를 기원해왔다. 이 신앙행사는 본래 마을 단위의 부락제로 벌여 왔고 마을의 복리를 축원하여 전승되었기 까닭에 어느 새 한라산신은 마을의 수호신으로 그 성격이 바뀌어져 버렸다.

마을의 수호신이란 바로 신당이다, 지금 한라산에서 출생했다고 이야기되는 여러 마을의 당신(堂神)들은 바로 이 한라산 숭배의 잔영이다. 서귀포시 지역에 전해오는 당신들의 모습과 생활상을 추려 보면 한라산신의 그것도 추측할 수가 있다.

1. 호근본향당신 (好近本郷堂神)

서귀포시 호근동의 본향당신은 〈애비국하로산또〉라는 이름의 신이다. 한라산에서 솟아났기 때문에 하로산또(漢拏山一)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다.

이 신은 하로영산(漢拏靈山)에서 乙丑 三月 열사흘날 자시(子時)에 솟아났다. 부모 없이 저절로 솟아난 것이다. 솟아나고 보니, 그 시간이 자시인지라 천지는 칠흠같이 캄캄하여 동서남북을 가늠할 수가 없었다.

얼마 있자, 천황닭(天皇鷄)이 울어대고 자황닭(地皇鷄)이 울어 가니 먼동이 트기 시작하여 밤과 낮이 구분되기 시작하고 방위를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 애비국하로산또는 한라산을 출발하여 내려오기 시작했다. 중문면 도순리 경에 있는 시오름 상봉에 내려와 좌정하고 보니 마침 사슴떼가 줄을 지어 달리는 것이 보였다. 애비국하로산또는 이놈을 잡아 요기하기로 하여, 앞에 달는 놈은 놓아 두고 맨뒤엿 놈을 하나 쏘았다. 이 놈을 등에 걸머지고 다시 내려오다 서귀포시 호근동으로 흐르는 들레냇도에 이르고보니 물이 하도 맑으므로 여기서 목욕을 하고 사슴을 잡아 간회를 시원석석하게 먹었다. 다시 길을 나선 애비국하로산또는 서호동에 있는 고공산에 치달아 보니, 세 신선이 앉아 바둑을 한가이 두고 있었다.

애비국하로산또는 신선들에게 물었다.

‘이 앞엿 마을이 어디입니까?’

“호근이 (好近里)가 되어진다.”

“여기 좌정할 수가 없겠오이까?”

‘이미 차지한 신이 없으니 괜찮다.’

허가를 맡은 애비국하로산또는 좌정할 자리를 고르기 시작했다. 여기 저기를 고르다 돌혹기라는 곳이 산수(山水)가 가장 좋으므로 거기 좌정하여 호근동을 차지하고 당신이 되었다.

2. 사계(沙溪) 큰물당 신(神)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본향당신인 큰물당신도 한라산에서 솟아나 수렵을 하며 산신이다.

이 신은 할로영상(漢拏靈山) 서쪽 등성이에서 저절로 솟아났다.

신은 차지할 마을을 찾기로 하여 한라산을 떠났다. 노루 사슴떼를 몰아 올라 <홍골>로 내리고 홍골에서 다시 <변내골>로 내리고, 변내골에서 다시 홍골로 되돌아 올라서 산방굴사(山房窟寺) 머리로, 큰물머리로 하여 당물에 몰아 와 사슴을 잡았다. 피를 뽑아 시원하게 먹은 후, <이우암동산>에 올라 앉아 좌정할 곳을 찾아 보니 사계리 <큰물>에 혈이 떨어져 있어 좌정할 만했다.

곧 큰물로 가서 좌정한 신은 사계리를 차지하여 오씨 집안은 상단골(맨 윗 계층의 신앙민)로 이씨 집안을 중단골로 정하여 위하게 하니, 정월 초하룻날과 보름날, 그리고 팔월 보름날을 대제일로 하여 위하게 되었다.

이처럼 한라산에서 솟아난 신들이 노루, 사슴, 산돼지 등을 휘몰아 잡아먹으며 차지할 마을을 골라 당신이 되는 이야기는 수렵생활을 하며 돌아다니다가 거주지를 정하여 정착하는 제주 선민의 생활의 반영이겠다. 이런 생활체험의 설화화는 육지부의 산신처럼 호랑이를 옆에 끼고 앉은 백발노장의 모습과 전혀 다른 산신의 모습을 만들어 놓았

다. 한라산에서 솟아난 신들은 거의가 <고기도 장군> <밥도 장군> <술도 장군>으로 먹는 거인이며 화살 하나를 쏘으면 일만 군사가 저절로 숙어들어오고 나가는 무장으로 이야기된다.

3. 예촌 · 보목본향당신 (禮村 · 甫木本鄉堂神)

서귀포시 남원읍 예촌(신례리 · 하례리)의 본당을 신과 서귀포시 보목동 본향당신은 맺어진 형제이다 그 사연은 이러하다.

할로영산(漢拏靈山)에서 솟아난<백관님>자 강남천자국에서 솟아난<도원님> 그리고 서귀포시 상호동 곁에 있는 칠오름에서 솟아난 <도병사>, 세 위의 신은 예촌 본향당의 신이다. 그리고 할로영산의 백록담에서 솟아난<브룩뭇님>은 보목동의 본향당신이 다. 백록담에서 솟아난 브룩뭇님은 성장하여 신증부인과 결혼하고 살 곳을 찾아 떠나야 하게 되었다.

어느 날, 브룩뭇님은 부인을 거느리고 백록담을 떠나 차츰 아랫쪽으로 내려왔다. 서귀포시 상호동 경의 제완지골이란 곳엘 이르고 보니, 칠오름에 푸른 군막이 쳐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어떤 어른들이 저렇게 휘황하게 차려 놓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 브룩뭇님은 부인을 토평동 허씨 집 과부댁에 맡겨 두고 칠오름에 군막 쳐 있는 데를 찾아갔다. 신선 같은 세 분이 앉아 바둑을 두고 있었다. 수작을 하고 보니, 한분은 할로영산에서 솟아난 백관님이고, 한 분은 강남천자국에서 솟아난 도원님이고 또 한 분은 칠오름에서 솟아난 도병사였다.

네 신은 마주 앉아 인사를 나눈 후, 나이의 위 아래를 가리는데, 누가 형이고 누가 아우인지를 분별하기 어려웠다. 한참 의논 끝에 바둑을 두어서 이기는 이가 형이 되기로 합의하였다.

바둑판을 앞에 놓고 한 점 두 점 붙이다 보니, 백관님라 도원님과 도정사 세 위는 한 패가 되어 서로 후원을 하고 브룩뭇님 님은 외톨이가 되어 버렸다. 승리는 후원하는 쪽에 돌아갈것이 뻔하다. 브룩뭇님은 바둑을 지고 말았다.

“내 바둑은 졌습니다. 세 분을 형님으로 위하지요. 형님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형이니, 당연히 윗 마을을 차지하여 가야지.”

“그러면 저는 아랫 마을을 차지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관님, 도원님, 도병사 세 위는 윗 마을인 예촌을 차지하여 가서 <베야기된밭> 이라는 곳에 좌정하여 예촌본향당신이 되고, 브르뭇님은 아랫 마을인 보목리 <조노기> 라는 곳에 내려와 좌정하여 보목본향당신이 된 것이다.

이 보목본향당신인 브르뭇님은 쇠털로 만든 검은 전립에 운문대단(雲紋大緞)으로 안을 받친 쾌자로 몸치장을 하고 상모를 허울허울 날리면서 화살 하나를 쏘으면 일만 군사가 숙으러져 들어오고, 또 화살 하나를 쏘으면 삼천 군병이 숙으러져 나가는 위대한 영웅신이다.

4. 상창(上倉) 하르방당신(堂神)

할로영주삼신산(漢擎瀛洲三神山) 봉우리 서쪽 어깨에서 乙丑 三月 열사흘날 酉詩에 아홉형제의 신이 솟아났다. 그 아홉 형제가 각각 분산하여 내려와 여러 마을을 차지하여 당신이 되니, 큰 형은 성산읍 수산리 당신 울뢰마루하로산이고, 둘째는 애월읍 수산리 당신 제석천왕하로산(帝釋天王漢擎山)이고, 셋째는 남원읍 예촌의 당신 고뱅석도하로산이고, 넷째는 서귀포시 동·서홍동 당신 고산국하로산이고, 다섯째는 서귀포시 중문동 당신 동백자로하로산이고, 여섯째는 서귀포시 하모동 동백자로하로산이고, 일곱째는 대정읍 일과리 당신제석천왕하로산이고, 여덟째는 안덕면 상창리 당신 남판돌판고나무상태자하로산이고, 아홉째 막내는 서귀포시 종달리 당신 제석천왕하로산이다. 이 형제 신들은 한라산에서 솟아 났으므로 그 이름에도 모두 <하로산(漢擎山)>이 붙은 것이다.

아홉 형제의 신들은 8월 열사흘날에 각기 자기가 차지할 마을 골라 내려가게 되었다. 남판돌판고나무상태자하로산이라는 기다란 이름을 가진 여덟째 동생은, 형들은 다 떠

나가는데 자기가 갈 곳은 막연했다. 어디로 갈까 망서리다가 서쪽으로 내려가기로 작정하여 한라산 서쪽 등성을 내려섰다. 잠시 후 절터 이 망에 내려서고, 안수못, 밧수못을 거쳐 볼그니오름에 오르고, 다시 단숨에 한세빅베기를 치달아 올랐다. 목이 어지간히 말랐다. 높은데서 육소장(六所場)을 휘 둘러보니 생새물이 있으므로 곧 내려가 그 물로 목을 축이고, 다시 내달아 당오름을 거쳐 밝은오름에 당도했다.

이때, 안덕면 동광리 당신 황서국서가 억만 군병을 거느려 나서는 길에 마주쳤다. 두 신은 서로 길다툼을 하고 언쟁이 벌어졌다. 남판돌판고나무상태자가 말하되,

“너는 백명 군사를 화살 하나로 쏘아 눕히고, 그 누운 군사를 다시 화살 하나로 쏘아 일으킬 수 있겠느냐?”

“좋다. 백명 군사를 눕히는 게 문제 없다.”

두 신의 다툼은 화살로 군사를 눕히고 일으키는 기능 경쟁으로 바뀌어 벌어졌다. 먼저 황서국서가 화살 하나를 힘껏 당겨 놓았다. 화살이 날아감과 동시에 백명 군사가 와르르 쓸어졌다. 다시 화살 하나를 힘껏 당겨 터뜨렸다. 벌떡 일어날 줄 알았던 군사들은 꿈쩍 않고 제자리에 쓸어진 채 있는 것이다.

다음은 남판돌판고나무상태자하로산 차례다, 화살 하나를 당겨 놓았다. 백명 군사가 와르르 쓸어졌다. 다시 화살 하나 당겨 터뜨리니 백명 군사가 일시에 살아 벌떡 일어났다. 다시 화살을 놓으면 퇴르르 쓸어지고 다시 화살을 놓으면 벌떡 일어나고 자유자재인 것이다. 승부는 결판이 났다. 황서국서는 항복을 하고 시종(侍從)이 되어 모시기로 했다. 황서국서의 안내를 받아 남판돌판고나무상태자하로산은 수백 군사를 거느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논오름’으로 ‘팽풍그정’으로 하여 ‘척동산’에 내려 살펴보니 당동산이 좌정할 만한 곳임을 알 수 있었다.

곧 당동산으로 행차하여 수백 군사를 복병시키고 앉아 있되 어느 누가 외서 위해 주는 자가 없었다. 이변을 보여 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한 고나무상태자하로산은 커다란 뱀으로 변신하여 꿈틀꿈틀하고 있었다.

이때 상창리 통천동의 유포수 김포수 강포수가 사냥을 나가다가 큰 뱀이 길을 가로막아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세 포수는 범상치 않은 신임을 곧 알아냈다.

“저희들이 위할 신이시거든 이쪽으로 좌정하십시오. 정성껏 위하겠습니다.”

큰 팽나무 아래로 모셔서 정월 열나흘날과 팔월 열나흘날을 대제일로 하여 위하기로 하고, 유포수는 상단골, 김포수는 중단골, 강포수는 하단골이 되어 모시기 시작했다. 이래서 상창리의 본향당신이 된 것이다.

한라산 봉우리 서쪽 어깨에서 솟아난 이 아홉 형제의 신이 각 마을의 당신으로 좌정하게된 이야기는 각각 흥미로운 것이 있다. 그 중에 하나만 은 소개하자.

5. 중문본향당신 (中文本郷堂神)

서귀포시 중문동의 본향당신은 동백자하로산이다. 이 신은 한라산 봉우리 서쪽 어깨에서 乙丑 三月 열사흘날 중 다섯째이다. 이 신은 한라산을 떠나 차츰 차츰 내려오는 것이 중문동에 내려와 당신이 되고 진궁하늘 진궁부인이란 신을 부인으로 맞이하였다.

부부 사이에는 아들이 하나 태어났다. 아들은 아직 어린지라 어머니 젖가슴을 뜯고, 아버지 무릎을 앉아 수염을 뽑고 가슴팍을 치곤 했다. 이것이 부모의 눈에 거슬렸다.

“불효의 자식을 그냥 둘 수 없다.”

죽일판으로 둘러대다가 그럴 수는 없고, 돌함을 단단히 짜서 아들을 담아 자물쇠로 잠그고는 곧 바다로 띄워 버렸다.

돌함은 밀물에도 동덩, 썰물에도 동덩 떠 돌아다니다가 동해용광국의 산호나무 가지에 걸렸다. 동해용왕국의 개가 들이 달아 쿵쿵 내달아 웅웅 짖어대었다. 동해용왕이 이상히 생각하여 딸들에게 지시했다.

“큰딸아기 나가 보아라.”

“별만 송송하여 아무것도 없습니다.”

“둘째딸아기 나가 보아라.”

“나뭇잎만 반들반들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막내딸아기 나가 보아라.”

막내 딸은 나가 보고서,

“산호나무 윗 가지에 어떤 돌함이 걸려 있습니다.”

“큰딸아기 내리워라.”

“한쪽 귀도 달짝 못하겠습시다.”

“둘째 딸아기 내리워라.”

“한쪽 귀도 달짝 못하겠습시다.

“막내 딸아기 내리워라.”

막내딸은 꽃당혜 신은 발로 산호나무를 툭툭 차니 돌함의 저절로 설설 내려왔다.”

“큰딸아기 열어 보아라.”

“둘째딸아기 열어 보아라.

돌함 두껍을 열 수가 없었다.

“막내딸아기 열어 보아라.”

막내딸은 꽃당혜 신은 발로 돌함을 툭툭차니 자물쇠가 저절로 설강 열려졌다. 돌함 속에는 셋별 같은 동자가 앉아 있었다.

“너는 귀신이나? 생인이나?”

“귀신이 이런 곳에 올 리가 있습니까. 저는 인간 세상의 사람으로, 아버지는 하로백관(漢拏百官)이고 어머니는 진궁하늘진궁부인인데, 부모님 눈에 거슬리어 바다에 띄워 버리기에 여기 왔습시다.”

동해용왕은 천하명장 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큰딸 방으로 들라.”

눈도 거들떠 보지 않는다.

“둘째딸 방으로 들라.”

역시 마찬가지로 다.

“막내딸 방으로 들라.”

서루 여덟 잇바디를 허우덩씩 열어 웃으며 들어간다. 동해용왕의 막내딸 사위가 된 것이다.

용왕국에서는 사위손님을 대접하느리고 별별 음식을 차려 올리는데, 이 사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부인이 걱정이 되어 물어 보았다.

“조선국 장수님아, 음식이 좋지 못하여 못 잡습니까·?”

“대국이라면서 우리 소국만 못하다.”

“조선국에서는 무엇을 잡수었습니까?”

“내 국은 소국이라도 밥도 장근 술도 장군으로 먹었다.”

부인이 아버님한테 말을 하니, 용왕은 “네 기세를 가지고 사위손 하나 못 대접하겠느냐?”하고, 그 날부터 풍악을 치면서 술이니 안주니 대접을 하기 시작했다.

석달 열흘 백일이 되어 가니, 동창고, 서창고가 다 비어 갔다. 용왕이 생각해 보니, 요 사위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용왕국이 망할 듯했다.

“여자라 한 것은 출가외인이니, 어서 남편따라 나가거라.”

용왕은 사위와 딸을 다시 돌함에 담아 물 바깥으로 띄웠 버렸다. 돌함은 물결에 따라 떠돌아다니다가 중문동 앞쪽 바다로 떠 올라왔다.

아들 부부는 물으로 올라와 부모님을 찾아갔다. 부모님은 자초지종을 물어 보니, 일 곱살에 죽으라고 바다에 띄워 버린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이 분명했다. 거기다 용왕의 딸 며느리까지 맞이하게되니 반가웠다. 아들 부부를 맞아 들이고 같이 살게 되었다. 시 부모의 시중 드는 생활은 한 두달이 좋지, 오래 가면 괴로운 법이다. 동백자하로산은 며느리가 불쌍히 생각되어 탄살림을 내 주기로 했다. 중문동에 불목당이라는 다른 당을 마련토록 하고 거기에 가 좌정하여 신앙민들의 제의를 받아 먹도록 해 주었다.

이래서 중문동에는 <도랑지제>라는 본향당과 불목당이 생기끼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한라산신이 마을의 수호신으로 떨어져 버린 이야기들이지만, 본래는 전도민의 수호신이요, 국가적인 수호신으로 숭앙되어 왔었다.

제2장 대정읍 편



탐라순력도의 대정배전

제2장 대정읍 편

1. 대정원 팡돌

옛날 대정읍 보성리(大靜邑 保城里)에는 대정현(大靜縣)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금 보성초등학교 자리가 동헌(東軒)이 있었던 곳이다. 일제시대에는 동헌청 자리에 대정면 사무소가 있었다가 화재로 불타버렸다. 상창 터였던 곳은 주재소를 했었는데 소화 6년 사무소와 함께 모슬포로 옮겼다 한다.

옛날 대정원 시절, 대정원에 부임하는 현감들은 임기를 마치고 상경하면 정승도 할 수 있고, 더 높은 벼슬 자리도 오를 수 있었다. 그런데 제주원과 정의원에 부임한 관원들은 진급되지 못하고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 원인이 풍수지리설적인지는 자세하지 않으나, 대정원에는 팡돌(빨랫터가 되거나 등에 진 짐을 잠깐 내려 쉬는 터로서 보통 넓적한 돌로 이루어짐)이 있기 때문이라 한다. 대신(大臣) 올라가는 팡돌 이라고도 불리는데 제주원과 정의원에는 팡돌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주원, 정의원은 더 높은 직위로 올라갈 힘이나 권리가 없었다고 한다.

이런 까닭으로 육지부 큰 양반 가문의 자제들도 대정원에 지원하는 사례가 많았었다 한다. 대정원에 부임하면 임기가 4년이나 2년 이상은 지내질 않았다. 2년만 되면 모든 관원이 한양으로 올라가서 더 높은 직위로 진급하곤 했다는 것이다.

대정읍 보성리, 강신생(남) 제보

2. 오찬이 궤

‘오찬이궤’는 대정읍 무릉2리 들에 있는 조그마한 석굴로, 오찬이가 살았었기 때문에 ‘오찬이궤’로 불리고 있다.

오찬이는, 힘이 세어 방목하는 소를 마구 잡아먹었다는 도적 막산이보다는 힘이 좀 약했으나 머리는 오히려 뛰어났다. 그런데 오찬이도 막산이처럼 도둑질을 했다.

오찬이는 식량이 넉넉한 민가에 들어가서는 곡식을 훔쳐갔고, 또 돌아다니다 면화 등을 도둑질하곤 했었지만 막산이는 소 같은 짐승만 잡아먹었다.

그런데 정운디라는 사람이 막산이를 잡아 대정현청에서는 정운디를 불렀다.

“막산이를 잡았으니 오찬이도 잡을 수 있느냐?”

“오찬이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오찬이는 전부터 삼십 명쯤 부하들을 무장시켜 두었다. 무기는 일제시대에 쓰던 조총과 비슷한 것으로 심지를 꿰고 총구에 불을 붙이면 팡팡 소리 내며 쏠 수 있는 것이었다.

오찬이가 무장한 부하들과 마을에 들어가서 총을 쏘아대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무서워 도망가 버리면 물건들을 털어가곤 했다.

바로 산적이나 불한당처럼 도둑질을 한 것이다. 또한 중국의 마적단과 흡사했다.

드디어 정운디가 오찬이를 사로잡기 위해 오찬이 무리가 사는 굴을 찾아갔다. 불쑥 나타난 정운디를 보고 오찬이는

“어떻게 해서 오랏느냐? (왔느냐)”

“흉년이 들어 얻어먹으며 살아갈 방도가 없어 당신 심부름이나 하면서 살려고 오랏수다. (왔습니다)”

“계간(그러면) 들어오라” 고 해서 며칠 동안 같이 지내며 먹고 살았다.

대정 현감과 정운디는 오찬이를 잡으러 떠나기 전에 서로 약속을 했다.

“한 달 동안은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살 터이니, 아무 날 밤 몇 시 몇 분에 날랜 장정으로 한 오십 명만 북병했다가 내가 멀리서 신호를 보내거든 들어오라.”

이렇게 다짐을 하고 ‘오찬이궤’에 들어가서 며칠을 살았다. 하루는 오찬이 일당이 도

독질을 나갔다가 홀어멍(과부)을 납치해 왔는데 아리따운 미녀였다. 오찬이는 그 여자를 큰마누라로 삼았다.

정운디가 ‘오찬이궐’에 들어간 지 한달이 지나자 약속한 시간이 다 되어가니 나장(요즘의 순경)들이 총과 칼로 무장을 하고 ‘오찬이궐’ 근처에 숨었다.

정운디는 한 달 정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오찬이를 잡을 수 있을까 궁리를 하며 잡을 계획을 세웠다. 드디어 정운디는 굴 안에 있는 총들을 모두 밖으로 옮겨놓아야만 쉽게 잡을 수 있음을 알아차렸다.

약속한 날 오찬이 일당은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도둑질을 하고는 돌아왔다. 흠쳐 온 돼지도 잡고 술을 내놓아서는 왁자지껄 서둘러 먹기 시작했다. 조금 있더니 모두 술에 취해서는 코가 깨어질 정도로 골며 들어누워 잠에 골아 떨어졌다.

그런데 오찬이 큰마누라가 오줌 누러 굴밖에 나왔다가 주위를 살피더니 “아, 공기가 이상하다. 머리털이 곤개 일어선다”고 남편을 깨워 말했다. “그럴 리가 있느냐?”고 오찬이가 나무라자 큰마누라는 돌아와서 자버렸다.

정운디는 주위 무리들의 눈치를 보며 자는 척하다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굴 안에 세워 둔 총을 몇 차례 부산히 날라서 모두 밖으로 옮겨 놓았다. 그리고 난 후 정운디는 굴 밖으로 나와서 “이젠 나오라”고 신호를 보내자 숨었던 나장들이 와르르 몰려와서는 굴 입구를 막았다.

굴 안에 있던 오찬이와 그 부하들은 달아날 수가 없었다. 비록 부하들이 여럿이지만 모두 술에 취해 있었고, 갑자기 날랜 장정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어 두드리는 바람에 도망을 치지 못하고 모두 잡히게 됐다.

대정 현청으로 오찬이와 그 부하들을 잡고 오자 현감은 오찬이 부하들에게는 몇 년씩 징역을 살게 하고 오찬이는 사형시켜 버렸던 것이다.

양반의 후예로 계략에 뛰어난 정운디에 의해 오찬이가 잡혀 죽은 뒤부터 사람들은 도둑의 피해를 입지 않게 되었다.

정운디 묘는 ‘방묘’로 대정읍 동일리에 있다. 옛날 후손이 없는 사람의 묘는 ‘방묘’라고 돌을 무덤 가까이 둘레로 막아 놓아 조그맣게 만들었다. 요즘 후손이 있는 사람의 무덤처럼 크지 않았다.

어느 날 한 농부가 정운디 묘 옆을 지나 밭 갈러 나가다가 “어, 닥박 정운디도 계락이 뛰어나 막산이와 오찬이를 잡았지만 죽고 난 후 땅에 드니 그것이 끝이로구나” 하고 혼자 중얼거렸다. 그러자 죽은 정운디의 영혼이 있었던지 농부에게 불쑥 달려들어 혼을 내자 그만 파랗게 죽어갔다. 밭에서 일하던 농부들이 이것을 보고는 “큰일 났다”고 해서 집으로 급히 업어왔다. 점쟁이를 찾아가 점을 쳐보니 정운디를 아는 체해서 욕을 했으니 정운디에게 용서를 빌어야 살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굿 잘하는 무당을 모셔다 굿을 해서 살아났다고 한다.

정운디는 사계리에 살다가 동일리 지경에 묻혀 묘가 있는데, 농부의 욕을 들은 정운디가 영혼으로 나타나서, “이놈, 내가 죽어서 영혼이 되었지마는 너 같은 놈이야 못 잡겠느냐”고 해서 잡으니 농부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대정읍 보성리, 강신생(남) 제보

3. 가파도 아기엽게 바위

옛날 가파도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다. 단지 모실개(모슬포) 사람들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쉬고 돌아올 뿐 인가가 없는 섬이다.

어느 해에 한 배 주인이 고기와 소라 등을 잡고, 해산물을 캐러 가는 사람들을 배에 태우고 가파도로 들어갔다.

가파도에서 일을 마치고 사람들이 돌아오려고 배를 띄우려 하자 바다에 풍랑이 일기 시작했다. 3, 4일 기다려도 파도는 더욱 거셀 뿐이어서 도저히 떠나올 수가 없었다.

하루는 선주(船主)가 밤에 꿈을 꾸었는데 한 할머니가 나타나 “아기 엮은 처녀를 섬에 놔두고 가야지 그렇게 하기 전에는 떠나지 못 한다”고 하는 것이었다.

꿈을 깼 선주는 꿈속의 일을 확실히 믿을 수가 없었다. 하루 더 기다려 보기로 했다. 파도는 여전히 거세었다.

이제는 신고 온 양식도 다 떨어지고 모두 굶어죽게 될 형편이었다. 선주는 모든 사람

들에게 배에 타도록 명령을 했다.

그런데 아기엽게(아기엽저지)는 신지 말아야 할 텐데 하고 생각한 선주는 아기엽게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다.

“저 곳에 잊어버리고 떨어진 물건이 있는데 가서 가져오라”

아기엽게가 물건을 가지러 배에서 내리자 파도가 잠잠해졌다. 그 틈에 선주는 배를 몰고 모슬포로 돌아와 버렸다.

삼년 동안 선주와 사람들은 아기엽게를 잊고 살다가 가파도에 가 보니 바닷가 바위에 뼈만 남아 있었고 그 옆에는 아기 엮은 처녀와 같은 모양을 한 바위가 서 있었다 한다.

아기엽게는 자신을 내버려 두고 배가 떠나자 바닷가에서 슬프게 울다가 돌로 굳어져 죽고 바위가 되었다 한다.

강정동, 박경옥(남) 제보

4. 이재수의 난 (I)

옛이재수는 대정골 출신으로 사포의 심부름을 드는 아주 천한 하급의 신분이었다.

그 당시 승당(성당)의 작폐가 아주 심했다. 성당의 본부는 서귀포 서흥리에 있었는데, 선교로 세력을 제주도 서쪽으로 널리 폈다. 그런데 선교하는 과정에서 제주도민과의 불화가 여러 곳에서 일어났다. 천주교무리들은 승당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을 괴롭혔던 것이다. 예쁜 부인을 뺏어간다는지, 제사상을 뒤엎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마귀 숭배라 했으며 비바리(처녀)들을 수녀 시킨다고 데려다 하인으로 삼기도 했다. 이처럼 천주교무리들의 행패가 심해지자 제주도민들이 이에 대항해서 난을 일으켰다.

처음에는 애월 사는 김 훈장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켰다. 김 훈장은 양반 신분으로 앞가슴에 털이 많이 난 힘센 장사이기도 했다. 난을 일으켰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제자들과 함께 도망가다 주역점을 쳤는데 서문방액(西門方厄)이라고 나왔다.

“서문방 입니다. 그쪽으로 가면 죽을 운세입니다. 이쪽으로 가야 합니다.”

“아니다. 이쪽으로 가야 내가 살 것이다.”

그래서 김 훈장은 보리밭에 숨었다. 성당에서는 숨은 곳을 알려주는 사람에게 큰 상을 주겠다고 방을 붙였다. 그런데 반역한 사람이 있어서 김 훈장은 잡혀가게 되었다.

이재수도 이 난에 가담했다가 김 훈장이 잡혀가자 해산되는 바람에 대정고을로 돌아왔다.

성문에 이르자 이재수는 큰 돌 위에 앉고서 “젠장!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장군 한번 되어보고 죽어야지. 내 뒤를 여러분들이 따르면 내가 일을 한번 성공시켜 보겠다”고 하자 주위 사람들이 “우리가 너의 뒤를 따를 테니 앞장을 서서 난을 일으켜보라”고 호응을 했다.

이재수는 키가 작았으나 담력이 커서 큰일을 하겠다고 나서자 모두들 뒤따를 것을 약속했다. 이에 이르자 이재수는 대정읍 동일리 등 여러 동네를 돌아다니며 장정들을 모집했다.

그 당시 황천이라는 일본사람이 칼을 가지고 한림에 살고 있었다. 이재수는 이 사람에게서 칼을 얻고자 했다.

“당신에게 칼이 있다고 해서 그 칼을 얻고는 큰일을 한번 하고자 왔습니다.”

황천이가 이처럼 당돌하게 말하는 이재수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사람은 작지만 눈물에 정기가 있어 큰일 한번 하겠다”고 생각하고 칼을 주기로 했다.

“이 칼은 황천검이라 하는데 당신에게 줄 터이니 내 이름도 함께 전해 주시오.”

“그렇게 해주마썸(하겠습니다)”

칼을 얻은 이재수는 말을 타고 곧바로 대정고을로 돌아왔다.

그 당시 대정고을 사람들이 많이 성당에 다니고 있었다. 이재수가 난을 일으키자 그들은 숨어 살았다. 그런데 이재수의 난이 성공하려고 그랬는지 숨어 살던 천주교인들이 마을로 돌아오자, 이재수는 이들을 잡아다 넓은 거리에 세워 놓고는 큰칼을 뽑아 이리저리 치면서 죽였다.

이때 강우백이란 사람도 난을 일으켜 이재수와 합세하였다. 이재수는 서군, 강우백은 동군을 맡아 지휘하며 성안(제주목)으로 진격해 들어갔다.

이재수가 서군 선봉장이 되자, 따르는 부하들이 중국에서 만들었다는 안경이랑 장군

들이 쓰는 것, 망건들을 구해다 주었다. 이재수가 이렇게 차려입자 더욱 뛰어난 풍채를 지닌 장군이 되었다.

이재수가 서군을 이끌고 성안 서문에 당도해보니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이재수가 성문 앞에서 큰소리로 외쳤다.

“문을 열어라. 이 성안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당시 제주성은 계속되는 난리로 성문을 폐쇄하고 있어서 성안 사람들은 식량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문을 부수고 들어간 이재수와 그 부하들이 천주교인 들을 관덕정 마당에 잡아다 죽이기 시작했다. 그 때 약 이천 명은 죽였다고 한다. 그로부터 사흘 뒤에야 강우백이 서귀포 홍리 본부를 해치우고 한라산을 넘어 성안에 도착했다. 두 장수가 합세하여 천주교인 들을 처형시켰다. 드디어 이재수와 강우백은 난을 성공시켰으나 임금의 허락 없이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한양으로 잡혀갔다.

이재수와 강우백이 한양으로 잡혀갔을 때의 일을 봐도 이재수는 담력이 큰 사람 일을 알 수 있다. 두 사람이 사형 당하게 되자 강우백은 눈물을 줄줄 흘렸으나, 이재수는 두려움 없이 기다렸다가 식사 대접을 받고 배불리 잘 먹었다. 그리고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대왕님, 담배나 하나 태울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담한 이재수의 행동에 임금도 허락해 주었다. 이재수는 담배를 피우고 난 후 조용히 눈을 감고 죽음을 맞이했다.

이 난으로 해서 제주도에는 천주교인 들의 행패가 없어지고 좀 편안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이 세계에 알려지자, 이 난을 응징하겠다고 외국 군함이 사라봉 밑에 와서 제주에 상륙하려고 했으나 군인들이 〈배부름 동산〉에 몰려와서 대항하자 상륙하지 않고 떠나가 버렸다.

천주교인 들의 행패에 대항해서 일어난 이재수의 난은 3개월 간 계속되다 이재수가 사형됨에 따라 끝났다 한다.

대정읍 보성리, 강신생(남) 제보

5. 이재수 (李在守)의 난 (Ⅱ)

제주도에 전래된 천주교 천주교사들이 미신타파를 들어 제주도민들이 제사 지내는 것을 마귀를 위하는 것이라 하며 못 하도록 막자, 이에 대해 도민들은 반기를 들고 일어섰다.

천주교에 대한 싸움은 처음 대정 출신 오대현이 시작했으나 명월성에서 잡히고 말았다. 이재수는 처음 오대현 밑에서 난에 가담했던 사람이다. 오대현 장군이 잡히자 이재수는 대정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난을 일으켰다.

대정에서 기군(起軍)하고 옹포리에 와서 하룻밤을 머물렀다. 이때 황천이라는 일본사람이 멸치 가공업을 하며 한림 근처에 살았는데 일본 칼을 하나 가지고 있었다.

황천이 이재수를 찾아갔다. “무슨 일이 있어 왔느냐.”

“이재수 장군이 천주교에 대항해서 기군했다고 하니 칼을 하나 선사하러 왔습니다.”

큰 칼을 얻은 이재수는 다음날 광지에서 하룻밤을 지내는데 천주교패들의 작패가심하다는 말을 들었다.

이런 가운데 제주시 서문에 이르러 오대현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출입을 막자 석방시켜 주었다. 오대현이 풀려 나오자 이재수는 강우백과 더불어 삼군을 만들고 제주 목의 동·서·남문 앞에 진을 치니 천주교패들이 성문을 모조리 닫아 버렸다.

제주 목 사람들은 시골에서 쌀감과 쌀들이 들어와야 먹고 살 수 있는데 문을 차단했으니 살 도리가 없었다. 성안 사람들의 아우성으로 성문이 열리자 이재수는 소털로 만든 방탄 모자를 쓰고 난군 배열을 망치꾼, 죽창수, 창부대, 총수의 순으로 하고 자신은 총수 가운데 서서 성안으로 진군해 갔다.

천주교패들이 관덕정 마당에 즐비하게 잡혀 왔다. 이재수는 관덕정 팽돌 위에 서서 휘둘러보고는 큰 칼로 사람을 푹푹 찌르며 죽인 후 난군들에게 ‘거여미’(확인사살) 돌 것을 명령했다. 난군들은 천주교패들로부터 행패를 당한 것을 생각하니 분통이 터져 비바리도 잡아가라, 제상에도 톱도 싸봐라 하면서 돌맹이와 죽창으로 천주교패들을 무참히 짓밟아 죽였다.

제주 목에서 난리가 일어난 것이 조정에 보고 되자 군사가 파견되었다. 주동자인 이재수, 오대현, 강우백 세 사람을 잡아다 자초지종을 심문하자 오대현과 강우백은 몸을 떨며 아무 말도 못했으나 이재수는 장검을 쥐고 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실대로

말했다. 심문을 마치고 조정으로 잡아가려 하자 제주도민들이 몰려가서 진정을 올렸다.

“이 장군들은 아무 죄도 없습니다. 제주도 치안 유지에 협조한 바가 크므로 잡아가지 마십시오.”

“그대들은 한창 바쁜 보리 농사철인데 빨리 돌아가서 보리나 베어라. 우리는 나라의 명령에 따라 이 세 사람을 국법에 따라 시비를 가릴 것이니 돌아가라.”

이재수는 천민계급으로 심부름꾼이었으나 기개가 커 난을 일으킨 후 사형되었다 한다.

안덕면 덕수리, 오술생(남) 제보

6. 오 찰방 (I)

옛날 대정고을에 오 찰방 이라는 장사가 있었다. 그를 부모들이 낳기 전 일이다. 자식이 없었던 그 부친은 부인이 임신을 하자 건강한 아기를 원하여 소를 열 마리나 잡아 먹었다. 그러나 아기를 낳고 보니 딸이었다. 애석한 일이었다. 얼마 후에 부인이 임신을 하자 이번에는 소 아홉 마리를 잡아 먹었다. 그래서 낳은 것이 아들이었다. 약간 아쉽기는 하였으나 아기가 어렸을 때부터 몸집이 크고 눈이나 귀가 틀림없는 장군 상이었다. 그 부모들은 그 아들에 대하여 큰 기대를 가졌다.

그런데 그는 자라면서 엉뚱한 짓을 자주해서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 동네 아이들과 싸움하기도 일쑤였고, 아무리 윗사람이 시키는 일이라도 마음에 맞지 않으면 듣질 않았다.

하루는 하도 말을 안 들어서 그 아버지가 그를 때리려 하였다.

“이놈아, 그 회초리 들고 내게로 와라.”

그 부친은 눈을 부라리며 호통을 치면서 엄명을 내렸다.

“예.”

생각보다 쉽게 대답을 한 그는 밖으로 휙 나가더니 종내 소식이 없었다. 껄뽀하게 여긴 부친이 그를 찾아 나섰다. 그는 밖에서 들어올 생각도 않고 놀고 있었다. 부친은 화

가 났다.

“네 이놈, 오라는데 오지는 않고, 이놈!”

호통을 치며 아들을 쫓아갔다. 그런데 오 찰방은 아버지가 부르는데도 그냥 뒤를 보며 달아나는 것이었다. “이놈!” 그 부친은 그를 따라 달렸다. 그러나 그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그 부친도 보통 사람은 아닌데도 아들을 따를 수 없었다. 오 찰방은 그 험한 산방산을 거침없이 오르는 것이었다. 아버지도 따라 올랐다. 산방산 꼭대기에 오르면 저도 별 수 없을 것으로 알았다. 그래도 아버지가 아버지라 둘의 사이는 점점 좁혀갔다. 그런데 일은 크게 벌어졌다. 꼭대기에 이른 오 찰방이 획 하니 산 아래로 뛰어내린 것이다. 나는 듯한 몸놀림이었다. 그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다.

그 날 후로 그 아버지는 걱정이 생겼다. 아들 하는 짓을 보면 틀림없이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곤 하였다.

그 날은 오 찰방이 들에 가서 온종일 일을 하고 돌아온 날이었다. 아침부터 그 아버지는 집안에 시켜 술을 한 독 준비하라고 일러놓았었다. 아들이 돌아오자,

“애, 너 곤할 테니 이 술이나 몇 잔 마시고 좀 쉬어라.”

전에 없이 아들에게 술을 먹였다. 오 찰방은 주는 술을 거침없이 모두 마시고는 잠에 골아 떨어졌다. 그 틈에 그 아버지는 가만히 아들의 옷옷을 벗기고 겨드랑이를 살펴보았다. 놀라운 일이었다. 아들의 겨드랑이에는 날개가 달려 있었다. 아직 크지는 않았으나 참새 날개만한 것이 틀림없는 날개였다. 아버지는 그냥 옷을 입혀버리고는 모른 채 하였다. 뒷날부터 아들에 대하여 간섭도 없었다.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아들이 아버지의 눈치를 알았다. 자기만 알고 있는 날개 돋은 비밀을 아버지가 알고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오 찰방은 집을 떠나기로 결심을 하였다.

“아버님,”

오 찰방은 집 떠날 결심을 하고 아버지께 의논을 하려고 하였다.

“무슨 일이냐?”

“집에 있어도 할 일도 없고 경성에나 가 볼까 합니다.”

“경성에?”

“경성에는 지금 힘센 장사를 찾는 중입니다. 제가 가서 응모해 보겠습니다.”

그때 서울에서는 사실 장사를 모집하고 있었다. 큰 도적이 밤이면 나타나 백성들과 벼슬아치들을 못살게 하는 도적이었다. 관군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어 팔도에 방을 내려 장사를 뽑는 중이었다. 오 찰방은 자기의 비밀이 언제고 알려지는 날이면 영락없이 죽음을 당할 처지이고 보면 서울에 가서 힘이나 마음껏 써봐서 죽으나 사나 하고 싶었다.

서울에 올라간 오 찰방은 서울 장안이 떠들썩한 사연을 들었다. 골목골목마다 붙어있는 방도 봤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도적은 항상 검은 소만 타고 다닌다고 했다. 꼭 돈 많은 대감 집만 골라서 도적질을 한다고 하였다. 그 도둑을 잡는 사람에게는 높은 벼슬을 줄 것이라고 하였다.

“나리, 제가 한번 나가서 그 놈을 잡아 오겠습니다.”

훈련대장이 오 찰방의 외모를 보니 필시 시골 놈인 것 같은데 그래도 해보겠다는 것이 가상했다.

“그래, 해보겠단 말인가.”

응낙을 하였다. 오 찰방은 무복을 착용하고 큰 칼을 들고, 또한 수십 명의 포졸을 데리고 도적을 잡으러 나갔다. 어스름에 서울 동문 밖에서 잠복하여 있는데 어떤 아이가 소를 끌고 피리를 불면서 들어오고 있었다. 그 모습이 아무래도 수상하였다. 소를 끄는 아이의 얼굴이 보통이 아님은 물론 그 피리 소리도 범상하지 않았다. 오는 군사들에게 대기토록 한 후에 그 소를 끌고 오는 아이에게 다가갔다.

“얘, 나는 도적을 잡으러 이곳에 잠복해 있는데 하도 피곤하고 지루한 참인데 네 피리 소리를 들으니 정신이 드는구나. 어디 한 번 더 불어 줄 수 없겠니.”

소를 끌고 오던 아이는 서슴지 않고 피리를 불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아름다운지 오 찰방은 자꾸 잠이 오려는 걸 겨우 참았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 피리가 이상해 보였다. 그래서 오 찰방은,

피리를 빼앗을 궁리로 피리를 빌려달라고 했다.

“얘, 그 피리를 나도 좀 불어보마.” 그때 그 아이의 낯빛이 이상스레 변하는 걸 오 찰방은 놓치지 않았다. 틀림없이 이 놈이 도적이라고 확신하였다.

“한번만 불어보게. 나도 예전에 피리를 잘 불었거든.”

오 찰방은 아주 천연덕스럽게 다시 사정을 하였다. 망설이던 아이는 선뜻 피리를 내

놓으면서,

“피리 부는 장군이면 제법이네요.”

싱긋이 웃으면서 피리를 내주었다. 그 때 오 찰방은 그 피리를 부는 척하다가 그것을
뚝 꺾어 버렸다. 그것은 바로 한 자루의 칼이었다.

“아, 이걸 어찌나.”

오 찰방이 능청을 떨면서 칼을 휘둘렀다. 도적은 쿡 쓰러져버렸다.

“내가 속았군. 너는 보통 놈이 아니구나.”

도적은 신음을 하면서도 오 찰방을 보며 싱긋이 웃었다. 오 찰방은 뭔가 마음이 편하
질 못했다. 일대 일로 정정당당하게 싸워 이겨야 할 텐데 이렇게 피를 부려 이겼다는 게
마음에 안 찼다. 그러나 잡은 것은 잡은 것이니 다행이 아닌가. 도적을 잡았다는 소식을
들은 포군들은 야단이었다. 혼자 몸으로 그 도적을 잡았으니 그 힘이야 가히 알 만하다
고 야단이었다.

오 찰방은 개신장군이 되어 성안으로 들어갔다. 성안 사람들도 그를 열렬히 환영하였
다. 오늘 저녁부터는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겠다고 했다. 그러나 다른 장수들과 대신들은
마음이 그렇게 유쾌한 것도 아니었다. 제주도 섬놈이 서울에 와서 기세당당하게 노는
걸 보니 불쾌하기도 했다.

오 찰방은 말을 달려 대궐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임금님께 이 승전보를 알리고 후
한 상을 어서 타고 싶었다. 그때였다. 그 앞을 막는 한 대신이 있었다.

“말을 타서는 궁 안으로 들어갈 수 없소. 어디 감히 불충한 짓을 하려는 거요.”

대신의 호통에 오 찰방은 기가 꺾 죽었다. 그래서 슬며시 말에서 내려 버렸다.

“오, 자네의 용맹을 가히 칭찬할 만하구나.”

상감님은 오 찰방을 보더니 칭찬을 하시고는,

“그런데 승전 장군이 왜 걸어서 들어왔소. 그 늪뭍한 모습을 내가 보고 싶은데…….”

왕은 오 찰방의 모습에서 뭔가 아쉬운 표정을 짓더니, 잠시 후에 고개를 끄덕이었다.

“자네는 아무래도 섬사람이라 별 수가 없어. 장군으로서 기개가 부족하군. 힘만 가지
고 훌륭한 장군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러면서 당초의 약속과는 다르게 겨우 찰방 벼슬을 내려주었다.

오 찰방은 어전에서 물러나오면서 후회를 하였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은 후였다. 생각하니 어전에 들어갈 때 말에서 내리도록 한 그 대신이 야속하였다.

오 찰방은 겨우 찰방 벼슬을 얻고 고향으로 내려오는 길이었다. 내려오면서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었다. 결국 그 대신에 대한 복수를 결심하였다. 그는 겨드랑이에 날개가 달렸기 때문에 하루도 안 걸려 강진 포구에까지 다다를 수 있었다. 그러나 생각이 있어 하루씩 걸어서 쉬고 걸어서 쉬고 하면서 여러 날 만에 강진 포구에 다다랐다.

객주 집에 묵어서는 제주 가는 배를 기다렸다. 내일 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날 저녁에는 객주집 주인과 바둑을 두었다. 밤이 깊도록 두다가,

“이 바둑은 내일 계속 두기로 합시다. 밤도 깊었으니…….”

오 찰방은 바둑판을 흠어지지 않게 놔두고 주인과 함께 일어섰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다. 얼마만큼 지났다. 오 찰방은 모든 집안사람들이 모두 잠자리에 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는 밖으로 몸을 날렸다. 순식간에 서울에 이르렀다. 그는 자기의 출세를 휘방 놓은 그 대신네 집으로 향하였다. 생각할수록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대신을 죽이고는 다시 그 객주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다.

뒷날 서울에는 일이 크게 벌어졌다. 밤 사이에 대신이 죽은 일에 대하여 모두들 오 찰방을 의심하였다. 조정에서는 군사를 풀어 오 찰방을 잡아들였다.

“네 이놈, 네가 사람을 죽인 일을 이실직고하여라.”

포도청에 붙들려가 국문을 받았다. 그러나 오 찰방은 눈 하나 까딱 앓고 대답을 하였다.

“제가 어찌 사람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성은을 받아 벼슬까지 얻고 돌아가는 처지에 무슨 일로 그런 가당치 않는 일을 저지르겠습니까?”

오 찰방이 능청을 떨었다.

“네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거짓말을 나불거리느냐.”

“아니옵니다. 소인은 엿저녁 자정까지 그곳 주막에서 그 주인과 바둑을 두다가 마칠 질 못한 채 그대로 두었다가 뒷날에 마저 두었습니다. 어느 새에 제가 서울에 올라와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포도청에서는 오 찰방의 말이 사실인가를 조사하였다. 그것은 사실임에 틀림이 없었

다. 아무리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증거가 너무나 명명백백함에는 어쩔 수가 없었다. 그 날로 오 찰방은 방면이 되었다.

그렇게 겨우 찰방 벼슬을 하고 돌아온 그는 못내 아쉬움을 참으며 일생을 찰방으로 살았다.

하원동, 김택효(남) 제보

7. 오 찰방(Ⅱ)

오 찰방 부친은 부자로 대정읍 인성리에 살았었다. 장가들어서 부인이 첫 임신을 하자 틀림없이 아들이라고 여긴 오 찰방 부친은 소 열 마리를 잡아 먹었다. 힘이 센 아들을 낳으라고 열 마리를 잡아 먹었는데, 낳고 보니 딸이었다. 오 찰방 부친은 “에이 그거, 내가 좀 생각을 잘 못했구나” 하고 서운해 하였다.

다음에 또 부인이 임신을 하자 소를 아홉 마리만 잡아 먹었다. 이번에 열 마리를 잡아 먹었다가 딸이면 어떨까 해서 아홉 마리만 잡아 먹인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부인은 아들을 낳았다. 오 찰방 부친은 “이번에도 큰 실수를 했지만 도리 없는 일이라고”하며 또 한번 서운해 하였다.

오 찰방은 소를 아홉 마리만 먹고 태어났으나 장군과 같이 힘이 세었다. 만일 열 마리 소를 먹고 태어났더라면 누님만큼 힘이 셀 것인데 그렇지는 못했다.

오 찰방의 겨드랑이에는 날개가 붙어 있었다. 오 찰방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오 찰방을 잘 눕혀두고 물 길러 갔다 와서 보면 자리를 바꾸어 누워 있었던 것이다. 오 찰방은 장군 기상을 지녀서 태어났기에 어릴 때부터 특이한 행동을 하곤 했었다. 부모가 자리 옆에 없을 때면 밖으로 나와서 법석을 떨며 이리 날아갔다 저리 날아갔다 하며 놀다가, 인기척 소리가 나면 자리를 바꿔 눕곤 했던 것이다.

옛날에는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주민들이 씨름대회를 열고 서로 즐겼었다.

오 찰방도 힘이 장사인 까닭에 차차 성장하면서 씨름대회에 나갈 때면 으레 일등을 차

지하곤 했다.

그런데 오 찰방네는 딸, 아들 하여 자식이 남매뿐이었다. 오 찰방 누님 역시 소를 열 마리 먹고 태어났으니 힘이 세었다. 하루는 오 찰방 누님이 동생의 장래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동생이 저렇게 씨름대회에 나가 매번 일등을 하곤 하면 장차 나라에 반역할 놈으로 몰려 죽음을 당하게 되고 가문에 피해가 올 것 같았다. 일찍 이런 화를 면하게 할 생각으로 부친이 입던 누비옷을 위 아래로 딱 맞게 차려 입고, 가죽 버선을 신고, 머리는 수건으로 딱 묶어 남장을 하고 씨름판에 나가보니 장사들의 씨름이 한창이었다.

씨름대회에서 일등을 하면 무명 열두 필을 상으로 주었다. 오 찰방 누님이 남장 차림을 하고 구경꾼들 틈에서 씨름 구경을 하는데, 마침 오 찰방이 일등을 차지해서 무명 열두 필을 상으로 받고는 한 손으로 무명을 돌리면서 “나와 씨름할 사람은 나오라”고 의기 등등하게 외쳐대고 있었다.

“그렇다면 나와 한번 해보자”

오 찰방 누님이 외치며 씨름판으로 들어가서는 오 찰방과 씨름 시합을 청했다. 다시 한바탕 씨름판이 벌어졌다. 오 찰방 누님이 오 찰방을 잡고는 빙빙 돌리다가 확 던져 버렸다. 그리고는 오 찰방이 상으로 받았던 무명을 확 감아가지고서 집으로 재빨리 돌아와 버렸다.

오 찰방은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는 방에 들어 누워 밤이 깊어가자 응응 장석(신음)을 하며 씨름에 진 분통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오 찰방은 자신을 쓰러뜨린 사람이 자기 누님인 줄도 모르고 어떤 장사에게 씨름에 진 것만을 분통해 했던 것이다.

오 찰방 누님이 이 모습을 보고는 가만히 놔 두면 오 찰방이 병이 날 것만 같아 방으로 찾아 갔다. 오 찰방 누님은 시치미를 뚝 떼고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원통해 하느냐?”고 물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씨름에서 남에게 패한 적이 없는데, 오늘은 어떤 머슴 총각 놈에게 씨름을 졌으니 내가 죽지 살아서 뭣 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리며 방문을 열어주기는커녕 죽으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음식을 들여보내도 먹을 생각도 않고 패배감에 사로 잡혀 있었다. 오 찰방 누님은 매우 답답해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밥을 잘 먹으면, 내가 나중에 상으로 탄 물건을 찾아줄 터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의

말을 했다. 오 찰방이 화를 누그러뜨리고 밥을 먹자, 누님이 사연을 자세히 말했다.

“씨름해서 너를 이긴 사람은 바로 이 누님이다. 네가 장차 역적 놈으로 몰려 화를 입을까 걱정을 해서 내가 씨름판에 나가 일부러 너를 이긴 것이지, 너를 이길 장사가 어디 있겠느냐? 내가 받은 무명은 집에 놔 뒀으니 조금도 걱정하지 말고 이후부터는 씨름판에 다니지 말라.”

“글쎄, 그러면 그렇지. 누님이나 나를 이기지 이길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해서 오 찰방은 원통함을 풀었던 것이다.

오 찰방이 나이 약 설남은(삼십여)살 되는 사이 자신의 힘을 당할 사람이 없음을 알고는 행실이 불량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다. 또한 마소가 백 두 이상 있는 부잣집이라 가세를 믿고 동네 웃어른들의 충고도 듣지 않고 날뛰었다.

하루는 오 찰방 부친이 오 찰방의 나쁜 행실을 고치려고 오 찰방을 방으로 불러 세웠다. 충고를 안 들어 “이놈의 자식”하고 때리려고 하자 쥔신도 아닌 나막신을 신고 밖으로 달아났다. 부친이 ‘이레 오라(이리 오너라)’ 해도 안 들어오고 곁눈질하면서 서 있으면, 부친이 화도 더 나고 약이 올라 몽둥이를 들고 뒤를 쫓아갔다. 그러면 오 찰방은 나막신을 신은 채 마을 앞 산방산으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산방산은 산방굴사 있는 쪽이 제일 높은 곳인데, 바로 여기에 올라갔다. 부친이 몽둥이를 들고 쫓아 올라가서 보니 그 높고 위험한 바위 끝에 서 있었다. 하는 수 없이 아들을 달래려고 “너 이레 오라. 경 허지(그렇지) 않으면 떨어진다”고 사정을 해도 돌아오질 않았다. 오히려 오 찰방은 산 밑으로 확 떨어지는 것이었다.

아들의 뒤를 쫓던 부친은 “아이고, 내가 아들을 죽였구나”하고 그 바위에 앉아서 통곡하고 한숨을 쉬어 봐야 일은 틀렸고 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온 부친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죽지도 않고 먼저 돌아와 방안에 들어앉아 있는 것이었다. 부친은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속으로 만 아, 이놈의 자식이 어떻게 살아왔을까, 살펴봐야겠다고 마음먹고, 부인에게 술을 아주 독하게 빚도록 했다. 아주 독한 술을 먹여 취하여 잠자게 한 다음 몸수색을 해 볼 심사였다. 부인은 영문도 모른 채 술을 한 말이나 넘게 빚어 놓았다.

하루는 부친이 아들 오 찰방을 불러 달래면서 “고기 먹고 싶지 않느냐?”고 물었다.

“고기가 어디 잇수가?(있읍니까?)”

“돌통(돼지우리)에 있는 돼지 잡아서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

“경 흠주(그렇게 하지요)”

오 찰방은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를 잡고는 불에 구우면서 부자가 먹기 시작했다. 아들의 눈치를 살피던 부친은 “술은 안 마시겠느냐?”고 먼저 물었다.

“술 있으면 마시겠습니다.”

부친은 큰 소리로 부인을 불렀다.

“이 아들에게 술 가져다주게”

“얼마나 잇수가?(있습니까?)”

“너 먹을 만큼 있으니 가져다 먹게.”

아들은 항아리에 한 말쯤 든 독한 술을 양푼으로 가득가득 채우면서 과락과락 마셨다. 한 양푼이의 술을 마실 때마다 돼지 다리 하나씩 와삭와삭 씹어 먹었다.

오 찰방은 배도 부르고 술이 만취하자 턱 들어 누워 부친의 계략도 모른 채 잠에 골아 떨어졌다. 잠을 자는데 눈은 번쩍 뜨고 콧소리는 후루룩 후루룩 창문이 열릴 듯 닫힐 듯 했다.

오 찰방 부친은 이리로 오라고 부인을 불렀다. 오 찰방이 만취해 잠에 빠진 모습은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었다. 부친은 아들을 턱 옆질러 놓고 옷을 살며시 풀어 살펴보니 명주 수건으로 겨드랑이에 나 있는 날개를 감싸 있었다.

아, 이 아들놈이 날개로 해서 조화를 부리고 나를 애 먹였구나 생각한 부친은 명주 수건을 풀고 솥불을 피운 후에 인두를 벌렁게 구워서 날개 양쪽을 모두 지저 버렸다.

겨드랑이 날개가 타는 데도 오 찰방은 만취된 상태라 깨어날 줄을 몰랐다. 한참 자다 술이 깨어 일어난 오 찰방은 자신의 겨드랑이에 통증을 느껴 겨드랑이에 손을 대어보니 날개가 다 타서 없어져 있음을 알았다.

오 찰방은 날개를 잃은 자신의 신세가 서글퍼 방안에서 한참 슬피 울 때 부친이 들어와 곁에 앉아서 위로를 말했다.

“너, 울 일이 아니다. 나중에 네가 어떤 조화를 잘못 부려 역적으로 몰릴까 봐서 일부러 그렇게 했으니 조금도 서러워하지 말라.”

오 찰방은 울다가 내 팔자가 이것으로 끝인가 하고는 울음을 멈추었다.

숙종 시절 한양에 도둑놈이 일어나 이름을 떨쳤는데, 그 도둑놈도 힘이 장사였다. 밤

이면 임금의 사는 궁궐에 몰래 들어와서는 자신의 힘의 위력을 보이려고 기둥을 쑥 들고는 기둥 밑에 짚신 한쪽을 꼭 찢러 놔두곤 했다. 아무리 힘이 센 장사가 그것을 빼내려 해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살펴보면 기둥 밑 짚신 한 짚이 없어지고, 또 뒷날 살펴보면 기둥 밑에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었다.

조정에서는 국왕을 해칠 역적 놈이 생겼다고 걱정이 대단했다. 포도청에서는 조선 팔도에 명을 내려 역적 놈을 잡을 장사를 모집했다. 제주 대정현에도 관에서 명이 내려왔다. 오 찰방이 명을 받고 한양으로 올라가는데 바로 그 도적이 나타났다. 그 당시 북문은 막아 통행을 금지시켰고 동문, 서문, 남문으로밖에는 다닐 수가 없었다. 오 찰방이 서문으로 들어가다가 흰 소를 탄 놈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놈이 바로 왕을 살해한 연후에 도움을 정해서 국왕이 되려고 흥계를 꾸미는 역적이었다.

오 찰방이 말을 타고 서문으로 궁궐에 들어가려다 번쩍 날아서 역적 놈의 뒷덜미를 딱 잡자 그놈은 달아나질 못하고 잡히고 말았다. 이렇게 역적 놈을 잡아 포도청에 바치자, 왕이 오 찰방을 불렀다. 오 찰방이 명을 받고 왕을 알현하고자 말을 타고 들어가다 큰 문을 통하게 되자 말을 내려서 들어갔다.

“너, 어디서 왔느냐?”

“제주에서 왔습니다.”

왕은 오 찰방이 말에서 내려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음, 네놈은 마음이 작아서 찰방 벼슬밖에는 못 하겠다”고 하면서 ‘찰방’이란 직함을 내려주었다.

이 일로 해서 사람들이 오 찰방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또한 말을 그대로 타고 궁궐로 들어갔더라면 큰 장군자리 한번 했을 텐데 그러질 못했다.

오 찰방 무덤은 옛날 김통정 장군이 한라산에서 활을 쏘아 떨어진 곳으로 알려진 <쌀 쏜드르>에 있다. 오 찰방 묘가 장군지형이라고는 하나 후손 중에는 장군 대장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 있을 뿐이라 한다.

또 오 찰방 하르방 묘도 이장(移葬)했는데, 그 지형도 장군지형이지만 후손들 중에는 장군이 없다고 한다. 지금도 대정읍 인성리에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다.

대정읍 보성리, 강신생(남) 제보

8. 오 찰방 누님

오 찰방 누님은 오 찰방보다 더 힘이 세었다. 오 찰방이 아홉 마리 소를 먹고 태어났으나, 오 찰방 누님은 열 마리의 소를 먹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오 찰방 누님이 열네 살 되던 해 봄에 대정읍 인성에서 멀리 떨어진 서광리에서 고사리를 꺾고 있었다.

이 때 사냥 다니던 사냥꾼이 산돼지 한 마리를 총으로 쏘았다. 총을 맞은 산돼지는 곧장 죽지 않고 눈을 벌겁게 뜨고는 소나무 밑에서 고사리를 꺾는 오 찰방 누님에게 달려들었다.

사냥꾼은 겁에 질려 “저, 고사리 꺾는 아주머니, 총 맞은 산돼지가 달려가니 한쪽으로 비켜 섭서(서십시오)”하며 생야단을 쳐대는 것이었다. 고사리를 꺾던 오 찰방 누님은 이 소리를 듣고 일어서서 주위를 살폈다. 바로 뒤에 총 맞은 산돼지가 달려들고 있었으나 무서운 기색도 없이 그냥 달려드는 산돼지 귀 한쪽을 푹 잡았다.

“이 산돼지, 저 으르신 거봐?(어른님 것입니까?)”

오 찰방 누님이 손에 잡은 산돼지를 보이며 큰소리 치고는 뱅뱅 돌리다가 휙 던지자 그만 죽어 버렸다. 땅에 떨어져 죽자 이제는 사냥꾼에게 산돼지를 잡으라고 했다.

그 사냥꾼은 서귀포 토평에 사는 김씨였는데, 역시 힘의 세기가 보통을 넘는 사람이었다.

사냥꾼이 산돼지를 잡고는 혼자 차지하려고 오 찰방 누님에게는 조금도 나누어 주질 않았다.

옛날부터 짐승을 잡았을 때, 열 사람이 잡으면 열 도막으로 똑같이 나누어 갖는 것이 사냥꾼들 사이의 관례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오 찰방 누님과 사냥꾼이 잡은 산돼지이기에 반씩 둘로 나누어야 할 것인데, 사냥꾼은 나눌 기색이 없었다. 오 찰방 누님이 화를 버럭 내며 “어디 이런 법이 있느냐? 세 사람이 잡으면 셋으로 나누고, 네 사람이 잡으면 넷으로 나누는 법으로, 이 산돼지는 우리 두 사람이 잡았으니, 빨리 둘로 나누라. 고약한 인심이다”고 호통을 치며 손목을 푹 잡았다. 오 찰방 누님은 처녀로 열네 살 밖에는 안 되었어도 체격이 매우 크고 힘이 세어서, 사냥꾼은 까맣게 죽을 지경이었다. 손목이 부러지고 목숨이 넘어갈 것 같아 “내

가 잘못 했다”고, “살려 달라”고 잘못을 빌었다.

오 찰방 누님은 손목을 놓고서 “어디 사느냐?”고 공손히 물었다.

그 당시 서귀포시 토평동은 정의현에 속해 있었다.

“정의 토평에 산다.”

“성씨가 뭇이파?(무엇입니까?)”

“내가 짐(김) 뭇이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열네 살 밖에 안 된 처녀로서 남자의 손을 잡았으니 당신네 집에 시집을 갈 터이니 나를 구해갑서(구해 가세요).”

오 찰방 누님은 사냥꾼과 헤어진 뒤 고사리도 많이 꺾고, 또 산돼지도 반을 나누어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오 찰방 누님은 한 살 두 살 나이가 더 들어가도 시집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부모가 시집을 가라고 말을 자주 해대도 묵묵히 대답 했다.

“나는 시집가기로 된 사람이 있으니 어디서든 구혼이 들어와도 허혼하지 맙서(마세요). 그러나 동쪽 정의 토평에서 구혼하러 왔거든 연락을 허십서(하세요).”

딸자식의 이런 말을 들은 부모들은 기다려도 동쪽에서 구혼하러 오는 사람은 없었다. 단지 서쪽, 남쪽, 북쪽에서만 구혼하러 왔다. 토평에서도 사냥꾼이 의아하면서도 부모에게 지난 사연을 말하고 구혼할 것을 청했다.

“내가 이디저디(여기저기) 다니면서 산돼지 한 마리를 쏘았는데……어떤 처녀와 손목을 잡고 언약을 한 적이 있으므로 그 마을에 한번 찾아가 청혼을 해보십서(해 보세요).”

이제는 사냥꾼 부친이 아들의 말대로 대정읍 인성리를 찾아갔다. 동네 사람들에게 오 찰방 누님집을 물으니 “아무디 집입니다”라고 말해주어 찾아 들어갔다. 오 찰방 집에 들어가 인사하고 찾아온 사연을 말하자, 안방에 있던 오 찰방 부친이 나와서 다시 자세한 사연을 물었다.

정의 토평에서 왔다고 하자, 오 찰방 부친은 찾아온 손님을 방으로 청해 모셨다.

“다름이 아니라 내 아들이 이 집에 가서 한번 청혼하라기에 이리저리 찾아왔습니다.”

“아, 내 딸애기도 그런 말을 했지마는 그 말을 마음속에 놓지 않았지요.”

이런 부모님들의 얘기를 들은 오 찰방 누님이 나와서는 부모님께 “허락하십시오”라고 했다.

“내가 열네 살 되는 해 이리저리 기약을 맺었으니, 그 집에 시집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 찰방 누님은 정의 토평 사냥꾼 김씨 집에 시집을 가서 살았다는 것이다.

9. 강태종 훈장

하루는 어떤 부인의 병을 고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집으로 갔다. 그런데 그 부인이 식사를 하며

강태종이란 양반은 힘이 장사였고 나이 들어서도 의원과 훈장 일까지 한 사람이다.

강태종이 열일곱 살에 한림읍 금악리 박씨 가문에 장가를 갔다. 그런데 마누라가 조금만 화가 나면 친정집으로 가버리곤 하였다. 강태종 부모는 마누라를 데리러 갈 생각도 않는 강태종을 달래었다.

“가서 마누라를 데려 오너라. 마누라가 친정에 간다고 해서 그대로 두면 되느냐? 시골 살림에 마누라가 베풀고 집안일을 거들어야 하지 않느냐?”

강태종은 하는 수 없이 금악 친정집에 갔다. 그런데 장모는 매우 근심에 쌓여 있었다.

“어떤 일이 있어서 그렇게 걱정을 햄수가?(합니까?)”

“저 검은 오름 앞에 있는 보리 스물다섯 말지기 들을 개간해야 금년 산뒤편(밭벼)을 파종할 텐데, 일꾼을 구해 보았으나 몇 사람 구하지 못하는 중이네.”

“집에 쉼(소) 있수가?”

“작은 암송아지 하나뿐이네.”

“한번 쉼을 보쿠다(보겠습니다).”

외양간에 가보니 자그만 암송아지가 하나 있었다.

“이 쉼면 밭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꾼은 몇 사람이나 빌었수가?(구했습니까?)”

“다섯 일꾼은 있어야 밭을 개간할 수 있을 것인데 두 일꾼밖에 못 구했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가서 한번 갈아 보쿠다(갈아 보겠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장모는 일꾼들이 오자 쌀밥에 생선을 구어 놓고는 술까지 차려 놓자, 일꾼들은 배불리 먹고 일하러 들로 나갔다. 강태종은 나중해야 한번도 밭을 갈아본 적이 없는 송아지를 끌고 쟁기를 지고 밭으로 갔다.

일찍 온 일꾼들이 쟁기를 차리고 밭 구석으로 가서 연장을 밭에 대었으나 뜻대로 갈 수 없었다. 풀이 가득 들어차 있는 떠밭이라 조금도 갈지 못하고 쉼만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할 뿐이었다. 사위인 강태종은 밭을 갈 준비도 하지 않고 <굴무기> 나무에 쉼을 세워둔 후 가만히 앉아 밭가는 일꾼들의 모습만 살피는 것이었다.

일꾼들은 밭을 갈려고 애쓰다 힘에 겨워 손을 놓고는 한숨을 쉬었다.

“아무리 해도 밭을 갈 수가 없네. 오늘 일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었구나.”

“그렇게들 일을 못합니까? 내가 밭을 갈 터이니 한번 구경해 보시오.”

강태종이 의기양양하게 일어서서 큰소리를 한번 친 후 송아지에 쟁기를 메우기 시작하자 일꾼들이 “그렇게 약한 송아지로 밭을 어떻게 갈려는 것인가” 하고 비웃었다.

강태종은 이런 말을 들은 체도 않고 “이놈의 송아지야, 걸어봐라”고 한번 소리치고 밭을 갈기 시작했다. 그러자 송아지는 걸림 없이 앞으로 걸어 나가는 것이었다. 동 멍에(동쪽 밭머리)에서 서 멍에(서쪽 밭머리)로, 서 멍에서 동 멍으로 갔다 온 다음 가운데를 딱 짚어 쟁기를 밀어가자 송아지는 힘쓰는 동 마는 동 앞으로 걸어가고 자굴풀들이 멍석 말아지듯 일어났다. 이것을 본 일꾼들은 그만 덜컥 겁이 났다.

“우리는 대접도 잘 받고 힘센 ‘췌’를 이끌어 밭을 갈러 왔는데 작은 ‘췌’로 밭가는 저 사람보다도 못하니 부끄럽다 돌아가자.”

일꾼들이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사위인 강태종만 혼자 밭을 갈고 있었다. 점심때가 되어 장모가 일꾼들이 먹을 점심을 차려 놓고 밭에 와서 보니 일꾼들은 보이지 않고 사위만 밭을 갈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혼자서이지만 밭을 반 이상을 갈고 있었다.

“일꾼들은 어딜 가고 자네 혼자만 있는가?”

“그 사람들 한번도 밭을 갈아보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이 밭은 누가 갈았는가?”

“내가 갈았지요.”

“경흐나 정흐나(그리하나 저리하나) 점심이나 들게.”

사위는 장모와 앉아서 배불리 점심을 다 먹은 후 다시 밭을 갈기 시작했다. 장모는 사위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앉아서 보니 송아지가 일하는 것이 아니었다. 송아지는 그냥 걸어만 갈 뿐이고 사위가 힘으로 쟁기를 쭉 밀면 ‘자굴’ 뿌리들이 기와장 포개 놓듯 일어났다.

“야, 거 참 우리 사위 일 잘하는구나.”

장모가 집에 돌아와 있으려니 해 떨어지기 전에 사위가 소를 몰고 돌아왔다. 그 넓은 밭을 혼자 다 갈았다는 것이다. 장모는 그 밭 흙덩이를 바수어야 할 텐데 하고 또 걱정을 했다.

다음날 강태종은 큰 팽이를 들고 밭으로 갔다. 한번 팽이로 흙덩이를 두드리자 팽이 자루가 꺾어졌다. 그러자 큰 나무 가지를 잡아당겨 꺾어서는 그것으로 흙덩이를 부수었다. 힘이 장사라 큰 나무 몽둥이로 부수면서 풀을 이리저리 마구 집어 던지는 것이었다.

장모가 점심을 차려 밭으로 가보니 회오리바람이 든 것 같았다. 흙먼지가 하늘에 뿌연게 덮여 있는 속을 어떤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 같았다. 그것은 강태종이 풀을 집어 쉴 사이 없이 집어 던졌기 때문이었다. 강태종은 장모가 가져온 점심을 먹고 어둑기 전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다.

“어떻게 일 다했는가?”

“예, 다 마쳐놓았습니다. 스무닷새쯤 후면 다시 와서 두 번째 밭을 갈कु다(갈겠습니다)”

이 일이 있는 후로는 딸이 친정집에 돌아오면 곧 돌려보내곤 했다. 그러나 결국 강태종은 금악 박씨 부인과는 함께 오래 살지 못하고 화순 박씨 규수를 새 부인으로 맞아들여 살았다.

강태종은 스물다섯 살부터 훈장 일을 했고, 지리에도 능통해서 고 전적(高典籍) 다음으로 유명했다. 강태종은 자리를 찾아 주는 때에 닭 한 마리를 잡아주면 닭 한 마리 댕가의 자리를 찾아주고, 소를 잡아 대접하면 소 한 마리 댕가의 자리를 찾아 주었다.

강태종 부인이 돌아갔을 때의 일이었다. 아들이 삼형제인데, 아들들은 아무렴 아버지가 지관이신데 어머니 자리를 찾아 놓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기일이 다 되어도 자리를 찾으려는 눈치도 보이지 않고 뭐라고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강태종이 이

렇게 한 것은 아들이 찾아와서 “명당자리를 봐 주십시오” 하고 자청도 대접도 안 했기 때문이었다.

하루는 강태종이 작은아들 집에 들르자 며느리가 닭을 잡아 대접하였다.

“아버님, 좀 잡수십시오(드세요)”

“며느리야, 어떤 일로 닭을 잡았느냐?”

“아버님께 드리려고 잡았습니다.”

“음.”

아무 말 없이 맛있게 먹고는 집으로 돌아온 강태종은 닷새 후에 아들들을 불렀다.

“너희들, 어디 안 가보겠느냐? 너희 어머니 문을 좋은 뿔자리 찾으러 말이다.”

“아버님, 그렇게 하지요”

강태종은 아들을 데리고 이 산 저 산 다니며, 뿔자리를 찾다가 녹나무 한 그루 있는 곳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곳이 어떠냐?”

“어머님 문을 뿔자리로 괜찮습니까?”

“음, 닭 한 마리 치는 충분히 된다.”

그곳에 어머니를 장례 지낸 후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닭 한 마리 치 땅이라고 한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작은며느리가 이런 사정을 알고는 “아이고, 이를 어떻게 하나, 어느 날 아버님이 왔기에 닭 한 마리를 잡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닭 한 마리 치 뿔자리를 봤구나” 하고 탄식하였다.

이런 사연을 들은 아들 삼형제는 서로 의논하고 돈을 모아 다시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버님, 소 한 마리를 잡아 드릴 터이니 어머님 뿔자리를 다시 고쳐봅서.”

“음, 안 된다. 하늘이 정해 준 곳인데 너희들 복덕이 그 정도밖에는 안 되니 할 수 없는 일이다. 너희들 성의가 부족한 탓이야.”

이처럼 강태종은 비록 아들들이 간청을 해도 고쳐 주질 않았던 지관이었다.

강태종 훈장은 나이 팔십이 되어도 굿청(굿하는 목소리)이 매우 좋았다. 그리고 강 훈장은 가르치는 제자가 오십 명은 되었다. 강 훈장은 종종 한문과 경문을 잘 하는 제자 서너 명을 데리고 동쪽으로 가서 의원일도 하고 독경과 무당질을 하다 돌아오곤 했다.

한번은 강 훈장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다. 그 사람은 바로 무당의 심부름을 나온 사람이었다.

“서쪽에서 오는 사람 중에 처음 만나는 사람을 데려와야 이 환자를 살릴 수 있겠다.”

공교롭게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강 훈장과 제자들이었다. 심부름 온 사람이 강 훈장 앞으로 와서는 공손히 절을 한 뒤 “어르신님, 청해 모시라 해서 청하겠습니다”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무슨 사연인가?”

“집에 함께 가보면 아시게 됩니다”

심부름꾼을 따라 어떤 집에 가보니 곳을 왈랑왈랑 하고 있었다. 무당이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 강 훈장과 제자들은 술과 더불어 식사대접을 후하게 받았다.

강 훈장이 무당을 불러 “너희들, 어디까지 곳을 했느냐? 나도 한번 해보자”고 곳을 하겠다고 청했다. 강 훈장이 곳을 맡아서 한번 흥겹게 곳을 벌인 다음 주인을 불렀다.

“사람을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한 것은 동티 탓이다. 변소 간 동티여. 변소에 가보면 ‘굿낭’말뚝에 순(씩)이 났을 것이다.”

변소에 가서 찾아보니 말뚝이 흥을 보이려고 변소 간 디딤돌 밑에 들어가서 싹이 나 있었다. 제자가 말뚝을 뽑아보니 바싹 마른 나무토막 끝에 싹이 파랗게 나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동티인 것이다.

제자가 동티에 대해 독경을 시작하자 몸을 뒤틀며 죽어가던 사람이 물도 달라고 하여 정신을 차리고 살아났다. 이것을 지켜보던 무당이 곳을 잘못했다고 욕을 듣게 될까 해서 “이젠 곳을 거두고 가겠소”하고 돌아가려 했다.

“음, 안 되는 법이다. 조상신을 청해 놓고 그냥 돌려보내는 법이 어디 있느냐? 곳을 할 때는 해야 하는 법이다. 일주일 동안 할 굿이니 일주일은 곳을 해야 하느니라.”

강 훈장은 무당을 욕한 뒤 가만히 앉아서 굿하는 것을 구경만 했다. 무당이 곳을 딱 마치고 잡귀를 내쫓기 위해 콩 씨를 뿌렸다. 모든 굿 절차가 다 끝나자 강 훈장이 무당을 불렀다.

“다 했느냐?”

“예, 다했습니다.”

“음, 아니로다. 저 안방 구석에 숨은 잡귀는 그냥 놔둘 것인가? 내쫓아야지.”

큰 곳을 할 때면 허공중에 떠돌아다니는 잡귀들이 들어와 조상신과 더불어 얻어 먹는다고 한다. 그런 잡귀가 다 쫓겨 가지 않고 숨어 있었던 것이다. 무당이 안방에 숨은 잡귀를 내쫓았다.

“다 내쫓았느냐?”

“예, 다했습니다.”

“눈이 어둡구나. 저 조왕(부엌)에 가서 보라. 거기 앉아 있지 않느냐?”

주역점을 치는 훈장이라 무당의 눈에는 안 보였으나 강 훈장은 잡귀의 거동을 다 봤던 것이다.

무당이 다시 내쫓으니 잡귀들이 '정낭'놓은 '정주목'위에 가서 앉고는 강 훈장을 타하였다.

“저 강 훈장이 와서는 우리가 한 며칠 더 얻어먹을 것을 못하게 하니 억울하구나.”

잡귀가 분통을 터뜨리는 말을 들은 강 훈장 “그렇게 억울한가? 그러면 술이나 한 잔 먹고 다음에는 이 집에 들어오지 말라” 하고 술 한 잔을 채워 뿌려주었다.

강 훈장이 잡귀를 다 내쫓자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났다. 생기를 회복한 주인이 이젠 강 훈장에게 보답을 하려고 거처를 물었다.

“어떻게 하면 사는 곳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저 도원(대정읍 신도리와 무릉리)에 와서 강 의원을 찾으면 알 수 있다.”

가을철이 되자 병이 나은 사람이 돼지 한 마리를 잡고 팔, 발며 한 섬씩을 실어 일꾼 몇 사람을 데리고 도원을 찾아갔다. 그런데 도원에 이르러 지나가는 사람에게 강 의원 댁을 물었으나 아는 사람이 없었다. 강 훈장이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강 의원이라고만 하면 알 수 있다고 해놨으니 찾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멀리 정의 토평에서 도원까지 찾아와서 답례를 못하고 돌아갈 것을 생각하니 걱정이 되었으나 어쩔 수가 없었다. 이젠 여기저기 찾아다니다 보니 지치고 해서 정자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한숨을 지었다. 도원에서 강 의원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모두 안다는데 어찌된 일인가? 정자나무 그늘 옆에 앉았던 한 사람이 이 말을 듣고는 “강태종 훈장이 어느 마을에 가서 또 한번 장난질을 했구나. 저 집을 찾아가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네” 하고 말해 주는 것이었다. 일행이 짐 실은 소를 이끌고 가리켜 준 집을 찾아가 보니 바로 강 훈장이 갓을 쓰고 앉

아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강 훈장이 긴 담뱃대를 물고 왕왕하면서 글을 가르치는 게 아닌가. 좀 쉬는 틈을 기다렸다가 강 훈장 앞으로 나아가 엎드려 인사를 드렸다.

“강 훈장님을 찾아 왔습니다.”

“음, 어디서 왔는가?”

“정의 토평에서 왔습니다. 토평 사는 아무개입니다.”

“음, 그럴 법하다. 그런데 어떤 일로 나를 찾아 왔는가?”

“그냥 술이나 한 잔 대접하려고 왔습니다.”

돼지 잡은 것과 팔, 쌀 등 짐을 내려놓았다.

“음, 그러면 안으로 들여놓게.”

사람들이 돌아가자 강 훈장은 가르치는 일을 마치고 수제자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저 가져온 고기를 썰어라. 또 아무 아무 사람들을 초청해 오라. 우리만 먹을 수 있느냐, 동네 사람들과도 나누어 먹어야 한다.”

강 훈장은 제자들을 데리고 한번 나갔다 들어올 때면 엽전으로 백 냥씩은 벌어들였다고 한다. 또 돈 뿐만 아니라 옷감들이나 곡식들도 벌어들였다. 지리에도 아주 뛰어났는데 강 훈장이 봐준 자리의 묘는 ‘골충’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대정읍 보성리, 강신생(남) 제보

10. 의원 장의

옛날 제주도에서 가장 뛰어난 명의라고 한다면 명월에 살았던 월계 진 좌수라고 한다. 그러나 대정 고을에도 명의가 있었는데 성씨가 장으로 장 의원이라 한다. 그는 매우 고집이 세었다. 원래 의술이 뛰어났지만 병을 고쳐 달라고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들면 장 의원은 그 사람들이 병을 고치려는 정성된 마음이 있는가를 우선 살피는 것이었다. 특히 환자가 식사하는 부엌 모습을 살피고, 며칠을 조사하기도 했다.

하루는 어떤 부인의 병을 고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집으로 갔다. 그런데 그 부인이 식사를 하며 남편에게 그 의원은 병 치료도 잘 못하고 효험도 없다고 하며 의원 흉을 보

는 것이었다.

이런 말을 들은 장 의원은 “이집 환자의 병은 못 고치겠다”고 중얼거리며 환자의 병이 어떤 병인지 살펴보지도 않고 집으로 돌아와 버린 적이 있다.

장 의원은 사람들이 의원을 홍보지 않고 음식이라도 잘 대접하여 정성을 다해 병을 치료하려 하면 꼭 죽을병이 아니면 어떤 병이고 다 고쳤다 한다. 장 의원은 병을 고치겠다는 환자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고 치료를 해 주었던 것이다.

장 의원의 의술은 주로 침술을 썼다. 어떻게 해서 명의가 되었다는 말은 없지만, 환자의 병 치료에 대한 자신감과 의원에 대한 정성을 보고 침술로써 병을 고쳤다고 한다.

대정읍 보성리, 강신생(남) 제보

11. 신도 충전무덤

대정읍 신도리에 영리한 개를 기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흥년이 들어 먹고 살기가 어렵게 되었다. 옛날 대정현에서는 무명을 많이 만들어 팔았었다. 대정현 지방에는 흥년이 들었으나 정의현 지방에는 흥년이 심하게 들지 않았다. 그래서 하루는 개 주인이 정의현에 가서 무명을 팔고 쌀을 사다 먹으려고 무명 다섯 필을 지고 집을 나섰다.

주인이 짐을 지고 집을 나서자 진돗개처럼 흰 개가 주인을 따라 나왔다. 주인이 집에 가라고 개를 쫓아도 돌아가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곤 했다. 주인이 모른 채하고 멀리 안보일 만큼 가면 다시 개가 쫓아왔다. 대정고을 안에 이르러 뒤를 돌아보았을 때도 개는 역시 따라오고 있었다. 개 주인은 돌아가라 해도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 따라 오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산방산 가까이 와서 비석이 세워져 있는 굿물 지경에서 피로를 풀려고 짐 진 무명을 내려 놓고 쉬고 있었다. 담배를 한 대 피우며 앉아 있을 때 도적들이 나타났다.

“당신 지고 있는 짐이 뭘이냐?”

“무명입니다.”

“그걸 지고 어딜 가느냐?”

“흉년이 들어 자식들이 굶어죽게 되니 이것이라도 팔아 쌀을 사다 먹어 살려고 이것을 팔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가, 당신은 그것이라도 있어 살아갈 방도가 있으나 우리는 그렇지 못한데 우리에게 그걸 줄 수 없느냐?”

도적들이 무명을 빼앗아 갖지 못하게 되면 나를 죽이려 들겠구나 하고 생각하니 겁이 덜컥 났다.

“그렇게 욕심이 나거든 가지고 가라.”

순순히 도적의 요구에 응하자 도둑놈들이 무명을 빼앗아 가지고 달아나 버렸다. 개 주인은 멀리까지 무명을 지고 와서 잃은 것을 생각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담배만 푹씩푹씩 피우며 잃어버린 무명에 대한 아쉬움으로 한숨을 쉬고 있을 때 쫓아오던 개가 도적들의 뒤를 따라갔다. 실의와 허탄에 빠져 앉아 있으려니 개가 무명 보따리를 물고 질질 끌며 돌아왔다. 그런데 개는 원래 흰 개였는데 황개가 되어 있었다. 그것은 그 개가 도적들의 뒤를 쫓아가 주인 물건을 찾으려고 물어뜯고 하다 보니 피가 온 몸에 묻어서 벌겍게 된 것이다.

‘이놈 오지 못하도록 쫓아 두었는데 결국 우리 식구의 생명을 살렸구나’ 하고 개를 데려 ‘굿물’에 가서 몸에 묻은 피를 씻겨내니 다시 흰 개가 되었다.

“에, 그거 잘 되었다. 나와 같이 가자” 부지런히 걸어서 토평 어떤 집에 이르렀는데 그 집은 사냥꾼의 집이었다.

옛날 제주도는 숲이 무성하여 노루, 사슴, 산돼지 등 많은 짐승들이 서식하였다. 제주도 산간 마을마다 이런 짐승을 잡아 파는 사냥꾼들이 많았는데, 개 주인이 찾아간 집도 바로 이런 사냥꾼의 집이었다. 바로 사냥꾼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런데 사냥꾼이 자주 방 밖으로 나가서는 흰 개를 살펴보곤 하는 것이었다. 사냥꾼도 개에 대한 식견이 뛰어나 그 개가 영리하다는 것을 한눈에 알았다. 사냥꾼은 개가 마음에 들어 사고픈 생각이 났다.

“개를 나에게 팔 수 있습니까?”

“대정현에서 이곳까지 데리고 왔는데 팔아버리고 돌아갈 수 있습니까? 팔 수

없습니다.”

“당신이 값을 달라는 대로 드릴 터이니 팔아 주십시오.”

사냥꾼이 개를 팔아달라고 주인에게 애원하다시피 요청을 하자, 그 개는 주인의 얼굴만 가만히 쳐다봤다. 주인이 어떻게 하는가 하고 살폈던 것이다.

“얼마나 값을 쳐 줄 수 있습니까?”

“백 냥 줄 터이니 팔아 달라.”

주인은 곰곰이 생각했다. 개 값이 백 냥이고 무명을 팔아 열댓 냥만 받아 놓으면 올해 보릿고개를 무난히 넘길 수 있으리라.

드디어 개를 팔았다. 개 값으로 백 냥을 받고 무명을 팔아 곡식을 산 뒤 돌아오게 되자 개에게 당부했다.

“이제부터 이 사람이 너의 주인이다.”

이런 말을 들은 개는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인지 드리누워 움직이지 않았다.

그 후 사냥꾼과 첫 사냥을 나갔는데 작은 개이지만 큰 강록(숫사슴)을 잡았다. 사냥꾼은 첫 사냥부터 수지가 맞은 것이다.

그날 밤 원래 개 주인이 잠을 자는데, 열두시쯤 되는 깊은 밤중에 킁킁 개소리가 들렸다.

아, 팔아버린 개소리로구나.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보니 바로 팔아버린 그 개가 사슴 다리 한쪽을 물고 와 있는 것이었다. 개 생각에는 자신의 능력에 비해 가격을 정당하게 받지 않고 팔았기 때문에 값을 보충하기 위해 고기를 물고 온 것이었다.

정의 토평과 대정 신도 사이는 약 칠십 오 리쯤 되는 거리다. 개가 밤중에 이 먼 거리를 고기를 물고 달려온 것을 대견스레 여긴 개주인은 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밥을 주었다. 그리고 개 주인이 “빨리 날이 새기 전에 떠나라”고 말하자 개는 마당을 한바퀴 돌고는 돌아갔다.

사냥꾼이 사냥을 나가서 짐승들을 많이 잡아오는 날이면 개는 꼭 고기 한 다리를 물고 오는 것이었다. 사냥꾼도 아침에 살펴보고 고기 한쪽 다리가 없어지는 것을 알았다.

이상하다. 사람도 내리기 힘들게 기둥에 고기를 걸어 두었는데 하고 의심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사냥을 나갈 때마다 영리한 개 덕택에 많은 짐승을 잡곤 했기 때문에 신경을

크게 쓰지 않고 내버려뒀다.

개가 고기를 물고 원주인집에 찾아가기를 여러 해 동안 거듭했다. 어느 날 밤에도 역시 개는 고기 한쪽 다리를 물고 원주인 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원주인은 죽었고, 그 집 할머니가 있다가 주인을 찾아온 개를 반겨 맞으며 “너는 주인을 위해서 왔지만 주인은 죽어서 아무 곳에 묻었다.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살았을 때 왔으면 주인을 볼 수 있었을 것을 죽었으니 못 보게 되었구나”하고 그 간의 사정을 말했다.

이 말을 들은 개는 사람이 우는 것처럼 응응 앵앵거리며 울다가 물고 온 고기를 놓고는 마당을 세 번 빙빙 돌고는 밖으로 획 나갔다. 원주인 무덤으로 달려갔던 것이다. 무덤 앞에 구덩이를 마구 파고는 그곳에 들어 누워 죽어 버렸다. 나중에 그 할머니가 개의 주인에 대한 정성을 기특히 여겨 주인 무덤 앞에 잘 묻어 주었다.

지금도 고산으로 가는 신도 지경에 개 무덤이 주인 무덤과 나란히 있다고 한다.

대정읍 보성리, 강신생(남) 제보

12. 산호 해녀

옛날 모슬포(募瑟浦：大靜邑)에 한 해녀가 살고 있었다. 누구나 거쳐야 하는 마마를 겪지 않은 해녀였다.

어느 날 해녀는 금로포(金露浦：安德面沙溪里)에 갔다가 대모(玳瑁：바다거북의 일종)가 바닷가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밀물에 올라왔다가 물이 빠지자 나가지 못한 것이 분명했다. 해녀는 펍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대모를 잡아서 바다에 놓아 주었다. 대모는 기쁜 듯이 조금 헤엄쳐 가다가, 잠시 뒤돌아서 마치 절하며 감사하듯이 머리를 까딱 하고는 다시 유유히 물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그 후 얼마 없어 해녀는 용머리(龍頭岩：安德面沙溪里) 아래에서 전복을 따러 바다에 들어갔다. 큰 전복을 겨냥하여 물속으로 잠수하여 얼마간을 들어가니, 이상하게도 조개로 반질반질하게 장식한 대궐이 바닷속에 보였다.

‘이게 어떤 대궐인가?’

생각하며 조금 더 들어가 보니 기이한 꽃들이 난만해 있고, 으리으리하고 화려한 궁궐이 차분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었다.

해녀는 대궐의 문 가까이 갔다. 이때 대궐 속에서 어떤 할머니가 나오더니,

“당신께서 내 자식을 살려줘서 무어라 고마운 말씀 다 이를 수 없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하고 해녀를 영접해 들어갔다.

해녀는 후히 대접받고 나오려고 하니, 할머니는 선물로 꽃 한 가지를 꺾어 주면서,

“이 꽃을 가지고 가십시오. 이 꽃만 있으면 마마는 면할 수 있습니다”고 하는 것이었다.

해녀는 꽃을 얻어 물 밖으로 나와 보니, 그것은 산호(珊瑚) 꽃이었다. 해녀는 그 꽃을 소중히 간직했다. 과연 늙어 죽도록 효험이 있어, 해녀는 마마를 앓지 않고 넘겼다 한다.

대정읍 안성리, 강문호(남) 제보

13. 신 대정원

대정원 신재우는 조천리 출신 양반이었다. 신 대정원이 대정원 직책을 맡기 전 과거를 보러 한양에 올라갔다. 여러 번 과거에 응시했으나 될 듯 될 듯하면서 합격되지 않았다.

전조관 대감을 찾아가 부탁을 했으나 돈만 허비되고 낙방하기만 했다. 하루는 대감이 미안한 마음이 생겨서 신재우를 불렀다.

“지금까지 내가 소개해서 등과 안 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이상하네. 그러지 말고 한번 점이나 쳐보세.”

그 당시 남대문 앞에는 점쟁이들이 많았다. 신재우는 마음에 드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쳤다.

“당신의 머릿속에는 열녀의 혼이 들어 있어. 열녀의 혼 때문에 낙방하는 것이로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를 좀 드려야 하겠어. ‘내가 등과하면 당신의 혼을 풀어주겠다’말이요.”

신재우가 열녀의 혼을 해원시키겠다고 기도를 세 번 드리니 점쟁이가 이번 과거에는 등과하겠으니 응시하라고 일러주었다.

대감을 찾아가서 갔다 온 사연을 말했다.

“자네에게는 열녀의 정혼이 있어서 낙방한 것이니 점을 치라고 한 것일세. 이번에는 등과될 거야.”

신재우가 며칠 후에 과거에 응시하여 급제하였다. 신재우는 원의 직함을 받고 대정원으로 부임했다. 부임하자마자 열녀를 아무 날까지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전령을 마을마다 시달렸다.

신 대정원이 조사해서 보고해온 것을 보고 마을마다 열녀를 탐색한 결과 용수리 절부암에서 죽은 열녀의 혼이 아직 해혼(解魂)되어 있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용수리 열녀 혼부터 해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신 대정원은 절부암(節婦岩)이라 써서 열녀비를 세우고 자본을 내놓은 후 용수리와 고산리서 번갈아 열녀를 기념하는 제를 삼월 보름날마다 지내도록 하고 열

녀제 축문까지 써 주었다.

이렇게 해서 절부암 열녀의 혼이 해혼되었다 한다.

신 대정원은 또 대정현이 가뭄에 시달리자 기우제를 지내려 고산 수월봉에 와 보니 제단을 차리는데 안성맞춤이었다. 그래서 기우제를 지낼 제단과 비석을 세우고 제단 일대를 고금산이라 해서 함부로 출입함을 막았다 한다.

한경면 고산리, 이공용(남) 제보

14. 채 똑똑이

채구석(蔡龜錫)은 구한말에 대정군수를 지냈던 사람으로 그 사람됨이 매우 똑똑하다 하여서 채똑똑 이라고 불리었다. 이러한 별명이 붙게 된 연유로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한다.

어느 해, 그가 진사 교지를 받고자 서울로 올라갈 때였다. 그 당시만 하여도 제주 사람에 대한 서울 사람들의 인식이 말이 아니었다. 그는 올라갈 때부터 생각한 일이 바로 어떻게 이번 서울 길에서 서울 사람들을 좀 혼내줄까 하는 것이었다.

그는 서울 거리에 들어서서는 그곳 시장을 구경하게 되었다. 상인들은 험수룩한 시골 선비를 보고 물건이나 많이 팔아볼 양으로 그를 상점 안으로 안내하였다.

“어서 오시오, 시골 양반”

주인은 시골 양반이라는 데에 더 힘주어 말하였다.

“물건 좀 샅시다.”

시골 사람 답지 않게 채구석은 의젓이 들어갔다. 그는 이것저것 한참이나 물건들을 구경한 다음에 모자 하나를 골랐다. 그런데 그 모자는 상점 주인이 보기에든 여러 모자 중에 가장 좋은 것이었다.

돈을 치르고는,

“내 조정에 다닐 일이 있어 가는 길이니 일을 마치고 이것을 찾아갈 동안 좀 간수하여

두시오.”

이렇게 부탁하여 두고는 나왔다. 주인은 생각하니 뭔가 손해를 본 것 만 같았다. 물건 고르는 눈도 그렇거니와, 그 의젓한 말씨하며 도저히 촌놈이라고 생각한 자기가 오히려 무색하게 느껴졌다.

“그래도 내게는 어쩔 수가 없을 거야.”

상점 주인은 그 모자를 절대로 돌려주지 않으려고 생각하였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무슨 증거로 자기 것을 주장한단 말인가. 다시 모자를 보아도 그것은 상점 안에 있는 모든 것보다 가장 좋은 것임에 틀림이 없었다.

며칠 후에 채구석은 일을 마치고 돌아가다가 그 상점에 들렀다.

“내가 맡긴 모자를 이리 내주시오.”

역지 의젓하게 모자를 요구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주인이 내놓은 모자는, 물론 채구석이가 애초에 사서 맡겼던 그 모자가 아니었다.

“이건 제 것 아닌데요.” 채구석이는 고개를 흔들었다. 주인은 용하게도 알아보는 그를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다른 모자를 내어 놓았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주인의 얼굴을 쏘아보듯 바라봤다.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느냐는 힐난의 표정이었다.

“아니 그게 당신 것이 아니라면, 낸들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다시 새 모자를 내놓았다.

“그것도 아닙니다.”

다시 고개를 내저었다. 주인은 정말 이 자가 보통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제 모자를 알아보고 그러는지 알고 싶어서 이번에는 한 구석에 밀쳐두었던 그 모자를 내놓았다.

그러자 채구석은 그 모자를 한번 들어보고는,

“아, 바로 이게 제 것입니다”하면서 그 모자 안에서 무엇을 뒤적뒤적하더니 바늘 하나를 꺼내었다.

“아니 그건 바늘이 아니오?”

주인은 놀라서 물었다.

“그렇소, 이게 바늘이요.”

“그런데 왜 그게 그 자리에 있소?”

채구석은 빙그레 웃으면서 주인을 던지시 바라보았다.

“당신이 나를 속이고 다른 모자를 내 줄 줄 나는 미리부터 알았던 거요. 그래서 내가 모자를 사면서 이 바늘을 그 안에 살짝 찔러 놓았던 거요.”

그 말을 들은 주인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더 말을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는 정중히 사과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난 당신을 험수룩한 시골 선비로만 알았지요. 정말 당신은 서울 사람 뺨칠 정도로 똑똑한 분이구려.”

채구석은 몸 둘 곳을 몰라 하는 그 상점 주인을 보고는 고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 놈이면 제가 얼마나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보, 서울 양반, 서울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업신여겨서야 어디 서울 사람 아닌 사람 서러워서 살겠어요?” 이렇게 빼있는 한 마디를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돌아와서 제주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서 채구석은,

“서울 놈들도 별수가 없더군” 하고 웃었다. 그러자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당신 이제부터는 채구석이라 하지 말고 ‘채 똑똑이’라 하시오.”

이렇게 말하고는 다시 한바탕 웃었는데, 이런 일이 있은 이후부터 그를 흔히 ‘채 똑똑이’라 불렀다.

안덕면 덕수리, 송경은(남) 제보

15. 머리 잘라 시부모 생일 차린 효부

옛날 대정 현에 아주 가난하면서도 화락한 선비의 집안이 있었다. 이 집 시아버지는 늘 글만 읽으면서 일생을 보냈기 때문에 집안이 늘 곤궁하였다. 그러나 없는 것을 서러워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비굴하지도 않았다. 더구나 재물에 대한 욕심도 갖질 않았다.

그런 집안에서 며느리를 맞이하였다. 역시 며느리도 어질고 착한 여자였다. 며느리는 없는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하여 온갖 일을 다 하였다. 그러면서도 시부모에 대한 효성이 극진하였다.

어느 해였다. 시아버지 생일을 당한 며느리의 심정은 딱하기 그지없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어떻게든 시아버지의 생신을 차려드렸는데 금년에는 백방으로 노력해도 차려드릴 형편이 못 되었다.

며칠을 생각한 나머지 며느리는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머리를 잘라서 그것으로 생신을 차리면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며느리는 그런 생각이 떠오른 것이 스스로도 하도 대견하였다.

생신 상을 받은 시아버지는 눈이 뚱그래졌다. 어려운 집안 형편에 끼니도 어려울 형편인데 이러한 성찬으로 생신 상을 차린 데는 필시 무슨 연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며느리의 눈치만을 살피면서 그 생신 상을 받았다.

생신 상을 받고서 술을 한 잔 며느리에게 받으면서 고개를 살포시 숙인 며느리의 모습을 보는 순간,

“아니 아가야……” 한마디 하고는 들었던 술잔을 그 자리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시아버지 앞에서 고개 숙인 며느리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있었다.

“아가야, 아니 네 그 고운 머리를 어찌하고……”

탄식하는 시아버지를 본 며느리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하였다.

“아니 이거 무슨 일이냐?”

시아버지가 더욱 놀라 어리둥절하는데,

“아버님 제 보잘 것 없는 머리를 잘라서 아버님 생신을 차려 드린 게 제게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 춤을 보시고 오래오래 만수를 누리십시오.”

며느리는 흡사 신들린 여자처럼 춤을 추었다. 그 광경을 보던 늙은 시아버지는 감격하여 울지 않을 수 없어 목청껏 소리 내어 엉엉 울고 말았다.

이때 그 주위를 암행어사가 지나가다 이 울음소리를 듣고 몰래 가까이 가서 집안의 사정을 엿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어떤 수건 쓴 젊은 여자는 텅실텅실 춤을 추고 있는데 그 옆에서 늙은 노인이 진수성찬이 차려진 큰 상을 받고 앉아서 소리 내어 울고 있지 않은가. 어사는 이 집에 필시 이상한 일이 있으려니 하고 들어갔다.

“지나가는 객이옵니다만, 하도 슬픈 곡소리를 듣고 와 보니, 틀림없이 기이한 사정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들렸습니다. 나그네가 도와 드릴 일이라도 있으면 힘이 될까 합니다.”

이 어사의 말을 들은 노인은 붓을 내놓고는 다음과 같이 써서 내보였다.

“이것이 무슨 뜻이 온지요?” 어사는 그 사정이 아무래도 이해할 수 없었다.

“상을 만난 집에서 여승이 춤을 추는데 노인은 곡을 한다는 뜻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는 다시 노인은 그 연유를 자세하게 말하는 것이다.

즉 며느리는 머리를 잘라버렸으니 중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머리를 잘라 시아버지의 생신을 차릴 수 있어 기뻐 춤을 추는 것이요, 시아버지인 노인은 그 효심에 감복하여 울고 있으니, 이 집은 바로 초상집과 같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이 사연을 들은 어사는 돌아가 이 일을 상감께 아뢰고 그 늙은 시아버지인 선비에게 과거를 내렸다. 그리고 그 며느리에게도 효부의 상을 내렸으니 하루아침에 그 가정은 큰 복을 받고 정말 화락하게 잘살게 되었다.

안덕면 덕수리, 송경은(남) 제보

16. 굿물 파혈지

대정읍 보성리에서 산방산 쪽으로 가는 길에 굿물거리가 있다. 여기에 오씨 가문 선산이 있는데 그 묘혈이 파혈된 곳이다.

오씨 선조가 세상을 뜨자 정시[地官]를 청해서 뭇자리를 살피는데 정시가 상주에게 말하기를 “이곳이 좋은 뭇자리이니 여기에 묘를 쓰도록 하게. 하지만 땅을 파다가 바위가 나오더라도 바위는 파 내지 말고 그위에 묘를 쓰게”하고 일러 주었다. 정시가 일러 준대로 땅을 파다보니 넓은 바위가 마침 나왔다. 정시가 파내지 말라고 주의를 준 것인데, 사위가 장사 지내는데 왔다가 보고 “어찌 사람을 바위 위에 묻을 수 있느냐” 하고 상두꾼들에게 바위를 파내도록 했다. 상두꾼들이 몰려들어 그 넓은 바윗돌을 파내는 순간 그 속에서 하얀 비둘기가 날아가 버렸다.

그런 까닭에 뭇자리는 파혈되어 그곳에 장사지낸 오씨 후손들은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했다 한다.

파혈된 뭇자리는 안덕면 화순에도 드문드문 있는데, 하관할 곳을 파다 바위가 나오자 파내 버렸기 때문이라 한다.

그래서 좋은 뭇자리에는 반석이 나오는 일이 종종 있는데, 반석을 파내지 않고 그대로 그 위에 묻는다고 한다.

대정읍 보성리, 강신생(남) 제보.

17. 저승에 다녀온 강씨

옛날 일과리(大靜邑 日果里)에 강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그가 늙지도 않고 중년인 때에 어느 날 홀연히 죽고 말았다. 일단 소렴(小殮)을 끝내두고, 3일 후에 대렴(大殮)을 하여 성복제를 지낼 참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죽었던 시체가 갑자기 움직거리는 것이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가족들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대렴했던 것을 풀지 않을 수 없었다. 죽었다고만 믿었던 강씨는 잠에서 깬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 앉는 것이었다.

“아, 이게 어떤 일입니까?”

이를 지켜보던 가족이나 동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게 아니고 ...”

죽었다 살아난 강씨는 죽었다 살아나기까지의 과정을 말해 나가기 시작했다. 바로 죽었던 그날 사령이 왔더라는 것이다.

“가자!”

“어디요?”

“난 저승에서 명령을 받고 당신을 잡으러 온 사령이니, 어서 저승으로 갑시다.”

사령은 강씨를 데리고 집밖으로 나오다가 기둥걸이에 걸어 둔 짚신까지 신고는 계속 어디론가 데려가더라는 것이었다. 어느 정도 가고 보니 큰 대문 단 곳이 있었는데, 바로 그 앞에는 창(槍)을 든 문지기들이 있었다. 그 문지기들은 사령이 그 앞에 당도하자마자 문을 열어줬다. 아홉 번째의 문을 통과했을 때였다. 저승 염라대왕인지 모르지만 강씨의 눈에 홀룡하고 점잖게 보이는 사람이 용상 위에 앉아 있었다. 사령은 곧바로 그 앞으로 가서 고개를 숙이고는,

“여기 일과리 강 아무개를 잡아 왔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아, 그래?”

무슨 문서책을 뒤적이고 난 후였다.

“너 이놈! 내가 언제 일과리 강 아무개를 잡아 오라고 했느냐, 구억리(大靜邑 九億里) 강 아무개를 잡아오라고 했지. 이 사람을 당장 이승으로 내 보내어라.”

사령은 미심쩍다는 듯이 머리를 쓸고 나서는, 강씨에게 백 강아지 하나를 내어 주면서 백 강아지 뒤만 따라 이승으로 나가라는 것이다. 강씨는 사령의 말대로 백 강아지 뒤만 쫓으며 이승으로 나오고 있을 때였다. 나오다 보니 낯익은 사람이 보였다. 바로 몇 달 전에 죽은 동네 사람이었는데, 허름한 차림새로 가축들을 돌보고 있었다.

“아니, 이 사람아, 어떻게 해서 여길 왔는가?”

“아, 사령 놈 따라 여기 왔다가 잘못 데려 왔다고 해서 다시 이승으로 나가는 중이지요.”

“참 잘 됐네. 자네 이승에 가거든 우리 아들에게 가서 돈 3백 원만 보내달라고 전해 주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승에서 돈 3백 원 빚을 갚지 못하고 저승에 왔기 때문에 그 벌로 이 고생을 하고 있네. 꼭 부탁하네.”

저승에 다녀온 강씨의 이야기가 끝났다. 구역리 강 아무개는 동성동명이었는데, 이튿날 갑자기 이승을 떠나고 말았다 한다. 저승 차사가 깜빡 실수하는 바람에 일과리 강씨는 구역리 강씨 대신 저승엘 잠시 다녀왔던 것이다.

중문동 대포부락, 김재현(남) 제보

18. 의견 빨랐던 이성교(李成喬) 참사

한말때부터 일제시대에 걸쳐 이 마을에 살았던 참사 이성교는 어려서는 놀기를 좋아하고 독서장을 얹혀 공부시키려 하였으나 하여 듣지 않았다.

어른들이 나무라면 “글 안해도 한 사람만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대답하며 빈둥거리기만 하고 휘양하더라(부냥기가 있더라) 한다. 열여섯 나던 해에 보성 준위를 시켰는데 너무 어려서 하니까 하인들조차도 하시하려 들었다.

그가 막 취임을 해서 일을 시작하려는 판인데 하루는 홍사문 거리를 지나가려니까 하인놈이 불러세우고 담배 한 대를 청했다.

“으뜸님, 담배 가진 것 있으면 한 대만 주십서.”

그는 씹지에서 담배를 꺼내 하인에게 주었다.

그리고 이튿날 향회를 열어 어른들 앞에서 호되게 볼기 몇 대를 치니까 “과연 잘못해수다” 빌었다. 그 후부터 하인들은 그 앞에서 찢찢 기었다고 한다. 하루는 또 그가 거리를 지나는데 들돌 때문에 분쟁이 나서 솟장을 드리려는데 어떻게 써야 할 지를 몰라 꺾꺾거리고 있었다. 그가 나서서 말했다.

“아 그거야 간단하지. 돌을 들 때 얼굴이 붉어지니 홍안의 거석(巨石)이라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해결이 됐다.

한번은 성안(제주시의 옛말)에 회의를 보러 갔는데 상관이 너무 도도하게 굴었던 모양이었다. ‘천하지하민(천하가 모두 백성 아래 있다)’는 문자로 통을 먹었다고 한다.

마을사람들 이야기 종합

19. 관노 박정대의 목소리

김몽구가 1870년대 대정 현감으로 부임해서 얼마 안 되어 대정현에는 큰 흉년이 들었다. 현 안에는 이미 절냥농가가 불어나고 진흙창에 쌓였던 곡식도 구제미로 다 나가버린 판이었다. 현감은 할 수 없이 조정에 구휼미를 청하기 위하여 관노 박순대에게 상소문을 들려 보내게 되었다. 순대는 심력이 남보다 뛰어나고 음성은 종소리와 같아서 만약 한번 크게 부르면 그 소리가 오 리, 십 리까지도 우렁차게 들렸다. 현감이 그를 보내기로 작정한 것도 믿는 데가 있었기 때문이다.

순대가 막 떠나려 할 때 현감은 그를 불러 세워서 일렀다. 서울의 이서배(吏胥輩)들은 교묘하고 간악해서 무릇 외읍 수령들이 소장을 드리려 하면 즉시 들여보내 주지 않고 돈을 요구하니 만약 그렇게 되면 시일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민박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 너는 한양에 들어가거든 아무 집 앞이나 서서 큰 소리로 “제주 대정백성들이 흉년 들어 굶어 죽게 되었으므로 보장을 올립니다!”하고 크게 외치라”하였다.

현감은 그러면 본래 맑고 큰 소리가 반드시 대궐 안까지 통하여 성상이 들을 것이니 하서배들이 어찌지 못한 것이라고 계산을 한 것이었다.

“예 알아 들었습니다”

순대는 꾸벅 절하고 현을 떠나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한양엘 닿았다. 한양길이 처음인데 모두가 낯설고 어디로 가야 왕궁을 찾아갈지도 알 수가 없었다.

하루 밤을 주막에서 보낸 순대는 현감이 시킨 대로 이튿날 새벽에 높직한 동산에 올라가 서서 장안을 향하여 손나팔을 만들어 대고 큰 소리고 외쳤다.

“제주 대정 백성들이 흉년으로 다 굶어 죽게 되었으므로 소장을 올립니다!” 맞은 편 인왕산이 순대의 목소리를 메아리로 돌려보냈다. 그 소리에 장안이 발각 뒤집히고 새벽 산책길의 임금도 그 소리를 듣고 하인을 시켜 그를 곧 데려오게 하였다.

그는 서울에 올라간 지 며칠이 아니 되어 진흙의 왕명을 받들고 돌아와서 굶어 죽는 현민들을 구제할 수 있었다 한다.

박용후 「남제주군지」에서 발췌

20. 고 현감(高縣監)의 대정현감(大靜縣監) 도임

조선조 말이 되자 나라의 기강이 문란해져 매관매작이 성행하여 천 냥을 드리면 태수(太守)를 하고 만 냥이면 방백(方伯)을 할 수 있었다.

제주성 동문 밖에 살았던 무당 고씨는 당대에 재산을 많이 모았고 글줄도 알았다. 그는 자기 신분도 돌아보지 않고는 천냥을 드려 정의 원을 사서 비자와 책실들을 거느리고 삼현육각(三絃六角)을 갖추어 위무도 당당하게 정의고을로 갔다.

객사에 들어 열명(列名)하려고 하니 마중 나온 이방이 “우선 문묘(文廟)에 알성(謁聖)하여야 향교에서 유생이 나와서 객사 분향집례를 봅니다” 하였다.

고씨는 그런 예의 범절은 채 모르고 성주(城主)라는 자만심만 앞섰던 것이다. 이방의 말대로 향교로 갔는데 말을 탄 채 하마비(下馬碑)안으로 들어갔으나 영접 나오는 사람이 없었다. 고씨는 통인을 시켜 훈장에게 신임 원이 왔다고 전갈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한참 있더니 통인은 안 나오고 유생 한 사람이 나오더니 ‘동동명고지자(動動鳴鼓之子) 하위알성야(何爲謁聖也)’하고 쓴 쪽지를 대문에 붙이고는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동동 북치는 사람이 어찌 문묘에 와서 뵈 수 있느냐’는 뜻이었다. 고씨가 분김에 중문(中門)안으로 들어섰더니 수복(守僕) 두 사람이 앞을 가로막으면서 “어떤 놈이 허락없이 학궁(學宮)을 범하느냐?” 고 소리를 질렀다. 고씨는 그들을 제치고 향교 안으로 들어서서 “향교 집강(執綱)들어 들어라, 나는 새로 도임한 이 고을의 성주인데 백성의 어버이인 관장(官長)을 예를 안다는 선비인 네놈들이 이렇게 능멸할 수 있느냐, 이 후 법으로 다스리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장의(掌議) 한 사람이 가만히 듣다가 “옛날도 신하가 겹주(桀紂) 같은 폭군을 쳐도 백성들은 신하가 임금을 쳤다고는 하지 아니 하였으니 관장도 옳은 도리를 닦지 않으면 백성이 섬기지 아니하는 법이네. 또 어찌 혹세무민(惑世誣民)하여 얻은 천 냥짜리 허수아비를 어찌 원이라 하겠는가? 어서 돌아가서 치던 북을 버리고 부지런히 배워 인륜도리를 안 다음 원으로 온다면 나가서 환영하겠거니와 지금은 그리 못할 것이니 어서 돌아가라! 학구에 범마(犯馬)한 일은 국법으로 다스릴 것이로되 멀리 온 노고를 생각하여

통인을 대신 벌하는 것이니 그리 알라” 했다.

고씨가 돌아다 보니 아나나다를까 통인놈이 계단 아래 꿰려 있었다. 할 수 없이 동헌으로 돌아와서 향교 집강에게 출두명령을 내려 엄벌하려고 하였으나 이방이 멈추어 멀하기를 “향교 집강을 벌할 수는 없습니다. 문묘에 알성한 후에라야 인통(印筒)을 바치는 것이므로 알성을 못 하였기 때문에 명령을 내리려고 하여도 관인이 없어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오래 있다가는 더 욕을 볼지 모르므로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였다.

고씨는 할 수 없이 관속들을 데리고 모관 집으로 돌아와 정의원 도임이 실패하였으므로 대정원으로 가기로 하였다.

정의에서 한 번 당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대정에서도 실패할까 하여 목사가 집집 대정까지 나와 부임 절차를 감독하고 대정 유생들을 제주 어변청으로 집합하게 하였다. 다 집합시켜 놓고는 대정원 도임을 다룰 사람은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나가는 사람이 더러 있었으므로 문 밖에 있던 사령들은 그들을 잡으면서 닥치는 대로 매질을 하였다. 고씨의 도임을 반대하려던 유생들도 매가 무서워서 반대하지 못하고 마침내 그가 대정원으로 부임하였다 한다.

박용후 「남제주군지」에서 발췌

21. 강직(姜直)의 겸손과 의협

옛날 대정에 살았던 강직은 인격이 고상하고 순직하여 불의를 범하지 아니 하였으며 웃어른을 공경하여 길을 가다가도 늙어서 등이 굽은 사람을 만나면 알건 모르건 말에서 내려서 위로하였다. 이 때문에 그의 이름은 고을에 알려져 있었다.

하루는 현청에 불일이 있어 갔다가 밤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밤이 깊어 오경(五更)이었다. 길에 노파가 혼자 가는 것을 보고 말에서 내려 위로하고 어디로 가는 길이나고 물었더니, “나는 강정리(江汀里)로 가는 길이어” 하고 대답했다.

강직은 이상하게 여겨 무슨 일로 가느냐고 물으니 할머니의 대답이 “그 마을 강직이 네 집에 화재걱정이 있기 때문” 이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은 강직은 땅에 엎드려 “사실 제가 강직인데 어떻게 하여야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하고 빌었다. 할머니가 말하기를 “빨리 달려가서 귀한 집기들부터 어서 꺼내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강직이 고개를 쳐들어 보니 할머니는 이미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난 다음이었다.

강직은 선달음에 달려가서 집안 식구들을 깨워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물건부터 급히 판 곳으로 옮겼더니 얼마 없어 이웃에서 난 불이 거센 바람을 타고 그의 집까지 옮겨 붙었으나 물건의 손실은 크지 않아 평소 그의 심덕이 신의 도움을 부른 것이라고 했다.

조선조 말엽에 제주에는 목사가 도입하면 한번 한라산 꼭대기엘 올라 구경하고 노는 것이 관례(慣例)가 되어 있었다. 간사한 관리들은 이때다 하고 민간으로부터 각양 소용되는 물건들을 징발하니 그 폐해가 말할 수 없었다. 산정에 오른 후 목사가 남향에서 앉으면 대정에서, 또 동향해서 앉으면 정의에서 공궤를 하게 되니 그 비용이 드는 것도 그 러려니와 밀림과 바윗길이 험하여 모시기에 곤란이 말이 아니었다.

어느 해 새 목사가 왔을 때 강직은 이런 폐단을 없애야겠다고 걱정하고 뒤를 따라 백록담에 이르러 목사의 발 아래 부복하였다. 그는 이제까지의 폐단을 낱알이 고하였으나 이속들이 미워하여 무고하였기 때문에 호된 고문을 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고 죽기로 항거하였으므로 이후부터 공궤의 폐해가 없어졌다.

박용후(朴用厚) 「남제주군지」에서 발췌

22. 강백년

요약 : 강백년이 갑자기 죽어 염을 하려고 하는데 입에서 거품이 나고 조금씩 호흡을 하면서 3일만에 살아났다. 알고보니 강백년이 죽어 저승에 있는 염라대왕에게 갔다왔는데 동인리 강백년을 데려와야 하는데 잘못 알고 하모리 강백년을 데려온 것이었다. 그래서 하모리 강백년은 다시 돌아오고 동인리 강백년은 길가다 갑자기 쓰러져 죽었다고 한다.

(조사자 : 저기 그 강백년이라는 분이 원래 돌아가셨다가 다시 이틀만에...)

아 예, 이틀이 아닙니다. 그거는 정확합니다. 그거는 예 강백년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저희들하고 이제 말로는 초등학교 동창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딸도 없고 이제 한 그 분인데 예 이 어른이 음력 6월달에 갑자기 죽었죠. 이제,

(조사자 : 언제 돌아가셨 마썸?)

글쎄 그 분이 살아 계시면은 이제 한 백 열 살 정도는 됐으니까 살아 계셨다고 하면 예 백 열 살 정돈데 그 분네가 거의 한창때라고 한 40대라고 얘길 하거든요. 근데 그 이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아. 날이 건 겁니다. 손을 못 보는 날이 있습니다. 소렴이라고 해서 사람이 죽으면 옷을 입히고 관에 집어넣고 이러죠?

(조사자 : 예~)

그래서 걸리는 날은 일체 건드리지 아니 합니다.

(조사자 : 예~)

그러면 6월달이면은 굉장히 더운 때고 3일 동안을 걸려가지고 손을 못 본 겁니다. 일체를 근데, 그건 어떻게 해서 걸리느냐 하면은 예- 6월달에는 무기(戊己) 들하고 사해(巳亥), 이 나흘은 사람 죽으면 손을 안 보는 날입니다. 그런데 6월달에 무기가 붙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어떻하면 연 3일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조사자 : 예~)

연 3일 그렇게 음~ 그런 날이 있는데 음~ 아니 그러니까 무기는 계속 붙으는 거죠. 무 다음에 기니까 그 다음 여기다가 사일이나 해일이 붙은 경우에는.....

(조사자 : 예~)

뱀날과 돼지날이 붙으면은 연 3일 동안 사람이 소름이나 대름이나 못합니다.

(조사자 : 게른 어떻게 죽으면 그냥 놔둬야 되는 거 마썸?)

예 예 그렇죠 그게.

(조사자 : 아~ 예~)

그게 우리 전에는…….

(조사자 : 그러면 염을 못하는 거 마썸?)

그렇죠. 염은 일체 못하죠. 일체 못합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게난 그렇게 붙은 날 죽은 거예요. 이 어른이…….

(조사자 : 강백년씨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꿈쩍 못하고 이제 그거를……. 밝아서 셋날, 그때는 자시가 지나야 셋날이 되니까 그때는 염을 헐라고 해서 이렇게 하니깐 아 이제 이렇게 사람을 염을 헐라면 이렇게 가 드려야 할 거 아니요? 그렇게 하니깐 후~ 하면서 거품이 이렇게 나오는 거라. 거품이 이렇게 나오니까 거 이상타 해서 아 게니깐 그 분이 또 후~ 한 거죠. 거 이상타 행이네 아 이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니겠 행 옷을 또 옷을 이제 입혀가는 거죠. 옷을 입히는 과정에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좀 참자 해서 기다리니깐 조금씩 조금씩 호흡을 하는 거예요. 게니깐 그거 만 3일 동안 갔다 온 겁니다. 예를 들면…….

(조사자 : 예~)

그런데 그 양반이 살아나고 동인리 강백년이가 걸어가다가 길거리에서 그냥 쓰러져 죽었습니다.

(조사자 : 근데 그 돌아가셨다가 깨어나신 분은 아무 말씀 안하셧 마썸?)

아니 그니까 허는 거죠. 이내 나 이제 저승에 갔다 왔다 이거예요. (아 그분께서) 예 내 저승에 갔는데 저 염라대왕한테 가니까 그 소위 신고를 허라고 하니까 난 하모리에서 온 강백년이라고 하니까 아 그 최판사라는 문서잡이가 아 이거 아니다. 동인리 강백년인데…….

(조사자 : 잘못왔다고…)

아 이게 잘못 왔다고 게니까 너 평생에 뭐 허느냐고 하니까 아 나는 아무것도……. 그

사람이 아주 순수하고 어진 사람이에요.

(조사자 : 아~ 예~)

어 자식 하나 늣둥이 하나 봉가서 거기에 희망을 가지고 사는 분인데 난 그렇게 나쁜 일 현 것도 없고 허니까 허난 동인리 강백년이를 잡아야 되는데 왜 하모리 강백년이를 잡아왔느냐? 그래서 넌 이제 돌아가서 뭐라고 허니까 그래서 돌아오면서 죽은 동네 사람들 만나고 온 얘기까지 헉디다.

(조사자 : 아 이미 죽은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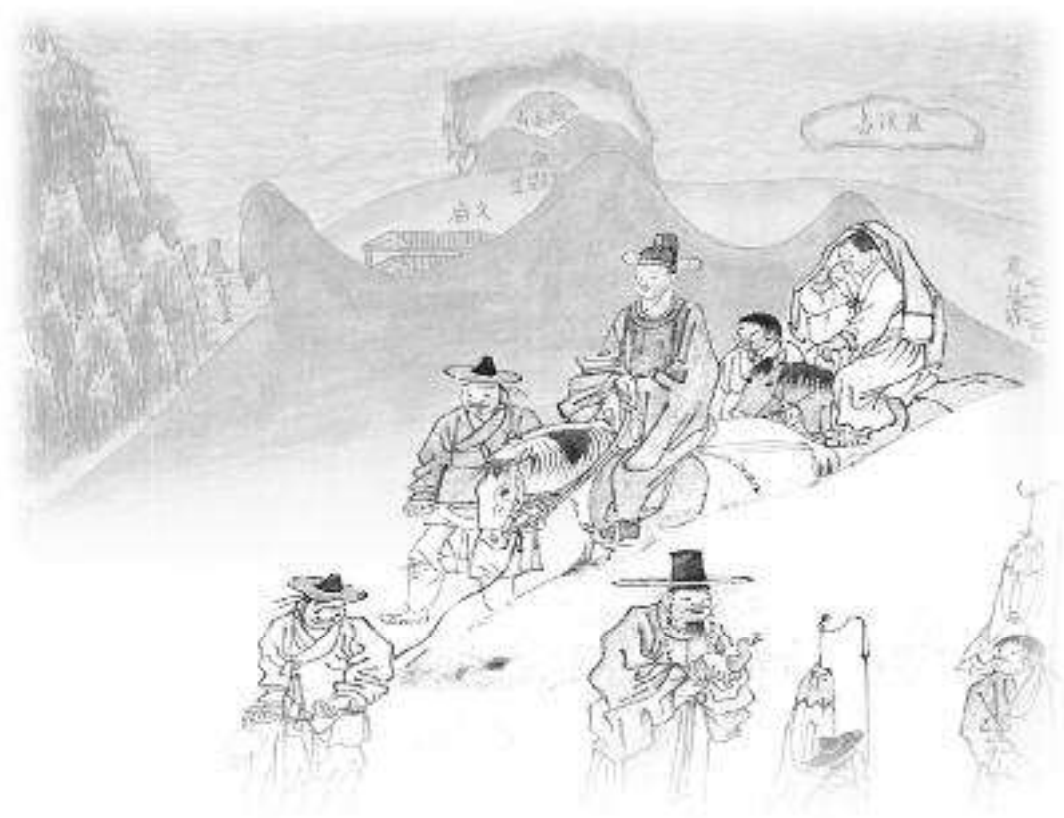
가보니까 누구는 쇠테우리하고 있더라. 그런데 그 후손들이 들으면 굉장히 섭섭하죠.

(조사자 : 예~)

누구는 아 그 좀 돈 좀 보내달랜 허드라. 아 이런 얘기까지 이렇게 모두 허드라. 해서 돌아오니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굿까지 허는 거죠. 이제 그걸 들은 사람들은. 아 그 돈 보내젠 허문 곳해서 보내는 길밖에 없는 거죠. 예 그게 우리 민속신앙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렇게 해서 굿도 허고 해서 그는 그렇게 깨나가지고. 그 우리가 죽었다고 했을 적에는 잘 모를 때고 잘 몰랐고 오래오래 사시다 우리가 알고서 그 후에 돌아가셨죠. 예. 그 조카가 아직 하모리에 살고 있습니다.조카가.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사람이에요. 저승 갔다온 얘기 전부 합니다. 강아지가 백강아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행 들어갔는데 뭐 행 이렇게 허고 행 길도 험난허고 행 갔는데 그렇게 그 염라대왕이 동인리 강백년이를 잡아오라고 했지 누가 이렇게 허라고 했느냐고 저승 그-. 차산테 여기선 채시 채시 허죠. 저승 채시를 야단쳐가지고는 당장에 돌려보내주고 그래서 동인리 강백년이는 길거리 가다가 그냥 쓰러져 죽은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영원히 죽었고 이 사람은 살아난 거예요.

(조사자 : 아~ 예~)

아마 저승 있는가? 난 잘 모르겠어요. 이상한 얘기죠?



제3장 남원읍 편



탐라순력도의 공마봉진

제3장 남원을 편

1. 수영악(水靈岳)

남원을 수망리에서 북쪽으로 6km쯤 올라가면 수영악(속칭 물영아리)이란, 높이가 500m가량 되는 오름이 있다.

이 오름 정상에는 너른 분화구가 있고, 또 그 분화구에는 늘 물이 고여 있어 연못을 이루고 있다. 이 산 동편에 있는 오름은 물이 없기 때문에 ‘여믄영아리’라 하고, 이 오름은 ‘물영아리’라 불려진다.

처음 수망리에 민가가 살기 시작한 때 일이었다.

들에 놓아먹이면서 기르던 소를 잃어버린 한 젊은이가 소를 찾아 들을 헤매다가 이 오름 정상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그러나 소는 찾을 수 없었다.

젊은이는 그 산 정상에서 배고프고 목이 말라 기진하여 쓰러져 있었다.

그때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났다.

“소를 잃어 버렸다고 상심하지 말아라. 내가 그 소 값으로 이 산 꼭대기에 큰 못을 만들어 놓을 테니, 아무리 가물어도 소들이 목마르지 않게 되리라. 너는 가서 부지런히 소를 치면서 살림이 궁색하지 않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번쩍 눈을 떠보니 이미 해는 저물어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하늘이 갑자기 어둑어둑해지더니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삼시간에 쏟아지기 시작했다.

젊은이는 놀라 허둥대는데 이상하게 자기 옷은 하나도 젖지 않고 있는 걸 깨닫고, 꿈에 본 노인의 말이 생각났다.

그 때였다.

“으르렁 쿵쿵 땅!”

하늘이 두 조각으로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불이 번쩍 눈을 스쳐갔다.

젊은이는 그냥 쓰러져 혼절했다.

뒷날 아침에야 젊은이는 정신을 차렸다. 언제 번개치고 비가 내렸었냐는 듯이 날이 개

여 있었다. 그가 쓰러졌던 산꼭대기가 너르게 패어져 있는데, 거기에 물이 가득 차서 출렁거리고 있었다.

젊은이는 마을로 내려와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부지런히 소를 쳤다. 그 후부터 그 오름은 ‘물영아리’라 불리게 되었는데, 아무리 가물어도 그 오름 꼭대기에는 마르지 않는 물이 고여 있어, 소들이 목장에 물이 말라 없으면 그 오름 위로 올라간다고 한다.

남원을 수망리, 현학수(남) 제보

2. 오리수

남원을 수망리 마을 안 서편 동네를 거쳐 흐르는 내(川)가 마을 앞에 이르러 오리수라는 다소 큰물을 이뤄 놓고서 아랫마을 의귀리로 흘러간다.

이 오리수물은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져 있다. 윗물은 식수로 쓰는데, 꽤나 넓고 그 물의 용량도 많아서 좀처럼 가물어도 마르는 일이 없어 다소 멀지마는 이 마을 사람들이 식수 걱정은 하지 않게 만든다.

그 아랫물은 마소를 먹이거나, 사람들이 목욕하고 빨래하는 물로 쓰이고 있다.

이 물에는 예전부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 옛날 구산(求山)에 미쳐 재산을 거의 날린 집안이 있었다. 그 집 큰 아들은 그 날도, 일찍 세상을 떠난 부친의 자리를 찾아 들을 헤매고 있었다. 그는 하도 여러 번 뿔자리를 옮기는 일을 하는 바람에 이제는 땅에 밝은 지관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하루 종일 들을 돌아다니다가 피곤하여 잠깐 길가에 앉아 쉬는데, 그만 잠이 깜빡 들었다.

꿈에 어떤 노인의 음성이 얼굴도 나타내지 않은 채 들려왔다.

“당신이 지금 앉아 있는 곳에 묘를 쓰면, 당대 하다못해 제주목사는 날 것이요.”

“아니,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런 건 묻지 말고, 이번을 마지막으로 구산도 끝내도록 하시오.”

어쩔 줄을 몰라 그대로 거행하기로 하였다.

“단지 유의할 일이 있어요. 하관할 때에는 귀를 숨으로 틀어막고 어떤 일이 생겨도 일을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장사지내도록 하시오. 이 점 특히 잊지 마시오.”

얼굴도 드러내지 않은 채 그 노인의 목소리는 사라져 버렸다.

큰아들은 집으로 돌아와서는 서둘러 부친의 이장을 준비하였다.

이장하는 날 큰 아들은 그날 들었던 목소리에 따라 귀를 숨으로 틀어막고 아래로 두 동생과 더불어 일에 당하였다.

그런데 일이 터지고 말았다.

막 하관을 하려고 이미 파놓은 관이 들어앉을 자리를 다시 흙을 편편하게 고르는데, 거기가 바로 큰 바위임을 알게 되었다. 팽이로 더 파려 하였으나 철판과 같이 탄탄하고 평평한 바위가 딱 들어 앉아 있는 것이었다.

큰아들은 펄떡 그 노인의 목소리가 생각났다.

“이거 무슨 일입니까, 암석 위에 아버님을 모실 수가 있습니까?”

두 동생이 뭐라고 소리 지르는 것 같은데도 형은 듣지 못했다. 단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도 거행하라’던 노인의 말만 다시 떠올랐다.

두 동생은 형이 아무런 반응도 나타내지 않자, 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래도 형은 들은 척도 안 했다.

“어떻게 할 겁니까. 하관 시간은 지나갑니다.”

일꾼이 재촉하였다. 그런데 큰아들은 그 일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자, 그만 귀를 막았던 숨을 빼어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두 동생이 길길이 뛰면서 고함지르는 소리가 귀청을 뚫을 것 같았다. 할 수 없이 동생들의 고집대로 그 바위를 파내기로 하였다.

여러 일꾼들이 그 바위 옆을 더 파 내려가 바위를 들어내려 하였다. 그때였다.

“푸드득”

하얀 오리 두 마리가 그 바위 아래에서 날아오르더니, 지금 수망리 앞 내 그물로 와 앉았다.

할 수 없이 그들은 거기에 부친을 장사 지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집 안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 큰 형은 그 물에 내려와 앉은 그 오리나마 찾으려 매일 나돌았으나 허사였다.

그 후로 그 물을 ‘오리수물’이라 불려졌다.

남원을 수망리, 현학수(남) 제보

3. 뜻을 못 펴서 죽은 날개 달린 장수

남원을 태흥리 속칭‘묵은 가름’이라는 데 몇 가구가 살고 있었다. 그 중에 한 가난한 집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었다.

그 어머니가 물 길러 가려고 아기를 아기구덕에 눕혀놓고 물을 길고 와 보니 아기가 구덕에 없었다. 그 어머니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라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아기를 찾아 헤맸다. 그러나 아기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낙심천만으로 뉘을 잃고 집으로 들어와 아기가 누웠던 그 구덕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다. 그때였다. 어디서 ‘히히’ 하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건 틀림없이 아기 웃음소리였다. 아기엄마는 가만히 방안 소리 나는 곳을 살피보았다. 그런데 아기가 바로 천장에 매달려 있으면서 자기를 찾아 걱정하는 엄마를 보고 웃고 있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이 기막힌 사건을 보고 놀라면서 그래도 아기를 찾을 수 있었다는데 안심하고 아기를 천장에서 내려놓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큰 사건이 벌어졌다. 바로 아기의 양쪽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아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아기 아버지에게 알렸다. 그리고 이 사실을 관가에 알려야 되느냐 마느냐하는 문제를 놓고 걱정을 하며 의논을 하였다.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은 사람은 후에 세상을 어지럽힐 장수가 되든지 역적질을 하든지 하므로 꼭 관가에 알려서 어린 때에 죽여 버려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 부모는 이 사실을 없는 걸로 하자고

하여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아이가 점점 자라가 장정이 되었을 때부터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했다. 마을 북쪽에 터를 잡아 불미를 길고 여러 가지 연장들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칼도 만들고 창도 만들고 총도 만들고 하여가니 소문이 났다. 결국은 관가에서 알아서 그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는 관군을 피하여 마을 북쪽 ‘연디’라는 동산에 올라앉아서 아래로 자기를 잡으러 올라오는 관군들의 동정을 살피고 있었다. 그때 관군들은 그를 맞대고 붙잡기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는 몰래 숨어서 총으로 그를 잡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연디 동산에 앉아 있는 그 장수를 발견한 군대는 총질을 하였다. 총소리에 놀라 후다닥 일어나며 그는 동산을 발로 찼다. 그 바람에 동산 꼭대기가 무너지면서 평지가 되고 말았다.

거기에서 도망친 장수는 다시 의귀리 지경에 있는 ‘녁시오름’으로 피하였다. 거기서 그는 관군들과 대항하여 싸우다가 결국 총에 맞아 죽고 말았다.

그가 죽자 마을 사람들이 그를 장사지내 주었다. 그래서 그 장수가 쓰던 것,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모아 함께 묻어 주었다.

태흥리 ‘묵은가름’이라는 데 장수 무덤이 있었는데, 일본 놈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무덤을 마구 파헤쳐 버렸다. 그때 그 무덤의 개판은 돌로 만들어져 있었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었다고 한다.

남원읍 의귀리, 양성수(남) 제보

4. 의귀리 김택(金宅) 종 논하니

의귀리 김택(金宅)에 장발 어른이란 사람이 있었다. 그가 어느 해에 서울로 과거보러 가서 어느 집에 유하는데 그 집에 매우 힘이 세고 충직한 종이 있는 걸 보았다. 현대 그 종이 너무 식성이 좋아서 그 집에서는 도저히 먹여 살릴 수가 없다고 걱정을 하고 있었다.

“그 종을 내게 넘기시오. 내가 데리고 가서 부리겠소.”

이렇게 말하자 서울 그 사람이 뿔 듯이 좋아하였다.

“정말 다행입니다. 이곳 일이라야 별 게 없는데 저런 장사를 도저히 먹일 수가 없습니다. 참 마음이 착하고 성실하긴 한데…….”

이렇게 하여 그 종이 바로 의귀리 김택으로 오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논하니’라 불렀다.

장발 영감은 그를 데려다가 우선 이 놈의 식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집안에 시켜서 흐린 조로 떡을 만들도록 하였다. 흐린 좁쌀 서 말로 소위 ‘오메기떡’이라는 걸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 그 떡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눈 깜짝 할 사이에 다 먹어 치워버렸다.

“허, 그놈 먹성이 좋구나.”

장발 영감은 속으로 놀라면서도 은근히 한마디 하였다.

이번에는 그의 일솜씨를 알아보려고 생각하였다. 어느 날 영감은 논하니에게 일렸다.

“내일은 출을 비어야 할 텐데 저 태흥리에 가서 일꾼 십만 빌어오라. 나도 이야기 하여 놔두었으니 가서 이야기만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일꾼을 빌도록 분부를 하였다.

저녁이 되자 이놈이 돌아와서는,

“내일 일꾼들이 그냥 그 밭으로 직접 가기로 했습니다. 점심이나 잘 차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와서 이야기하였다. 영감은 그의 말대로 집안에 분부하여 점심을 잘 차리도록 하였다.

아침이 되자 논하니가 자기도 일을 같이 하여야 하겠다면서 꼴 빌 밭으로 가버렸다. 영감은 점심을 하여 소에 실어 보내고 난 후, 느지막하여 일을 어떻게나 하고 있는지 그 밭으로 다다갔다. 그런데 밭 가까이 가도 일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자기가 혹 밭을 잘못 알고 왔는가 하여 되돌아와 다시 물어보았다. 틀림없이 그 밭이라 하였다. 두 번째 찾아갔을 때에는 어느덧 오후였다.

그런데 이상한 일도 다 있었다. 그 꼴 비는 밭이 보이는 동산에 앉아 담배를 한대 피워 물고 있는데 그 밭에서 독수리 떼가 밭 가운데로 휙휙 날고 있었다.

“아니 무엇을 채가려고 독수리가 저 짓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사이엔지 그 독수리 떼가 사라져 버렸다. 이상도 하다 하면서 그 밭 가까이 갔다. 이상하게도 일꾼이 아무도 보이질 않았다. 영감은 이곳저곳에서 사람을 찾는데, 밭 구석에서 코고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꼭 소 울음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가까이 가봤다. 밭 구석에 마침 햇빛이 가려져 있는 그늘에 논하니가 두 팔과 다리를 큰 대(大)자로 뻗고 누워서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고 있는 게 아닌가. 어이가 없었다. 그리고 이상했다. 꼴은 말끔히 비어서 벌써 큰 놀이 만들어져 있었다.

“야, 이놈아 어떻게 된 거야.”

영감은 발로 툭툭 잡자는 논하니를 찼다.

“웬, 일 좀하고 잠이라도 좀 자려는데 귀찮게 굴기도…….”

논하니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어떻게 된 거냐. 일은 어떻게 다 했냐.”

영감은 눈앞에서 확실하게 보면서도 도무지 믿기지 않아서 이렇게 물었다.

“보면 모르겠습니까, 다 했지 않습니까.”

논하니가 귀찮다는 듯이 크게 만들어진 놀을 가리켰다.

“일꾼들은 다 어디를 갔나.”

“무슨 일꾼들 말입니까.”

“아니, 꼴 비는 일꾼들 말이다.”

“그만한 일을 일꾼들 빌면서 합니까. 나 혼자만도 하루 일도 안 되는데…….”

“뭐, 너 혼자서?”

영감은 어이가 없었다. 이 많은 일을 혼자서 해 냈다니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논하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팔다리를 뻗고 눕는 것이었다.

“참, 저 점심 그릇들 치워 가라고 일러 주십시오.”

“너 혼자서 그 점심 다 먹었어?”

“예, 오래간만에 배 불게 먹어봤습니다. 나 잠 좀 자겠습니다.”

어느새 논하나는 코를 골기 시작하였다.

“그놈 참 먹기도 잘하고 일도 잘하는 놈이구나. 현대 이놈의 배를 어떻게 채운담.”

영감은 그의 배를 걱정하면서 혼자만 자는 논하나는 보면서 내려왔다.

남원을 의귀리, 양성수(남) 제보

5. 용감한 열부(烈婦)

도봇장수가 길을 가다가 길가에서 남자 저고리를 하나 주웠다. 또 조금 가다가 이번에는 큰 자루를 하나 주웠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마는 그저 내버리기가 아까워서 주웠던 것이다. 그렇게 하여 길을 가는데 날이 어두워 할 수 없이 어디 신세를 저야 할 형편이었다. 어디 하룻밤 머물 곳이 없는가 해서 찾는 중에 어느 외딴곳에서 불빛을 발견하였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지친 줄도 모르고 그 집을 찾아갔다.

“실례합니다. 미안하지만 묵어 갈 수 없겠습니까?”

여러 번 소리를 지른 후에야 안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어떤 부인이 나왔다.

“늦은 밤에 미안합니다만 하룻밤만 유해갔으면 합니다만…….”

도봇장수는 여자가 나와서 약간 껌스럽기는 하였으나 이것저것 가릴 형편이 아니라 다시 사정을 하였다.

“이곳에는 남자는 없고 저 혼자만 있는 집이라서 남자를 머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른 곳으로 가서 찾아보십시오.”

여자는 아주 쌀쌀하게 말하고는 문을 쾅 하고 닫아버리고 들어가 버렸다. 도봇장수는

앞일이 아득하였다. 잘못하다가는 한데서 밤을 새워야 할 형편이었다.

다시 사정을 하였다. 그러자 여자는 정말 어려워하며 들어오도록 하였다.

도봇장수가 들어가 짐을 풀고 있을 때 여인은 그 짐들 가운데서 남자의 저고리와 자루를 보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안색이 변해지며, 후다닥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식칼을 들고 나와서는 도봇장수의 목에 대면서,

“당신 바른 대로 말하십시오. 내 남편을 어떻게 하였소.”

눈에 살기를 띠고 곧 죽일 듯이 말했다. 도봇장수는 도무지 영문을 몰라서 어리둥절하였다.

“이 옷과 이 자루는 제 남편 것입니다. 쌀장사를 나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 애타는데 당신이 찾아왔어요. 당신은 내 남편을 죽인 자가 틀림이 없어요.”

여자는 조금도 틈을 주지 않고 남자에게 대들었다. 도봇장수는 모든 일을 대략 짐작하였다. 그래서 사실을 털어 놓았다.

잠시 후에 여인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말했다.

“나는 당신의 신세를 좀 져야겠습니다. 나를 좀 도와 주십시오.”

아주 간절하게 말하였다.

“무슨 도울 일이 내게 있는지 모르지만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도와 드리리다.”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서는 그때부터 화승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밤이 거의 셀 때까지 화승을 만들고는 그것을 둘이 나누어 가져 밤이 새기 전에 집을 나섰다. 도봇장수는 무슨 연유인지를 물을 수도 없었다. 화승에 불을 켜고 둘은 산속을 향해 걷기 시작하였다.

“어디를 가는 겁니까?”

이렇게 묻자, 여자는 호랑이를 잡으러 가는 길이라고만 대답을 하였다. 그 소리를 듣고는 가슴이 꿈쩍하였으나 여자가 앞장을 서는 일에 물러설 수도 없어 따라 나섰다. 산속으로 갈수록 길은 험했다. 여자는 햇불에 호랑이 발자국을 찾으면서 산길을 들어갔다.

굴속에는 이미 남자가 죽어 있었다. 옷이 갈기갈기 찢겨진 채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 있는 남편의 시체를 본 여자는 입을 꼭 다물고 그 시체를 남자에게 메어달라고 부탁하

는 것이었다. 도봇장수는 그대로 따랐다.

여자는 다시 화승에 불을 밝혀 호랑이들을 쫓아내고, 도봇장수는 죽은 남자를 업고 해서 둘은 올라갔던 산길을 내려왔다. 뒤에서는 호랑이들이 으르렁거리며 쫓아왔다. 둘은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겨우 집에까지 이르렀다.

그들은 뒤쫓아 오는 호랑이를 잡을 궁리를 하였다. 그들은 집에 들어가서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는 문 아래로 호랑이가 고개를 약간 들이밀 정도의 틈을 내어놓고 기다렸다. 예상했던 대로 호랑이는 그 틈을 이용하여 맹렬하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였다. 목을 반쯤 들이 밀었을 때 여자는 도끼로 호랑이 머리를 쳤다. 호랑이를 잡은 것이다.

날이 새자 여인은 도봇장수에게 엿저녁의 수고에 대하여 고마워하면서,

“우리 집 물건들 가운데 필요한 것을 모두 드릴 터이니 사양하지 말아 주십시오.”

간청하듯 말하였다. 이 또한 너무나 의외의 일이기에 다시 어리둥절하였다.

“제게는 모두 필요 없는 것이니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엿저녁 저를 도와 주셔서 호랑이에 대한 복수를 할 수 있게 해준 그 값으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여인은 마다하는 걸 꼭 필요한 듯한 물건들과 곡식 가마니를 그에게 억지로라도 맡겼다.

그리고는

“이제 떠나시거든 절대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안녕히 가십시오.”

여인은 도봇장수와 하직을 한 후에 안으로 들어가서 방문을 걸어 잠갔다. 그렇게 그 여인의 집을 나온 도봇장수는 어깨가 부러지도록 많은 물건을 짊어지고 길을 가면서도 여인의 일이 이해되질 않았다.

얼마를 가던 도봇장수는 아무래도 이상하여 여인의 말을 어기고 뒤를 돌아봤다.

아, 거기에는 하늘로 치솟는 불꽃이 온통 그 여인네 집을 삼키고 있었다. 그제야 여인이 죽은 남편과 함께 불속에 스스로 몸을 불태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남원을 남원리, 강00(남) 제보

6. 의귀리 경주 김택(金宅) 조상

경주 김 택이 처음 제주에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아니하여서였다. 지금 남원을 수망리에 살고 있을 때였다.

하루는 아주 초라한 행색으로 밭을 가는데 어떤 외지인이 지나가다가 목을 축일 물 한 모금을 청하였다. 밭을 갈던 김 택 선대는 마침 쉬기도 할 겸 소를 세워두고 밭모퉁이로 돌아와 물병에 있는 물을 내주었다.

“물 잘 마셨습니다.”

이렇게 고마운 인사를 하고는 그냥 가려하다가 돌아서서는,

“어떻게 생활이 살 만 합니까?”

이렇게 느닷없이 물었다.

“보다시피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곳은 아직도 사람이 살지 않은 곳이라서 땅도 박해서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가 산 한 자리 보아드릴 터이니, 생각이 어떠시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선친께서 돌아가셔도 변변한 밭자리 하나 얻지 못하여 임시 모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김 택 선대는 밭 갈다가 그냥 두고서 그 사람을 따라갔다.

그 사람은 바로 호종단이라는 유명한 풍수사로서 중국 왕의 명을 받아 제주의 명산 대혈을 파혈하려고 온 사람이었다.

둘은 한라산 쪽으로 얼마를 들어가서는 지금 김 택 선묘가 있는 속칭 ‘반디기밭’에 이르렀다. 호종단은 한 곳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이곳을 꼭 밟고 있어야 하오. 만약 밭을 움직이거나 들어버리면 큰일이 납니다.”

단단히 주의를 시킨 다음 그는 더 위로 올라가 버렸다.

그런데 지정해 준 그 곳을 밟고 있으려니 이상하게 밭바닥이 근질근질 가려워오기 시작하였다. 조금 있으니까 밭바닥이 뜨거워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호종단이 그렇게 신신당부하였는데도 밭을 떼어놓고 말았다. 그랬더니 바로 그 자리에 구멍이 뿜 뚫어지더니 청비둘기 한 쌍이 푸드득거리며 아래로 날아가 버렸다.

얼마 후에 호종단이 와서는 그 사실을 알고는 애석해 하면서도,

“그만해도 쓸만한 뭇자리요. 그러니 이곳에 장사를 지내시오.”

그리고는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는 청비둘기가 내려와 앉은 곳을 정해주며 이곳에 집을 지어 살되 산 나무를 그대로 기둥을 삼아 집을 지으라고 당부하고 가 버렸다.

김 댁 선대는 그 호종단이 시키는 대로 그 자리에 부친을 이장하고, 다시 수망리에서 내려와 그 아랫동네로 집을 이사하였다.

그 당시만 하여도 지금의 의귀리는 온통 나무숲으로 뒤덮여 있었다. 집터를 정리하다 생각하니 산나무로 기둥을 하라는 부탁이 생각나서 기둥 세울 나무를 그냥 거기 있는 나무를 베지 않고 그냥 썼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마당에 곡식을 널면 얼마 없어서 구름이 끼고 안개가 끼서 도저히 곡식을 말릴 수가 없었다. 다행히 이곳으로 이사를 하고 난 후에는 곡식도 잘 되어서 생활은 그런 대로 퍼지는데 이 일이 큰 걱정 아닐 수 없었다.

하루는 어떤 지나가는 포수가 하룻밤 묵어가길 원하여 그에게 유숙하도록 허하였다. 저녁을 마치고 이 말 저 말 한담을 하다가 곡식을 말리지 못하여 애를 먹는다는 말을 지나가는 소리로 하였다.

“그래요. 그 문제는 제가 해결하여 드리지요.”

손님은 간단히 이렇게 대답하고는 잠자리에 들었다. 뒷날도 날은 흐려서 꼭 비가 올 듯하였다. 멀리 다른 지대에는 날이 맑은데 이곳만 안개가 끼고 축축하고, 습기가 잔뜩 낀 날씨였다.

그때였다. 마당 앞에 큰 느티나무 위에 큰 독수리가 한 마리 척 앉아서는 집안을 기웃 기웃 엿보고 있었다. 그 독수리는 늘 날이 이처럼 안개가 끼고 비가 올 듯한 날이면 저 나무에 앉아 있곤 하는 걸 주인은 늘 보아왔다.

그때였다. 포수의 손은 어느새 활을 꺼내 그 독수리를 겨누고 있었다. 주인이 말릴까 하는데, 획 화살 날아가는 소리가 나더니 무엇이 ‘툭’하고 마당에 떨어졌다. 느티나무에 독수리는 간 데 없고 마당에는 한 마리 큰 여우가 나동그라져 있었다. 그 독수리는 바로 여우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다시 일어났다. 그렇게 잔뜩 끼어있던 안개가 어느 사이엔지 천천히 걷히고 날이 개이면서 별이 짹짹 내려 쪼이기 시작하였다.

“이제는 날씨 때문에 곡식 못 말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 손은 말을 마치고는 활을 챙겨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인이 다시 말을 붙여볼 여유도 주지 않고 그는 밖으로 사라졌다.

그로부터 얼마 없어서였다. 밤에 어떤 지나가는 여자가 들어와서 하룻밤 묵어가길 간청하였다. 여자이고 해서 집에 들어놓는 것도 이상하지마는 밤이 깊은 때라서 어디 다른 데 갈 곳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허락하였다.

그 여자는 매우 미인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날이 밝아도 떠날 생각을 아니하여서 그렇게 며칠을 머무는 사이에 둘은 인연이 되어 부부가 되었다. 그렇게 부부로 살다가 한번은 그 여자가 친정엘 다니러 나갔다.

친정집에서는 그 딸 보고,

“우리 집 그 좋은 말이 집을 나가서 찾질 못하고 있으니, 너희도 말을 많이 기르고 있어 혹 같지도 모르니 잘 살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였다.

그 말을 듣고 집에 와보니 참 이상한 말이 한 마리 들어와 있었다. 주인의 말에 의하면 어느 날 대낮에 보지 못했던 말이 마당 안으로 들어와서 그냥 기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 뒤로부터 계속 일어났다. 그 말이 들어온 후부터 모르는 말들이 한두 마리씩 매일 집으로 들어오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온 말이 한 서른 마리 이상이 되었다.

어느 날 친정에서 딸이 사는 것을 보려고 집에 들렀다가 그 말들을 보고는 놀랐다. 그것은 모두 잃어버려 찾던 그 말들이 모두 이 집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위로부터 말들이 들어온 내력을 듣고는,

“아마 이 집에 태운 말일 거라. 그냥 말아서 기르지.”

이렇게 선선히 서른 마리나 넘는 말들을 사위에게 주어버리고 말았다.

그 후부터 경주 김 댁에는 말이 잘 되었다. 재산이 점점 불어가서 나라에 좋은 말을 진상하였다. 그 일을 가상하게 여겨서 나라에서 감목관의 벼슬을 내려서 대대로 그 직책을 세습하여, 온 섬에 그 혈족들이 많이 번창하여 큰 씨족을 이루었다.

남원을 의귀리, 양성수(남) 제보

7. 고 대정(高大靜)과 부 장령(夫掌令)

고 대정과 부 장령은 어릴 때부터 동문수학한 사이로서 죽마고우였다. 두 사람은 제주에서 글을 읽고서 과거를 보려고 같이 서울로 올라갔다. 서울에 올라간 그들은 지체 있는 대감 댁에 머물면서 글을 읽고 선비들과 사귀면서 과거를 준비하였다. 그때만 해도 과거에 급제하는 일은 단지 글을 많이 읽어서만 되는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일부러 지체 있는 대감 댁에 머무르고 있었다.

서울로 올라간 두 해 만에 과거를 보았다. 다행히 부 장령은 등과를 하였고 고 대정은 낙방하였다. 그래서 부 장령은 전라도 어느 고을에 원으로 부임하였다.

제주에 사는 그 부 장령(현감)의 부친은 아들이 과거에 등과하여 고을 원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들을 만나보기 위하여 떠났다. 아들이 원으로 있는 고을에 거의 이르렀을 때였다. 바로 길가에 어떤 젊은이가 꿇어 엎디어 있었다. 부 장령의 부친은 그 모양이 하도 이상하여 그 젊은이에게 그 연유를 물었다.

“어떤 일로 그렇게 꿇어 엎드려 있는가?”

“예, 소인은 바로 어르신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젊은이는 고개를 들지도 않고 기어드는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아닌가.

“나를 기다린다고? 무슨 사연이 있기에 나를 기다린다는 말인가?”

부 장령 부친은 이곳에 자기를 기다리는 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는 아들이 보낸 사람이 나 아닌가 하고 은근하게 물어 보았다.

“예, 소인은 이 고을에서 전에 이방 노릇을 하던 자이옵니다. 두 달 전에 파직이 되어 있습니다. 황송하오나 어른께서 힘써 주시면 다시 복직이 될 수 있을 거라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을 듣고 보니, 딱한 처지인 것도 같았다. 그래서 벼슬이 좋긴 좋은 것이라 생각이 들었다. 벌써부터 자기에겐 이런 청탁이 있으니 이 얼마나 신나는 일이냐고 생각하였다.

“어르신네께서 이것 아주 약소합니다만, 이걸 거두어 주시고 제 사정을 들어 주십시오.”

젊은이는 돈 꾸러미를 내놓았다.

“그거 얼마나 되나?”

부 장령의 아버지는 호기 있게 말하였다. 돈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하였다.

“예, 소인에게 있는 것 모두입니다. 겨우 삼백 냥 입니다만…….”

“그래, 내가 힘써 보지.”

부 장령 부친은 돈 꾸러미를 받아 허리에 둘러차고 아들을 찾아갔다.

부 장령은 기뻐하며 부친을 맞아들였다.

“내 너에게 청이 하나 있다.”

인사를 받고는 부친은 대뜸 아들에게 그 이방 복직건을 내놓았다.

“아버님,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당치 않습니다. 이미 전관이 파직시켜 놓은 이방을 뒤에 온 원이 다시 복직을 시킨다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들인 부 장령은 아주 단호하게 그 일을 거절하였다.

“야, 이놈아, 애비가 처음 부탁하는 일인데 그렇게 박정하게 거절할 수가 있단 말이야. 네가 글 읽도록 하여 과거에 등과하면 내가 덕을 좀 보려하였는데 첫 마디부터 거절이라니 순 껌한 놈…….”

부친은 노발대발하였다.

“그래도 안 됩니다. 이것은 금하는 일입니다.”

“원 미련한 놈 다 봤다. 이 나라 어느 관리가 그렇게 깨끗하다더냐, 어느 관리가 법대로 공사를 처리한다더냐. 그리고 이 일은 아니 하여 줄 수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그 놈에게 돈을 삼백 냥 이나 받아 놓았는데 어떻게 그냥 넘길 수 있겠느냐.”

부 장령은 한참이나 생각하다가,

“예, 복직은 시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파직입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그 이방을 다시 복직시켰다.

그러자 새로 부임한 원이 돈을 받고 전관이 파직시킨 자를 다시 복직시켰다는 소문이 조정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의금부에서는 그 사실로 하여 부장령을 포박하고 서울로 압송하게 되었다.

한편 부 장령과 함께 서울에 올라가 과거를 준비하던 고 대정은 일도 잘 안되고 해서 그럭저럭 세월만 보내는 차에, 죽마고우인 부 장령이 공사를 잘못하여 죄인으로서 서울

로 압송되어 온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관운도 없는 놈,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나.”

고 대정은 자기 일처럼 가슴이 아팠다. 그는 생각다 못하여 급한 때에 대비하여 간직해둔 돈 삼백 냥을 갖고 주인 대감을 찾았다.

“대감님 황송합니다만 제 청하나만 들어 주십시오.”

대감 앞에 꿇어 엎디어서는, 소문으로 들은 부장령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이제는 과거고 뭐고 다 싫습니다. 제가 과거를 하면 뭘 하겠습니까. 친구가 죄인의 몸으로 있는데……. 이거 제가 간직하고 있는 돈의 전부 이옵니다. 이걸로 대감께서 애써 주시면 은혜 백골난망이겠습니다.”

주인 대감은 사정하는 고 대정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고는 돈 꾸러미를 거두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낮이었다. 고 대정은 어수선했던 마음을 달래려 외출했다.

돌아오는데, 어전 사령이 자기 이름을 부르며, 그 집을 찾고 있었다. 그러나 고 대정의 생각에는 어전이 자기를 찾을 리가 없으므로 그냥 들어와 버렸다. 그날 저녁이었다. 그는 천만 뜻밖에 주인 대감으로부터 벼슬길에 오르게 되었다는 전갈을 받았다.

“어전 사령이 자네를 찾으러 이 근방에 돌아다니다 그냥 돌아간 모양인데, 자네 내일 입궐하여 임명장을 받도록 하게. 아마 자네 고향인 대정원 자리를 상감께서 특별히 마련하신 모양이야.”

고 대정은 도무지 모든 것이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부 장령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대감께 묻자,

“내일 어전에 가면 알 수 있을 거야.”

뒷날 고 대정은 도승지로부터 대정원의 사령장을 받는 자리에서 부 장령을 만났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영문을 몰라 하는 고 대정에게,

“다 자네의 우정 덕분이야. 자네가 나를 구하기 위하여 있는 돈을 모두 털어 주인 대감께 부탁하지 않았다. 대감께서 이 일을 너무 기특하게 여기셔서 상감께 아뢰었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더 높은 벼슬에 앉게 되고 자네까지…….”

고 대정은 그 모든 사연을 알 것 같았다. 그는 친구를 위하는 마음으로 대정원을 얻고 금의환향을 하게 되었다.

남원을 신례리, 양봉인(남) 제보

8. 의귀리 김택의 막산이

의귀리 경주 김택 종인 막산이는 힘이 장사였다. 그러나 그는 하도 배가 컸기 때문에 배 그득히 밥을 먹어보지 못하고 살아야 하였다.

어느 늦가을이었다. 김 택에서는 꼴을 거뒀을지 못하여 걱정을 하고 있었다. 워낙 마소가 많아 겨울 내내 먹일 꼴은 상당하였다. 그렇게 걱정하는 걸 본 막산이는,

“점심이나 한 쉬남은 사람 먹을 것을 준비하면 내가 일꾼을 빌어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주인에게 아뢰었다. 그 때는 하도 바쁜 철이어서 샅을 주어도 일꾼을 빌지 못할 처지였다.

“그래, 점심을 준비시킬 테니 일꾼을 빌도록 하여라.”

막산이는 걱정 말라고 장담을 하였다.

“내가 놉(일꾼)을 데리고 가서 일을 하고 있을 테니 점심은 틀림없이 하고 와야 합니다.”

막산이는 주인에게 신신 당부하고는 먼저 일하러 밭으로 나갔다. 낮이 되어서 준비한 점심을 여러 여종들에게 잔뜩 지워 일하는 꼴밭으로 보냈다.

밭 가까이 이르렀으나 일하는 것을 볼 수 없었다. 밭에 이르러 보니 막산이만 밭 구석에 잠만 자고 있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이요? 이렇게 잠만 자니! 주인에게 혼 좀 나 봐야 하겠어.”

여종들은 한편 놀랍고 기가 막혀서 이렇게 엄포를 놓았다. 잠자던 막산이는 눈을 비

벼 싹고 힐끔 쳐다보더니,

“원 걱정도, 짐 진 놈이 팡을 찻주 (짐을 진 사람이 쉴 곳을 찻는다는 말). 그 점심이나 놔두고 어서들 가시오.”

한 마디 하고는 다시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종들은 그냥 돌아와서는 주인에게 아뢰지 않을 수도 없어서 사정 이야기를 하였다.

얼마 있다가 주인은 하도 이상하여 밭으로 나가 보았다. 막산이가 거짓말할 위인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밭 가까이 이르렀을 때였다. 멀리 밭 가까이 하늘에 까만 까마귀 떼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이상했다.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생각하면서 밭에 이르렀다. 놀라운 일이었다. 어느 사이엔지 이미 꼴은 말끔히 베어져 있었고 벌써 그것을 묶어 던지고 있었다.

까마귀 떼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바로 그가 묶어서 던지는 꼴 묶음이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은 준비해 간 그 점심을 혼자 몽땅 먹어 치운 일이었다.

주인은 그때부터 막산이 능력을 알게 되었고 그의 식성도 알았다. 그런데 그때부터 큰 걱정이 일어났다. 아무리 일은 많이 한다하더라도 도저히 그의 배를 채울 수가 없었다. 부자인 의귀리 김덕에서도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 내쫓아 버리고 말았다. 그 집에서 나온 막산이가 안덕면 창천리 강덕에 갔다는 이야기도 있다.

남원읍 의귀리, 김영원(남) 제보

9. 파혈된 고 좌수 무덤

옛날 남원읍 위미리 윗동네 고 좌수란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부자이고 인물이 뛰어나 그 주위에서 큰 세도를 부리며 살았다. 성질이 모진 데가 있고 워낙 힘이 장사여서 관아어세도 함부로 대하질 않았다. 더구나 그는 욕심이 많아서 한번 마음먹은 일은 꼭 이루고야 말았다. 더구나 재물 같은 것도 탐이 나는 것이 있으면 꼭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리곤 하였다. 그래서 인심이 좋은 편이 못 되었다.

그는 정의고를 좌수를 지내었는데 늘 위미에서 정의고을이 있는 성읍을 말을 타서 왕래하였다.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얼근하게 술을 마시고 성읍에서 위미로 오다가 길에서 죽고 말았다. 동리 사람들은 심술이 안 좋은 그의 죽음에 대하여 은근하게 고소해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상가에서는 고 좌수의 장례를 위하여 육지에서 지관을 청했다가 구산을 하려 하였다.

지관이 와서 보니까 집안이 세상 사람들에게 대하여 그게 인심이 좋지 않을 걸 알았다. 그래서 좋은 땅을 구해줄 생각이 나질 않았다. 그런데 그런 지관의 마음을 눈치 챈 이 집 며느리가 아무 말 없이 지관을 성심으로 대접을 하였다. 지관도 상가에 있는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으나 며느리의 융숭한 대접과 그 마음씀은 대단하다고 생각하였다. 어디 두고 보자고 지관은 그 집에서 몰래 밖으로 나가질 않고 100일을 살았다. 그래도 얼굴 표정 하나 안 바꾸고 며느리는 성심으로 대접을 하였다. 이에 그 지관도 탄복을 하여 좋은 뒹자리를 봐주려고 집을 나섰다.

며칠을 한라산 남쪽 변변한 곳은 다 돌아다니다가 한 곳을 정하였다. 그는 이곳을 정하여놓고 며느리에게 조용하게 말했다.

“이곳에 장사지낼 때에는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게 하여, 혼자서만 하관을 하는 데 충직한 종 한 놈만 들여 보내어서 일을 마치도록 하시오.”

이렇게 신신당부한 후에 다시 며느리를 불러 귀에 대고 은근한 말로 지시를 하였다. 임시 트롱을 했던 시신은 제대로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 하관 때가 되니 며느리가 일가 어른들에게 말하기를,

“어르신네들, 지관이 특별하게 말한 일이 있어서 하관은 저만 알아서 할 터이니 그리 양해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자 일가 어른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였으나 지관이 이른 말이라 하니 그대로 이행하지 않을 수가 없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 때 상주는 둘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열아홉쯤 되었고 둘째는 더 어렸었다. 그들도 어머니 혼자서 그렇게 일을 치르

시는 일에 대하여 더 이상하게 생각하질 않았다.

며느리는 힘이 세고 충직한 종 하나를 부르고 하관하는 것이 밖으로 보이지 않게 장막을 쳤다. 누구도 그 안을 넘겨다보지 못하게 하였다.

하관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진 관을 얹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종이 눈을 휘둥그레 뜨고 며느리를 보자, 이게 다 지관이 지시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렇게 장사를 마쳤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장사를 지내고 한두 해가 지나면서 그 아들들의 힘이 몰라보게 세어지기 시작하였다. 아이들 스스로가 힘이 불끈불끈 솟아 주체하지 못하여 자꾸 밖에 나가 싸움을 하거나 힘내기를 하곤 했다. 어느 사이에 그들 형제가 아주 장사라는 소문이 정의 지방에 널리 퍼졌다. 며느리는 생각하기를, 그 뒷자리가 아마 장수가 날 뒷자리로구나 생각하였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두 아들을 조용하게 불러들였다.

“너희들 명심하여 들어라. 이진 너희 선친의 뒷자리를 정해준 지관의 부탁이기도 하다. 아무리 힘이 솟고 마음으로는 세상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생겨도 사람은 때를 만나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 때가 올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였다. 그러나 아이놈들은 차차 방자하기 시작하였다.

며느리는 마음을 한 시도 놓을 수가 없었다. 지관이 돌아가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3년 안에 무덤을 열거나 이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부탁한 것도 생각하였다. 그런데 그렇게 힘이 자꾸 솟고 의협심이 점점 그 아들들에게서 일어나자, 큰아들은 이 좁은 제주 땅에서 어떻게 살겠느냐면서 서울로 올라가 버렸다. 집에 남은 작은아들의 행동은 방자하기 이를 데 없게 되어갔다. 어머니가 자주 타일러도 듣질 않았다. 아버지도 없고 형도 없으니 모든 게 제 마음대로였다. 더구나 늙고 충직한 종들에게 대한 태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난폭하기까지 했다. 그래도 집안을 모두 일으켜 놓은 그들인데 이렇게 되자 종들도 마음이 편하질 못했다. 더구나 제일 늙은 종인, 그 하관 일을 같이한 종의 마음은 더욱 그랬다.

“이놈아, 제 애비 시신을 뒤집어 묻은 주제에 왜 그리 까부는 거야.”

어느 날 그 늙은 종은 너무나 사람을 몰라보고 방자하게 구는 그 둘째아들, 즉 이제는 그의 유일한 상전인 그를 향해 마지막 제일 가슴 아픈 말을 한마디 하고는 훌쩍 집을 뛰

쳐나가 버렸다.

그 말을 들은 둘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버지를 뒤엎어 모시다니, 이게 어디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래서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어머니, 이게 사실입니까. 어떻게 이런 불효를 범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불효까지 내세우면서 어머니를 공박하였다. 어머니는 사실을 말하였다. 지관이 신신당부한 일이며, 그런 모든 일이 이 집을 흥하게 하기 위한 일이라고 누누이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것을 들어먹을 아들이 아니었다. 아들은 어머니의 간곡한 설득을 듣지 않고 그 아버지 무덤을 파헤치기 시작하였다.

무덤을 다 파올 때였다. 관은 보이지 않고 큰 황새 한 마리가 뒷발을 세우고 막 날려는 자세로 있다가 개판을 열자마자 후드득 날아가 버렸다. 모여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그러나 이미 옆질러진 물이었다.

며느리는 이제 집안이 다 망했다는 것을 곧 알아 차렸다. 그래서 큰아들이 낳은 두 살 난 어린 것을 며느리에게 신신당부하였다.

“며느리야, 이제 이 집은 곧 풍비 박산이 될 거다. 그러니 네가 이 집안의 대를 잇도록 각별하게 처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는 손주를 며느리에게 주어 어디 멀리 피신을 하도록 당부하였다. 그리고 얼마 없어 서울로 간 큰 아들이 중죄를 지어 관아에 잡혔다는 소식이 왔다. 그 소식이 있는 지 얼마 없어 관아에서 달려들었다. 역적의 집안이라는 것이었다.

집안을 살살이 뒤졌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집안을 뒤진 관원들은 생각지도 않은 물건들을 다 꺼내는 것이었다. 그 중에는 담배씨도 한 섬이나 있었고, 더구나 화약이 석 섬이나 있었다. 이것은 필시 역적을 도모하는 데 쓰기 위하여 마련해 놓 것이 아니냐는 데는 별말이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 집은 망해버리고 말았다.

남원을 남원리, 강 OO(남) 제보

10. 허택(許宅) 젊은이 이야기

옛날 허택에 오형제 아버지가 사이좋게 살았다. 하루는 형제가 대정에 무역(보리 사리)을 갔는데 미시때가 되어 배도 고프고 다리도 아파 길가 큰 돌 위에서 쉬고 있었는데 마침 마을 젊은이들이 몇 사람 다가오더니 어떤 놈들이 함부로 아무데나 궁둥이를 대는 고... 고안놈들 하며 너희들 그 죄를 면하려거든 헛바닥으로 돌을 핏든지 아니면 돌을 들어 옮기든지 하여라 하였다.

형제들은 허로 핏기는 싫고 형은 그 돌을 번쩍 들어 구렁텅이에 획 던져버렸다. 청년들은 깜짝 놀랐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돌은 청년 셋이 들어도 못 드는 돌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던진 돌을 위로 올려 놓아라 소리쳤다.

이번에는 아우가 구렁텅이에 던져진 돌을 번쩍 들고 위로 획 던져 놓았다. 그제서야 청년들은 과연 장사보다 하여 "형님으로 모십니다" 하고 친절히 안내했다.

이 분은 허태구 씨의 고조 허진공과 허대희 오대조 허열공이다.

제공 : 양남학씨 제보

11. 장수 무덤

옛날 소서물옆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그 장수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뼈대가 크고 이가 이미 나 있었다고 한다. 하루는 애기구덕에 아기를 눕혀 놓고 물을 길러 갔다와 보니 애기구덕에 아기가 없었다. 이때 어머니는 겁이 나서 방안을 살펴보니 기어 다니지도 못하던 애기가 벽장 위에 올라서 놀고 있지 아니한가! 그 어머니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애기 아빠나, 다른 사람이 올려 놓은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얼마 후에는 또 애기구덕에 아기를 눕혀놓고 뜰에 김을 매고나서 애기구덕을 보았더니 애기가 없으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다.

눈에 불을 켜고 문을 급히 열고 나오려 하는데 얼핏 보니 천장 옆에 붙어 있었다. 그

어머니가 살짝 애기를 안고 와서 자세하게 살펴보니 겨드랑이에 날개가 붙어 있지 않은가! 옛날에는 장수가 태어나면 죽여버릴 때이니 그 어머니는 소문이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형집으로 겨드랑이를 싸매고 키웠다고 한다. 장수가 6~7살 되었을 때에는 키가 8척 이상 되었고 힘이 장사라 소서물을 한 쪽 발로 뛰어 넘고, 아무리 큰 나무라도 한 손으로 쑥 뽑아 버렸다고 한다.

이렇게 큰 장수를 관가에서는 군사를 동원하여 잡으려 하자 그 장수는 먼저 알아채고 도망가는데 모세물에서 옷귀가름까지 뛰어 옥귀오름 가운데 주저 앉으니 오름이 팍 파지면서 낮이 나가고 다시 연대동산으로 한 번에 탁 뛰니 연대동산이 무너졌으며 그 후 진흔 혼수에 가서 숨었다고 한다.

그렇게 장수가 난동을 부리니 관가에서는 잡을 도리가 없어서 그 어머니와 아버지한테 가서 아들(장수)을 안 잡아주면 삼족을 멸하겠다고 하니 그 아버지는 독한 술을 아들(장수)에게 먹여 잠들게 한 뒤, 군사들에게 고하자 군사들은 먼저 겨드랑이에 나 날개를 자르고 죽였다고 하는데 관가에서는 죽여도 마음을 놓지 못하여 관을 돌로 다듬어 만들고 봉분은 큰 돌과 자갈로 만들었다고 한다. 이로부터 오름이 낮이 나갔다고 하여 낮이 오름이라 하였고 연대동산이 무너졌다하여 ‘물러진 연디’라 하였으며 장수가 마지막으로 숨었다 하여 진은수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다고 한다.

12. 장사(壯士) 오창열(吳昌烈)

오창열 공(吳昌烈公)은 1860년에 출생하고 1943년에 사망하였으니 83세의 수를 살았다. 그 당시는 현대와 달리 장사에 관심이 적었고 국민체육이 보급되기 전이라 힘이 얼마나 센지 과학적인 근거는 찾을 수 없다. 구전에 의하면 공은 장정 10여 명의 힘을 쓸 정도로 대단했다 한다. 한지도(속칭:신례1리사무소 저쪽넷가)에 연자매를 설치할 때다. 장정 10여 명이 연자매를 창돌 위로 올려 놓지 못하여 궁궁하고 있을 때 공께서는 한쪽 어깨로 어렵지 않게 받쳐 올려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한 일이 있었고 한 번은 선묘 주위에 의귀리 경주 김씨 집안에서 묘를 쓰려 하자 그 당시 모습으로 뗏자리를 다투던 시대라 양가에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다.

당시 김씨 집안은 권세가 대단하여 선묘 들어 가는 입구 지역에 장정을 배치하여 열 켤 못하게 하였다. 공께서는 족형 몇 분을 모시고 현지에 당도해 보니 장사 지내기 위한 개광작업이 한창이고 경계가 삼엄하였다. 현지에서 양가 간에 싸움이 벌어졌는데 개광하던 팽이를 호미 다루듯 했고 찻대 (상여 밑에 쓰는 크고 긴통나무)를 막대 다루듯하여 수 명의 장정들을 때려 눕혀가자 이쪽 일가에서 살인 날 것이 두려워 공을 묶어 버렸다 한다. 그 후 김씨 집안에서 보복이 무서워 회유책으로 공의 집안이 빈곤한 것을 알고 사람을 보내어 양곡을 주기로 하였다.

전갈을 받은 공께서는 큰 창맥(양곡을 담은 짚으로 짠 그릇)을 갖고 의귀리에 있는 김씨 집안으로 갔다. 김씨 집안에서는 한 사람이 등짐으로 지고 가는 것이라 대단한 양이 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콩 20말을 지고 나오자 과연 혼자 지고 가는지 사람을 보내어 미행해 보게 하였다. 얼마를 오다 콩을 짊어진 채 소피를 보자 혀를 내두르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공께서는 평소에는 무명혁대는 약해서 사용 못하고 총베(말총으로 만든 질기 베)를 사용했고 그시절은 대체로 의·식 해결이 어려운 시절이라 명절때를 제외하고는 늘 시장기를 느꼈다고 한다. 공의 후손으로는 서귀포시 호근동에 거주하는 당손인 만송 씨와 하효동에 거주하는 봉익 씨가 있다.

자료제공, 족친(族親) 오만수

13. 옷귀 설촌과 호종단

중국 명나라의 복주 땅 출신인 풍수지리사 호종단이 임금의 명을 받고 제주의 혈(穴)을 떠 출중한 인물의 탄생을 원천봉쇄하려고 제주섬에 들어와 맥을 더듬어 대혈 중의 하나인 반득전 정통에다 압침하고 나서 입도맥에도 여지없이 압침을 하고는 바닷가로 이어진 맥을 따라 내려가고 있었다.

그 때 수망리에 사는 경주 김씨 집안 노인 한 분이 선천을 여의고는 복중이라 상복차림으로 목이버섯을 따러 반득전 숲으로 들어가 이리저리 살피는데 굵은 철침이 땅에 깊숙히 꽂혀 있으므로 무심코 뽑아 버렸다. 분명히 대혈을 누르면서 내려오는데도 전혀 맥이 죽지 않아 이상하게 여긴 호종단은 거슬러 올라갔다. 역시 압침이 뿔뿔히 있고 웬 상복차림의 노인만이 무심하게 목이버섯을 따고 있었다. 혹시 침을 뽑았느냐고 물었더니 아무리 말 못하는 땅이기로서니 생땅에 침을 꽂아놓은 게 좋아보이지 않아 뽑아 버렸노라고 노인은 대답했다. 호종단은 그의 인상을 살펴보니 천복을 타고 났던 것이다. 그는 노인에게 자신이 한 일이며 노인이 무심코 뽑아 버린 압침이 하늘의 뜻임을 깨달았다면서 그곳을 제혈해줄 것이니 선친의 묘를 쓰라고 했다. 그러면 당대에 발목하여 자손 번창하고 영화를 얻어 거부가 되리라고 하면서 노인이 천복을 타고 난 덕분이라고 한 후, 노인에게 발에 힘을 주어 지맥을 밟고 있으라고 했다.

노인이 호종단이 시킨 대로 밟고 있으려니 발바닥이 뜨겁고 진동이 워낙 심하여 그만 발을 조금 움직이니 땅속에서 비둘기 한 쌍이 솟구쳐 하늘 위로 날아올라 한 마리는 서쪽으로 날아가고 한 마리는 남쪽으로 날아갔다. 이에 호종단이 말하기를, 어쩔 수 없잖느냐 남쪽으로 날아간 비둘기가 앉은 자리에 집을 지어 살라, 이 묘터는 비둘기가 날아가 버리긴 했어도 아직도 혈맥이 따뜻하니 기가 살아 있다면서 예정 대로 선친의 묘를 쓰라고 했다. 그 후 노인의 아들이 조선조 선조 33년(서기 1600년)에 남쪽으로 날아간 비둘기가 앉은 수망리 남쪽, 바로 옷귀에 집을 짓고 이주하니 마을의 설촌의 시초가 되었다.

그 당시는 숲이 우거지고 가시덤불만이 뒤덮인 황무지였다. 그러나 이주해 와 개간을 하자마자 농사가 잘 되어 재산이 불어났다. 그의 아들이 바로 현마공신으로서 세습하여 감목관 벼슬을 지낸 김만일이다. 그는 국가에 큰 변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재산을 털어

나라에 충성하고 지역민을 돌보니 그의 자손들도 대대로 그렇게 하였다. 김만일 이후 무려 12대에 걸쳐 83명이 감목관 직을 세습했는데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였다. 1724년 제주에 대기근이 들어 모두를 굶어 죽게되자 대길의 손자 남현이 비축미 1,340석을 풀어 구휼하니 그 공을 찬양하고 보답하라는 뜻으로 1752년 영조 임금은 자신의 옷 한 벌을 그의 가문에 내려보낸다. 그 이후 임금의 옷을 하사 받은 마을이라 하여 마을 이름을 옷귀라하고 한자 표기로는 의귀리(依貴里)라 했다 한다.

14. 양애왓

광산 김씨 제주 낙향조의 11대 손이 제주 고씨 딸을 배필로 맞아 서기 1700무렵에 의귀리 양애왓에 정착하여 두 아들을 두었다.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좌수(座首)벼슬을 살았는데, 하도 세상이 문란하여 도적떼가 들끓었다. 육지에서 난리를 치던 한 떼의 도적무리가 제주섬에 침입하자 제주목사는 양 좌수로 하여금 도적떼를 소탕하라는 명을 내렸다. 이에 도적의 뒤를 쫓던 중 산방산에서 그 무리와 맞닥뜨렸다. 막 도적을 잡으려는 순간 노루 한 마리가 뛰쳐나와 산속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이를 본 도적의 두목은 한 달음에 달려들어 노루를 잡고는 그 자리에서 시퍼런 칼날을 세워 배를 가르더니 간을 꺼내어 칼 끝에 꿰고 양좌수의 입에 갖다대었다. 양좌수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도적 두목이 내민 노루의 간을 태연하게 한 입에 먹어치웠다. 그러자 두목은 "나를 잡을 만한 배짱이 있고 힘이 있으니 기꺼이 포승을 받겠소"라고 무릎을 꿇었다.

‘학구향토지,의귀초등학교,1987,에서 원용

15. 신례2리 - 영등할망(靈登)의 전설

매년 정월 보름이면 영등할망이 우리 마을 영등물에 들어왔다가 3월 보름날 나간다. 영등할망은 들어오면서 미역 씨, 전복 씨, 소라 씨 등 각종 해조류의 씨앗을 갖고 와 바닷속에 뿌리게 되는데, 이 때 뿌리는 양이 많으면 해산물이 풍년이 들고, 적으면 흉년이 든다는 것이다. 들어올 때는 며느리나 딸을 데리고 오는데 며느리를 데리고 들어오는 해는 영등할망이 머무는 기간 동안 날씨가 좋지 않다고 했다. 그 이유는 딸은 날씨가 좋아야 입성 불리게(옷을 입고 자랑함) 하기 위함이고 며느리는 날씨가 나빠야 밖에 나가 지 못하고 집안에서 길쌈을 시키기 위함이라고 하니 고부간의 갈등은 동서고금은 물론 그 신(神)의 세계에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정월 보름에 들어온 영등할망은 3월 보름날은 영등물을 떠나 소섬을 거쳐 돌아가게 된다. 영등물을 떠난 영등할망은 조진여를 거쳐 소섬쪽으로 이동하면서 전복이나 소라 등을 잡아먹고 빈 껍데기는 그대로 바닷속에 버린다. 그런데 3월 보름을 전후해서 바닷속에는 빈 전복껍질이나 빈 소라껍질이 해녀들의 눈에 자주 보인다니 자연의 섭리가 묘한 것 같다. 이 때가 시기적으로 해산물의 생태와 관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신의 조화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이 전설은 주로 해녀들에게서 전해진 내용이며 그 근거를 확인할 수도 없고 영등굿 같은 어떤 행사도 치른 적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제주도의 다른 지방의 영등할망 전설과도 차이가 있다.

16. 설촌하신 할아버지의 전설

설촌하신 金鳴煥 할아버지는 4형제 중에서 막내로 형 못지않게 어렸을 때부터 명철한 분이셨다. 나이 10대에 하루는 형님들이 과거시험을 치르러 가는 것을 알고 형님들 몰래 형님들의 행방을 따라 과거시험에 응시하려고 집을 나섰다.

가는 길에 하루해가 저물고 어느 주막에 딸린 마굿간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명한 할아버지를 잠깨워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는 주막의 주부였다. 주

부가 마굿간에 있는 명환 할아버지를 보고 누구냐고 물었을 때 저 쪽 방에 계신 분들이 형님이라고 말하고, 과거시험에 응시하러 간다고 말하면서 형이 무서워서 몰래 숨어 있다고 말했다.

주부는 영문도 모르고 기뻐하면서 금방 자기꿈에 우리 마굿간에 수많은 예쁜 꽃들이 만발하게 피어서 이상하게 생각하여 마굿간에 오게 된 동기를 말했다. 이어 주부는 내일 아침에 형님들과 같이 과거시험에 응시해 보라고 몇 번이나 권유하였다.

날이 밝자 아침을 마굿간에서 먹고 형님들과 같이 주막을 떠났다. 과거시험 현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응하려고 나와 있었다. 이윽고 시험은 시작되었다. 이번 과거 시험은 활쏘기 대회였다. 각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활을 쏘았으나 낙제, 이번에는 큰형님 차례였다. 그러나 낙제, 둘째형도 역시 낙제였다.

이번에는 명환 할아버지 차례로 힘껏 활을 당겼다. 이게 어쩐 일인가. 명환 할아버지가 쏜 화살이 명중되었다. 형님들은 물론 다른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명환 할아버지는 이 화살은 아무나 뽑지 못할 것이라 말을 하자 더욱 놀라며 뽑으려고 대들었으나 아무도 뽑지 못해 제일 마지막으로 어떤 여자가 그 화살을 뽑았다.

알고 보니 그 여자는 烈女로써 소문이 난 분이었다. 그래서 그 화살을 烈女만이 뽑았다 하여 烈女 활이라 하였으며, 명환 님이 근검치부하였으나 無后하여 聖智 님을 입양하여 문학가이며, 전답도 광대하고 축산도 300여 두이고, 여객선과 어선 8척을 별도 포구에 두고 조천 포구에 4척을 두어 자손들까지 육지 출입이 빈번하여 큰 부자라 하는 말로 전라도 갑부라 운운하기도 하였다. 이 전설은 명환 할아버지의 六代 孫婦 慶州 金義의 전설이다.

제공자 金義(설촌한 할아버지의 육대 손부)

17. 빌레가름

260여년 전 제주 고씨 시조 고을나 70대손 복성(福星) 삼읍유림통정대부첨지중추부사(三邑儒林通政大夫僉知中樞府事)와 진원(振遠) 향공진사도훈장(鄉貢進士都訓長) 부자가 서귀 서흥리에 살았는데 아들 진원이 정의현청 교수관으로 재직할 당시 서흥리와 성읍리 중간쯤 되는 냇가 마을에 현(玄)씨 집성촌이 있어 종종 그곳에서 밤을 지내곤 한 인연으로 그곳의 한 규수와 혼인을 하여 두 아들을 두었다.

어느 날 갑자기 진원이 세상을 떠나니 현씨 부인은 친가에 의탁하고 살아가던 중 한 지관이 이르길, 한남리 아무 터가 백년대계할 집터라고 일러줬다.

한동안 잊어버리고 지내다가 집안에 잦은 우환이 있어 가세가 기울니 서기 1846년에 장성한 두 아들을 데리고 이주를 했다. 와 보니 사람 살기에 적합한 땅이 아니었다. 암반만 질펀할 뿐,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암반 틈에 서 있는 두 그루의 동백나무 밑동에 짚을 둘러 ‘흙’을 만들어 그 물을 마시며 개척하여 나가면서 주변에 동백나무 울타리를 조성하는 한편 아들들에게 글공부를 가르쳤다. 이에 이들이 장성하여 후손을 보니 별죽하게 되었고 유림촌을 형성하였다고 한다.

18. 벌러니코지와 이무기

애초에 이 곳에는 높이가 무려 70척이 넘는 석벽이 솟아 있었다. 그 지형지세가 비룡전에 용이 앉아 바닷가의 여의주를 바라보고 있는 형상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책을 받아 앉아 공부하는 사람의 상과 비슷하다 하여 문필봉형(文筆峰形)이라고도 했다.

어느 날 이 마을의 세도가 집안인 김씨, 즉 큰집에서 일본인 전문가를 초청하여 석벽을 폭파하여 부숴 버렸다. 한 지관이 큰집터와 선묘터를 보고 논산(論山)해 본 바, 바로 그 석벽으로 인해 자손이 단명하고 재산이 흩어지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석벽은 굉음을 발하며 폭파되었고 뒤를 이어 검은 구름이 피어오르는, 부서진 석벽 그루터기에는 어마어마한 이무기가 거의 용의 형태를 갖춘 채 죽어 있었던 것이다. 1,000년을 그 석벽 밑

에 살면서 용이 되어 승천하기를 기다리다가 그만 뜻을 이루기 직전에 죽고 말았으니, 그 한이 오죽하겠는가. 그 후로는 위미리에서 큰 인물이 나오지 않았고 출중한 인물이 배출되었다 하면 단명해 버리기 일쑤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오직 후손이 번창하기를 원하여 자연을 거스르는 짓조차 마다하지 않았으니 큰집은 손이 끊겼다고 한다. 이 후 사람들은 석벽이 부셔져 버린 이곳을 일컬어 '벌러진코지'라고 하였는데 변형되어 '벌러니코지'라고 불리워진다 한다.

19. 마매기 당(堂)과 큰한집

원래 위미리 큰당은 고망물 머리에 있었는데 해마다 정월 초이튿이 되면 마을 공동으로 제사를 지내곤 했다. 수복이는 이 당지기로 종의 신분이었는데 어느 해 6월 아들이 '큰한집' 즉 마마에 걸려 생명이 위독했다.

큰한집 귀신은 심술이 사납고 고약하여 무엇이든지 청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병든 이의 생명을 빼앗는 무서운 존재였다. 수복의 아들 몸에 들어간 큰한집 귀신은 한여름인데도 당유자를 청하였다. "이 한여름에 당유자가 어디 있느냐"고 사정하고 달래어도 막무가내로 우기면서 "큰댁 김 훈장 집 고팡 향아리 속에 있으니 당장 가져오라"고 불호령을 쳐댔다. 수복이 각시는 자식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세도가 당당하여 평소에 상것들을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면서도 김 훈장을 찾아가 사정 이야기를 했다. "추석명절에 쓸 제수로 마련해 둔 것을 어찌 중놈 자식에게 준단 말이냐"고 한마디로 거절했다. 수복이 각시는 신세를 한탄하며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자초지종을 다 말하니, "좋다, 두고 보자"라고 한마디 하고 돌아눕자마자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리고 이레쯤 지나서였다. 김 훈장네 두 아들이 한꺼번에 큰한집에 불을 질렀다. 처음에는 장난삼아 불을 질렀는데 당집이 불에 타는걸 보고 겁이 나서 불을 끄려다가 그만 불에 타 죽었다. 활활 타는 불길 속에서 하얀 비둘기 세 마리가 하늘 높이 솟구쳐 날아 올랐다. 그 비둘기들은 위미리 마을 위를 몇 바퀴 돌다가 한 마리는 마매기동산으로, 또 한 마리는 예촌망으로, 나머지 한 마리는 보목리로 각각 날아가 앉았다. 세 아이는

크게 될 인물이었는데 김 훈장이 세도를 잘 못 부린 때문에 일찍 죽고 만 것이다. 그 후 이들 세 영혼이 비둘기로 환생하여 날아가 앉은 곳에 당을 설립하였다고 한다.

20. 도훈장(都訓長) 양공 국장(梁公 國璋)의 일화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인 1780년 경에는 계속되는 흉년으로 인하여 식량난이 심한 때여서 식량을 탈취하려는 강도들이 성행했었다. 이 무렵 한 강도가 역귀통(逆歸統) 양치룡(梁致龍)의 집에 있는 식량을 탈취할 목적으로 그로부터 남쪽으로 약 500m 떨어진 속칭 ‘갈남통’어느 집을 밤중에 방화하였으므로 동네 사람들이 진화하기 위해 출동한 틈을 이용하여 목적인 양치룡 집에 침입하여 식량을 약탈하고 이때 “도둑”이라고 외쳤을 것으로 짐작하는 아기업계를 무참히 죽이고 도망쳐 버렸다.

이 집 주인은 진화 후 귀가하여 방문을 열고 들어서니 피 냄새가 나면서 발에 무엇인가 걸리므로 불길한 예감에서 불을 켜 보니 아기업계는 목이 잘린 채 죽어 있고 방안은 피가 낭자하였으며 그때 다섯살인 아기(국장-國璋)도 없어졌다. 아기를 부르며 한참 찾다보니 굴묵(방 때는 곳) 속에 숨어서 화를 면하여 살아있었다. 이때 집주인은 이 사실을 정의고을 관가에 고발하니 관가에서 직접 현장 조사해 본 결과 너무나도 잔인한 흉악한 범행이었으므로 범인을 잡기 위해 전도에 범인의 인상착의를 알리고 범인을 잡은 사람에게 벼슬을 주기로 하는 현상까지 걸었다.

그 후 사방에서 용의자가 잡혀왔는데 이때마다 아기를 관가로 불러서 원님 무릎에 앉힌 채 이놈이냐고 물으면 고개를 저으면서 그런 놈이 아니라고 토렷토렷이 대답했다. 용의자 여럿을 대질시켜도 아니라 하므로 범인 잡기를 거의 포기한 상태에 이르렀을 무렵 하례리에 사는 허(許)모란 사람도 힘이 장사였는데 범인을 잡을 목적으로 유심히 거리를 살피면서 돌아다니고 있을 때, 하루는 이 허(許)씨가 지금의 호근리와 홍리 사이에 있는 속칭 ‘원통과원’쪽의 샘물가에 흥악하게 보이는 사람이 발견되었다. 곱슬머리에 얼굴이 시벌정고 눈도 붉은 놈이 옷옷을 벗고 이를 똑똑 잡고 있었다. 허(許)씨는 이놈이 범인일 것으로 단정하여 붙잡을 계획으로 숨을 죽여 접근하여 큰 돌로 그놈의 어깨를

내려치니 힘이 센 강도였지만 갑자기 당한 일이라 기진하여 쓰러지니 이놈을 포박하여 정의고를 관가에 바쳤다. 이에 또 다시 5세인 아기국장(國璋)이를 불러가게 되었다.

전과같이 원님은 무릎에 앉힌 채 저 놈이냐고 물으니 쳐다보고는 으앙하고 울면서 기절하여 버렸다. 원님은 이놈이 범인임을 알아차리고 문초를 하여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처형하였다. 강도를 잡은 허(許)씨에게는 ‘성장(城將)’이라는 벼슬을 주어 치하하였으니, 그 분의 묘는 신례리에 ‘허가의 산좌전’이라 하여 지금도 그 이름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 국장(國璋) 아גיע게는 붓과 벼루, 먹을 상으로 주면서 아기가 성장하면 한양으로 보내어 공부시키라는 당부까지 하였다. 이 후 국장(國璋)씨는, 공부는 제주에서 했으나 신례에서는 처음으로 도훈장(都訓長)을 지냈고 한양을 자주 왕래하면서 관·훈·상·례의 모든 예법을 배워와서 보급하니 예촌하면 예법이 밝은 고장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지금도 200여년 전에 쓴 가승(家承)이 가보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 가승(家承)에 근거해서 실묘(失墓)했던 14세, 15세의 선묘(先墓)도 찾게 되었다.

－ 또한 서기 1601년 (조선 선조 34년)에 문충기(文忠基)가 주동으로 반란하여 문씨 가문이 역적으로 몰리게 되자 후손들이 화를 면하기 위해 비석을 숨겨 버림으로 실묘했던 성주공(星主公) 18세 양수진(梁壽津)의 배(配)인 문씨 할머니 묘도 이 양국장씨가 퇴메 동산에 소를 먹이러 갔다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산담 위에 앉아 부싷돌을 찾기 위해 돌담을 꺼내다가 숨겨 두었던 문씨 할머니의 비석을 발견하여 실묘(失墓)했던 묘를 찾게 되었다 한다.

자료제공, 6세손 양석주(梁錫周) 정리 8세종손 양정보(梁正寶)

21. 당의 유래

옛날에 분파하던 한남리에 주주선조의 대수를 해아려 보면 십사오대 가랑 되었으니, 약 470여년 전 일이다. 맨 처음 허씨 성을 가진 분이며, 관직은 정승 벼슬을 지낸 분이 상마위요, 역시 허씨 성을 간진 허자백이라는 사람이 하마위를 하남으로 데리고 이곳에 들어와 정착하였으며, 토목과 호적병사를 다루는 분이며 ‘호적차지, 장적차지’라 했다. 가족은 아내와 아들 7형제를 두고 살던 중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아내와 자식을 잘못 했다고 해서 마라도로 귀양을 보내 버렸다. 그리고 다른 여자를 구해서 아내로 삼았다. 작은아내가 된 소첩은 이 사실을 듣고 남편에게 고하였다. 왜 처와 자식을 버렸는가? 처 자식을 데려다 같이 살자고 자꾸 청을 하니 정승이 응하였으므로 첩은 배를 타고 마라도에 찾아가 큰부인에게 사실을 고하며 7형제를 데리고 제주도로 들어와 입항하면서 큰부인에게 말하였다.

“형님은 바다가 익숙하니 바닷을 자방 읍써. 날랑 아이덜 ㄷ랑 앞에 가시쿠다.”

큰부인은 그러자고 하였고 작은부인(소첩)은 아들 일곱 형제를 데리고 앞서 집으로 돌아왔고, 큰 부인은 바룻(오분자기)을 잡고 그 후에 집에 돌아왔다. 그런데 여섯 형제는 돌아왔는데 막내가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큰부인 생각에는 '소첩이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버렸구나'하고 탈기를 하며 자식을 찾으러 밤낮으로 헤매었다.

이렇게 헤매다 보니 목이 말라 목에 불이 붙을 지경이었다. 그래서 물을 찾아보아도 찾지 못하고 있는데 마침 멧돼지가 지나간 발자국에 번질 번질 고인 물이 있어서 그 물을 먹으니 ‘아구 더러워 도새기(돼지) 똥 오줌 냄새여! 부정하단다’고 하였으니 입에서 그 냄새가 하루 종일 풍기며 가시지 아니 하므로 지금까지 그러한 예로써, 당팻에 가는 사람은 하루 전날부터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당이 있는 자리는 원래 있었던 자리가 아니고 처음에는 옷밤이 수월위 끝에 설벽 앞에 설치하였으며 두 번째는 고분당 마루에 이사하여 세웠으며 세 번째는 당팻 머럭 큰 폭나무 아래로 세워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지금도 외지에 나갔던 사람들은 매년 음력 12월 12일이면 당을 찾아 평안을 기원한다고 한다.

22. 당돌왓과 허 좌수 이야기

원래 지금 하례리 481번지에 신을 모시는 당이 있었는데(이곳을 알당돌왓이라 한다), 1700년경 정의현에서 허 좌수가 구한질(정의현 때 동서로 다니던 한길)로 말을 타고 서쪽으로 가던 중 무당들이 당굿을 하고 있었다. 굿을 하는 앞을 지날 때는 하마(下馬)를 해야 하는데 좌수는 심방의 말을 듣지 않으며 심방이 그대로 지나시면 몇 리를 못가서 흉이 난다 하였다.

허 좌수는 억센 기상으로 자만하여 떠났는데 지금 효례천(한지남금)을 넘자 말의 발이 부러졌다. 허 좌수는 화가 나서 돌아와 그 신을 내여 놓아라 하니 무당이 신은 말을 잡아 제물을 올려야 신이 나타난다 했다. 그래서 허 좌수는 말을 잡아 올리고 무당은 신바람 나게 굿을 했더니 큰 구렁이가 혀를 널름거리며 슬슬 기어 나왔다.

허 좌수는 바로 이때다 하여 단칼로 그 큰 뱀의 목을 잘랐다. 붉은 피를 뿜으며 세 마리의 비둘기가 날았다. 한 마리는 북으로 날아 하례 경 지금의 '당가름'에 앉고, 한 마리는 동으로 날아 위미리 마메기동산에 앉고, 또 한 마리는 보목리로 날아 '조노기'에 앉았다.

각각 예촌본당, 위미 마매기본당, 보목리 조노기 본당이 되었다 한다. 그런데 당가름에 자리잡은 신령은 밤마다 동쪽 마을에서 닭우는 소리와 개짖는 소리가 사나와 있을 자리가 못된다 하여 조용한 걸서오름 매역밭으로 옮겼다. 이것이 오늘의 매역밭 예촌본당이라 한다.

이 이야기는 조선왕조의 국시가 숭유억불정책으로 시행된 '음사철폐령'에 따라 1702년 제주목사 이형상이 절500, 당500을 없앴다는 말과 연관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제4장 성산읍 편



탐라순력도의 수산성조

제4장 성산읍 편

1. 성산 일출봉(城山 日出峰)

성산리(城山面 城山里) 바닷가에 한 덩어리의 거암(巨岩)으로 이루어진 산이 돌출해 있다.

이 산은 성산봉, 또는 성산 일출봉(日出峰)이라 한다. 이 산은 제주도의 맨 동쪽에 위치해 있어, 그 봉우리 위에서 일출을 보는 것을 영주십경(瀛州十景)의 하나로 치기 때문에 이 이름이 붙은 것이다.

이 산은 주위가 깎은 듯한 기암절벽이 되어 솟아올랐고, 그 정상(頂上)은 우묵하게 패여져 분지(盆地)를 이루었다. 이 분지의 주위는 형형색색의 암봉(岩峯)으로 둘러 있는데, 그 수가 아흔 아홉이라고 한다.

만일, 그 봉오리가 1백이었다면, 제주에도 호랑이·사자 같은 맹수가 날 것인데, 하나가 모자라 아흔 아홉이기 때문에 호랑이도 사자도 아니 난다고 한다.

성산읍 고성리, 金文何 모친 제보

2. 용궁올레와 칼선드리

신평리(城山邑 新豐里)경 해안에는 용궁(龍宮)으로 들어가는 대문이라고 불리는 ‘용궁 올레’가 바다 속에 있다.

또, 이 해변에는 용의 머리처럼 생긴 기암괴석들이 즐비하게 늘어 서 있기 때문에 ‘용 머리’라고도 한다.

여기에는 바로 남해용궁(南海龍宮)으로 가는 길이 있다. 그래서 날이 가물 때는 정의향교(旌義鄉校)에서도 이 곳으로 와서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었다.

‘용머리’ 앞 바다 속에는 일직선으로 기다랗고 깊은 골짜기가 형성되어, 유독 그 부분만 물이 파랗다. 이것이 바로 용궁으로 들어가는 대문(올레)이다.

이 곳은 다른 곳에 비하여 물 속이 매우 깊을 뿐 아니라, 용궁으로 들어가는 대문이라고 하여 신성시해 왔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해녀들이 그 곳만은 함부로 범하지 못해 왔다. 그런데, 옛날 이 마을에 송씨 해녀만은 ‘용궁올레’에 가서 많은 해산물을 채취해 온 때가 있었다. 송씨 해녀는 해녀작업도 잘 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을 뿐 아니라, 용감하여 무서워하는 곳도 없었다. 어느 날 ‘용궁올레’에서 송씨 해녀가 해녀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큰 전복이 하나 보였다. 그 전복은 너무나 깊숙한 물속에 있었다. 숨이 모자라서 떠오지 못할 것만 같았다. 그런데 바로 앞에서 웬 강아지가 어서 오라는 듯이 꼬리를 흔들며 대었다. 송씨 해녀는 ‘이런 세상도 또 있을까?’ 생각하며 사방을 둘러보는데 공주 같이 어여쁜 미녀가 앞으로 다가섰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저는 정의고를 신평리에 사는데, 해녀작업(물질)을 하러 와서 전복을 캐다가 정신이 아찔하여 깨고 보니, 여기에 와 졌습니다.”

“여기는 남해용궁이요, 세상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는 곳인데 당신이 여기에 온 것을 우리 용왕이 알면 돌아가지도 못하고 죽고 말 것이요, 그러나 내가 당신을 봐 주겠으니, 어서 요 길로 해서 다시 인간세상으로 돌아가시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인간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소.”

“그게 뭡니까?”

“절대 뒤를 돌아봐서는 안됩니다.”

송씨 해녀는 용궁 미녀의 말대로 인간세상을 향하면서도 다시 한번 더 아름다운 용궁을 구경하고 싶은 욕심에서 살짝 뒤를 돌아보자마자 갑자기 앞이 캄캄해져 버렸다.

이 때, 송씨 해녀 앞에 용궁 수문장(守門將)이 툭 나타났다. 수문장의 눈동자는 부리 부리 무서웠다.

“네가 감히 어떻게 여기엘 왔느냐?”

송씨 해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실대로 말하고는,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간절히 빌기

시작했다.

“제가 인간 세상에 나가지 못할 경우에는 집안에 늙은 부모가 걱정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죽어 버리면, 늙은 부모들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몇 살이나?”

“우리 시아버님은 아흔 살이고, 시어머님은 여든 살입니다.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참, 나도 늙은 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인데…”

딱하다는 표정이었다. 수문장은 옆 사람과 소곤거리고 나서는, “당신을 마땅히 죽여야 하겠지만, 늙은 부모가 있다기에 보내 준다”고 하며 어서 나가라고 했다.

수문장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송씨 해녀가 이 용궁에 들어올 때 처음 만났던 강아지가 나타나서 이리로 오라는 듯이 꼬리를 흔들며 대었다. 그 강아지 뒤를 졸졸 따라서 용궁에서 나와 보니, 바로 전복을 캐려던 ‘용궁올레’였다.

송씨 해녀가 용궁에 갔다가 무사히 돌아왔다는 소문이 퍼지고 퍼졌다.

그 뒤로 여기가 바로 용궁으로 가는 대문이라 하여, ‘용궁올레’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리고, ‘용궁올레’ 바로 옆 물 위에는 10여m 정도의 칼날같이 우뚝한 바위가 하나 솟아 있다. 이 모양이 칼이 선 듯하다고 해서 ‘칼선덕리’라고 한다.

이것은 남해용궁에서 세상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막아 놓은 다리라는 것이다.

성산을 신흥리, 吳文福(남) 제보

3. 혼인지 (婚姻池)

삼성혈(三姓穴)에서 솟아난 세 신인(神人)이 수렵을 하며 온평리(城山邑 溫平里) 경(境)에 이른 때였다. 우연히 바다를 보니 무엇이 떠오른 것 같았다. 그것이 해변으로 다가왔다.

자세히 보니 석함(石函)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무언가 귀중한 것이 틀림없다!’ 고 생각한 세 신인들은 일제히 쾌성(快聲)을 올렸다. 그래서 온평리 바닷가 이름을 ‘쾌성개’라고 한다

‘쾌성개’에서 쾌성을 지른 세 신인은 석함이 떠오르는 바닷가로 내려가니, 물결에 출렁이며 석함이 물으로 떠올라 왔다. 이곳을 ‘오통’이라고 한다. 석함이 떠왔다고 해서 ‘오통’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석함이 물으로 올라올 때 사신(使臣)이 말을 타고 먼저 올라오고, 이어서 세 처녀가 오곡(五穀)의 씨와 송아지 망아지 등을 이끌고 올라왔다.

세 신이 올라오면서 첫발을 디딘 말 발자국이 지금도 있다. 바닷가 물결이 출렁대는 평평한 바위에 흡사 발자국 같이 패어 있는 것이 그것이다. 여기를 ‘쾌성개’라 한다.

온평리에서 남쪽으로 약 500m 떨어진 곳에 ‘흰죽’이라는 못이 있다. 세 신인은 세 처녀와 더불어 이 못에 가서 목욕을 하고 혼인식을 올렸다. 그래서 이 못을 혼인지(婚姻池)라 한다. ‘흰죽’이라는 이름은 ‘혼인지’의 음이 변한 것이 아닌가 한다.

혼인지 바로 곁에 자그마한 굴이 있는데, 여기는 세 신인들이 혼인하고 같이 잠을 잔 곳이라고 전한다.

성산읍 온평리, 현장수(남) 제보

4. 영산이골

난산리(城山邑 蘭山里)에서 조금 산으로 올라가면 ‘통오름’(峰)이 있고, 바로 그 옆에 ‘영산이골’이라 일컫는 골짜기가 있다.

이곳을 두고 ‘영산이골’이라는 지명이 붙게 된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옛날 오조리(吾照里)에 강씨 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의 부친이 돌아가시자 우선 출빈(出殯)을 해 놓고, 지관(地官)을 청해 다가 밋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명당자리를 찾기란 이만저만 힘겨운 일이 아니었다. 100여 일 동안 야산을 헤매 다녀도 적당한 자리를 찾지 못하여 고심하는 판이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집안의 마소를 돌보는 영산이라는 목자(테우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는 목자답지 않은 말을 주인에게 건네는 것 이었다.

“아이고 상전님! 그렇게 석 달씩이나 찾아다녀도 제대로 밋자리 하나 못 찾는 것 같사 온테, 내가 한 자리 봐 둔 곳이 있사오니 한번 가서 보시지요.”

종놈이 주인에게 하는 말이 조금은 빈정대는 듯도 하나, 원래 착한 놈이라 당장 크게 욕할 수는 없었다.

“에그 자식! 버릇없는 소리 어른들 앞에서 함부로 지껄이는 게 아니다. 네가 뭘 안다고 밋자릴 봐 뒀다고 하느냐?”

목자와 주인이 주고받는 말을 지관도 옆에서 듣고 있었다.

“아이고, 저… 공자(孔子)님도 어리석은 사람을 선생으로 삼고, 아기엿저지(애기엿게) 말도 귀넘어듣지 말라고 했는데, 내일은 아무래도 산으로 가는 김에 한번 가서 보지요, 주인장.”

“그렇게 하시죠.”

이튿날에는 약속대로 모두 산으로 올랐다. 목자는 지금의 영산이골로 주인과 지관을 안내하여 자기가 봐 뒀던 밋자리를 가리켰다.

“여기올습니다.”

지관은 눈이 뚫어지게 그 주위의 지세(地勢)를 한참 살피고 나서는,

“아이고, 이렇게 좋은 명당자리를 찾지 못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헤매 다니기만 하고, 이거 아주 명당자립니다”고 말했다.

주인은 무척이나 기뻐다. 과연 그 자리에 부친을 안장(安葬)시키니 명당 자손들이 곧 태어나는 듯 했다.

세월은 흘러 영산이는 그 집에서 일생 종살이를 마치고 죽고 말았다. 일가친척은 물론 한 점의 혈육도 없는 터라, 그 주인집에서는 선조의 뒹자리를 찾아 준 공적을 생각하여 바로 그 선조의 뒹자리 옆으로 가서 묻어 주었다. 그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은 지금까지도 선조의 묘에 가서 묘제(墓祭)를 올릴 때에 영산이 묘에도 꼭 묘제를 지내 오고 있다.

그래서 그 지경은, 영산이라는 종이 본 뒹자리가 있고, 또 그의 시신이 묻혀 있는 곳 이기에 지금도 이 지방 사람들은 그 골짜기를 두고 ‘영산이골’이라고 한다.

성산읍 신평리, 吳文福(남) 제보

5. 구진개와 추근디 못들

신평리(城山邑 新豐里)경 해안에는 ‘구진개’라고 하는 자그마한 포구(浦口)가 하나 있다. 바로 그 포구 앞바다는 물발이 세차서 항해하던 배가 파선되는 예가 많았었다.

그래서 이 ‘구진개’는 바로 왜구(寇)들이 도망쳐 나가려고(進) 했던 포구(개)라는 데서 그 명칭이 유래되었다.

예로부터 제주도는 왜구들에게 늘 침탈을 당해 왔는데, 이 마을도 예외는 아니었다.

어느 해 왜구들은 지금의 구진개에 배를 세워 놓고 이 마을로 쳐들어 와 돼지·솔·의복 등을 훔쳐 배에 가득 싣고 포구를 빠져 나가려고 했으나, 갑자기 썰물이 나자 물발이 세어서 도망칠 수가 없게 되었다. 왜구들은 하는 수 없이 물으로 올라와 한라산으로 도망치고 있었다.

마을 청년들은 왜구들의 뒤를 쫓았고, 미리 알아차린 정의고을 군사들은 산으로 도망

치는 왜구들의 앞을 막아 진을 치고 있었다. 왜구들은 마치 독안에 든 쥐들이었다. 그들은 우리 아군들에 의하여 모두 생포 내지는 섬멸되고 말았다.

그래서, 왜구들이 도망치려고 하다가 물발이 세어서 도망칠 수 없었던 포구라고 해서 지금도 그 포구를 ‘구진개’라 하고, 여러 군사들이 추격하여 섬멸시켰던 곳을 ‘추군디막들’이라고 한다.

성산을 신평리, 吳文福(남) 제보.

6. 시흥리 현씨 남매

약 5백 년 전, 심돌((城山邑 始興里)이 현 위치에 부락이 이루어지기 전 일이다. 당시는 두산봉(斗山峰:멸피) 뒤쪽 '대섬머세'라는 곳에 인가(人家)가 몇이 있을 뿐이었는데, 이 때 현(玄)씨 부부가 여기에 살고 있었다.

현씨는 자식을 낳으면 힘이 센 자식을 낳아야 하겠다고 늘 생각했다. 그래서 어느 해 부인이 임신을 하자, 계속 소를 열 마리나 잡아 먹었다. 아들을 낳으리라고 믿고 열 마리씩이나 잡아 먹인 것인데, 낳은 것을 보니 딸이었다. 현씨는 '아차!' 했다. 이 딸아이의 힘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다음에 또 부인이 임신을 했다. 다시 현씨는 소를 잡아 먹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홉 마리만 잡아 먹이기로 했다. 그러나 아홉 마리를 잡아 먹이고 나서 생각해 보니, 혹시 딸을 다시 낳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마리라도 아껴야 하겠다고 해서 이번엔 아홉 마리로 중단했다. 낳은 것을 보니 아들이었다. 현씨는 '아뿔사!' 했다. 이 아들도 힘이 세었다.

당시 대섬머리에 살 때에는 현재의 시흥리(始興里)입구에 있는 '큰물'이라는 샘물을 길어다 먹었다. 현씨의 딸도 남과 같이 허벅으로 이 물을 저 날랐다. 그 길은 좁고 험한 길이었다.

어느 겨울, 설한풍이 몰아치는 날, 현씨 딸은 허벅에 물을 지고 그 길을 오르고 있었

다. 몰아치는 눈발을 헤치며 가다 보니 산에서 내려오는 사슴 한 마리가 눈앞에 딱 마주 쳤다. 그때는 인가가 많지 않은 때였으니, 한라산의 사슴들이 눈을 피해서 해변까지 흔히 내려왔었다. 사슴은 사람을 보자 길을 꺾어 도망가려 했다. 현씨 딸은 허벅을 진 채 훌쩍 내닫더니, 뛰는 사슴을 앞질러 가서 두 뿔을 잡고 뺨 돌았다. 사슴은 벌렁 쓰러지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사슴을 잡아 돌려메고 돌아가니, 현씨도 과연 딸의 힘에 놀랐다 한다.

이 무렵, 김녕리(舊左邑 金寧里)에서 씨름판이 벌어진다는 소문이 들려 왔다. 현씨는 이 기회에 아들의 힘과 딸의 힘을 견주어 보고 싶었다. 그래서 아들을 씨름판으로 보내고, 뒤이어 딸을 남장(男裝)시켜 쫓아가 보라 했다.

씨름판은 현씨 아들을 이기는 자가 없었다. 완전 독판을 모는 것이었다. 현씨 아들은 기세가 등등하여 휘둘러 가니, 여기저기서 수군수군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군중들은 ‘와아!’하고 일어섰다. 정의(旌義)놈이 모관(牧內)에 와서 독판을 치다니, 이놈 발길질(발모듬)을 해 버려야 하겠다는 것이다.

이 때 남장한 누님이 툅 나셨다.

“보자하니 보잘 것 없는 놈이 남의 마을에 와서 독판을 모니 이게 될 말이나. 나하고 붙어 보자.”

씨름이 붙었다. 누님인 줄을 모른 현씨 아들은 가소롭다는 듯 달려들었다. 그러나 소열 마리를 먹고 낳은 딸이 이길 것은 뻔한 일 이었다.

동생을 쓰러뜨린 누님은 군중을 향해 말했다.

“난 저 모관(牧內)서촌에 사는 사람인데, 정의 놈이 와서 독판을 모니 목안 사람으로서 껄뽀하여 가지고 붙어 보니 하찮은 놈이로군. 그대로 내 버립시다(기냥 내 뱉주).”

그제야 김녕(金寧)사람들의 울분이 가라앉았다. 이렇게 하여 동생의 위기를 구해 주었다.

성산읍 시흥리, 양기빈(남) 제보

7. 심돌 부 대각

심돌(城山邑 始興里)에 ‘부 대각’이라는 장사가 있었다. 그의 아들도 또한 힘이 세었으니 ‘부주사’라 불렸다. 아버지 부대각은 경자생이고, 부주사는 갑자생이었다.

부 주사도 몸집이 워낙 커서 소소한 문으로는 출입을 못하였는데, 아버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세인이 ‘호부견자(虎父犬子)라 했으니 부 대각의 풍채는 가히 알 만하다.

부 대각은 심돌 동네 어귀에 살았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집 곁 큰 팽나무 밑에 나와 기침을 ‘어험’ 한다. 그러면 심돌 상하 동민들은 누구나 그 기침 소리를 알아듣더라고 한다. 그만큼 음성도 컸었다.

부 대각은 심심하면 거리에 나와서 ‘우리 추렴하주’하여 그 나이 또래 벼들과 돼지를 잘 잡아먹었다. 추렴은 밋이서 돈을 모아 돼지 따위를 잡아 갈라 먹는 일이다. 부 대각이 제안하면 그의 벼들은 거절하는 법이 없었다. 그래서 돼지가 크든 작든 간에 서너 명이 앉으면, 그 자리에서 말끔히 먹어 치웠다 한다. 아마 반 이상을 부대각이 먹었을 게 분명하다.

부 대각은 육지 장사를 자주 다녔다. 미역을 싣고 가 팔고 쌀을 사 오는 것이었다.

어느 해 강경(江景)장판에서의 일이었다. 부 대각은 어디 가도 그랬지만, 강경 장판에서도 좀 거만하게 설치고 다녔다. 힘이 세니 무서운 데가 없어 그럴 법도 한 일이다. 강경 사람들은 저게 누구인가 하다가 제주 사람임을 알았다.

“제주 섬놈이 거만하다.”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으고는 이놈을 단단히 골려줘야겠다고 생각했다.

20여 명이 꿈무니마다 방망이를 차고 부대각이 머무는 주막에 몰려들었다.

먼저 겁이 난 건 주인이었다.

“부 선달, 몸을 좀 피하시오. 위험합니다.”

“사람이 한번 나면 죽는 법. 그들 소원이 꼭 나를 죽이고 싶다면 소원대로 하게 내버려 두시오.”

부 대각은 눈도 깜짝하지 않았다. 이 광경을 보고 아들 부주사가 문 밖으로 나갔다. 아

들은 이 때 열아홉 살로 아버지를 따라 간 것이다.

“이번만 아버지를 살려 주십시오. 다시는 거만한 짓을 안 하시도록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뭇 하러 나가려고 했더니, 사정하고 있는 것이었다. 부 대각은 화가 벌컥 치밀었다.

“못된 자식하곤. 그까짓 놈들에게 빌면서 목숨을 살아서 뭇할 것이냐!”

야단을 쳤다. 청년들이 우르르 들어왔다.

“나를 때려죽이고 싶거든 저 바깥으로 끄집어내어서 죽여라. 집안에서 때려죽이면 주인에게 폐가 되지 않느냐!”

부 대각의 말에 청년 대여섯이 들어오더니, 양쪽으로 갈려서 부 대각의 팔을 잡아끌었다.

부 대각은 등을 벽에 딱 붙이고 끄떡도 하지 않았다. 한참 동안 힘을 내서 끌었으나 청년들은 부 대각의 등을 벽에서 떼어 볼 수가 없었다.

이것을 보던 어른 한 사람이 청년들을 만류했다.

“너희들 대여섯이 벽에 붙인 등도 떼지 못하는데, 만일 저 양반이 힘을 낸다면 너희들은 다 죽을 거 아니냐.”

청년들은 슬금슬금 물러서서 사과를 해 왔다.

부 대각은 사과를 받아들이고, 덕분에 그 청년들을 시켜 미역을 수월히 팔고 쌀을 사서 싣고 돌아오게 되었다.

배를 놓아 섬 하나 안 보이는 바다에 온 때였다. 수적(水賊) 배가 나타났다. 수적을 만났다고만 하면 물건을 다 빼앗김을 물론, 목숨까지 잃는 판이었다.

뱃사공들은 새파랗게 질려 버렸다. 부 대각은 짐짓 모른 채하고 “웬일이냐?”하고 큰 소리를 질렀다.

“목숨이 아깝거든 그 무곡(貿穀)을 다 이 배로 실어라.”

수적들의 호통소리가 떨어졌다. 부 대각은 벌떡 일어서며 배 닻을 잡아 북 무질러 끊어 허리에 띠를 턱 묶었다. 그리고는, 두 손으로 쌀 먹서리를 휘휘 잡으며 공 던지듯 수적의 배로 내던졌다. 수적의 배가 나무 이파리 출렁이듯 출렁이며 금방 침몰할 것 같았다.

그제야 수적들이 새파랗게 질려서 ‘과연 목숨만 살려 주십사’고 빌어 왔다. 부 대각은 도리어 수적 배의 물건까지 빼앗고 신고 돌아왔다고 한다.

성산읍 시흥리, 양기빈(남) 제보

8. 심돌 강씨(姜氏) 할망

약 1백 년 전, 심돌(城山邑 始興里) 강씨 할망이 같은 마을 부(夫)씨 덕에 시집을 왔다. 강씨 할망은 어렸을 때부터 힘이 세었다.

강씨 할망의 시집 앞길에는 둥돌이 놓여 있었다. 젊은이들이 매일과 같이 모여들어 둥돌을 든다. 이 둥돌은 이 근리(近里)에서 제일 무거웠다고 하는데, 이는 시흥리 사람들이 힘이 세었음을 의미한다. 가령 시흥리 사람들이 이웃 마을 오조리(吾照里)의 둥돌을 보고는 ‘저거야(저거사) 수제비(조배기) 둥돌이냐?’고 나무랐을 정도였다.

강씨 할망은 시집와서 얼마 아니 된 때, 아침 일찍 물을 길러 나가다가 이 둥돌에 발이 채었다. 아직 채 밟지 않은 때에 생소한 길을 걷는 것이라 발이 찬 것이다. 강씨 할망은 ‘귀찮은 돌을 길거리에 놓아서 발을 채게 한다’고 투덜대며, 물 허벅을 진 채 둥돌을 번쩍 들어다 옆의 논밭에 던져 버렸다. 둥돌은 흙 속에 움푹 패어져 들어갔다.

이튿날, 청년들이 논밭에 들어간 둥돌을 발견하고, 이것이 누구의 힘인가를 찾기 시작했다. 찾을 수가 없었다.

청년들은 이 돌을 꺼내려고 논밭에 들어가 힘을 다 내어 봤으나 꺼낼 수가 없었다. 이 광경을 바라보던 강씨 할망은 하도 우스워서 다리를 걷어 올리고 번쩍 들어 길거리로 내던져 주었다고 한다.

성산읍 시흥리, 양기빈(남) 제보

9. 현 지관(玄地官)

약 250년 전 온평리(城山邑 溫平里)에 현 지관(玄地官)이 살았다. 지리에 능하여 그 명성이 전도(全島)에 미쳤다.

당시 지리에 유명한 이로 고성((城山邑 古城里)에 정 지관이 있었다. 현 지관과 정 지관은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다. 또한 오조리(城山邑 吾照里)에 오 훈장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 이는 어릴 적의 스승이고 또 지리에도 밝아서 세 사람은 어딜 가나 항상 어울리어 다니는 처지였다.

현 지관은 그의 조부가 죽자 손수 뒤편자리를 보아 성읍리(表善面 城邑里) 경에 있는 나 시기오름(峰)에 장사지냈다. 그 후 증손 때 그 묘를 이장하였는데, 묘 앞에 파묻은 지석(誌石)에 ‘유아증손천이차묘(唯我曾孫遷移次墓)’라고 써어 있었다 한다. 미리 증손 때가 되면 이장할 것까지 알고 있었던 것이다.

현 지관은 이만큼 아는 지관이었다.

어느 해, 현 지관은 정 지관과 더불어 어떤 집의 청을 받아 뒤편자리를 보러갔다. 낮에는 상주와 같이 명당을 찾아 돌아다니고, 밤에는 상주네 집에서 잠을 자며 대접을 받고, 날이 밝으면 다시 명당을 찾아 떠나는 것이다.

어느 날 아침이었다. 두 지관은 조반을 마치고 출발에 앞서 잠시 한담을 즐기고 있었다. 그 때 마침 이웃집 여인이 그 집에 들어왔다. 여인은 부엌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두 지관은 여인을 보자 누군가가 ‘저 여인이 뭘 하러 이 집에 왔는가?’를 알아 맞추어 보자고 제의했다. 그거 재미있겠다고 맞장구를 치는 것이다. 두 지관은 다 파자(破字)에 능하였으므로 각기 한자(漢字)한 글자를 골라 그것을 풀기 시작했다.

“홍두깨를 빌러 왔군.”

정 지관이 먼저 대니, 이어서,

“아니, 솔뚜껑을 빌러 왔어.”

현 지관이 응수했다.

“그러면 두고 보자.”

여인은 솔뚜껑을 빌어 가는 것이었다. 현 지관이 이긴 것이다.

정 지관은 감탄하여 “어째서 솔뚜껑을 빌려 온 줄 알았느냐?”고 물었다.

“뱀 사(巳)자가 나오니 솔뚜껑을 빌려 온 것을 알았지.”

“아, 나도 ‘뱀 사’자가 나왔는데 뱀은 긴 놈이니 홍두깨가 틀림없는 줄 알았는데…….”

정 지관은 더욱 기이하여 물었다.

“아니야, 시간이 있지 않아. 지금은 뱀이 돌돌 감고 누워서 대가리만 위로 치켜 들고 있을 시간이 아닌가. 그러니 그 모습이 솔뚜껑이지.”

현 지관은 한 번 큰 봉변을 당할 뻔한 일이 있었다. 어느 해엔가 지나다 보니, 어떤 묘에 별초를 하고 있었다. 자손들이 와글와글 많이 모여 별초를 하니 자연 눈에 띈 것이다.

현 지관은 지나면서 얼른 보기에다 체백(體魄: 땅속에 묻은 송장)은 별초하는 봉분 밑에 없고 얼마쯤 떨어진 곳에 물러가 있는 게 분명했다.

“헛, 거, 자손들은 많지만, 공연한 곳에 별초하고 있군.”

무심중에 중얼거리며 현 지관은 지나갔다.

별초하던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거 어떤 놈이냐? 잡아 오라”고 야단쳤다.

현 지관은 끌려갔다. “아까 무슨 말을 했느냐?”고 별때 같이 달려들었다. 현 지관은 사실이 그런데 무슨 죄냐고 따졌다.

“만일, 지금 파 봐서 시체가 있으면 어떨 거냐?”

자손들은 성급하게 무덤을 파려 들었다. 현 지관은 그리 서두르지 말고, 택일을 해서 파헤치도록 타이르며, 신분을 밝히고 도망갈 사람이 아님을 단단히 일러 주었다.

그제야 자손들은 누그러지고 시체가 있다는 곳을 확인했다.

그 후, 실제 무덤을 파 보니, 시체는 없고 현 지관이 지적한 장소에 불려가 있었다. 소위 ‘풍질’에 묻은 묘인 것이다.

그제야 그 자손들이 과연 잘 아는 지관임을 알고, 말 몇 필에다 쌀과 술을 싣고 와서 사정하였다. 현 지관은 그들의 청에 따라 뗏자리를 하나 보아 주었다 한다.

현 지관은 세상을 떠날 때가 되니, ‘개미동산’이라는 곳에 뗏자리를 보고 ‘내가 죽거든 여기 묻으라’고 유언했다. 또 5대손이 죽거든 바로 이 곁에 묻도록 전승시키라 했다. 그

래서 개미동산에는 현 지관의 묘와 그의 5대손의 묘가 있다.

현 지관이 손수 개미동산에 자신의 뒤통자리를 본 것은 자손의 수가 많아야 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자손들은 개미처럼 번창하였다는 것이다.

성산을 온평리, 현장수(남) 제보

10. 고성 홍 효자

조선조 헌종(憲宗)때에, 고성리(城山邑 古城里)에 홍 효자(洪 孝子)가 살았다. 그는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여 부모 봉양에 칭송이 자자했다.

홍 효자는 아버지가 병환으로 눕게 되자 침식을 잊고 구병에 힘썼다. 당시 제주 백성들은 일반적으로 생활이 가난하여 이부자리마저 제대로 마련하고 살지 못하던 때였다. 홍 효자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버지가 눕게 되자, 홍 효자는 있는 재력을 다하여 좋은 이부자리를 하나 마련했다. 그래서 아버지 방안에 이부자리를 깔아 모시고, 자신은 갓옷(털가죽으로 지은 옷)을 입은 채 마루방에 자면서 구병을 계속했다.

구병하면서 홍 효자는 똥을 맛보았다 한다. 아버지의 똥은 날이 갈수록 단맛이 더해갔다. 홍 효자는 ‘똥 냄새가 곱어야 사람은 오래 사는 법인데, 똥 냄새가 단 것을 보니, 속히 세상을 떠나실 것 같다’고 하면서 양천통곡(仰天痛哭)했다 한다.

홍 효자는 또 살생(殺生)을 아니했다 한다.

아버지 구병을 하는 데에, 갓옷을 입은 채 마루방에서 몇 달이고 지내자니 이가 몹시 생겼다. 목욕을 아니 함은 물론, 머리도 빗지 않고 오직 아버지 병환만을 걱정하는 것이니 이가 일 것은 당연하다. 어찌나 이가 많이 일었는지 갓옷의 털 틈새마다 이가 박혀 있었다.

어느 따뜻한 봄 날, 홍 효자는 아버지의 병환도 약간 나은 듯하고 해서 이를 잡기로 했다.

양지 바른 마당 구석에 앉아 이를 잡기 시작했다. 이를 잡는다 해도 실은 죽이는 게 아

나라, 털 밭의 틈새마다 허영게 기어 다니는 이를 하나하나 주워서는 땅바닥에 조심조심 놓아주는 것이었다. 이라고 한들 살생을 해서 되겠느냐는 것이다.

이 때 마침 말총 장수가 말총을 사러 들어왔다. 말총 장수는 제주도의 말총을 가가호호 돌아다니며 사 모아 가지고 육지로 내어다 파는 행상꾼이다.

말총 장수는 홍 효자 집 마당에 들어서서 홍 효자가 이 잡는 것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세상에 이렇게 이가 많이 일 수도 없으려니와, 그 이 잡는 방법이 하도 결박이어서 옷을 찢을 수 없었다. 말총 장수는 이렇게 우둔한 인간은 한 번 골려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 여보. 그 많은 이들을 어찌 하나하나 잡아냅니까? 한꺼번에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찌하면 이를 한꺼번에 없앨 수 있습니까?”

말총 장수는 갓옷을 시루에 넣어서 찌면 이가 한꺼번에 없애질 것이 아니냐고 가르쳐 주었다.

홍 효자는 그렇게 효성이 지극하고 살생을 아니 하는 이였지만, 인품이 순박해서 말총 장수의 조종을 알아채지 못했다. 갓옷은 시루에 넣어 찌면 윤기가 다 빠져서 구워 놓은 오징어처럼 되어 다시 입지 못하는 것을 몰랐다.

홍 효자는 곧 부인을 부르고는 “이 가죽옷을 시루에 담고 찌 버리지, 요 이들이 없어지게”하며 옷을 넘겼다.

꺼내고 보니 갓옷은 영영 입지 못하게 되어 버렸다. 이것을 보자, 홍 효자는 크게 탄식을 했다.

“하, 그거 공연한 놈 말을 들어서 이는 다 죽어버렸고, 가죽옷도 못 입게 되어 버렸다!”

이렇게 매일 탄식을 하는데, 말총 장수는 말총을 사 거두어서 육지로 나가려고 배를 놓았다. 풍파가 세어서 떠날 수가 없었다. 조금 바람이 잔잔해진 것 같아서, 배를 놓으면 곧 풍파가 일어 돌아오곤 하는 것이었다. 석 달 열흘을 기다려도 바람은 자지 않았다.

말총 장수는 하도 답답해서 점쟁이에게 가서 문복(問卜)을 했다. 점쟁이는 ‘천하 대효

(天下大孝)의 마음을 거슬러 놓은 죄 때문이라'고 했다. 그제야 말총 장수는 홍 효자를 조롱한 죄를 깨치고 홍 효자를 찾아갔다. 너בות이 큰 절을 하고 “과연 잘못했사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하고 극진히 사죄를 했다.

그리하여 홍 효자의 마음을 풀어 놓은 후에야 순풍(順風)이 일어 배를 띄워 갈 수가 있었다.

또, 홍 효자는 제사에 쓸 고기라도 살생은 피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제사가 돌아오면 곧은 낚시를 가지고 고기잡이를 나갔다. 곧은 낚시에 물려오는 고기는 제사에 쓰라고 하늘이 주는 것이라고 하여 제상에 올렸다. 제사 때가 되면 곧은 낚시에도 꼭꼭 쓸만큼의 고기가 잡혔다 한다. 일설(一說)에는 바닷고기를 산 채로 물그릇에 넣어 제상에 올렸다가 제사가 끝나면, 다시 바다에 놓아 줬다 한다.

홍 효자가 살아 있을 때 헌종(憲宗)임금이 승하했다. 홍 효자는 평대리(舊左邑 坪垈里) 위쪽 ‘다랑쉬’ 꼭대기에 가서 분향하고 북향사배(北向四拜)를 하여 통곡했다. 그 향냄새가 서울 장안에까지 번져서, 제주 홍 효자가 분향하는 향 냄새라는 것을 궁궐에서도 알았다 한다.

그 후 효자비가 내렸는데, 지금 성산읍 수산리(水山里)에 세워져 있다. 그래서 그 지명을 ‘효자문거리’라 한다.

성산읍 시흥리, 양기빈(남) 제보

11. 삭달제장과 삼등매

옛날 삼달리(城山邑 三達里)에 성이 강(康)씨인 ‘삭달제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임기응변의 계책이 뛰어나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특히 타 지방엘 다니다가 시장기가 나면 그 재능을 발휘해서 잘 얻어먹었다는 일화가 많이 전해지고 있다.

어느 날 삭달제장은 하인이 이끄는 말을 타고 성안(지금의 濟州市) 향교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하인은 물론 삭달제장도 시장기가 났다. 선흘(善屹里)을 경유할 즈음에였다. 삭달제장은 아무 집이라도 들어가서 밥을 얻어먹어야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했다. “너도 (니도)배 고프냐?”

삭달제장이 힘없어 하는 하인에게 묻는 말이었다.

“예, 무척…….”

마침, 한 집안에서는 굵을 요란스럽게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야, 너 여기 앉아 있거라.”

“어딜 다녀오시렵니까?”

“양반이 하인을 부리게 되면, 우선 밥 정도야 굶고 다니지 않도록 해야지. 내가 너를 배고프게 해서야 되겠냐.”

“그러면 이쯤 앉아서 기다리겠습니다.”

삭달제장은 의젓하게 굵판으로 쓱 들어갔다.

“여기 수심방(首巫)이 어느 어른이옵니까?”

“저올시다.”

“지나는 정의(旌義) 심방이온데, 굵 한 석(祭次)만 하고 가겠습니다.”

수심방은 ‘얼굴 모른 심방이려니’만 생각했다.

“무슨 때문이오?”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굵 한 석 해 준 값으로 밥이나 한 그릇 주신다면, 저는 명전(명췌:命錢)도 안 받습니다.”

“아따, 그러시죠. 뭐.”

수심방은 참 너그러워 보였다.

삭달제장이 신 칼을 양손에 나눠 잡더니만, 무악(巫樂)에 맞춰 굿 한 석을 멋들어지게 잘 해냈다. 수심방은 ‘이렇게 큰심방을 여태 모르고 있었구나’고 아쉽다는 듯이 말했다.

“아이고, 정의(旌義)고을 큰 선생님을 제가 여태 몰라 뵈었다니 죄송합니다. 이리로 앉으십시오.”

수심방은 집주인에게 식사와 술상을 차려 주도록 했다. 마침 시장기도 나고 해서 실컷 먹고 마셨다.

“자, 이제는 가겠습니다.”

삭달제장이 수심방에게 건네는 말이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와 같이 하루만 더 있다가 굿 몇 석만 더 해 주고 가십시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도 내일부터 어디 굿할 일이 있어서 오늘 내로 집에 가야겠습니다.”

수심방은 삭달제장과 헤어지게 됨을 아쉬워하면서 굿 한 석 해준 값으로 돈과 닭고기, 술 등을 듬뿍 싸 주었다.

“삭달제장은 하인이 이끄는 말에 타서 슬슬 이 마을을 빠져나와서 동구 밖에 이르러서야 하인에게 말을 세우도록 했다.

“너 이거 먹어라. 너를 배고프게 하면서 데리고 다녀서야 어디 양반의 체면이 서겠느냐.”

삭달제장은 양반의 신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굿을 멋들어지게 잘했는데, 그는 굿을 해도 타지방엘 다니다가 시장기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하였다.

또 한 번은 어디 볼 일이 있어 먼 길을 나섰는데, 그날도 시장기가 대단했다. 마침 초상집이 눈에 띄었다. 무턱대고 들어가서는 상 앞에 꿇어 앉아 우선 곡(哭)소리와 함께 절 2배를 올리고 난 후, 상제(喪制)와 맞절을 나눴다. 상제는 ‘혹시 얼굴 모른 사돈님인가’만 생각하고 있었다.

“하이고, 내가 망인하고 이만저만 가근한 사이가 아니오. 술이나 같이 나누려고 와서 보니 이럴 수가, 가진 게 없어서 부조도 못하고…….”

“아, 제가 부친님을 제대로 봉양치 못하여 이렇게 일찍 돌아가시게 되어서 오히려 죄

스럽습니다.”

삭달제장은 초상집에 들어가 망인의 친구라고 속여 툭툭한 대접만 받고 슬그머니 그 집을 빠져 나왔다.

삭달제장이 배고플 때마다 상황에서 잘 벗어나는 계책을 눈치 채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웃마을 난산리에 사는 삼등매였다. 삼등매는 늘 ‘나도 언젠가는 삭달제장의 계책을 써 먹어야겠다’고 기회가 오기만을 버르고 있었다.

삼등매는 어느 날 대정(大靜)고을에 불 일이 있어서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무척 시장기가 났다. 마침 소상집 앞을 지나게 되었다. ‘드디어 기회는 왔구나!’하고 슬그머니 들어갔다. 우선 상 앞에 엎디어 곡소리를 내었다.

‘하이, 하이, 하이…….’

절 2배를 올리고 나서 상제(喪制)와 맞절을 나눈 후, 서로 인사말을 하게 되었다.

“하, 내가 돌아간 어른하고 이만저만한 처지가 아니어서 한 이불 속에서 잠도 잤었고, 이렇게 일찍 돌아가도 내가 몰랐다니 이거야 원…….”

바로 이 때였다. 갑자기 상제가 벼락 치듯, 잠고 있던 ‘방장대’를 삼등매 어깨 위에 내리쳤다.

“네가 우리 어머니하고 한 이불 속에서 잠을 잤다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삭달제장은 초상집에나 상가(喪家)에 가서는 우선 ‘방장대’를 눈여겨 잘 살피고, 머귀나무냐, 대나무냐에 따라 망인의 성별을 구분하여 그에 알맞은 조치를 할 줄 알았지만, 삼등매는 미처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호되게 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삼등매는 정의 어느 마을이건 제삿집에는 빠지지 않고 다녔다고 한다. 무턱대고 가는 게 아니라, 갈 때는 꼭 술 한 병이라도 들고 갔다.

그랬기 때문에 삼등매가 죽게 되자 조문객이 8일 동안이나 그치지 않았다고 한다.

성산을 신평리, 吳文福(남) 제보

12. 난미 김씨

‘난미’는 난산리(城山邑 蘭山里)의 속칭(俗稱)인데, 옛날 이 마을에 기지(機智)가 뛰어난 어느 김씨가 살고 있었다.

이 마을에서는 해마다 정월이면 부락제(部落祭)를 지냈다. 그 제가 끝날 때마다 정의고을(지금의 城邑里)에 있는 원님에게 제단에 올렸던 술과 고기를 꼭꼭 보냈다. 그것은 이만저만 귀찮은 일이 아니었다.

그 해에도 변함없이 부락제를 올리고 나서 누군가 술과 안주를 갖고 원님에게 가야 할 판인데, 불쑥 김씨가 자원하여 나섰다. 김씨는 ‘이 폐습을 없애야 겠다’고 단단히 버르고 자원한 것이다.

“자네가 정의고을에 갔다 오겠는가?”

“예-.”

“이 술과 안주를 조심히 들고 가서 원님에게 드려두고 오라.”

향자의 말이 떨어지자, 곧바로 정의고을을 향했다. 길은 멀고 험했다. 점심때가 채 못되어서 원님이 순력 돌 때 앉아서 쉬는 ‘원님동산’에 이르렀다. 김씨는 거기에 앉아 쉬면서 원님에게 드릴 술과 안주를 모조리 먹어 치웠다.

낮잠을 실컷 자고 나서 깨고 보니, 점심때가 훨씬 지났다. 그때서야 혈떡이며 빈손으로 정의고을에 있는 동헌(東軒)을 향하여 달음질쳤다.

동헌 대문에 거의 이르러서 무턱대고 들어가려고 하자, 수문장(守門將)이 딱 막아섰다.

“이놈! 건방지게 어딘 줄 알고 함부로 들어오려고 하느냐?”

“아, 제가 원님에게 고할 급한 송사(訟事)가 있사오니, 어서 들여보내 주십시오.”

“급한 송사라니?”

김씨는 계속 혈떡이고 있었다.

“좌우지간 급한 송사이오니, 저를 빨리 들여보내 주시오.”

제법 갓을 쓰고 있는 꼴을 보니 양반같이 보이고 해서 들여보냈다. 이방(吏房)이 김씨를 데리고 원님 앞으로 다가가서 고했다.

“원님, 어떤 백성이 급한 송사가 있다 하옵니다.”

김씨는 대청 앞에 가서 꿇어앉았다.

“급한 송사인즉은, 우리 동네에서 부락제를 지내고 나서 원님께 드릴 술과 안주를 들고 오는 도중에 하늘에 날아다니는 매란 놈이 버릇도 없이 달려들어 고기를 뺏어 물고 날아가기에 그 놈을 잡으려고 해매다가 술병조차 깨어지고 말았사옵니다. 하오니 포졸을 풀어 그 매란 놈을 당장 잡아다 벌을 주어 주옵소서.”

정의를 원은 어이가 없었는지 ‘허허’ 웃으며,

“하, 알겠다. 내가 그 고기를 안 먹어도 먹은 셈 칠 테니 내년부터는 나에게 갖고 오는 법을 없애라고 전해라. 그러나 너의 그 기지(機智)는 대단하다.”

이래서 그 못된 법 하나는 난미 김씨에 의하여 고쳐졌다고 한다.

성산을 신평리, 吳文福(남) 제보

13. 오백이터 할망과 하르방

옛날 신평리(城山邑 新豐里) ‘오백이터’라고 하는 집에 할머니와 할아버지만 살고 있었다. 할머니는 힘이 대단했기 때문에 노부부 사이에 싸움판이 벌어질 경우면 할아버지는 늘 꼼짝 없이 당하기만 했다. 그러나 기지가 뛰어나 그 창피스러운 위기를 잘 모면해 내곤 했다.

어느 날 노부부 사이에는 부엌에서 싸움판이 벌어져 예전처럼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꼼짝 못하고 얻어맞는 판이었다.

마치 동네 아주머니가 무슨 볼 일이 있어서 그 집에 들어왔다. 들킬 판이다. 할아버지 입장에서 이만저만 창피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할머니에게 얻어맞고만 있던 할아버지는 동네 아주머니가 부엌을 기웃거리자 손으로 상투를 툭툭 털며 부엌에서 겨우 빠져나왔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실컷 얻어맞고서도 때린 듯이나 큰소리치는 것이었다.

“저런 녀은 저렇게 해야 버릇을 고치지!”

그렇게 해서 할머니에게 얻어맞고서도 순간적 기지로 창피를 잘 모면했다.

어느 날 노부부는 마당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부아가 난 할머니는 할아버지 허리를 확 휘어 감더니, 그만 지붕 위로 내던져 버렸다. 할아버지는 어리둥절했다. 그 집 앞을 지나던 동네 사람 여럿이 뻔히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만저만 창피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두리번거리고 있던 할아버지 눈에 지붕 위에 영근 호박이 보였다.

쳐다보고만 있던 동네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지붕 위에서 얼떨거리며 서 있는 할아버지에게,

“어째서 거길 올라가셨습니까?”

“호박 따러 올라 왔다네.”

이렇게 할아버지는 창피스러운 순간을 기지로 잘 모면했다.

그 할아버지는 일정(日政) 초까지 이 마을에 살았었는데, 그의 기지로 일본 놈도 꼼짝 없이 당했던 적이 있다.

일본 놈들은 쌀 공출을 제대로 반아가기 위하여 절대 술을 담그지 못하도록 했다. ‘오백이터’ 할아버지는 일본인들의 눈을 피하여 술을 담갔는데, 농익은 냄새가 집안을 가득 메웠다. 이 마을에 술 조사하는 일경(日警)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올안 대밭으로 술독을 숨기기 위하여 옮기는 도중에 그만 마당 가운데서 들키고 말았다.

“하, 참 잘 오셨습니다. 나는 미리 조사오기 전에 자수해서 벌금을 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힘겹게 술독을 마당으로 옮겨 놓았는데, 마침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옮겨 놓고 이제 막 자수하러 가려고 하는 참인데, 뭐 하러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일경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마침 옆에 있는 통역관에게 물었다.

“저 노인이 뭐라고 지껄이느냐?”

통역관은 할아버지가 했던 말을 일경에게 들려 줬다. 그 말을 들은 일경은 ‘허허’ 웃고 말았다.

“다시는 술을 담지 말라고 전하고, 그리고 이번만은 벌금도 받지 않겠다고 전해라.”

그래서 오백이터 할아버지는 순간적인 기지로 술도 안 뺏겼을 뿐 아니라, 벌금도 내지 않고 그 순간을 모면한 적이 있다.

성산을 신흥리, 吳文福(남) 제보

14. 오 훈장(吳 訓長)과 그의 계모(繼母) (I)

옛날 오조리(城山邑 五照里)에 오봉조(吳鳳祚)라는 훈장이 있었다. 그는 어렸을 때 생모를 일찍 여의어 계모 밑에서 자라야만 했는데, 그 계모는 매우 현명하고 인자한 분이였다. 비록 계모지만 자식 교육에 대한 사랑은 그를 따를 어머니가 없을 정도였다.

계모는 원래 양반 가문에서 출생하였기 때문에 해녀작업(물질)이라곤 해보지 못한 처지였다. 그러나 오직 자식 교육을 위하여 물질을 시작하여 번 돈으로 독선생(獨先生)을 청해 들였다.

어느 날 계모는 마당에 보리를 널어 두고 물질을 나갔다. 어린 봉조는 집에 남아서 독선생과 함께 글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다. 독선생과 봉조는 글공부를 잠시 멈추고 마당에 널어 둔 보리를 부지런히 담아들었다.

이 때 계모는 허겁지겁 바다에서 뛰어왔다. 마당에 널어 둔 보리를 담아 들이기 위해서였다. 와 보니, 보리는 이미 댁서리에 담겨져 마루바닥에 놓여있었다.

이것을 본 계모는 벌컥 화를 내었다. 독선생과 봉조는 어리둥절했다. 어머니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영문을 알 수 없었다.

독선생이 먼저 계모 앞으로 다가섰다.

“봉조 어머니. 왜 화를 내십니까, 오히려 아들에게 칭찬을 해줘야 할 게 아닙니까?”

“내가 어려운 살림에 독선생까지 모셔다가 아들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소나기 내리는 시간은 비록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한번 스쳐 지나 버리면 다시 잡을 수 없는 귀중한 것이고, 비에 젖은 보리는 다시 말려 버리면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보리 젖는 것이 아까워서 학문을 등한시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때야 독선생도 봉조 어머니의 뜻을 알았다.

“아, 죄송합니다.”

“모두들 학문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 주십시오.”

그 후 봉조는 계모의 질책에 더욱 분발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여 어디 가서 겨루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실력을 쌓았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제주도는 변방에 위치한 섬이라고 해서 어느 누구가 과거에 급제해도 조정에서는 현령(縣令) 벼슬밖에 내려 주질 않았다. 봉조도 예외는 아니어서 늘 한탄하고 있었다.

그때 황최언(黃最彦) 목사가 제주도에 부임했다. 황 목사는 홍학(弘學)에 힘써 정의향교(旌義鄉校) 옆에 서당을 마련하여 봉조를 훈장으로 초빙했다.

봉조는 황 목사의 명을 받아서 서당을 세우게 된 내력과 함께 흥학기(興學記)를 지었다.

그 내용은 은근히 임금이 읽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쓴 것이었다. 제주 사람이라고 천시하는 봉조는 잘못된 것이니, 이는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이라는 의미가 충분히 담겨져 있었다.

성산읍 신흥리, 吳文福(남) 제보

15. 오 훈장(吳訓長)과 그의 계모(繼母) (Ⅱ)

옛날 이 정의현에는 고 장령(高掌令), 부 장령, 강 장령 이렇게 세 사람이 그 글이나 학식이 뛰어났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성산면 오조리 오 훈장(吳訓長)이란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었다.

하루는 그들이 이상한 소식을 들었다. 그 스승인 오 훈장이 상을 만났다는 소식이었다.

그런데 오 훈장의 계모가 돌아갔는데, 상복을 입고 상주가 되어 보통 사람과 같이 상례를 치루려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그들 세 장령들도 오 훈장의 계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조문을 갈까 말까 하던 참이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는 의아해 하면서 경우나 예법에 어긋남을 말하였다.

부 장령은 고 장령을 찾아가 그 스승의 일을 이야기하고는 우리가 찾아가서 그 잘못을 말씀 드려야 할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글쎄, 우리 선생님이 우리 말을 들으실까?”

고 장령의 생각에도 스승의 처사가 잘못되었음을 뻔히 알지마는 오 훈장 어른이 제자들의 진언을 들어줄 것 같지 않았다.

“그래도 명색이 이 고을에서는 다 이름 있는 선비라는 우리들이 아니 예에 어긋난 일을 보고도 그냥 둔다면 백성들의 풍습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단 말인가.”

부 장령의 뜻은 아주 단단하였다.

“글쎄, 생각은 옳지마는…….”

고 장령은 역시 미지근하게 대답하였다. 부 장령은 그러는 고 장령이 심히 못마땅하여 이번에는 강장령을 찾아갔다.

“강장령, 소식을 못 들었어요?”

“무슨 소식을?”

“우리 스승인 오 훈장이, 아니 계모가 돌아가셨는데 상복을 입고 상주가 되어 상을 치른다는 말…….”

“듣긴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가.”

“글쎄, 예에 어긋나긴 하지마는 스승이 하시는 일이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역시 강장령의 말도 어정쩡하게 별로 그런 문제에 대하여 마음 쓰고프지 않는 얼굴이었다.

“여봐, 명색이 선비라는 작자들이 어떻게 생각들이 모두 꼭 같아.”

이렇게 핀잔을 주고서는 다시 말했다.

“아무리 스승이라 해도 잘못은 잘못이 아닌가. 우리가 모두 가서 그 잘못을 고치도록 진언을 해야 할 게 아닌가.”

이렇게 부 장령이 제안하자, 나머지 두 장령도 그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셋이서 조문도 할 겸, 오조리 오 훈장네 집을 향해 떠났다.

오 훈장은 상주의 몸으로 조문객들을 맞고 있는데 대문으로 제자들인 그 세 장령이 들

어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웁지, 이 사람들이 필시 내 처사에 대하여 잘못을 말할 테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며 좀 긴장을 하였다. 이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설득하고 돌려보낼 궁리를 하였다. 아무리 가르친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에 어긋난 것을 지적하는 데 대하여 어쩔 도리가 없는 게 아닌가.

그들 셋은 아주 의젓하게 들어와서는 그래도 상에 배례를 하였다. 그리고 자리를 잡아 앉은 후에 부 장령이 말문을 열었다.

“선생님, 여쭙 말씀이 있습니다.”

부 장령의 말소리는 상당히 묵직하였다.

“그래, 나 자네들이 찾아온 이유를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라는 것도 다 안다구. 물론 내 지금의 처사가 예에는 어긋난 것일 수도 있네만, 내 말을 좀 들어 보라구.”

오 훈장은 그들에게 말할 틈을 주지 않고 먼저 말문을 열면서 이어 돌아가신 계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다.

“내 계모님이 어떤 분인 줄 자네들은 모를 거야. 그 분은 오늘의 나를 만든 분이다.”

이야기는 대략 다음과 같다.

오 훈장이 어느 날 서당에서 좀 일찍 돌아왔다. 머리가 아프고 공부에 공연히 싫기도 하여 일찍 돌아온 것이다. 그런데 대문으로 들어서는데 오 훈장을 본 그 계모는, 마침 베 틀에 앉아 베를 짜고 있던 참이었는데, 책 보따리를 달랑거리며 들어서는데 오 훈장을 보더니, 들어오는 이유도 묻지 않고 갑자기 낮으로 명주 날을 확 잘라 버렸다. 오 훈장은 평소에도 엄한 계모라 그러지 않아도 눈치를 살피며 들어오는데 이 끔찍스런 일이 일어나자 어쩔 줄을 모르고 당황하였다. 그러나 그냥 서서 있을 수만은 없어서 계모에게 달려갔다.

“이거 어쩔 일입니까?”

계모는 한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몰라서 묻는 것이냐. 옛날 맹자도 글 읽기를 게을리 하자 그 어머니가 짜던 명주를 잘라 버린 그 뜻을 너는 모르느냐.”

쌀쌀한 얼굴로 어린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 훈장은 혼비백산하여 도로 서당으로 달려갔다.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다. 오 훈장이 집을 보면서 글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다. 오 훈장은 마침 마당 가득 널려 있는 곡식 낱대를 급히 거둬들였다.

얼마 없어 비가 개이자 들에 나갔던 계모가 돌아오더니,

“아니, 저 많은 낱대를 누가 거둬들였느냐.”

오에게 물었다. 오는 잘했다는 말이나 들을까 해서 선뜻,

“제가 담았습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서…….”

그러자 계모의 얼굴이 확 변하면서,

“누가 너보고 글 읽는 일을 중단하고 낱대를 담으라 했나. 글을 읽을 때는 칼이 날아와도 글을 계속하여 읽어야 하느니라.”

꾸중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그 후로는 글을 읽다가 소나기가 와서 마당에 있는 모든 것이 떠내려가도 오 훈장은 상관을 앓고 글만 읽었다.

“자네들 들어보게. 내 어머니는 비록 계모였으나 아들 사랑하는 마음이 이 정도였으니 내가 어떻게 예만 찾을 수 있겠나들. 어려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새 어머니를 맞아서 얼마 없어 아버지마저 돌아가신 내 처지에 그 어머니 덕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글을 읽었겠나, 다 덕이 많으신 덕분이었네. 이런데 어떻게 예를 따르다 하여 어머니 장사를 소홀히 한다면, 그게 무슨 예가 되며, 그러한 예가 우리 인간들의 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

오 훈장이 말이 끝나자마자, 세 제자들은 비실비실 자리에서 일어났다. 스승의 얼굴을 바로 보지 못하고 무슨 큰 죄를 지은 사람 모양으로 스승의 댁을 물러나왔다.

이렇게 하여 오 훈장은 글로도 소문이 났고 효성으로도 소문이 났다.

남원읍 신흥리, 양봉인(남) 제보

16. 도깨비

도깨비를 모실 때는 자문자답 식으로 이쪽 말과 도깨비 말을 번갈아 하며 모신다고 한다.

옛날, 소섬(牛島) 사람이 도깨비를 모시려고 수수떡, 돼지고기 등 제물을 차리고 도깨비가 잘 나타나는 바닷가로 갔다. 깊은 밤중이었다.

이 때 마침, 장난꾸러기요 담이 큰 동네 청년이 밤고기를 낚으려고 바다로 나가 있었다. 밤고기는 특히 조용해야 낚아지는 법이라, 청년은 사람이 출입하지 않는 으스스한 언덕 밑에 자리를 잡아 낚싯대를 드리웠다. 사방이 죽은 듯이 조용하여 물결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한참 낚싯대를 드리우고 있노라니, 저쪽 멀리서 초롱불 빛이 희미하게 보였다. 분명 이쪽으로 오는 불빛 같았다.

‘무슨 불인가? 여기 도깨비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혹시 도깨비불인가?’

차차 가까이 오는 것을 보니, 어떤 사람이 무언가 등에 지고 초롱을 들고 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언덕을 기어올라 저쪽 바위로 갔다.

청년은 호기심이 생겨 바위로 기어올라 살금살금 가 보니, 그는 동네 아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편평한 바위 위에 돛자리를 깔고, 수수떡이며 돼지고기며 제물을 벌여 놓고 도깨비를 부르는 것이었다.

“참봉님, 계십니까?”

“음, 내 여기 있지.”

자문자답으로 도깨비를 불러놓고 다시 목소리를 바꾸어 도깨비의 대답소리를 하는 것이다.

“저, 요 동네 사는 아무 가(哥)이올습니다.”

“그럼.”

“여기 자그마한 정성이나마 참봉님 뵈려고 해서 왔습니다. 응감하시고 그저 어린애들 병도 없게 하시고, 바다 일도 무사히 재수 좋게 해 주시고, 집안 모든 일을 편안케 해

주십시오…….”

청년은 들어보니 하도 어이가 없었다. 비는 말이 다 끝나자 청년은,

“그러지, 염려 말아라.”

큰 소리로 버럭 질렀다.

빌고만 있던 그 사람은 겁나서, 벌여 놓은 제물도 던져두고 초롱불만 들고 언덕을 뛰어 올랐다. 너무 급히 허둥대며 뛰는 바람에 초롱불도 꺼져 버리고, 그 험한 바위틈을 엿어지며 자빠지며 기어 넘어 부리나케 달아나 버리는 것이었다.

청년은 배도 허출한 차에 잘 되었다 싶어, 고기며 떡이며 다 먹고 나서 생각해 보니, 좀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튿날 청년은 그 집을 찾아가 보았다. 간밤의 일을 토파하지는 못하고 놀러 간 척하였다. 주인은 몸이 아파 누웠다 한다. 미안하기는 하나 어쩔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 사람은 석 달 동안 앓다가 죽었다 한다. 혼이 빠져서(넋 나서) 죽은 것이다.

성산읍 신산리, 강공직(남) 제보

17. 온평리(溫平里)의 청룡(靑龍)

옛날에 온평리(城山邑 溫坪里)사람들이 힘세기로 유명하였다. 씨름판이 벌어지면 온평리 청년들이 항상 독판을 몰아 이웃 마을이 당해 낼 수가 없었다.

이웃 마을에서는 어느 날 밤에 온평리의 청룡을 그만 끊어 버렸다. 온평리 청룡은 그 마을의 왼쪽 주위를 둘러간 능선인데, ‘진동산’으로 가는 언덕이다. 이곳을 하루 저녁에 그만 파 헤쳐 버린 것이다.

그로부터 온평리 사람들도 점점 힘이 줄어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성산읍 온평리, 현장수(남) 제보

18. 부택 도선묘(夫宅 都先墓)

오조리(城山邑 吾照里) ‘안가름’에 부택 도선묘가 있다.

이 묘에 서서 바다 쪽을 보면 오조리의 식산봉이 바로 가까이 보이는데, 이 봉우리에 서 있는 바위 하나가 유난히 눈에 뜨인다. 이 바위를 장군석이라 한다.

이 장군석이 똑바로 비추기 때문에 부씨 댁에는 장군이 나기 마련이었다.

어느 해 관아에서 이 사실을 알았다. 관아에선 몇 번의 조사를 한 후 이 장군석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장군이 나서 역적이 되고 나라가 어지러울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큰 톱을 가져다 이 장군석의 꼭대기를 끊어 버렸다는 것이다. 그때 톱으로 끊어가니 장군석에선 피가 줄줄 흘러내렸다고 한다.

만일 그 장군석을 끊지 않았더라면 부씨 댁에는 장군이 끊임없이 났을 것이다. 아깝게도 그 바위를 끊어 버렸기 때문에 장군은 아니 나지만 몇 대(代)에 한 사람씩 장사가 나오곤 한다.

부대각도 그러한 장사의 한 사람인 것이다.

성산읍 시흥리, 양기빈(남) 제보

19. 오 훈장(吳訓長)과 정 지관(鄭地官)

250여년전, 오조리(城山邑 吾照里)에 오 훈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한학이 능하여 삼읍(三邑) 도훈장(都訓長)을 지내니, 제주 목사도 무시 못 할 만큼 그 명성이 높았다. 오 훈장은 또한 지리에도 능했다.

이 때 고성(城山邑 古城里)에 유명한 정 지관(鄭地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지리로 말하면 정 지관이 오 훈장보다 훨씬 밝았다. 그러나 오 훈장은 정 지관을 어렸을 때 가르쳤기 때문에 정 지관의 지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무라는 말을 하고 다녔다.

‘정서방 따위가 뭘 알아 가지고…….’

이런 말이 가끔 귀에 들려와도 선생의 말이라 한 마디 말대꾸를 아니 하는 처지였다.

정의현(旌義縣) 안에서는 으레 상사가 나면 정 지관을 청했다. 또한 동시에 오 훈장도 청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만일 정 지관만 청하여 뭇자리를 보았을 경우엔 반드시 오 훈장을 청하여 의논을 한 후 장사를 치르곤 한 것이다. 이는 두 사람이 다 지리에 능통했다는 이유도 있으려니와 다른 이유도 있었다. 만일 오 훈장에게 의논을 아니 하면 자기를 하시하였다 하여 오해를 받게 되기 쉽고, 그렇게 되는 날은 3음 도훈장인 오 훈장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 처세가 불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눈치를 알아서 그런지 오 훈장은 항상 내로라 하여 정 지관을 누르고 다녔다.

어느 해 난산리(城山邑 蘭山里) 김씨 댁(金氏宅)에 상사가 났다. 김씨는 정 지관과 친한 사이여서 뭇자리를 보아 달라고 청하였다. 역시 오 훈장도 같이 청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두 사람은 뭇자리를 보러 들판으로 나섰다. 난산리 남쪽 ‘잣도’에 가서 자리를 보게 되었다. 정자리가 어디냐를 찾는 것이다.

오 훈장은 사방을 두루 살피다가 목장의 담장 안으로 가서 턱 앉으면서 ‘좋다!’고 했다. 그러자 정 지관은 담장 바깥으로 가서 앉으면서 ‘여기도 할 만하지 않을까요?’하는 것이었다.

“뭘, 이렇게 올라앉아야 되지.”

“그럴까요?”

상주(喪主) 김씨는 얼른 판단을 못하고, 우선 점심이나 먹자고 하여 오 훈장이 앉은 자리에 점심을 갖다 풀어 놓았다.

“자네도 올라앉게.”

“난 여기가 좋습니다.”

정 지관은 점심이 놓인 데로 올라앉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번엔 오 훈장이 권했다.

“정서방도 이리로 올라 앉아.”

“난 여기가 좋습니다.”

역시 고집을 부렸다. 김씨는 ‘여기가 좋다’는 정 지관의 고집을 잘 몰랐다. 그저 점심을 먹는데 아래쪽에 앉아 먹어도 좋다는 겸양의 말로만 받아들인 것이다.

장사는 오 훈장이 본 자리에 치러졌다.

그 후 이삼 년이 지나가자 김씨 집엔 흉사가 자주 나서 큰 손해를 당하였다. 묘의 정 자리를 잘못 본 때문이었다.

어느 날 김씨가 정 지관을 찾아왔다.

“장사를 지내고 삼 년 미만에 대 흥패를 보고, 난 망하게 되었네.”

“왜 내가 담장(갓) 아래 앉고서 여기가 좋다고 하지 않던가.”

그제야 김씨는 그 때 정 지관의 말을 해석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였다 한다.

이 말이 오 훈장의 귀에 들어갔다.

“그 따위 게 뭘 알아서 그런 소릴 하는 거야.”

오 훈장은 이렇게 나무라 주면서 이 기회에 톡톡히 정 지관의 기를 죽여 놓아야 하겠다고 궁리했다. 그래서 우선 시험부터 하기로 했다.

오 훈장이 정 지관을 찾아갔다.

“자네 뭇자리를 잘 본다니 우리 어머님 뭇자릴 봐 주게.”

“선생님네 산 천리(遷移) 하십시오.”

“왜?”

“천리하고 보십시오마는 어머님 눈이 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까?”

“제 목숨을 선생님에게 바치지요.”

급히 차려서 이장을 하고 보니 과연 시체가 눈을 벌름하게 뜨고 있었다.

그 땅은 양시지지(養屍之地)여서 살아있는 사람처럼 시체가 눈을 뜨고, 손톱, 발톱이 점점 커 가고 하는 땅이었다.

오 훈장은 그제야 놀랐다.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은가?”

사정을 했다. 정 지관은 낫을 갖고 오라고 해서 시체 위를 덮은 장막 끈을 톡톡 끊어 햇빛이 비치게 했다. 잠시 햇빛을 쬔니 시체가 눈을 감고 원상으로 환원되었다.

오 훈장은 뭇자리를 하나 봐 달라고 사정을 했다. 정 지관은,

“선생님, 내가 본 자릴 써지실까요?”

하면서, ‘노공잇술’이란 곳에 가서 “저 돌무더기(머들)를 치워서 쓰십시오”라고 했다.

이곳을 정 지관이 이미 좋은 땅임을 알고 남이 묘를 쓰지 못하도록 돌맹이를 모아 눈가림해둔 곳이다. 정 지관은 큰 마음으로 선생에게 양보해 드리려 한 것이다.

그런데, 오 훈장은 한참 보더니, 아무래도 자리가 좋지 못하다 해서 장사를 아니 했다.

그 후 얼마 없어 정 지관의 모친이 죽었다. 정 지관은 돌무더기를 치우고 그 자리에 모친을 묻었다. 장사날 오 훈장이 와서 자세히 보니, 자리가 참 좋았다. 묘를 써 놓고 보아야 확실히 좋은 게 눈에 띈 것이다.

그제야 오 훈장이 정 지관을 한 쪽으로 불러 통 꽃이를 내어 놓으며, “요 통 꽃이로 내 눈알을 빼어 주게” 하며 크게 후회하였다 한다.

성산을 시흥리, 양기빈(남) 제보

20. 현씨 남매

옛날 신천리(城山邑 新川里)에 부모를 일찍 여읜 가난한 현씨 남매가 살고 있었다. 앞친 데 덮친 격으로 일곱 살 난 누이동생은 시름시름 병을 앓아서 사경을 헤매곤 했다. 오빠는 하나뿐인 누이동생마저 사별할까 하여 걱정이 태산이었다. 오빠는 어디 가서 점을 치기로 결심했다. 점괘는 큰 심방[巫堂]이 되어야 누이동생의 목숨을 연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비록 가난하지만, 양반 가문에서 심방이 난다는 것은 꺼림칙한 일이었다. 그래도 하나뿐인 누이동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누이동생의 병은 무병(巫病)이었다.

하는 수 없이 누이동생이 열다섯 되는 해에는 굿을 하러 나섰으나 무복(巫服)은 물론 무구(巫具)도 없어 굿을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날마다 탄식하고 있었다.

오빠는 하나뿐인 누이동생을 살리는 길은, 비록 위험천만한 일이었지만 진상선(進上船)을 타고 서울을 다녀오는 길밖에 없다고 마음을 먹었다.

“불쌍한 내 누이야, 걱정하지 말라. 내일이면 내가 진상선을 타고 서울에 가서 네가 굿을 할 수 있도록 무복과 무구 일체를 사다 주마. 아무튼 오래 살 생각만 하고 있어라.”

현씨 오라범은 이튿날 진상선에 몸을 싣고서 이 마을 고쳐포구를 떠났다. 누이동생은 이 마을 높은 봉수대에 앉아 오빠가 타고 가는 진상선만 줄곧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잔잔했던 바다에 갑자기 모진 광풍이 일더니, 혈육이라곤 하나뿐인 오빠의 몸을 실은 진상선은 채 물마루를 넘기 전에 전복되고 말았다.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누이동생은 앞이 캄캄했다. ‘불쌍하고 가련하신 하나뿐인 오라범이 나 때문에 죽어가는구나! 나는 살아서 뭘 하나.’ 누이동생은 그만 봉수대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은 떨어져 죽은 그 자리에 무덤을 만들어 줬지만, 어느 누구도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제자 상을 차려 주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밤낮으로 그 무덤에서는 요령(搖鈴)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억울하고 불쌍하게 죽어 간 현씨 처녀의 조화(造化)라고 수군거리면서도 누구 하나 그 원한을 풀어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현씨 일가(一家)의 한 어린애가 급병을 앓았다. 어떤 약을 써 봐도 효력이라곤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어디 가서 문복(問卜)하니, 점괘는 현씨 처녀의 원혼 탓이라는 것이었다. 그 집안에서는 김씨 심방(巫堂)을 청해 다가 굿을 했다. 과연 현씨 처녀가 귀신의 한(恨)을 풀어 주기를 바라는 뜻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어린애에게 빙의(憑依)한 것이다. 집안에서는 굿을 해서 그 원령의 한을 풀어 주니, 과연 병이 나았다.

그 후로 이 마을에서는 불쌍하게 죽은 현씨 처녀의 원령을 당신(堂神)으로 모셔오고 있는데, 지금도 그 원령을 위하여 음력 9월 8일, 18일, 28일을 대제일(大祭日)로 정하고, 이 중 어느 하루를 택하여 마을 사람 모두가 모여 제를 올린다.

성산읍 신천리, 신명숙(여) 제보

21. 혼착 죽은 심방

지금으로부터 약 200여 년 전에 수산리에 혼착 죽은 심방이 살았었다. 당시는 사람이 사망하면 현재와 같이 시체를 집에 모신 채 장사 지낼 날짜를 골라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성빈터(사망자를 가매장하는 자리)에 모시고 가서 성빈(가매장)을 한 후에 상주는 풍수사(뒋자리를 보는 정시)를 대동하고 곳곳을 돌아다니며 명당 자리가 정해지면 택일하여 장례를 지냈다. 그래서 옛말에 '삼년 구산에 십년 택일'이란 말이 있다.

이 무렵 수산리에서는 농번기에 소를 이용해서 밭갈이를 하고 나면 저녁때는 소를 방목하였다가 다음날 새벽에 들녘에 나가 소를 찾아다가 다시 밭갈이를 했다. 어느 봄철 한 농부가 소를 찾으러 들을 돌아다니다가 성빈터 옆을 지나가는데 성빈한 무덤에서 인기척이 나는 것이었다. 그 농부는 곧바로 그 무덤의 상주에게 알리니 상주가 즉시 가 보니 역시 인기척이 있어 성빈한 것을 헤치고 보니 의외로 부친이 살아 있어서 집으로 모시고 왔는데 몸 한쪽이 죽어(마비가 되어) 반신불수가 되었으나 유명한 심방이 되었기 때문에 혼착 죽은 심방이라 불렸다.

이 무렵 구좌읍 상도리 정씨 집안에 정승과 같이 높은 지위에 있는 관직자가 있었는데 중병에 걸려서 사경에 이르렀다. 집안에서는 병 치유로 고민하던 중 수산리에 유명한 혼착 죽은 심방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심방을 찾아가 문병을 하니 굿을 하고 관복을 인정 걸고 불사르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했다. 결국 그 집안에서는 혼착 죽은 심방을 초대하여 굿을 하고 관복을 인정 걸어 불살랐다.

그런데 관직에 있던 정씨가 옥황상제에게 가 보니 고향집에 두고 온 자기가 입던 관복 한 벌이 걸려 있었다. 옥황상제가 그 옷을 입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해서 깨어 보니 꿈이었다. 그 후 정씨는 병이 좋아지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입던 관복을 내어 놓으라고 했다. 정씨 부인은 당황해서 어찌할 줄을 몰라 망설이다가 사실대로 말하니 그 심방을 집으로 불러오라는 것이었다. 심방은 자기에게 어떤 벌을 주려는 것이 아닌가 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뜰 아래 엎드려 있었는데 정씨가 얼른 일어나 자기 곁으로 와 앉으라 해서 문병점과 굿한 사실을 물어 보고 고맙다고 사례하였다. 그리고 부인에게 자기와 꼭 같이 밥상을 차려 오도록 해서 심방을 대접하여 돌려보냈다고 한다.

이처럼 몸은 혼착이 죽어서 반신불수였으나 널리 알려진 심방이라 전해지고 있다.

자료 제공 : 고종호

22. 푸대쌈

과부 들면 재혼 않기로 유명한 오조리에서도 일제시까지 푸대쌈 습속은 존속돼 왔다. 눈이 빨롱하고 인상이 험악한 강모 씨는 걸핏하면 일을 저질러서 형무소를 제 집 드나들 듯했다. 이렇게 그가 형무소에 들어 가 버린 사이에 동네 박모가 미모였던 그 마누라를 푸대쌈해서 일본으로 달아나 버렸다.

푸대쌈은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다른 마을에서 여자를 싸 오는 등 서너 건이 더 있었다. 미리 눈 맞은 사이끼리 약속 상태에서 밤중에 쳐들어가 부대에 담아오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때 남자는 부대에 싣 여자를 업고 뛰면서 '나 누게메 줌줍허라. 줌줍허라'고 달래며 뛰었다.

그러니까 푸대쌈은 억지인 경우도 있었지만 더러는 억지를 가장한 애정행각일 수도 있었다.

오조리 강정관씨 제보

23. 칠남발 김 훈장과 최씨 선묘

신천리 북쪽 속칭 '문이ㄴ루'라는 곳에 최씨의 오랜 선묘가 있다. 이 묘는 명당이어서 자손이 많다고 한다.

옛날 경주 김씨의 선묘를 지켜 주는 사람이 있었다. 매우 살림이 어려웠으나 신의가 있는 사람이었다.

최씨 집안에서 이 사람이 지키는 경주 김씨 선묘 곁에 자기의 조상을 장사 지내려 하였다. 산을 지키는 사람은 묘주에게 알렸다. 김씨 집안에서는 최씨네 묘를 쓰지 못하도록 말했다. 화가 난 최씨네도 묘지기에게 고자질하였다해서 화풀이를 하려고 하였다. 묘지기는 힘이 없기 때문에 대항할 수 없어 근심만 하고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삼달리의 칠남발 김훈장은 믿음성 있는 묘지기가 곤경에 처해 있는 것이 가여워서 최씨네를

불렀다.

“내가 우리 부친이 돌아가시면 모시려고 땅 한 자리 봐둔 곳이 있는데, 거기에다 당신 네 조상을 장사지내고 불쌍한 묘지기를 괴롭게 굴지 말게. 아무리 좋은 명당에 조상을 모셔도 자손들이 마음씨가 나쁘면 발복하지 못하네.”

최씨네는 그 자리에 장사를 모시고 묘지기와도 사이 좋게 지냈다.

24. 이전물

과거 수산 2리에 이전물이라는 음료수용 연못이 있었다. 그 당시 수산 2리에는 남편인 이씨와 부인인 전씨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부인 전씨가 너무 빼어난 미인으로 널리 소문이 나 있었다.

하루는 전씨가 물을 길러 이 물통에 갔다가 물에 비친 자기의 미모에 반해서 통속으로 머리를 깊숙히 늘어뜨려 보다가 실수해서 익사해 버렸다. 남편인 이씨는 이 못 서쪽에 밧자리를 마련하고 석곽묘로 장례를 훌륭히 치루고, 이 연못을 메워 버린 후 마을을 떠나버렸다. 후에 이 못을 가리켜 이전물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하며, 1917년에는 구좌면 상명월리 출신인 여 지관이 현재의 이전물(연못)이 있는 곳에 통을 파면 물이 난다고 해서 못을 판 결과 샘물이 났으므로 공덕비를 세워 그 공을 기리고 있다. 이처럼 이전물은 여자와 인연이 깊은 물이다.

25. 왕머돌(왕돌)과 세종 강 서방

대왕산을 기점으로 해서 서쪽으로 약 1Km 지점에 속칭 왕주굴(왕자굴)이 있고 대왕산 남쪽으로 1Km 지점에 속칭 왕머돌이 있어 왕주굴과 왕머돌과의 거리는 약 2Km로 ‘왕’자가 붙은 지명이 근거리에서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것은 기묘한 일이다. 이 왕머돌은 어찌나 거대했는지 원거리에 위치한 속칭 미령당거에서까지 보일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 왕머돌의 운기로 해서 수산리에 인결이 난다고 전해진다.

옛날에 수산리에 세종 강 서방이란 힘센 장사가 살았었는데 세력가들에게 억눌리는데 불만을 품고 이 거대한 왕머돌을 깨어버려야 다시 인결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왕머돌을 깨어 버렸다. 이 때 왕머돌에서는 피가 흘렀다고 한다.

그 후부터는 수산리에 인재가 나지 않는다고 하며 인재가 태어나도 단명하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26. 영등할망

옛날에 한 포목 장수가 중국에서 제주에 들어오다가 비양도 근처에서 돌연히 폭풍우를 만나 익사하였다. 그의 시체는 네 쪽으로 찢겨져 머리는 협재에, 몸은 명월에, 그리고 고내와 애월에 각각 흘러 들어갔다. 이 상인이 영등할망신이 되었다. 그래서 그 신의 명복을 빌어 주면 해상 사고를 막아 줄 뿐만 아니라 곡식도 풍요로워진다고 하여 해마다 음력 이월 초하루부터 보름 간(지금은 3일로 단축)을 제사 지낸다. 이 때가 되면 모두 하던 일손을 멈추고 심지어는 빨래조차 하지 않았다. 이 때에 농사를 지으면 흉작을 면치 못하고 빨래에는 구더기가 생긴다는 말이 전해 오기 때문이다.

영등할망의 제사는 한림읍 수원 부부가 있어서 집집마다 성미를 내어서 재물을 마련한다. 제사는 3일 동안이 영등맞이이고, 또 3일은 영등을 보내는 제차로 행해진다. 이 때 날씨가 따뜻하면 옷 없는 영등이, 비가 오면 우장 쓴 영등이 오는 것으로 안다.

제사를 지낼 때에는 심방이 제례를 주재하게 되는데 영등할망이 오면서 미역의 씨앗

을 끌고루 뿌렸다면 미역이 대풍이요, 씨앗 주머니를 잊었다면 미역을 전혀 거둘 수 없게 된다. 그 외에도 산디(육도)가 상이라면 그 해에는 산디 풍년이 들고, 조가 상이라면 조 풍년이 든다. 영등할망의 중심인 수원에서는 제사의 마지막 날인 음력 이월 보름에 벼짚으로 배를 만들어 오색 단장을 하고 갖가지 재물을 실어 먼 바다로 띄워 보낸다. 이때 동북풍이 불면 영등의 닢이라고 한다.

27. 심돌

약 300여년 전에 시흥리에 정착한 한 부부가 자식이 없어 정성을 다하여 지성을 들인 후 부인이 임신을 하니 남편은 튼튼한 자식을 얻으려는 일념으로 소 열 마리를 잡아 먹었는데 낳고 보니 딸이었다. 그 다음 또 부인이 임신을 하자 이번에도 딸일지 모른다고 소를 아홉 마리만 잡아먹었다. 낳고 보니 아들이어서 남편은 아차 했다. 이 남매가 커가면서 누님이 더 힘이 세었다. 그러나 동생이 항상 힘자랑을 했다. 하루는 김녕 씨름판에서 동생이 완전히 판을 휩쓸고 기세가 등등해 누가 나를 이길 자 있는가 큰소리치니 김녕사람들은 해코지하려 했다. 그러자 누님이 변장하고 나서서 단 한번에 동생을 쓰러뜨리고는 저놈이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한들 단 한 판에 눕는 걸 보니 별놈이 아니니 그냥 보내주자고 하여 그를 구한 후 자신은 그의 누님이라고 실토했다. 이후 이 마을에 장사가 많다 하여 ‘심돌’이라고 불렀다 한다.

28. 설문대할망

옛날 옛적 설문대할망이라는 거신(巨身) 여성이 있었다. 할머니는 한라산을 베개 삼고 누우면 다리는 제주시 앞 바다에 있는 관탈섬에 걸쳐졌다 한다.

이 할머니는 빨래를 하려면 관탈섬(또는 추자도)에 올려 놓고 발로 밟고, 손은 한라산 꼭대기를 짚고 서서 발로 문질러 빨았다 한다.

또 다른 이야기는 한라산을 엉덩이로 깔고 앉아 한쪽 다리는 관탈섬에 디디고, 한쪽 다리는 서귀포 앞바다의 지귀섬(地歸島) (또는 대정읍 앞바다의 마라도)에 디디고 서서 귀좌읍 소섬(牛島)을 빨래돌로 삼아 빨래를 했다 한다.

또 제주시 오라동 경의 한내 ‘고지렛도’라는 곳에 모자 모양으로 구멍이 패인 큰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는 설문대할망이 썼던 감투라 하며, 성산을 성산리 일출봉에 높이 솟은 기암이 있는데, 이 바위는 높이 솟은 바위 위에 다시 큰 바위를 얹어 놓은 듯한 기암인데, 이것은 이 여신이 불을 켜 보니 등잔이 얹으므로 다시 바위를 하나 더 올려놓아 등잔을 높인 것이라 한다.

설문대할망이 등잔으로 썼다 해서 이 바위를 등경(燈檠)돌이라 부르고 있다.

이 여신의 거대한 모습을 설명하는 전설은 이 외에도 많다. 큰 바위가 띄엄띄엄 몇 개 서 있으면 이 여신이 술을 걸어 밥을 해 먹은 바위라든지, 깊은 지소가 있으면 이 할머니가 서서 발등까지 밖에 물이 닿지 않았다는지 하는 식의 단편적은 전설들이다.

개중에는 민담적 요소가 곁들여 소화(笑話)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다.

어떻든 이만한 이야기로도 이 여신이 얼마나 거대했었는가를 능히 알 수 있다.

이렇게 키가 너무 컸기에, 할머니는 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없었을 것이 뻔하다. 그래서 할머니는 속옷 한 벌만 만들어 주면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 주겠다고 했다.

속옷 한 벌을 만드는 데는 명주 백동(1동은 50필)이 든다.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 준다는 말에 제주 백성들은 있는 힘을 다하여 명주를 모았으나 약속한 날까지 99동밖에 짜지 못했다. 그래서 속옷을 만들다가 완성하지 못했고, 할머니는 다리를 조금 놓아 가다가 중단해 버렸다.

그 자취가 조천면 조천리와 신촌리 앞바다에 있다.

바다에 흘러 뺏어간 바위 줄기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거대한 여신이니, 한라산쫘은 거뜰히 만들어 낼 수가 있을 것이다.
 속옷은 없어도 치마는 입었던지, 이 여신은 치마폭에다 흙을 가득 담고 지금의 한라산이 있는 자리로 운반해 갔다.
 치마는 헐 것이어서 치마폭이 터진 구멍으로 흙이 조금씩 세어 흐르니, 그것이 도내의 많은 오름이 되고 마지막으로 날라간 흙을 부으니, 바로 한라산이 되었다 한다.

29. 선돌/ 선녀바위

옛날 한 옛날에 하늘나라 선녀들이 이곳 바다에 내려와 목욕을 하곤 했는데 동해 용왕의 아들이 선녀들의 미모에 반해 가까이서 보려고 다가가자 선녀들이 깜작 놀라 날개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하늘로 올라가니 옥황상제는 선녀들의 모습이 흐트러진 데 화가 나 금족령을 내려 다시는 내려가지 못하게 했다.

동해용왕의 아들은 그만 상사병에 걸려 눕고 말았다. 이에 점쟁이가 이르기를 "매일 밤 자정에 선녀들이 내려왔던 자리에서 백일 기도를 드리면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했다. 동해용왕 아들은 그말을 따라 99일까지 기도를 드리고 마지막 100일째 기도를 드리러 출발했는데 바다가 몹시 거칠어 다음날 먼동이 틀 무렵에야 도착했는데 마을에서 달빛 같은 수레를 거두어 들이려고 하자 동해용왕 아들은 수레 끝을 잡으려고 바다를 박차고 뛰어 올랐으나 그만 30여m의 허공에서 멈추니 이 사연을 안 옥황상제가 그를 돌로 만들어 그 자리에 서 있게 하였다. 그 이후 지금까지도 동해용왕 아들은 선녀를 기다리며 그 자리에 돌이 된 채 서 있다고 한다.

30. 삼달리 본향당 전설

옛날에 한양에 황 정승이란 분이 살고 있었다. 그 분의 세도는 높고 높아서 나는 새도 떨어드릴 정도였다.

세도가 높을수록 백성들은 그를 멀리 하였다.

그러던 중 황 정승은 병을 얻었다. 아주 몹쓸 병이었다. 다급해진 식솔들이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였다. 용한 의원을 부른다. 좋은 약제를 쓴다 하며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효험이 없었다. 백약이 무효로 사경을 헤매는데 지나는 과객이 그 소식을 듣고 약 처방을 해 주었다.

그 처방은 살아 있는 소의 염통피를 먹이면 된다는 것이었다. 귀한 약을 어렵게 구해다 먹이던 것에 비하면 너무나 쉬운 약 처방이어서 황 정승이나 식솔들은 병이 곧 나은 것같이 좋아했다.

그러나 좋은 일 다음에 궂은 일이 온다는 말처럼, 소의 피를 얻기 위하여 소를 잡아야 하는데 소를 잡을 사람이 나서지 않는 것이었다. 모두들 황 정승의 세도를 미워하며 어려운 일에 도움을 주지 않으려했기 때문이었다.

황 정승은 기가 막혔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 때 황 정승의 셋째 아들 어가장군이 돌아왔다. 사정이 딱함을 안 그는 백정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기로 작정하였다. 효를 백행의 으뜸으로 생각한 그였기에 사리와 명분을 따질 여가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어가장군은 부친을 살리기 위하여 손수 소를 잡고 상놈이 된 것이다. 부친의 완쾌를 본 그는 만족하였다. 그러나 양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은 오직 죽는 길뿐임을 알았다. 그래서 부모님께 의절을 고하고 죽기를 간청하였다. 할 수 없이 그를 상자에 넣고 바다에 버리게 되었다. 그의 혼백은 바다를 표류하였다.

그러던 중 제주도 북군 구좌읍 세화리 단지모래에 도착하게 되었다. 얻어 먹을 곳을 찾아 보기 위하여 바당소 동산에 올라 세화리 마을을 살펴보니 ‘동잇한집’이란 귀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할 수 없이 산간으로 올라가 송당 높은 오름으로 가보니 ‘하늬

바람'귀신이 지키고 있고, 통오름에 올라 난산쪽을 보니 거기에도 '쇠당'귀신이 자리하고 있었다. 다시 방향을 바꿔 성읍리로 가 보았으나 '할망당'귀신이 버티고 있어서 가던 길을 되돌아 마지막으로 뢰미르(臥江)로 와 보니 과연 양반이 살 만한 지형이었다. 여기를 정착지로 하고자 사방을 돌아보니 집배기 못미처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이 보였다. 그 곳으로 찾아가 보니 '고망 할망'이 살고 있었는데 거처하기를 요구하자 불응하면서 윗집 김씨 영감을 찾아가 보라고 하였다.

그 김씨 영감이 바로 경주 김씨 김정희(삼달하동 거주) 육대손 김대길이란 분으로서, 지금으로부터 약 180여년전 일이다.

그리하여 어가장군 혼백은 김씨 영감에게 위탁되었다. 그러자 김씨 영감은 갑자기 죽게 되었는데 내가 죽더라도 목지 말라고 유언하고 숨을 거두었다. 유언대로 그대로 두었더니 삼박사일 만에 다시 회생하여 황 정승 셋째아들 어가 장군의 혼백이 자기 몸에 위탁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그후 김씨 영감은 신통력을 발휘했는데 소소한 병은 손만 만져도 나았으며 어떤 병도 침이나 경으로 치료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많은 돈을 벌게 되어 갑자기 부자가 되었는데 이웃을 도움은 물론 나라에까지 재물을 진상하니 나라에서는 그에게 통정대부의 직함이 내려졌다.

김씨 영감은 평생을 황 정승 셋째아들 혼백을 신탁하고 제사 지내며 모셔왔는데 그후 한바기물 강씨가 본향당에 다니기 시작하더니 김씨가 돌아간 후로는 그의 덕을 기리어 4년에 한 번씩 큰굿을 하며 '전 부락민(全部落民)'이 모시는 본향당(本鄉堂)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김씨 영감 유언에 따라 집배기 본향을 향하여 묻혔는데 마을 공동의 본향당으로 된 지가 150년에 이르고 있다.

본향제는 매년 음 정월 2일, 2월 13일, 7월 13일 당을 책임진 무당이 행한다.

부락민은 제물로 메(밥), 쌀, 떡(흰돌래떡), 계란 1개, 종이(백지) 등을 지성으로 진설(陳設)하는데 다만 저육은 금물로 되어 있다

31. 부부석

현재의 이사무소 앞 새마을 창고와 보건진료소가 지어진 자리 일대가 과거에는 큰 연못이었는데 동쪽 못의 물은 식수로 이용했고 서쪽 못은 마소의 급수와 빨래터로 이용하였다. 빨래를 하던 연못 한쪽에 큰 바위 두 개가 사이좋게 나란히 서 있었는데 이를 부부석이라 불렀다.

표선면 성읍리 지경에 좌보악이 있는데 이곳에 있었던 큰 바위 둘이 냇물에 밀려 내려왔다가 어느해 큰물이 나 한 개는 진빌레에, 한 개는 사시 내창가에 걸렸다고 한다. 그 후 몇 년간 흉년이 들게 되었다. 풍설에 이 두 바위는 부부석인데 같이 있지 못하고 헤어져 있어서 흉년이 든 것이라 했다. 그래서 윗동네에서는 따로 떨어진 바위를 득리못에 옮겨 놓으려고 하고 아랫동네에서는 진빌레에 있는 바위를 사시 내창가로 옮기겠다고 하여 다투다가 결국 현재의 자리에 윗동네 사람들에 의해 옮겨졌다고 한다. 지금도 이 큰 바위가 나란히 누워 있는데 큰 바위는 남편이고 작은 바위는 부인의 형체라 해서 이 두 바위를 부부석이라 한다.

자료 제공 : 고학주

32. 백중

옛날 차꿇병뒤라는 곳에 백중이라는 목동이 살고 있었다. 하루는 바닷가에서 우마를 돌보고 있는데 옥황상제가 구름을 타고 내려 오는 것이었다. 깜짝 놀라 몸을 숨기고 가만히 엇들으니, 옥황상제가 바다를 향하여 '거북아' 하고 부르니 잠시 후 거북이가 바다 위로 떠올랐다. 백중은 한층 더 호기심이 발동하여 엇들으니 상제가 '거북아, 오늘밤에는 석 자 다섯 치의 비를 내리게 하고 폭풍이 불게 하라'는 것이었다. 백중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큰일이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면 홍수가 날 것은 물론이요, 가축과 모든 곡식이 성할 리 없었다.

그래서 백중은 즉시 언덕에 올라가 상제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거북이를 부르자 잠시 후에 거북이가 물 위로 떠올랐다. 백중이 "내 아까 잠깐 실수를 해서 말을 잘못했구나. 비는 다섯 치만 내리게 하고 바람은 불지 않게 하라" 고 하자 거북이는 알았다는 듯이 물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밤 비는 백중이 말한 대로 알맞게 내리고 바람은 불지 않았다. 옥황상제가 가만히 굽어보니 명령대로 되지 않아 크게 노하여 차사를 시켜 백중을 잡아들이라 하였다. 백중이 이러한 죄를 받게 되자 스스로 바다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는데 그 해는 대풍작이었다. 이에 사람들은 백중이 죽은 날에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33. 배공이터와 버리동산

수산리 1242번지는 과거 배공이라는 사람이 살던 배공이터라 전해진다. 옛날 배공이라는 사람에게 16살 된 무남독녀가 있었는데, 어느 날 들에서 일을 하고 돌아와 보니 딸이 흥기에 찢려 죽어 있었다. 배공이는 이 사실을 관가에 알리고 범인을 찾으려 고 온갖 노력을 다했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의 버리동산에 모여 의논도 하고 조사를 했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관리는 궁리 끝에 재차 마을 사람들을 버리동산에 모아 놓고 한 사람씩 불러 왼쪽 심장을 만져 보며 맥박이 뛰는 것으로 범인을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심장이 요란하게 뛰고 맥박이 빨라져 조사해 보니 범인임이 드러났다.

이 동산은 지형이 벌처럼 생겼다고 해서 충이동산이라고 부르던 것이 와전되어 버리동산이 됐는데, 살인범을 잡기 위해 여러 차례 부락민이 모여 회의를 가진 후부터 상뒤편 동산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고학주 제공

34. 물징거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이 상처(喪妻)를 했다. 후궁 감을 구하라고 신하들을 온 세상에 내보내니 한 신하가 제주섬에서 미인을 구하여 바쳤다. 신분이 미천했으나 천하일색이어서 왕의 마음에 들었다. 그 여자는 곧 아기를 가졌는데 열 달이 되어도 아기는 낳지 않고 알 다섯 개만 낳았다. 그런데 그 알이 점점 커져 스스로 깨어나더니 건장한 사내 500명이 나왔다 이들은 자랄수록 외모가 출중했고 하는 짓도 범상치 않았다. 더구나 그들은 매일 서로 싸움질을 하여 왕을 근심하게 했다.

왕은 신하들을 불러 의논했으나 그럴 듯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던 터에 신통력이 대단하다는 점쟁이가 궁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점쟁이는 제주섬에 있는 장군의 혈을 끊어 버리지 않으면 장차 변란이 일어나리라 했다. 이에 땅속을 훤히 보는 풍수사 ‘고종달이’ 즉 호종단에게 지리서를 들려 제주로 보내 모든 혈맥을 끊게 했다.

왕의 명을 받고 호종단은 제주 동쪽 바닷가에 도착하여 물에 내렸다. 때마침 지나가는 이가 있어 예가 어딘가고 묻자 “종달리우다”라고 대답했다 “뭐? 종달이?” 호종단을 ‘고종달이’라고 하는 터라 남의 이름을 함부로 나불대는 섬 것이 괘씸했다. 그는 핫김에 종달리 큰 샘의 혈을 당장 떠 버렸다. 그 순간 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종달리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물을 찾아 바닷가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호종단이 물을 끊어 버렸다 하여 그 샘을 “물징거”라고 불렀는데 지금도 그 샘터에 물이 펄펄 솟아나던 구멍은 그대로 있다.

35. 문씨영감의 묘

일곱 살이 되도록 몸이 몹시 병약하여 구덕밖을 나오지 못하고 누워서만 살던 애기가 하루는 어머니가 혼인지에 물 길러 갔다 오는사이에 없어졌는데 동네 사람들을 동원하여 찾다보니 ‘황루알’바닷가에 떨어져 물 위에서 두 이레, 물아래에서도 두 이레를 떠다니다 ‘개앞코지’로 나왔있었다. 보니 한 손에는 유리잔 또 한 손에는 무쇠갓을 들고 나와

‘본향당신(맹오부인)’ 밑에서 마을의 물고, 생산, 호적, 장적등을 거드는 종사관이 되었다. 맹오부인과 같이 무업(巫業)에 종사하다가 죽어서 문씨 영감의 묘가 현재 온평리 속칭 벼자 못 고명환 씨 과수원 입구 우측에 있으며 매년 당에 매인 심방(본향당 관리 무속인)이 별초를 하고 있다.

그리고 묵은 열운이에서 문씨 영감과 같이 무업에 종사했었다는 ‘함씨’도 현재 온평리 ‘속칭’ 함씨 버덕에 묘가 있다. 그러나 그의 묘는 누가 돌보지 않고 방치 상태에 있다.

36. 대봉이 터와 남매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 수산리 1141번지 속칭 진빌레 동네에 대봉이터란 곳이 있는데, 그곳에 현대봉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다. 축산을 생업으로 하여 비교적 넉넉하게 살았으나 나이 40이 넘도록 슬하에 후대를 이을 자식이 없어 하염없는 시름에 잠겨 있던 어느 날, 시주승이 지나가다 하는 말이 '부처님께 시주를 후히 하고 지성으로 빌면 자식을 얻을 수 있으리라' 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봉이는 황소 한 마리를 시주하고 지성으로 빌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한 달쯤 뒤에 부인에게 태기가 있는 게 아닌가. 대봉이는 너무 기쁜 나머지 건강한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하여 부인에게 한 달에 소 한 마리씩 10개월 동안 10마리를 잡아 먹여 얻은 자식이 딸이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대로 양육에 온 정성을 다한 결과 일장월취하여 체구가 유달리 크고 힘이 장사였다. 동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동네에 여장사가 태어났다고 놀랄 정도였다.

그런데 그 이듬해에 부인이 또다시 임신을 하게 되었다. 대봉이는 너무 기뻐 다시 소를 잡아 부인을 보신시켰는데, 이번에도 여아를 낳으면 어찌나 하고 걱정을 하다 아홉 마리만 잡아 먹었다. 그러나 낳아 놓고 보니 아들이라 '아불싸 그럴 줄 알았으면 여섯 마리쯤 더 잡아 먹일 걸' 하고 후회하였으나 어쩔 수 없었다. 그러나 지성으로 양육한 결과 누나 못지않을 만큼 체구나 체력이 대단하였다.

이 두 남매가 나이 20이 되었을 때 조천리에서 전도에 걸쳐 씨름 대회가 열린다는 것

이었다. 대봉이는 자식놈의 힘을 시험해 보기 위해 아들을 경기에 출전토록 하고, 그보다 힘이 센 딸을 남장시켜 후견인으로 보냈다. 드디어 단오날이 닥쳐 제주 삼읍에서 내로라 하는 장사들이 모두 모였고 많은 관중이 모여 들었다. 시간이 되어 경기가 시작되었다. 아나나 다를까 아들은 승승장구하여 씨름왕이 되는 찰나에 관중들이 수근대기 시작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제주도내에서는 삼읍의 지역세를 겨루는 경우가 많은 때였다. 아들의 기세를 보아 하니 그를 당할 자가 없음을 알고 목안(조천리는 목안 지경) 사람들이 '와!' 하고 들고 일어나 발모듬으로 아들을 처치하려 하는 것이었다. 이에 미리 예상하고 대기하던 남장한 누나가 “내가 씨름왕이 된 저 놈과 대결을 하겠다. 나는 목안의 서촌에 살고 있지만 저놈 정도는 능히 이길 자신이 있다”라고 호언을 하며 나타나는 것이었다. 관중들이 동의하자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은 다시 대결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는 황소 열 마리를 먹고 태어난 딸의 승리로 끝났다. 만일 그 경기를 치르지 않았다면 아들은 정잇놈이라는 이유로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아들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기가 꺾여 돌아왔던 것이다.

씨름에 이긴 누나는 셋길로 재빨리 돌아와 동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동생이 비참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것이었다. 누나는 동생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다. 이야기를 듣던 누나가 동생이 측은하여 마지막에 대결한 사람이 면식이 있는 사람 같지 않더냐고 물었다. 그제야 동생이 그 사람이 남장을 한 누나였다는 것을 깨달았고 온 가족이 환성을 질렀다. 그래서 대봉이의 딸이라고 하면 제주인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37. 담배 한대로 얻은 부자

고성리 ‘남문집’은 전라도의 갑부로 종을 스무남은이나 두고 평평거리며 살았다. 그러나 그도 아직 부자가 되기 전에는 육지에 가서 쌀을 사다가 섬 안에서 팔아 근근히 살아가는 정도였다고 한다.

어느 맑은 여름날, 그날도 남문집 오씨는 서울에서 쌀을 받아 인천 남양만으로 가 배에 싣고서 바람 자기를 기다리며 부둣가의 주막 평상에 앉아 있었다. 한참을 무료하게 앉았노라니 몇 사람의 사령들이 가마를 메고 왔다. 그런데 그들은 가마를 내려놓고 술

청으로 들어가 막걸리를 받아놓고서 저들끼리만 마시고 떠들어대고 있었다. 그가 가만히 가마 안을 들여다 보니까 가마 안에는 귀인처럼 보이는 노인 한 분이 앉아 있었는데 담배가 떨어졌는지 빈 담배통만 뽁뽁 빨았다 털었다 하고 있었다. 오씨는 얼른 자기 씹지에서 담배 한 움큼을 꺼내 손바닥에 비벼서 노인 앞에 내밀었다.

“어쩐 일이냐?”

“예에 어그러진 일이오나 제가 무료해서 앉아 보고 있으려니 어른께서 담배가 없으신 것 같기에 담배 한 대 올립니다.”

“음…그래?…그러면, 다시 서울 올 기회가 있거든 내 집이 운현궁이니 한번 찾아오나라.”

오씨는 운현궁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 노인은 당시 중국에 볼모로 잡혀가던 대원군이었다.

몇 해 후에 제주에 흥년이 들어서 오씨는 다시 곡식을 사러 서울로 가게 되었는데 곡식을 사서 배에 싣고 나니 문득 지난번의 그 노인말이 떠올라 주막 주인에게 물었다.

“서울에 운현궁이라는 집이 어디요?”

“운현궁은 알아서 뭇 하세요?”

“내 이만 저만해서 운현궁 주인을 좀 만나봐야겠으니 좀 가르켜 주시오.”

“저기 보이는 처마 높은 집이 운현궁이오.”

오씨는 운현궁을 찾아가서 “주인을 만나러 왔다”고 말했다가 “주인이 뭐냐, 이놈 불경죄로 다스리겠다”고 사령들에게 호되게 매만 맞고 쫓겨났다. 그래도 뱃심이 있는 오씨는 쉽게 물러나지 않고 몇 번씩이나 운현궁 문을 두드렸는데 마침 밖의 소란을 들은 대원군이 오씨를 불러들여 오씨는 마침내 궁궐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높직이 앉은 대원군을 본 오씨는 소리를 질렀다.

“저 소인은 일전에 남양만서 어른을 한번 뵈었던 사람입니다.”

대원군은 그를 보고 자기가 볼모로 잡혀갈 때 담배 한 대를 얻어 피운 적이 있었던 사람임을 알아차렸다. 그는 매우 반가워하며 오씨를 융숭히 대접하였다. 또한 오씨에게 소원을 물어 제주목사를 시켜 필요한 만큼의 관전(官田)을 나눠 주었다. 오씨는 담배 한 대 덕분에 줄지에 큰 부자가 되었다.

성산을 신흥리 오문복(남) 제보

38. 골매당

골매당은 도내에서 드물게 보는 쇠당이다. 이는 소를 위한 당인데 설촌 당시부터 있어 왔으며 그 유래도 두 가지로 전해진다.

1) 나주 땅에서 백정이던 ‘시륙이’, ‘사륙이’, ‘기행이’라는 3형제가 못된 짓을 하여 제주로 귀양을 오게 되었다. 삼형제는 신이 내려왔다는 한라산에 올라가 자기들이 살 만한 곳을 둘러보니 송당이 눈에 띄어 거기에 내려왔다. 이어 비조곶, 좌부미 등으로 옮겨가며 살다가 수산 김 참봉네 집 구렁비 나무에 살다가 신구간에 나무를 베어 버렸기 때문에 난산 지경에 왔다가 향문으로 창자가 빠져서 죽었다.

그 다음부터 소가 병이 들거나 잃어 버렸을 경우 이들이 죽은 곳에서 제를 지내면 병도 낫고 소가 돌아오기도 했다 한다.

2) 지금의 골매당 근처에 큰 바위가 있었다. 비가 오는 날 어떤 목동이 바위 옆에서 비를 피하여 앉아 쉬면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놀다가 비가 그치자 그 흙 인형을 둔 채 그냥 가버렸다. 그 후에 어떤 사람이 이 곳을 지나가다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을 때리니까 상처에서 피가 흘러 내렸다. 그래서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을 지금의 골매당 자리에서 부숴 버렸는데 그 후에 소나 말이 병이 나고, 잘 죽고 잘 잃어 버렸다. 이에 주민들이 제사를 지내고 목동이 만든 흙 인형을 신으로 위했다.

그 다음부터는 마을에서 소를 새로 사오거나 외부로 팔 때에는 꼭 이 곳에 제를 지내야 되고, 병이 나거나 잃어 버렸을 때도 이곳에서 제를 지내면 병이 낫고 소가 제 발로 집에 돌아왔다고 한다.

특색

축산은 남자의 일이다. 그러므로 골매당에 여자는 원칙적으로 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소를 가진 남자가 누구를 빌지 않고 스스로 가서 제를 행한다. 즉 다른 당처럼 무당이 같이 가서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런 원칙이 많이 파괴되어 무당도 다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골매당에 갈 때에는 반드시 소의 고삐를 만들어서 가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형짚이나 삼베 혹은 신설란으로 고삐 모양을 만들어서 나무에 걸어놓고 온다고 한다.

제5장 안덕면 편



탐라순력도의 산방배작

제5장 안덕면 편

1. 군산(軍山)

안덕면 창천리(倉川里) 지경에 자그마한 산이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군막을 쳐 놓은 것 같아서 군산이라 불려왔다. 그런데 이러한 이름이 붙게 된 데는 많은 이야기가 전한다.

옛날에는 지금과 같은 마을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겨우 10여 호가 살고 있을 정도였다. 그 중에 강(姜)씨 선생이 있었다. 그는 글을 많이 읽어 주변에서는 학식 있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다. 더구나 인품이 훌륭하여 강 선생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글을 배우러 모여 들었다.

하루는 제자들을 둘러앉히고 글을 읽는데, 문밖에서도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다.

선생은 이상히 생각하여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았다. 방안에서 ‘하늘 천’하면, 바로 이어 문밖에서 따라 ‘하늘 천’ 하는 것이 아닌가. 이상하다고 여기고는 밖을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별로 흥측스러운 일이 아니라 그냥 지내게 되었다. 그렇게 삼 년쯤 계속 되던 어느 날이었다.

하루는 선생이 글 읽는 사람들을 돌려보내고는 잠자리에 들었을 때였다. 아마 거의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다.

“선생님, 주무십니까?”

선생은 꿈속인 듯 생시인 듯 어렴풋이 그 소리를 들었다.

“누구시오?”

“예, 저는 저 멀리서 온 동해 용왕의 아들인데, 그 동안 선생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선생님 밑에서 3년간 글을 읽었습니다. 이제 기한이 다 차서 선생님을 하직하여야 할 처지가 되어 이렇게 작별의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올리는 것이었다. 강 선생은 모든 게 모르는 일이었으나, 문득

그 동안 땃돌 아래에서 들리던 그 글 읽던 소리를 생각해내고는 그가 바로 이 용왕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제 돌아가야 할 처지가 되어 그 동안 선생님께 입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사오니, 뭐라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뢰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

용왕 아들이라는 자의 청이 간절했지마는 사실 욕심과 세상 부귀영화에 관심이 없던 그에게는 뭐라고 부탁을 할 만한 게 없었다.

“나야 뭐 젊은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게 유일한 즐거움이고, 내 생활은 모두 그대들이 도와주니 내겐 불편하다거나 필요한 게 없어요. 현대 저 냇물이 요란하여 글 읽는 데 조금 시끄러운 것밖에는...”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사실 그 동네 앞을 흐르는 그 ‘창곳내’가 비라도 크게 내리는 날이면 냇물 소리가 크게 들려 아이들과 글 읽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그 일이 결코 선생에게 꼭 소원되는 일은 아니었다. 그런데 용왕의 아들은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

“선생님 그 일 정도는 어떻게 해결하도록 하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는,

“제가 돌아간 후에 며칠이 있으면 큰 비와 바람이 며칠 간 내리칠 것이오니 아무 걱정마시고 그저 방문만 꼭 걸어 잠그고 지내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문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이레 되는 날에는 문을 여십시오.”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그는 떠났다.

아니나 다를까 그가 떠나고 얼마 없어서 뇌성병력이 치고 폭우가 내리치기 시작하였다.

선생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는 두문분출 며칠을 지냈다.

그렇게 지내기 칠 일째 되는 날이었다. 밖에 비바람도 잔잔해지는 것 같았다. 선생은 이제는 별일이 없으려니 하고 문틈 밖을 살며시 내다봤다. 그 순간이었다. 이상한 빛이 번쩍하니 방안으로 들이 치더니 그만 선생은 아찔하고 쓰러져 버렸다.

뒗날 깨어보니 선생은 아무래도 왼쪽 눈이 이상하게 보이질 않았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 보니 이상한 일이 벌어져 있었다. 전에는 없던 산이 딱 버티어 서 있었다. 그리고 세

상은 언제 폭우가 쳤냐는 듯이 맑게 개어 있었다.

이 때 고려 조정에서는 제주도에 천재지변이 일어났다고 하여 관원이 그 진상을 살피러 내려왔다. 관원은 이 새로 생긴 산을 보고는 그 연유를 알지 못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산이 중국 곤륜산(崑崙山)이 이곳으로 옮겨왔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중국에 있는 서산(瑞山)과 모양이 비슷하다 하여 서산이라 부르다가, 그 모양이 군막(軍幕)같다고 하여 군산(軍山)이라 부르게 되었다. 또한 그 산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났다고 하여 (굴루로 생겨났다고 하여) 군뢰, 또는 군뢰오름 이라고 불려지기도 했다.

또한 이 군산 봉우리는 예부터 금장지(禁葬地)로 전해왔다. 바로 쌍선망월형(雙仙望月型)이라해서 너무나 명당이기 때문이다.

이곳에 묘를 쓰면 큰 가뭄이 계속되거나 큰 장마가 계속되어 흉년이 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어느 때도 갑자기 가뭄기 시작하여 농사가 결판 날 지경에 이른 적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필시 이는 누가 금장터에 묘를 썼다고 그곳으로 몰려갔다. 그래서 그 산꼭대기를 아무리 파헤쳐 봐도 아무것도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계속 그 주위를 파헤쳐 버리자 갑자기 하늘에 비구름이 몰려오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가뭄을 면할 수 있었다.

안덕면 창천리, 김하규(남) 제보

2. 유반석(儒班石)과 무반석(武班石)

안덕면 화순리는 동서 동네로 나누어졌는데, 신작로를 중심으로 하여 동쪽은 동동네, 서쪽은 섯동네라 한다. 섯동네에는 힘이 센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동동네에서는 글을 많이 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

동동네에는 동쪽 냇가 높은 언덕에 큰 바위가 있었고, 섯동네에도 서쪽 썩은 다리라는 언덕에 또한 큰 바위가 있었다. 사람들은 어느 사이엔지, 동동네에 있는 바위를 유반석(儒班石)이라 하고, 섯동네에 있는 바위를 무반석(武班石)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소위 글을 했다는 양반이라는 동동네 사람들이 항상 섯동네 사람들에게 꿈쩍을 못하였다. 동동네 사람들은 이게 화날 일이었다.

어느 해에 동동네에 외지에서 지나다니던 사람이 머물러 살게 되었다. 그는 화순리 ‘펼물집’이라는 양(梁)덕에 머물러 지내게 되었다. 그 사람도 얼마를 지내는 동안에 이 동네 사정을 알고는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양반들이라는 사람들이 힘센 사람들에게 끌리는 일은 좀처럼 볼 수 없던 일이었기에 이 마을 사정을 유심히 보고 있었다.

어느 날 밤이었다. 그는 집을 나와 마을을 거닐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 무반과 유반의 일에 마음을 두고 있었다. 그때였다. 그의 눈앞에 이상한 불빛이 나타났다. 동쪽과 서쪽에 꼭 같이 불빛이 나타났는데 서편에 나타난 불빛이 동편 것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음을 보았다. 그는 이 사실이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여기면서 그 밤을 보내었다.

뒷날 그는 지난밤에 불빛이 보이던 그 쪽을 찾아가 보았다. 큰 바위가 버티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바위들을 자세히 보니 그게 범상한 바위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반드시 이 바위에 무슨 연유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그날 저녁에도 밖에 나와서 그 바위들을 유심히 봤다. 역시 양쪽 바위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데, 서쪽 불빛이 동쪽 불빛보다 더 밝고 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였다. 그는 유반들이 무반들에게 힘을 쓰지 못하는 연유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사실을 동동네 유반들에게 은근히 귀뜸을 하였다.

“여보시오들, 당신네가 섯동네 사람들에게 끌리지 않기 위해서는 저 바위를 무너뜨려

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동동네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믿었다. 그러나 정작 그 바위를 무너뜨릴 방법을 마련할 수는 없었다. 서로 얼굴들만 쳐다볼 뿐 별 수를 내보이지 못하였다. 그날부터 동동네 사람들은 썩은 다리 언덕에 있는 바위를 무너뜨릴 방도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해 가을이었다. 그 마을에 상사(喪事)가 났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장사를 치러야 하였다. 동서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어 장사 일을 맡아서 일들을 하는 중에 동동네 사람들이 머리에 불현듯 생각이 떠올랐다.

“바로 이때다. 오늘 해치우자.”

그들은 장상날인 오늘 그 일을 해치우자고 의논을 하였다.

장사 일이 진행되는 동안 동동네 사람들은 여러 꾀를 생각하였다. 그러는 가운데 역시 그들의 힘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결정을 내렸다.

장사 일을 마치자 상가 집에서 내놓은 술로 일꾼들이 모두들 거나하게 취하였다. 그 때를 동동네 사람들이 놓치질 않았다.

“자, 기분도 그렇지 않고 하니 우리 힘자랑이나 합시다.”

힘자랑을 동동네에서 먼저 제의하자, 서동네 사람들은 이게 웬일이냐면서 코웃음을 쳤다.

“그래, 해봅시다.”

서동네 사람들이 기고만장하였다. 힘자랑은 시작되었다. 제일 힘센 사람이 나와서 ‘돌’들기로 하였다. 할 적마다 동동네 사람들이 질 수밖에 없었다. 그럴수록 서동네 사람들이 기고만장했다.

“자, 이번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저 바위를 굴러보기로 합시다.”

동동네 청년이 나서서는 서동네 그 바위를 가르쳤다.

“이번에는 우리부터 먼저 하겠소. 노상 지기만 했으니,”

동동네에서 먼저 무너뜨려 보기로 하고 힘내기는 시작되었다. 서동네 사람들은 속으로 웃기만 하였다. ‘제간 놈들이 모두 힘을 써본다 해야 다 아는 돌대맹이 아니냐.’

동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힘을 쓰는 척하였으나, 바위가 끄떡 할 리 없었다. 그들은

손을 털고, 비실비실 뒷걸음질하면서 물러났다.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셋동네 사람들이 ‘우와’ 소리 지르며 바위로 달려들었다. 순식간에 그 큰 바위는 나동그라졌다.

그때였다. 그 굴러 넘어진 바위 아래에서 청 비둘기 한 쌍이 ‘푸드득’ 날아 하늘로 솟았다. 비둘기는 한라산 쪽으로 유유히 날아가 버렸다. 그제야 셋동네 사람들은 동동네 사람들이 흥계를 알았다.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질 일이었다.

“야, 저놈들이 우리를 속였다. 우리도 가서 저 유반석을 부수자.”

셋동네 사람들이 ‘우와’ 소리를 지르면서 유반석으로 달려갔다. 모두들 그 바위에 물려들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다. 그들이 모여들면 거뜰히 넘어뜨릴 수 있다고 믿었던 유반석이 끄떡도 하지 않았다. 셋동네 사람들은 땅을 치며 억울해 하였다. 그러나 이미 었질러 놓은 물이었다.

그 후부터 이상하게도 셋동네 사람들의 힘이 점점 약해져 갔다. 힘쓰는 사람들이 병들든지 죽어가든지 하였다. 결국 힘으로 동동네 사람들을 당할 수 없게 되었다.

안덕면 창천리, 김하규(남) 제보

3. 산방굴사 약수물

안덕면 사계리 해안가에 높이 솟아오른 종모양의 산방산 중턱에 산방굴이 있다. 이 굴 안에는 산방굴사가 있는데, 굴 천장에서는 지금도 약수물이 똑똑 떨어지고 있다. 옛날부터 자식 없는 사람들이 산방굴사를 찾아와서 자식 낳게 해 달라고 ‘수룩’[祈子儀禮]을 드렸었다. 약수물은 꼭 세 방울씩 떨어지는데, 나무통을 만들어 물을 받고 있다.

수룩 드리러 온 사람이 셋이면 세 사람이 굴 안에서 그 물을 먹고 메를 해서 올리고 했는데, 아들을 낳을 사람에게는 약수물이 부족하질 않았고, 딸을 낳을 사람에게는 물이 부족했다고 전한다.

지금도 시멘트로 물통을 만들어서 윗통이 가득 차면 아래통으로 넘치게 만들어 있다.

지금도 떨어지는 산방굴사의 약수물은 산방덕이란 여인이 흘리는 눈물이라 한다. 산

방덕의 남편은 고성목으로 화순리 사람이었는데 큰 부자로 살았었다. 고성목이 원래 부자여서 산방덕이를 첩으로 맞아들여 살았다.

옛날부터 제주도는 과수나무가 있어 그 열매를 진상품으로 조정에 진상하곤 했었다. 고성목이네 과수원은 바로 산방산 옆에 있었는데 아주 넓고 과수나무도 훌륭히 자랐었다. 과수원에는 할 일이 많아 머슴들을 백여 명씩이나 거느리고 살았다. 식사를 백여 명이 동시에 하더라도 숟가락이 부족하지 않았었다.

이처럼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산방덕 여인의 재산복과 노력 덕분이었다. 그런데, 산방덕이 고성목과 인연이 다하여 산방굴사에 들어가 죽자 그것으로 끝이었다. 산방덕이 평범한 사람이라면 죽은 시체라도 있어야 할 것인데, 시체도 없고 아무런 흔적도 없으니, 그건 도깨비 같은 산방산신의 딸이었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산방덕이가 산방굴사에 들어가 죽어버린 후에는 고성목 집안도 망했다 한다. 산방굴사에 들어가 죽으니 산방굴사 약수물이 산방덕이 다하지 못한 인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대정읍 보성리, 강신생(남) 제보

4. 형제섬(쥐섬)

안덕면 사계리 산방산 앞 바다에 두 개의 조그만 바위섬이 서로 다정히 쳐다보며 서 있는데, 이 섬들이 바로 형제섬이다. 예부터 이 섬에 쥐가 많이 살았기 때문에 쥐섬이라고도 한다.

형제섬에 떼를 지어 사는 쥐를 잡으려고 고양이 백 마리를 가져다 놓는다 해도 고양이는 살 수 없었다. 그것은 쥐가 수만 마리나 되어서 먹을 것이 없어 오히려 쥐가 고양이를 잡아먹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제주도 4·3사건 당시 형제섬에 살았던 어떤 사람이 경험한 일이다. 쥐가 아주 들끓으니 큰 고양이를 한 마리 사다 놓고 부엌문을 열고 살펴보니 수십 마리 쥐가 달려들어 한

마리의 고양이를 뜯어먹으려 하고 있었다. 4·3사건 때 이러한 일로 제주도의 고양이가 멸종 할 뻔 했다고 한다. 쥐가 너무 많아 먹을 것이 부족한 까닭에 쥐들은 고양이가 자신들의 먹이를 다 먹어 버릴까 염려해서 고양이에게 덤벼들어 고양이를 죽였다는 것이다.

지금도 형제섬에는 쥐가 많다고 한다. 낚시꾼들이 형제섬에 들어가서 고기를 낚아 올릴 때면 쥐들이 낚싯대에 매달려 오르는 고기를 따라 치달아 올라 끊어먹을 정도라 한다.

현재는 형제섬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 형제섬에 그렇게 쥐가 많은 것은 마주보며 서 있는 형제섬 바위의 형태가 쥐 모양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이 섬에 사는 쥐들은 바닷가에서 소리를 잡아먹고, 풀뿌리를 파먹으며 산다고 한다.

대정읍 보성리, 강신생(남) 제보

5. 고종달이

제주도는 섬이지만 앞으로 장수가 많이 태어날 혈맥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고 두려워 한 중국의 진시황제가 지관인 고종달이를 보내어 제주도의 혈맥을 끊도록 했다. 고종달이가 혈맥을 끊었다는 데서 후손이 끊긴 사람을 가리켜 고종달이라고도 한다.

또 영장과 송장이라는 말이 있다. 영장은 후손이 있는 사람을, 송장은 직계 후손이 없고 양자 정도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렇게 부른다.

고종달이란 사람은 큰 지관이지만 심지(마음씨)가 아주 나빴다.

제주도는 혈맥이 뛰어나므로 머리가 총명하고 힘이 센 장군이 태어날 곳이었다. 이를 막기 위해 진시황의 명을 받아 제주도에 온 고종달이가 한라산 백록담에 올라가서 쇠판을 딱 붙여놓고 혈맥을 살펴보니 대정 쪽에는 열부 열사만 태어나게 되었다.

이제는 제주도 동편 정의현에서부터 혈맥을 밟아 끊으면서 서쪽으로 돌아와 드디어

흥리 지장새미에 다다랐다. 지장새미는 크지 않으나 물이 꾸준히 솟아 나왔다. 그리고 지장새미 물이 마를 때면 제주시 산지 위쪽 ‘가락콧물’이 많이 솟아나고,가락콧물이 마르게 되면 지장새미 물이 잘 나왔다.

고종달이가 물혈을 끊으려 지장새미 근처에 이르렀을 때 지장새미 옆에서 밭가는 농부가 있었다. 농부가 한창 밭을 갈고 있을 때, 조그만 할머니가 “사람 살려 달라”고 애원을 했다.

“어째서 그러느냐?”

“저 고종달이 놈이 물 혈 뜨러 왔는데 날 살려주십시오. 내가 숨을 곳이 없으니 숨게 해주십시오.”

밭을 갈러 갈 때에는 소 길마로 짐을 실어가곤 하는데, 농부는 양재기로 물 한 사발 을 담아 소 길마 밑에 놓았다. 지장새미 물귀신 할머니가 바로 그 행기물에 들어가 숨었다.

고종달이가 지장새미에 이르고 보니 샘에 물이 없었다. 지리 문서를 펼쳐 찾아보니 ‘꼬부랑 나무아래 행기소’라고 되어 있었다. 꼬부랑 나무는 바로 소 길마를 가리키는 말 이었다. ‘꼬부랑 나무아래 행기소’ 이와 같이 상황에 따라 스스로 변경되는 기막힌 지리 문서였다. 바로 지리 문서에는 지장새미 물귀신이 있는 장소가 올바르게 표시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고종달이는 지리 문서를 거두고 돌아서서 밭가는 농부에게 물었다.

“이곳에 꼬부랑 나무 아래 행기소가 어디 있습니까?”

“꼬부랑 나무 아래 행기물이 어디 있어. 이 양반 정신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사십 년을 살았지마는 그런 말은 들어본 바가 없네. 들음이 처음이네.”

고종달이는 밭가는 농부로부터 이런 모욕적인 욕을 듣게 되자, 이놈의 문서가 헛된 것이라고 화를 내며 그 자리에서 북북 찢어 버렸다.

문서를 찢어버린 까닭에 지장새미로부터 제주도 서쪽은 생수가 잘 나오고, 동쪽은 물혈을 끊어버린 때문에 생수가 잘 나지 않는 것이라 한다.

그런데, 고종달이가 물 혈 뜬 것을 가지고 협재 동굴 있는 물살에 가자 혈 뜨고 담아 놓은 주머니 끈이 뚝 끊어져 물이 쏟아 나와 버렸다. 그 물 혈을 주워 담아도 얼마 담지

못하고 또 제주시 산지에 가서 배 타고 떠나려 할 때 물 혈 뜯 주머니가 텅텅하고 빠져 버렸다. 그런 까닭에 산지는 지금도 물이 팔팔 쏟아져 나오는 것이라 한다.

고종달이는 제주에서 물 혈을 떠보았으나 가지고 돌아가질 못했다. 모두 제주도에서 떨어뜨리고 말았다.

또한 고종달이는 중국을 향해 산방산을 이끌고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용머리의 혈도 끊었다. 용머리는 산방산 앞에 위치해 있는데, 산방산을 끌고는 그 옆에 있는 형제섬 너머까지 나갔다가 들어오곤 했다. 그것을 알고는 고종달이가 와서 용머리 양쪽의 혈을 끊었다.

끊어버린 한 쪽을 저승문 이라고 하는데 저승문은 캄캄해서 아무 것도 안 보이거나 다른 한 쪽인 이승 문에서는 물이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고종달이가 용머리의 혈을 끊자 지금은 산방산을 끌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바로 지금 위치에 머물러 버린 것이다. 용머리가 산방산을 끌고 좀더 밖으로 나갔을 때 혈을 끊었으면 지금보다도 화순항이 더 넓게 될 것이었는데 들어올 때 혈을 끊어버려서 넓지 못하고 지금과 같이 되었다 한다.

대정읍 보성리, 강신생(남) 제보

6. 창천리(倉川里) 지명 유래

지금부터 약 300여 년 전이었다. 대정고을에 강위빙(姜胃聘)이라는 사람이 대정 좌수로 있었다. 그는 인품이 훌륭하였으나 집안이 가난하여 늘 초라한 의관을 하고 공사를 봤다.

하루는 그 강 좌수가 목사를 맞이하기 위하여 정의와 대정 지역의 중간 지대인 중문 방면으로 나갔다. 목사가 제주에 부임 초도순시하는 때여서 목사는 이 지역 여러 일들에 관심을 유달리 갖고 순행을 하고 있었다.

목사는 자기 일행을 맞이하기 위하여 온 강 좌수의 초라한 행색에 마음이 쓰였다.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마음에 들었고 사리가 분명한 인물 같았다. 목사 일행은 이제 대정 지경으로 들어서서 지금 창천리(倉川里) 지경 냇가에서 휴식을 하고 있었다.

“저 곳에 집을 지으면 당대에 대정 갑부가 날 것인데…….”

목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강 좌수를 바라보았다. 강 좌수는 목사 앞에 꿇어 엎디어서는,

“감사합니다. 제게 그 땅을 허락하여 주시면 백골난망입니다.”

목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강 좌수를 향해 빙긋이 웃었다.

강 좌수는 대정고을에 있는 집을 옮겨 그 허허벌판인 지금의 창천리로 이사를 하였다. 누구도 살지 않았던 그 허허벌판을 개척하기 시작하자 몇 년이 아니 되어 부자가 되었다. 그 뒤로 오태연(吳泰連) 김두경(金斗崗)등이 이사를 와서 강 좌수의 사위가 되어 일 가족을 이루었고, 그 후로 이들을 중심으로 한 씨족부락이 형성되었다.

원래 마을 이름은 창고천리(倉庫川里)라 했는데, 후에 창천리로 바꾸었다. 즉 지금 이 마을을 흐르는 냇가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창고(倉庫) 모양으로 이뤄졌다. 냇의 양 옆에 기암절벽이 있고 그 암벽 모양이 꼭 창고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냇의 이름을 창고천(倉庫川)이라 하고 마을 이름도 창고천리(倉庫川里)라 하였다가 다시 창천리(倉川里)라 하였다.

안덕면 창천리, 김하규(남) 제보

7. 산방산(山房山)과 방철(房哲) 스님

아주 오랜 옛날이었다. 지금 안덕면 사계리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부모도 친척도 형제도 없는 정말 사고무친(四顧無親)이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를 ‘고단이’라고 불렀다. 아주 외로운(고단한) 사람이란 뜻에서이다.

그는 매우 가난한 처지여서 매일매일 동네 품팔이를 하면서 그날그날을 살아가고 있었다. 또한 그 부인은 남의 샅바느질을 하면서 품을 팔아 가게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대로 살림을 꾸려 나갈 수가 있었다. 그렇게 그들 부부는 열심히 일을 하여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었기에 별 큰 걱정은 없었다.

그런데 걱정이 그들 부부에게 있었다. 그것은 바로 결혼 7년이 되었으나 일점 혈육이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산방산에 가서 백일기도를 드렸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귀동(貴童)이었다.

귀동이 일곱 살이 되었을 때였다. 귀동의 어머니가 갑자기 병이 들어 눕더니 약도 변변히 못써보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어린 귀동이었지만 그 슬픔은 말이 아니었다. 그런데 슬픔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일년이 채 못 되어 다시 그 아버지까지 급질로 돌아가게 되었다. 귀동이는 정말 사고무친이 되고 말았다.

귀동이는 천애고아가 되었다. 누구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 그는 결국 절인이 되는 수밖에 없었다.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밥 동냥을 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없는 살림에도 그를 도우는 데는 모두 앞장을 섰다. 그렇게 지내는데, 어느 날 그는 온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그만 고단하여 산방산 기슭에 쓰러져 버렸다. 그는 깜박 잠이 든 사이에 날은 저물어 버리고 말았다. 깨고 보니 밤이었다. 그는 무섭고 춥고 배까지 고파서 그만 ‘으앙’하고 울어버리고 말았다. 그 울음은 좀처럼 그치질 않았다.

그 때 산방산 암자에서 도를 닦던 고승(高僧)이 그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암자에서 나와 아이 있는 데로 갔다. 우는 아이를 데려다가 불빛에서 보니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닌 것 같았다. 그래서 그 아이를 그 고승이 키우기로 작정을 하였다.

암자로 귀동이를 데려온 스님은 그 아이를 키우는 가운데, 아이에게서 범상하지 않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허허, 이놈 보통 아이가 아니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아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글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정말 생각한 대로 귀동이는 보통 아이와는 다르게 영특하였다. 하나를 가르쳐 주면 둘을 아는 총명을 가졌음을 고승은 알게 되었다.

귀동이는 그 암자에서 잔심부름으로부터 밥 짓고 빨래 등속을 처리하는 일들을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였다. 처음에 귀동이를 길에서 데려온 고승은 바로 혜일법사(慧日法師)였는데 그는 마음속으로 귀동이가 큰스님이 될 것을 믿고 있었다. 그래서 그에게 글은 물론 모든 행실과 법도를 그런 입장에서 가르쳐 주고 있었다.

“야, 귀동아, 너 이제 본격적으로 글공부를 할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어느 날 묻자, “스님, 이렇게 스님 덕분에 목숨을 붙일 수 있는 것만도 큰 은 혜이웁고, 더욱이 그 동안 배려를 해주셔서 제 성명자를 깨칠 수 있으니 그것으로 족한 일인데, 다시 무슨 공부가 제게 가당하겠습니까.”

귀동이는 실로 공부를 더하고 싶었으나, 염치없는 일 같아서 사양하는 뜻을 말하였다.

“이놈, 내가 말하는 뜻을 모르면 가만히 있을 일이지 무엄하게 왜 입을 많이 놀리느냐?”

스님은 사실 귀동이가 사양하는 태도를 보이는 일이 기특하기도 하였으나, 칭찬을 하면 앞으로 글공부를 하는 데 게으름이 따를까 저어하여, 첫 번부터 그를 옥박지르듯이 몰아 붙였다.

귀동이는 아무 말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다음 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렸다.

그날부터 그 스님에게 본격적으로 글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글은 일취월장 진보하여 갔다. 천자문부터 시작한 글은 오 년 동안에 사서삼경을 모두 읽었다.

어느 날 스님은 귀동이를 불러 앉히고는,

“네가 글을 읽기 시작하여 이제 다섯 해가 되었은즉 이제는 글공부하는 방향을 정하

는 게 좋을 듯 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앞에 꿇어앉은 귀동이를 던지시 바라보았다. 그는 그냥 고개만 푹 숙이고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떤 공부를 하고 싶으냐, 세상 공부를 하여 과거를 보는 수도 있고, 나와 같이 불경을 공부하여 도를 닦는 길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는 다시 스님은 귀동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그의 마음을 알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스님은 눈을 지그시 감고 고개를 수그린 그 얼굴에서 그의 의중을 살필 수 없었다.

귀동이기도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한마디 하였다가 꾸중을 들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스님의 뜻에 맡기기로 단단히 마음을 가졌다.

“스님의 뜻대로 처분하여 주십시오.”

겨우 이 한마디를 하였다. 스님은 조용히 입가에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로부터 꼬박 15년 동안 그는 스님 밑에서 불경을 공부하였다. 그리고는 계(戒)를 받고 법명을 방철(房哲)이라 하였다. 그는 바로 혜일법사(慧日法師)인 스님의 상좌가 되었다.

“자네는 이제껏 세상 공부도 하였고 오랫동안 불경 공부도 하였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인간세상을 깨닫기는 모자라는 것이다. 이제 진정으로 도를 닦아서 지식과 도가 합치되어야만 세상일을 널리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혜일법사는 조용히 방철 상좌에게 타이르듯 말하였다.

그로부터 다시 그는 도 닦는 일에 정진하였다.

그렇게 도를 닦기 몇 달이 지난 후 혜일법사는 다시 방철 상좌를 조용히 불렀다.

“이렇게 이곳에서만 도를 닦는 일보다 세상 구경을 좀 하고 오는 게 좋을 거야.”

그러고서 육지로 나가서 명산대찰을 두루 참배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방철은 배를 타고 육지로 나갔다. 일러 준 대로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명산대찰을 두루 구경하고 참배를 하였다. 그리고서 다시 중국 여행을 하였다. 이 모든 것이 혜일법사의 배려에서였다. 그리고 귀국한 후에 금강산으로 들어가 유점사에 거처를 정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수도에 들어갔다. 천 일을 기약하고 관음기도를 드리기로 하였다.

그것은 괴로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 동안 보고 듣고 배운 것을 통하여 그는 도를 닦는 일만이 그가 해야 할 일이라고 굳게 마음먹게 되었다. 경치 좋은 해금강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암자를 만들고 거기서 면벽(面壁) 수련을 시작하였다.

계획된 대로 수련을 시작한 지 꼭 1000일이 되는 날 저녁 바닷가로부터 이상한 빛이 환하게 비추기 시작하였다. 문득 방철은 오늘이 바로 천 일째라는 것을 생각하는 순간 어떤 일인지 가슴이 시원해지면서 머리가 맑아오기 시작하였다. 탁 트인 바다가 바로 가슴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다. 그 붉은 빛이 눈을 더욱 청량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닷가 가운데 붉은 빛이 나는 곳으로 걸어갔다. 그 붉은 빛은 어떤 전복 껍데기에서 일어나는 것이었다. 그는 그것을 잡으려 하였다. 그때였다.

“잠깐 기다려 내 말을 들으시오.”

어디선가 묵직하고 조용하면서도 아리따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다시 마음을 고쳐 잡고 주위를 살펴보았다. 아, 이게 어찌된 일인가. 머리에 금관을 쓰고 소복단장한, 선녀보다 아름다운 부인이 그를 내려다보며 은근한 미소를 보내고 있었다. 오랫동안 도를 닦고 세상 물정에 두루 통달하였다는 그 자신도 그 여인을 보는 순간 정신이 아찔하였다.

“스님, 제 말을 명심하여 들으시오. 이 전복은 바로 생 진주라는 것이요. 먹으면 만병을 고칠 수 있고, 백미 속에 넣어두면 그 수량이 날로 불어나서 그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요. 이 물건을 요긴하게 또한 써야 할 곳에만 쓴다면 스님은 이것을 가지고 중생의 고통을 얼마라도 더는 데 크게 도움을 줄 것이요.”

이야기가 끝나자 여자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방철은 그 여인이 바로 관세음보살이라 생각하여 합장 배례하고는 그 생 진주를 집어서, 배고픈 사람들을 구제하여 주며, 마음이 약한 자를 위하여 불공을 드려 주면서 한평생을 보내었다.

그러다가 나이 90이 되어 세상을 뜨니 세상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생불이라고 일컬었다. 바로 그는 방철대사가 되었던 것이다.

제주시 삼도동, 진원일(남) 제보

8. 장사 정운디

옛날 안덕면 사계리 마을에 정운디라는 장사가 살고 있었다. 그는 그 마을 이(李)댁의 종이었는데, ‘닥발’이라는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닥발정운디’ 라고 했다.

그는 몸집이 크고 또한 힘도 장사였다. 어느 날 주인집에서 남방아를 만들어 오라고 하니, 그는 나막신을 신은 채로 산방산에 올라갔다. 그때는 그 산에 울창한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던 때였다. 그는 나막신을 신은 채로 나무를 베어 그 자리에서 방아를 다 만들고 그것을 머리에 갓을 쓰듯 쓰고 산을 내려와서는 주인집 가까이에 이르자 울담 안으로 던져 놓았다. 그리고서 들어가자, 집안사람들이 “남방아를 좀 만들었느냐”고 물었다.

“저 들어오는 데 가보십시오. 하나 만들어다 놓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사람들은 눈을 뚱그레 뜨고 서로들 얼굴만 쳐다보았다.

또 이러한 일도 있었다. 사계리 마을에 큰 못이 있었는데 그 못에 놓을 팡돌(사람들이 던고 앉아서 일할 수 있는 넓적한 돌)을 옮겨 놓는 것이 큰 문제였다. 그 돌은 꽤나 큰 돌이어야 했는데, 한 스무남은이 들어서서 옮겨 놓을 수 있는 돌이어야 했다. 마을 청년들이 모여들어 끙끙거리며 그 돌을 옮기고 있었다. 그때였다. 지나가던 정운디가 그것을 보고는,

“저리 비키십시오.”

하고 일꾼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섰다. 땀을 흘리며 끙끙거리며 돌을 운반하던 사람들은 그가 끼어드는 일이 아니꼽기는 하였으나, 해 볼 테면 해 보라는 투로 그에게 맡겨두고 자리를 피해 버렸다. 힘이 세다니까 얼마나 센가 보고 싶기도 하였다. 그런데 정운디가 그 팡돌을 혼자서 굴러다가 연못 제자리에 놓고서는 손을 툭툭 털고 비켜섰다. 사람들은 비로소 그 힘이 셈을 인정하였다.

그때는 마을마다 씨름판이 자주 벌어졌었다. 정운디는 이 씨름판에서도 항상 독판을 쳤다. 그때 대정에서는 오 찰방(후에 벼슬을 함)이 힘이 세었으나 정운디를 당하지 못하였다. 그는 양반이었으나 힘이 정운디보다 약했기 때문에 아무리 양반이라도 해 볼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오 찰방은 기회를 버리고 있었다.

어느 날 오 찰방이 들판을 다니다가 정운디가 무거운 나무 짐을 진 채 길가에서 쭈그리고 앉아 용변을 보는 것을 발견하였다. 등에 잔뜩 나무를 지고 있는데 그 분량이 꽤나 많았다. 사실 정운디는 그 때 삼간 집 한 거리 지을 재목을 한 짐에 지고 내려오던 길이었다. 그래서 용변을 보게 되었는데, 짐을 부리고 또 다시 지고 하는 게 귀찮아서 그대로 지고 용변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오 찰방은 이때다 생각하고는 용변을 보고 있는 그에게 살금살금 다가가서는, 아무 생각 없이 용변을 보고 있는 그의 짐을 짊어졌다. 생각 같아서는 털썩 주저앉을 것으로 여겼는데 꿈쩍도 않았다. 다시 힘을 써서 눌렀는데도 정운디는 여전히 그냥 용변을 계속하였다. 그때였다. 갑자기 정운디를 누르던 오 찰방이 뒤로 벌떡 넘어졌다. 용변을 마친 정운디가 일어서는 바람에 그의 짐을 누르려던 오 찰방이 넘어진 것이다. 도저히 정운디의 힘을 당할 수 없음을 오 찰방은 절실히 느꼈다.

집에 돌아온 오 찰방은 화가 나고 마음이 언짢아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 대정 지방에서는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하찮은 정운디에게 당하기만 하는 것을 생각하니 분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는 정말 병이 날 형편이었다. 이를 보다 못한 오 찰방 부친이 아들 몰래 정운디를 찾아갔다. 그에게 쌀섬이나 보내고는, 아들 이야기를 하였다.

“아들이 지금 병이 나게 되었네. 자네가 어떻게 그놈과 씨름하여 한 번만 저 주게.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나겠네.”

간곡하게 사정을 하자,

“그러지요. 한 번 정도는 저 주는 일이야 그리 어렵지 않지요.”

선선히 응락하였다. 그래서 꼭 한 번 오 찰방이 정운디와 씨름을 하여 이겨봤다고 한다.

이 때 한라산에는 도적들이 성행하였다. 더구나 대정에서 한림 지역으로 가는 길목인 지금 애월읍 어음리와 한림읍 명월리 경계에 있는 읍부리라는 큰 굴에는 항상 도적들이 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재물을 갈취하곤 하였다. 그러나 이를 퇴치할 도리가 없었다.

어느 날 대정 모슬포 진에 근무하는 한림, 수원 출신 조방장이 집에 쌀섬이나 보내어야 할 일이 있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그 일을 맡길 수 없었다. 도저히 무사하게 그곳

을 지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그 일을 정운디에게 맡기기로 하였다.

정운디는 쌀섬을 지고 홀로 길을 떠났다. 아니나 다를까 그 움부리에 이르니 도적들이 내달으며 시비를 하기 시작하였다. 정운디는 생각 같아서는 그저 한바탕 하고 싶었지만, 상대가 여럿일 것 같아서 순순히 상대를 하였다. 짐을 진 채 굴 입구까지 따라가서는,

“담배나 한 대 피울 테니 불이나 좀 빙시다”하고 담뱃불을 청하였다. 도둑들의 생각에는 아니꼬운 점도 있었으나, 이제는 제 손아귀에 든 처지이니 마지막 청이나 들어 주자는 마음에서 담뱃불을 내주었다. 정운디는 담뱃불을 붙이면서 굴 안의 동정을 살폈다. 보아하니 충분히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담뱃불을 붙이는 척하다가 그곳에 피워있는 장작불을 이리저리 훑트려놓고 말았다. 그제야 낄새를 알아차린 도둑들이 굴 밖으로 내달았다. 그 때 정운디는 굴 입구에 있는 큰 소나무 한 그루를 뽑아 들고는 굴 밖으로 나오는 도적들을 후려했다. 도둑들은 한번 제대로 상대하여 보지도 못하고 픽픽 쓰러졌다. 그래서 70여 명의 도둑들을 무사히 모두 사로잡았다. 이럭저럭 그는 산에서 날뛰는 도적들을 잡는 데 크게 공헌을 하였다.

그 때 정운디만큼 힘이 세다는 새샘이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어쩌면 정운디보다 더 힘이 세다고도 하였다. 그는 본래 낮은 계층의 출신이어서 힘이 세었으나 별 일을 못하고 남의 집안일이나 해주면서 살아갔다. 그런데 그는 너무나 배가 컸기 때문에 그의 식량을 감당 할 수 없어 누구나 함부로 그를 데려 쓰지도 못할 형편이었다. 그래서 그는 늘 배가 고팠다. 그러다가 할 수 없이 한라산에 올라가 도둑이 되어버렸다.

그는 힘이 장사였기 때문에 산에서 그는 아주 왕 노릇을 하게 되었다. 누구도 그를 제재할 수 없었다. 그는 대정과 모관(제주성)의 경계가 되는 ‘웃한길’ 목에 있는 ‘넙은팡’이란 데 본거지를 두고 대정 모관을 오가는 사람들의 제물을 마음대로 노략질하였다. 그러나 관아에서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를 상대하여 싸울 누구도 없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큰일은 새샘이가, 들에 방목하여 기르는 마소들을 마구 잡아먹는 일이다. 더구나 나라에 진상할 좋은 소들도 잡아먹어 버려서 관아에서는 큰 골치를 앓고 있었다.

대정고을에서는 생각하다 못하여 이 새샘이를 잡을 인물로 정운디를 지목하였다. 정운디밖에 그를 잡을 사람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네가 새샘이를 잡을 수 있느냐?”

어느 날 대정 관아에서는 정운디를 찾아가서는 새샘이를 잡는 데 참여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래도 자네밖에는 그 놈을 잡을 사람이 없다는 데 어쩔 헐 거냐?”

다시 다그치자,

“그러면 한번 하여보겠습니다만, 그러려면 힘을 좀 길러야 하니 그런 줄 아십시오.”

뭘 좀 먹어야 힘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대정고을에서는 그에게 쌀 두 섬과 소 두 마리를 보내었다. 그걸로 배불리 먹어 힘이나 좀 쓸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그날부터 정운디는 배불리 먹으면서 힘을 기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제 며칠 가니 모두 없어졌다. 이 정도로 새샘이와 싸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정운디는 대정원에게 청하여 다시 얼마 동안 먹을 것을 대주도록 요청하였다. 다시 쌀 두 섬과 소 두 마리를 보내왔다. 그걸 다시 몽땅 먹어치웠다. 그 동안 배불리 먹기는 하였으나, 새샘이와 싸우려니 도무지 자신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원에게 새샘이를 잡기 위하여 대정 지방에서 힘이 세다는 장정 서른하고 단단한 밧줄 서른 발만 준비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것을 다 들어주자, 정운디는 장정들을 거느리고 새샘이를 잡으러 떠났다.

“너희들은 여기에서 기다리라. 나 먼저 들어가 있을 터이니, 꼼짝 말고 있다가 내가 신호를 하거든 왈각 들어와라.”

굴 가까이 이르자 정운디는 여러 장정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는 자기만 먼저 들어갔다.

“형님, 나 왔수다.”

정운디는 새샘이를 대하자 반갑다는 듯이 인사를 하였다.

“어째서 이곳까지 왔느냐?”

새샘이는 날고기를 뜯어먹다가, 힐끗 바라보며 대꾸를 하였다.

“아무리 일을 해도 배가 고프니 살 맛이 없수다. 형님과 같이 여기서 지내려고 왔습니다.”

그는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하였다.

“언제부터 오라고 하니까 이제야 왔어.”

새샘이는 통명스럽게 말을 받으면서 이놈이 이제야 이곳을 기어들어왔구나 생각하였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도 무섭지는 않았으나 이 정운디는 그래도 꺼림직하던 차였다. 이놈까지 이곳으로 오게 된다면 이제는 이 제주 섬은 제 세상이 완전히 된다고 생각하였다.

“성님, 배가 고프우다. 뭐 먹을 거나 좀 주십서.”

“자, 이걸로 요기나 허게.”

새샘이는 한 쪽에 있는 소다리 하나를 획 정운디에게 던졌다. 정운디는 그 소다리를 들고 그냥 뜯어 먹으려다가는,

“형님, 칼 좀 빌립써” 하고 칼을 요구하였다.

“뭘 그까짓 것을 칼 차리면서 먹느냐.”

이렇게 편잔을 주면서 자기가 쓰던 칼을 내던졌다.

정운디는 칼을 받아 소뼈를 깎는 척하다가, 일부러 그것을 분질러 버렸다.

“이놈, 그 칼이 어떤 칼이라고 분질러 버려?”

새샘이는 칼이 부러진 것을 보고는 버럭 화를 내었다. 그러나 이미 부러져 버린 후였다.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런데 그 다음이었다. 새샘이가 부러진 칼에 마음을 쓰는 동안 정운디는 잡고 있던 소다리로 새샘이의 오른팔을 후려쳤다. 새샘이의 팔뚝이 툭 꺾어졌다.

“하, 이놈이 나를 잡으러 왔구나. 의리 없는 자식.”

그 순간이었다. 밖에 있던 장정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순식간에 새샘이는 장정들에게 포박이 되었다.

“이놈 네가 나를 온전하게 잡아질 줄 알았느냐. 곧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

새샘이는 포박을 당한 채 눈을 부라리며 정운디를 꾸짖었다.

“새샘이를 잡아왔습니다.”

정운디는 의기양양하게 새샘이를 대정 원 앞으로 끌고 가서는 보고하였다. 원은 새샘이를 잡고 온 정운디를 가상하게 여기면서 후하게 다시 상금을 내릴 것을 명하였다. 그

런데 잡아 온 즉시 죽일 걸로 알았던 정운디는 새샘이를 그냥 하옥만 시키는 데 적이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하옥을 시켰다고 해서 그냥 있을 사람이 아니다. 옥문 정도는 그저 특 한번 밟길질하면 부서질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이다.

“새샘이를 이제 죽이지 않을 것이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정운디는 원 앞에 나아가 말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되묻자, 정운디는 그 연유를 말하였다.

“나으리, 저 놈을 가둬둔다고 해서 그냥 감옥 속에 앉아 있겠습니까. 틀림없이 오늘 저녁 안으로 옥을 부수고 나와서 저에게 복수를 할 것이니 제 목숨이 어찌 온전 하겠습니까.”

이렇게 연유를 말하면서 곧 처단하여 줄 것을 간청하였다. 그러나 중죄인을 일개 고을원의 마음대로 죽일 수는 없는 일이었다.

“사정은 딱하지마는 어쩔 수가 없네. 다 법이 있는 일이니 그대로 할 수밖에 도리가 없어.”

결국 새샘이는 제주 목으로 압송할 동안 이곳에 가둬두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정운디는 이미 자기는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하였다. 밤이 되자 정운디는 생각다 못하여 먼저 수를 쓰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그는 감옥 주위에 숨어서 도망쳐 나오는 새샘이를 자기가 처치하기로 결심하였다. 칼을 갈고 몸차림을 단단히 하고는 밤이 깊도록 기다렸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자정이 넘자 옥문이 우지끈 부서지더니 새샘이는 후다닥 뛰쳐나왔다. 꺾꺾 졸던 옥사쟁이가 눈을 비비며 어리둥절할 때는 벌써 새샘이는 옥문을 빠져 나가려는 참이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정운디는 칼을 내휘둘렀다.

“응, 내 운이 다하였구나. 내가 네놈의 칼에 죽다니...”

새샘이는 피를 흘리며 겨우 이 한마디를 하였다.

“형님,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젠 하니,…… 용서해 주십시오.”

정운디는 그래도 마지막 의리를 지킨다고 한마디를 하였다.

안덕면 화순리, 양성필(남) 제보

9. 고성목과 산방덕

아주 오랜 옛날이었다. 현재 안덕면 산방산 아랫동네에 고성목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키가 크고 얼굴이 잘 생겼고 힘도 장사였다. 그는 천한 신분이었으나 부지런하게 일하여 많은 재산을 이루어 부자로 살게 되었다. 그는 일을 잘할 뿐 아니라 재주가 비범하여 마음먹은 바가 안 되는 것이 없이 척척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재산을 모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의 집을 중심으로 종들이 사는 집을 지어 살게 하였고, 또 다른 집에는 그를 호위할 호위무사들이 거처하기도 하였다. 정말 그는 큰 세도가와 같이 이 지방에서는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살림을 차리고 살고 있었다. 더구나 그는 그 지역에서는 소문난 미인인 산방덕이란 여자를 첩으로 데리고 살았다. 그는 화순리 지역 ‘곤물’이라는 데에 큰 과수원 겸 별장을 만들어 거기에 산방덕을 살리었다. 그러나 비라도 내리게 되면 고성목은 그 첩의 집까지 거동하기가 불편하였다. 더구나 5월 장마나 계속되는 날이면 더욱 그랬다. 그래서 고성목은 한라산에 올라가 산돼지 수백 마리를 잡아다가 그 가족으로 그 첩 산방덕의 집까지 깔아 놓았다. 그만큼 그는 날쌔다.

그런데 이렇게 고성목이 호화스럽게 살아간다는 소문이 관가에까지 알려졌다. 그 살아가는 형세가 임금을 부러워하지 않을 지경이라고까지 소문이 나자 관가에서는 그 사실을 은밀하게 내사하기 시작하였다. 밀정을 보내어 조사하여 본 결과 사실 어마어마하게 사는 게 사실이었다. 더구나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가운데 그 집터가 문제였다. 그게 바로 금계포란형(金鷄抱卵型)인 것이다. 이런 집터에 사는 자는 부자가 될 뿐만 아니라 장차 더 위험한 인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의 첩이라는 산방덕의 미모가 아름다움에는 더욱 놀랄 일이었다. 그는 후궁보다도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였다. 조사를 나왔던 관리는 그 모든 사실을 그대로 사또에게 보고를 하였다. 사또는 이는 필시 무슨 역적을 꾸밀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였고, 더구나 이 섬에서는 자기가 제일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고 자기가 데려 노는 애첩이 가장 아름다운 줄 알았는데 고성목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분통이 일곤 하였다. 그래서 그를 합법적으로 처치할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에게 어려운 일을 맡겨 그 마음을 떠 보려 하였다.

우선 “목사가 순력하게 되니, 담배씨로 석 자 두께 길을 메워 보수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고성목은 하루 사이에 이 일을 해냈다. 관아에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또 일을 내려 보냈다. 이번에는 목사 순력에 뒤따르는 관속들의 신을 짚신 백 켄레를 하루 밤 사이에 만들어 올리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그러나 그것도 거뜬히 해냈었다. 관가에서는 그에게 다른 핑계를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를 합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방법을 생각하였다. 목사는 도무지 좋은 생각이 떠오르질 않아서 고심하고 있었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 끌어다 혼을 내고 가진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싶었으나 그렇게 할 수 만도 없었다. 그래서 결국 소문을 만들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역적모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뿐만 아니라 그의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았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퍼뜨렸다. 그가 비상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럴 만하다고 생각도 했다.

소문은 어느 사이에 세상에 퍼지게 되었다. 그러자 관가에서는 그 소문을 핑계로 하여 그를 잡아 들였다.

“네 이놈, 네가 역적모의를 한다면서, 어찌 그리 무엄한 짓을 할 수 있느냐.”

관가에서는 그에게 지독한 고문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에게서 역적모의에 대한 실토가 나올 리 없었다. 그렇게 고성목이 잡혀가자 산방덕도 자신의 운명을 내다 보게 되었다.

“내가 그를 도와 큰일을 하려고 했는데 운이 트이지 않아 할 수 없구나.”

산방덕은 한탄을 하면서 산방산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는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 신으로서 사람됨이 비상한 고성목을 도와 그렇게 부자가 되게 하였고, 관가에서 내린 어려운 일들도 척척하게 만든 것이었다.

그 후 고성목은 관가에서 가하는 모진 고문을 견디다 지쳐 스스로 혀를 깨물어 자진하였다. 그의 많은 재산은 역시 관아에서 모두 빼앗아 버렸다. 지금도 산방굴에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은 바로 산방덕의 눈물이라 전하기도 한다.

안덕면 감산리, 김하규(남) 제보

10. 장사 구운문

아주 오랜 옛날이었다. 화순리에 구운문이란 장사가 살았다고 한다. 그는 워낙 힘이 세고 걸음이 빨라서 소문에 그는 날개가 달렸다고 했다. 그는 지체가 낮은 집안에 태어나서 남의 일이나 돌봐주며 생활을 꾸려나가는 처지였다.

어느 해 여름이었다. 대정 앞바다에 왜놈의 배들이 나타난 일이 있었다. 그 때만 해도 자주 왜구들이 쳐들어와서 강도노릇을 멋대로 할 때여서 왜구의 침입은 큰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대정현에서는 이 급한 일을 모관(제주) 관아에 알려야 할 형편이었다.

밤이면 봉화로라도 알릴 텐데 아무래도 사람이 가서 알려야 할 판이었다. 이 때 대정현에서는 구운문을 시켜서 이 일을 알리라고 하였다.

구운문이 아침을 먹는데 사령이 달려왔다.

“자네 어서 모관 관아에 다녀와야겠네. 급한 일이네.”

“무슨 일인데 그리 야단이우?”

구운문은 급한 일이라도 밥이나 우선 먹어야 할 게 아니냐는 투로 통명스럽게 대답을 하였다.

“조반은 그만 뒤. 이제 왜구가 쳐들어오고 있어. 큰일 아닌가. 어서 좀 수고하여 주지.”

“알았어요. 나 밥 먹고 갈 테니 안심하십시오.”

아무리 사령이 안달을 해도 그는 밥을 먹기만 하였다. 사령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물러나와 버렸다.

한 시간쯤 뒤에 사령은 이놈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였나 알아보려고 그 구운문의 집으로 가보았다. 그런데 어쩐 일인가, 그는 코를 드르릉 드르릉 골면서 드러누워 잠만 자고 있었다. 사령은 화가 났다.

“이놈아, 이 일을 어찌 하려고 잠만 자느냐.”

햇김에 발길로 서너 번 찼다. 그 정도 발길질에 꼬떡 할 그가 아니었다. 그런데, 그는 ‘꽝’하며 몸을 비틀더니,

“왜 이리 시끄러워. 어디 잠을 잘 수 있어야지.”

신경질을 부리며, 안달거리는 그 사령을 쏘아봤다.

“이놈아, 왜 여태 꾸물거리는 거냐. 모관은 언제 가려고 잠만 자는 거냐, 너 이놈 곤장을 맞으려고 이 짓이냐?”

사령이 노발대발하여 구운문을 몰아쳤다.

“웬 참견이요. 전하기만 하면 되지. 아니 잠도 자지 말란 말이요. 나 지금 피곤하여 잠 좀 자는데 왜 그리 말이 많아요.”

구운문은 한마디 뱉더니 몸을 뒤로 돌아누우며 다시 코를 골기 시작하였다. 그는 어느 사이에 성안에 다녀왔던 것이다. 그로부터 사람들의 입에서는 그가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았다는 소문이 점점 더 퍼져갔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다. 저 화순리 황갯내 밑에 넓은 밭이 있었다. 거기에 보리를 갈아 3,4월이 되니 아주 푸릇푸릇하니 잘 자라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국쇠(나라의 소)가 들어 그 잘 자란 보리를 먹기 시작하였다. 국쇠를 함부로 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잘못하다가는 도리어 밭 임자가 화를 당할 수도 있다. 더구나 들에서만 자라던 소들이라 날래고 사나워서 사람들이 어쩔 도리가 없었다. 밭 임자는 생각다 못하여 구운문에게 사정을 하였다.

“구서방, 지금 국쇠가 보리밭에 들은 농사를 망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

“놔 두십시오. 내가 알아서 할 터이니.”

구운문은 꼬덕꼬덕 그 밭으로 나갔다. 말대로 설남은 마리 국쇠가 푸릇푸릇한 보리를 마구 뜯어 먹고 있었다. 마침 그 밭 옆에 큰 못이 있는데, 그가 밭으로 들어가자 소들이 눈치를 채고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그 밭끝 연못 옆에 떡 버티어 서서는 소들을 소리쳐 내몰았다. 소들이 뿔을 세우고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오는 대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소들의 뿔을 잡아 낚다 못으로 던졌다. 계속 소들이 달려들었으나 그는 그렇게 소들을 모두 못으로 치박아 놓았다. 어떤 소들은 뿔이 빠져 있는 놈도 있었다. 그렇게 하여 보리밭을 망치던 소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다.

주인은 구운문에게 고마워하면서,

“보리를 수확하면 한 짐 주겠네”하고 약속을 하였다.

여름이 되어 보리를 거둬들이게 되었다. 밭주인은 구운문에게,

“보리를 베어 났으니 와서 한 짐 지어가게” 하고 전에 한 약속을 말하였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짐 지어오겠습니다.”

어느 날 그는 보리를 베어 논밭으로 와서 차근차근 묶으면서 짐을 꾸렸다. 그 밭에서 거둬낸 보리를 모두 짊어지고는 우뚝 일어나서 걸어갔다. 한 짐이라 했으니 말릴 수도 없었다. 그 큰 밭의 보리를 한 짐에 지고 꼬덕꼬덕 그의 집으로 걸어갔다.

안덕면 감산리, 김하규(남) 제보

11. 적객(滴客) 임관주(任觀周)

창천리 냇가에는 절경이 많다. 병풍같이 둘러진 바위며, 그 위에 우거진 상록수 숲은 가히 절경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맑은 냇물이 흘러 더욱 운치를 더하여 준다.

지금부터 한 200여년 전인가, 이곳 강택(姜宅)에 귀양 온 임관주(任觀周)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는 멀리 외롭게 떨어진 이곳에서 외로움을 달래면서 이 아름다운 자연 풍물과 벗삼아 지내었다. 그러다가 돌아갈 때가 되자 이곳에서의 생활을 한 수의 시로 그 창천리 내 암벽에 새겨 놓았다. 그것은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의역) 귀양살이하던 집을 처음 나서는 날에 가까이 있는 시냇물을 먼저 찾았네
푸른바위는 세 물굽이 곁에 둘러 섰고 늦가을 단풍 사이로 짧은 폭포 아름답구나.

(원시) 始出荊門日 先尋枕下川
蒼巖三曲立 短瀑晚楓邊
— 丁亥 秋 任觀周 —

안덕면 감산리, 김하규(남) 제보

12. 창천리 강 별장(姜別將)

안덕면(安德面) 감산(甘山)에 강택 조상 중에 강 별장(姜別將)이란 사람이 살았었다. 그는 인물이 잘 났고 또한 부자로 살았다. 그러나 성격이 괴팍스럽고 인색하기 그지없었다.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집 네 귀퉁이에 풍경을 달고 살 정도였으나 가난한 사람에게 쌀 한 톨 주는 일이 없었다.

어느 날 이 강 별장네 집에 어떤 중이 시주를 받으러 왔다. 중은 한참 동안 그 큰 대문 앞에서 목탁을 두드리며 염불을 외웠다. 그러나 집 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었다. 한참이나 염불을 외우며 목탁을 두드리는데, 그 집 하인이 거만스러운 얼굴로 나타났다.

“무슨 일이오?”

“예, 지나가는 승이온데, 시주를 하십사고……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

하인은 안으로 들어가 그 사연을 강 별장에게 아뢰었다.

“무슨 놈이 시주라고 그러느냐? 세상에 공 것 바라는 놈 어디 본때를 보여줘라.”

강 별장은 호령을 하며 하인 놈 보고 중을 내쫓으라고 호령을 하였다. 그러나 중은 시주 받으러 온 중을 차마 내쫓을 수가 없어 망설였다.

“그럼 내가 가서 내쫓겠다.”

강 별장이 내달아가더니 두엄 한 삽을 갖다 주면서,

“이것이 바로 곡식이 되는 것이오. 이 거름을 갖다가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두시오.”

마치 게으른 사람을 책망하듯 중에게 눈을 부라리며 말했다.

“나무관세음보살.”

중은 아무 말도 없이 나무관세음보살만 염하여 그 두엄을 받고 돌아갔다.

그로부터 얼마 없어서였다. 동네에는 이상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강 별장 선대의 묘소가 있는 병산(竝山)의 산봉우리를 조금만 깎아내리면 강 별장네 집안은 더 크게 번창할 것이라는 것이다. 소문은 점점 날개 돋친 듯이 퍼져나가더니만 드디어는 강 별장 귀에까지 들렸다. 강 별장은 귀가 번쩍 터졌다. 발복을 한다는 말에 마음이 크게 동

한 것이다. 그는 그 소문의 출처를 조사하여 나갔다. 드디어는 바로 며칠 전에 시주를 받으러 왔던 그 중이 발설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강 별장은 중을 찾아 그 연유를 물었다.

“스님, 요즈음 이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나도는데 그 이야기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강 별장은 지난날 스님이 시주를 받으러 온 때와는 다르게 아주 공손하게 여쭙었다.

“우인께서 그 사실을 알고 계셨군요. 하도 중요한 일이 되어서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도록 신신 당부를 했는데, 말이란 것이…….”

중은 못마땅한 듯이 시원하게 말을 잇지 않았다.

“대사님, 좀 자세하게 아뢰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전에는 제가 좀 대접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만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고…….”

강 별장은 집안이 발복한다는 소문에 체면이고 무엇이고 가릴 처지가 못 되어 사정을 하였다.

“그러면 말씀드리오리다. 잘 들으시고 명심하여 거행하여야 할 것이옵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더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중은 우선 단단히 버르고는,

“저 병산(甁山)이 있지 않습니까. 저 봉우리가 큰 문제입니다. 저 봉우리만 조금 깎아 내리면 당신네 가문은 크게 발복할 것이요, 저 봉우리가 당신네 집안의 정기를 가로막고 있어요.”

중은 그 한 마디를 하고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그날부터 강 별장은 인부들을 동원하여 그 병산 봉우리를 깎아내리기 시작하였다. 일을 하려고 가보니 과연 중의 말이 더 믿을 만하였다. 두 개의 봉우리로 되어 있는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아서 두 봉우리가 서로 엇갈려 있었다. 그 두 봉우리를 같게 하는 일이 바로 강 별장네 집안을 발복하게 하는 일이란 걸 확신할 수 있었다.

마을의 산을 깎아내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으나 세도가 있는 강 별장으로서 동

네 아니 이웃 마을의 일꾼들을 모두 동원하여 그 산 깎는 일을 시작하였다. 실로 어마어마한 공사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그 산봉우리를 깎아내리는데 붉은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하였고 또한 연일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빗물에 산에서 흘러내리는 핏물이 섞여 그 붉은 물이 온 산을 붉게 물들었다.

병산의 한 봉우리가 다른 봉우리와 같게 깎여졌다. 이제는 일이 다 되었다고 생각할 즈음에, 조정에서는 강 별장이 산을 깎아내려서 집안을 발복시키려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산을 깎아 집안을 발복하게 한다는 일은 국법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바로 역적행위였던 것이다. 관가에서는 강 별장을 잡아들였다. 그리고 연일 고문이 계속되었다. 산을 깎아 집안을 발복하려는 일도 그렇거니와 강 별장네 집을 보니 그가 하고 사는 일들이 바로 왕의 생활을 흉내내고 있다고 관원들이 보고를 하였다. 큰 네 기둥이며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며, 집 네 귀에 풍경을 달고 사는 처사가 모두 그렇다는 것이다. 연일 모진 고문이 계속되었다. 그래도 바른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사실 별 의도가 있었던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이해될 수는 없었다. 고문은 더 극렬하였다. 삼을 별경계 불에 달구어 그 엉덩이를 지저대었다. 그래도 강 별장은 끄떡도 안하면서 악을 썼다.

“삼이 식어 원치 않으니 다시 불에 달구어라.”

이렇게 호통을 쳤다. 도저히 바른 말이 터져 나올 것 같지 않자 관가에서는 그 큰아들을 잡아들였다. 강 별장은 큰 아들이 잡혀왔다는 소식을 듣고 일은 다 틀렸다고 생각하였다.

약한 큰아들이면 이러한 고문에 견디어 낼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관원들은 아들을 심문하기 시작하였다.

“네 애비가 이미 다 실토를 하였다. 너는 버티어 봐도 별 수가 없다. 어서 바른 대로 말해라.”

별경계 달구어진 삼을 보이며 한번 크게 으르렁거리자, 아들은 그만 혼비백산하고는

있는 말 없는 말 모두 묻는 대로 이야기하고 말았다.

이번에는 강 별장에게 다그쳤다.

“네 아들이 이미 다 실토를 했으니 너도 바른 대로 말하여라.”

강 별장은 여전히 고개를 저으면서,

“애비 한 일은 아들이 알 수가 없는데 실토가 뭐고 모두 거짓이오. 나는 역적질을 한 일이 없소.”

너무 지독한 놈이라 판단한 관아에서는 실토한 아들은 죽이고 강 별장은 멀리 무인도로 귀양을 보내 버렸다. 결국 그 집은 망해 버리고 말았다. 중이 퍼뜨린 소문은 바로 강 별장네 집을 망하게 하기 위하여 퍼뜨린 거짓 소문이었다. 욕심이 많은 강 별장이 그 중이 퍼뜨린 소문에 넘어간 것이다.

안덕면 감산리, 김하규(남) 제보

13. 막산이(1)

옛날 창천리 강(姜)댁에 막산이라는 중이 살았었다. 구척장신에 부리부리한 눈에 기상이 남달랐다. 또한 힘이 세어서 동네에서도 소문이 났다. 그러나 그는 늘 힘이 없이 지냈다.

강댁에는 감산이 안골이라는 데에 너른 밭이 있었다. 그런데 그 너른 밭 너머에 바로 큰 동산이 떡 버티어 있어서 그 너른 밭이 논이 못 되고 있었다. 강댁에서는 항상 그 일이 마음에 걸리고 있었다. 너무나 아쉬웠던 것이다. 주인은 그 동산에 앉아서 그 너른 밭을 바라보며 논 만들 생각만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주인은 막산이에게,

“야, 막산아, 어디 가서 일꾼을 한 서른만 빌어 와라.”

“예, 무엇을 할 일꾼입니까?”

“저 안골 밭들을 논으로 만들려 한다.”

“예, 그러면 내가 일꾼들 빌어놓겠습니다.”

그 뒷날이었다.

“일꾼들을 빌었으니 점심이나 한 서른 사람 분 차리십시오.”

강덕에서는 점심을 준비하도록 하고 막산이를 밭으로 보내었다. 집안에서는 그 점심을 준비하느라 야단이었다. 흙일을 하는 일꾼들이라 점심을 단단히 준비하고 술도 몇동이 마련하였다.

낮이 가까워오자 강덕에서는 여자 종들에게 점심을 지우고는 일하는 곳으로 갔다. 가보니 일꾼들은 보이지 않고 막산이만 혼자서 동산 위에서 잠만 쿨쿨 자고 있었다. 주인은 화가 나서,

“이놈아, 일은 어떻게 하고 잠만 자는 거냐.”

“일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안 왔습니다.”

주인은 어이가 없었다. 이놈이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걱정은 마십시오, 오겠다고 했으니 언제라도 올 겁니다. 그 차려온 점심이나 놔 두고 가십시오. 오면 먹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인은 화가 풀리지는 않았으나 갖고 가도 쓸모없을 점심이라 놔 두고 왔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다시 주인은 혹 일이 되는지 보려고 그 부근에 있는 군산 꼭대기 위에 올라갔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그 밭이 있는 안골 부근에만 안개가 자욱이 끼어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오늘은 바람도 자고 날이 이렇게 맑은데 이상한 일이라면서 안개가 개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기다리다 돌아온 주인은 뒷날 그 밭에 가 보았다.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 동산이 없어지고 그 밭들이 논으로 둔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차려간

밥이랑 술은 몽땅 먹어치워 있었다.

“이 놈아, 어찌된 일이나?...”

“아무도 일 안 해주겠다고 하니까 나 혼자 해 버렸습죠. 그 대신 밥 좀 먹은 거야 어땡습니까?”

주인은 어이가 없었다. 그리고 한편 그렇게 배가 큰 사람이 그 배고픔을 어떻게 참았는가 생각하니 그에게 미안하기도 하였다.

어느 날 그 주인은,

“내일 점심을 한 서른 사람 먹을 것 차려라” 고 일러두었다. 무슨 영문인지도 묻지 않고 점심을 차려내자, 주인이 막산이를 불러서는,

“오늘은 먹기 싫도록 밥을 먹어 봐라. 그 동안 배고파 어떻게 지냈느냐.”

주인의 말에 막산이는 순식간에 후딱 먹어치웠다. 다시 술을 한 동이 내놓자 그것까지 꿀꺽꿀꺽 먹어치우는 것이다.

“야, 막산아, 그 동안 고생 많았다. 우리가 네 배를 채워 주지도 못하였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느냐. 그리고 이제는 네가 가고 싶은 데로 가서 너대로 살아보아라.”

주인은 막산이에게 종문서를 내주며 그 동안의 일을 사죄하였다.

그렇게 집을 나왔으나 막산이는 더 갈 데가 없었다. 어디 가도 밥 한 술 빌어먹을 데가 없었다. 며칠은 남의 집에 들어가 일을 해주며 밥을 얻어먹기도 하였으나 배는 더욱 고팠다.

그는 결국 산에 오르고 말았다. 산에는 나라에서 기르는 마소들이 많이 있었다. 진상할 소들과 국마(國馬)들이었다. 그거나 잡아먹으며 살아보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때 산에는 많은 도적들이 있었다. 그들이 막산이를 가만두지 않았다. 어느 날 도적들이 막산이에게 나타났다.

“이놈, 무엄하게 어디를 함부로 넘나드느냐?”

그들은 막산이에게 달려들었다. 막산이는 속으로 웃었다. 달려드는 대로 내버렸다. 서너 놈이 달려들었으나 막산이는 꼬떡도 안했다. 두어 놈이 더 달려들었다. 그래도 막

산이는 꿈쩍도 안했다. 여남은 놈이 달려들었다. 그 때 막산이는 몸을 한번 뒤틀었다. 달려들던 놈들이나 붙잡고 섰던 놈들이 휘뚱휘뚱 스러졌다.

“아, 이거 몰라봤습니다.”

그들 중 대장인 듯한 놈이 내달으면서 머리를 조아렸다.

“응, 잘 지내보자고.”

막산이는 그래서 그들의 대장이 되었다.

그들 무리들은, 제주와 대정의 중간 지경에 막산이 구석이란 좀 으스스한 데가 있는데, 그곳에 있는 큰 자연 동굴 속에 거처를 정하고 대정에서 제주(모관)를 오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강도질을 하기도 하고, 목장에 기르는 진상 소나 국마(國馬)들을 잡아먹으며 살았다.

관가에서는 이들 도적들이 큰 골칫거리였다. 마소에 대한 피해가 극심함은 물론 백성들에 대한 피해가 심하여 백성들의 원성이 크고 관의 위신을 추락시키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어쩔 도리가 없었다.

생각다 못해 옛날 막산이 주인네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그 놈을 어떻게 좀 잡게 해 줘요.”

관가에서 나온 사령이 사정을 하였다. 막산이 옛 주인은 사정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해 보자고 하였다.

주인은 모관으로 가는 차림으로 산길을 가고 있었다. 막산이 패들이 달려들었다.

“이 놈아, 난 너희 대장의 주인이었다. 네 대장을 내게 불려들이라.”

주인은 큰 소리를 쳤다.

도둑들이 기가 죽어서는 막산이에게 가서 사정을 말하였다. 막산이는 옛 주인이 왔다는 말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한때는 상전이라고 구박도 많이 하고 늘 배고픔에 허덕이게 하였으나, 다시 생각하니 그래도 종의 문서를 내주며 집에서 내보내 준 은공을 잊을 수는 없었다.

“어쩐 일입니까?”

그래도 오랜만에 만나는 옛 주인이라 반가웠다.

“응, 나 자네 사람 만들어 주려고 왔네.”

주인은 능청을 떨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름이 아니고 관가에서 자네 같은 사람을 구하고 있다네.”

막산이는 가슴이 덜컥하니 주인의 계락을 알아차렸다.

“잘 듣게. 지금 관가에서는 힘이 장사인 자네 같은 사람을 구하는 참이네. 그래서 내가 자네를 추천하였다네. 가면 아마 큰 벼슬을 줄 걸세. 이와 같이 도적질이나 하면서 어떻게 살 텐가. 사람 노릇을 하는 게 중요한 일이네.”

주인은 그럴듯하게 막산이를 달래었다. 막산이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으나 그래도 옛날 주인의 의리를 생각하여 그 말대로 나섰다.

주인은 순순히 따라나서는 막산이가 측은하기도 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였다. 관가와와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없는 처지였다.

주인은 막산이와 같이 제주성에 이르렀다. 막산이는 아무 의심도 없이 그냥 따라 왔다. 영문에 이르렀을 때였다. 많은 포군들이 왈각 달려들어 그를 포박하였다. 막산이는 포박을 당하면서,

“속았구나, 이놈, 내가 죽어도 네 거짓말은 잊지 않을 거다.”

눈을 부라렸다. 주인은 고개를 돌리고 막산이의 분노에 찬 눈총을 외면하고 있었다.

안덕면 덕수리, 송경은(남) 제보

14. 막산이(Ⅱ)

막산이는 원래 평민이 아니라 아주 상놈으로 안덕면 창천리 강씨 문중의 종이었다. 성씨가 말 마(馬) 자의 마씨였기에 막산이라 부른다 한다.

막산이는 힘이 장사였지만, 머리는 우둔해서 어떤 일을 전후관계를 살피며 할 줄 몰랐다. 예로 “저 물건을 들어라”하고 시키면 들고 있을 뿐 놓을 줄을 몰랐다 한다.

막산이는 기운이 세고 등신이 큰 까닭에 밥을 한번 먹으면 요즘 대두로 서 말 밥을 먹어도 배가 차지 않았다. 이렇게 식성이 좋은 까닭에 보통 사람은 막산이를 종으로 데리고 먹여 살릴 수 없었다.

강씨덕에서도 빠듯빠듯 막산이의 배를 채워주며 일을 부리고 있었다.

하루는 강씨가 군산 앞 냇가의 3,4정보나 된 들을 개간하여 논을 만들 생각을 하였다. 주인이 막산이를 불러 노복 선 사람을 빌어오도록 말했다. 막산이는 노복을 빌려다니지도 않고 돌아다니다 들어와서는 “예, 다 빌었습니다” 고 말만 했다. 혼자 선 사람이 먹을 음식을 먹어 볼 심사로 한 사람도 빌지 않은 것이었다.

“다 빌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했으니 점심 식사만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같이 일하러 나가거라.”

막산이가 군산으로 일하러 나간 후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자 안주인이 황소 여섯 마리에 점심과 술을 싣고 일하는 곳을 찾아가 보니 일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막산이만 그냥 드러누워 잠을 드르렁 드르렁 자고 있었다.

이 모습을 본 주인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욕을 퍼부었다.

“네 이놈아, 일꾼들은 어디 가서 없고 너는 잠만 자느냐?”

주인의 욕을 들은 막산이는 부스스 눈을 비비며 일어나서는 “아, 그 사람들 오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가져온 것들은 그 쪽에 놔두고 가십시오.”

에라, 먹든지 말든지 모른다 하고는 싣고 간 것들을 모두 내려놓은 후 심부름꾼에게는 소를 몰고 먼저 돌아가도록 한 뒤 돌아오는 척하다 높은 동산에 앉아 어떻게 하는

가 살피기 시작했다. 잠에서 깨어나 배고픔을 느낀 막산이는 가져온 음식을 다 먹은 뒤 술까지 남기지 않고 먹어 치웠다.

눈을 개간하기 위해 대장간에 가서 삼을 오십 여개를 만들어다 놔뒀다. 막산이는 삼을 들고 일어서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한두 시간쯤 있으니 소로쟁이(회오리바람에 의해 올라간 잡풀)가 여기저기서 날아올라 하늘을 뒤덮었다. 또한 흙먼지가 안개처럼 피어올라 자욱했다.

막산이가 혼자서 오십 명분의 점심을 다 먹었으니 배가 부르고 힘이 넘치자 삼을 들러 이쪽저쪽 파 던지는 것이 계속되니 돌멩이와 잡풀들이 술개처럼 하늘에 가득 뒤덮인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이 모습을 본 안주인이 아무 말 없이 집에 돌아와 있었다. 저녁 해질 무렵이 되자 막산이가 연장을 등에 지고 터벅터벅 집에 돌아왔다.

“논 개간을 어떻게 했느냐?”

“예, 다 해 놓았습니다.”

안주인이 밖으로 나가 보니 삼이란 삼이 모두 자루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닌가. 막산이가 힘이 장사이기에 좌우로 삼질을 마구 하다보니 닳아버렸던 것이다. 이튿날은 주인이 개간한 곳에 가서 살펴보니 울퉁불퉁하던 들이 넓은 바다 모양으로 편편하게 잘 만들어 있었다.

아, 이놈의 자식이 배불리 먹지 못하니 한번 배불리 먹을 생각으로 나를 속였구나. 주인은 그제야 막산이가 일꾼을 한 사람도 빌지 않은 까닭을 알았다.

그 후 흉년이 계속되어 주인은 막산이의 배를 채워 주려고 했으나 채워 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루는 막산이를 불러서 사실대로 말을 했다.

“계속되는 흉년으로 너를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없으니 집을 나가서 네 자유롭게 얻어먹으며 살도록 해라.”

막산이는 아무 말도 없이 집을 나가서는 제주시에서 대정으로 통하는 큰 길로 해서 원(阮)이란 마을 위쪽에 있는 동굴에 들어가서 살았다.

그 동굴은 사람들이 백 명은 들어가도 비를 피할 수 있을 정도로 꽤 넓었다. 그 당시 제주도 산간 부락에서는 소나 말들을 들에 풀어 놓고 길렀다. 막산이는 굴속에서 살다가 배가 고프면 들로 나가서 소 한 마리를 잡아다 손톱으로 껍질을 벗기면서 구워 먹었다. 나뭇가지에 고기를 꿰어서 불에 굽다가 익었는가 한 입, 설었는가 한 입 하면서 먹으면 소 한 마리를 다 먹어 치웠다. 소 한 마리를 먹어야 막산이의 배는 겨우 찼다.

막산이가 계속 소와 말을 잡아먹자 도민들의 피해가 심해졌다. 사람들의 진정이 들어오자 제주 목에서 막산이를 잡으려 했으나 워낙 힘이 센 놈이라 잡을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제주목사는 막산이가 대정현 사람이므로 대정현감에게 잡아들이도록 명령을 내렸다. 대정현감은 명령을 받고는 생각을 하다 막산이를 부리던 주인인 강씨를 불렀다.

“막산이로 해서 목장의 소와 말이 다 잡혀 먹게 되었으니, 그 종놈을 잡아와야지 그 대로 두면 안 되겠소.”

잡아오도록 명령을 받은 강씨는 “그러시다면 잡아오겠습니다” 고 대답을 한 후 말을 타고는 ‘막산이 구석’을 찾아갔다. 막산이는 둔한 종이였기에 주인이 오더라도 모른 체 하고 버티었더라면 잡히지 않을 것이었다.

그러나 막산이는 옛 주인이라고 예의를 차려 인사를 했다.

“주인님, 어떤 일이 있어 여기까지 오셨수가?(오셨습니까?)”

“네가 없으니 농사일이 힘들어서 너를 데리러 왔다.”

“안 가겠습니다.”

“왜 안 가겠다는 것이냐?”

강씨는 상투 튼 막산이의 머리를 잡아당겨 말꼬리에 묶자 줄줄 따라왔다.

창천리로 돌아온 막산이는 강씨 주인집에서 이, 삼년 살았으나 배를 채울 수 없었다. 이를 안 막산이 주인이 다시 막산이를 불러 앉히고는 “이젠 더 먹여 살릴 수가 없으니 네 뜻대로 나가 얻어먹으면서 살아라” 하고 풀어 주었다.

막산이는 갈 곳도 없고 해서 ‘막산이 구석’에 들어가 살며 소나 말을 잡아먹으며 살았다. 막산이에 의해 가축의 피해가 심해지자 대정현감은 막산이를 잡을 수 있는 장사

를 모집했다. 이 때 안덕면 사계(검은질) 사는 정운디가 대정현의 장사 모집에 나섰다. 정운디는 힘의 세기가 막산이보다는 좀 떨어졌으나 머리는 더 총명했다.

대정현감이 정운디를 불렀다.

“막산이를 어떻게 해서든 잡아와야 한다. 잡기만 하면 너의 생전에 음식은 부족치 않게 해 주리라. 그놈을 잡아올 수 있겠느냐?”

“예, 기간만 넉넉히 주시면 잡을 수 있습니다.”

대정현감의 허락을 얻은 후 정운디는 막산이를 잡으러 ‘막산이 구석’을 찾아갔다. 막산이는 혼자 소를 잡다가 가죽을 벗기면서 불에 구워 먹고 있었다. 갑자기 정운디가 들어서자 놀란 막산이는 온 까닭을 정운디에게 물었다.

“시절이 흉년이 들어 살 수 없게 되자 그냥 벼를 삼아 한 끼라도 얻어먹으며 살다가 죽을 심사로 왔네.”

막산이도 지난번 주인의 속임수에 넘어가 끌려갔다 온 뒤로 피가 들어 있어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

“나를 잡으러 왔지?”

“아니우다(아닙니다.) 경 홀 리가 있수가(그럴 리가 있습니까)?”

정운디는 석 달 동안 사는 사이 도둑질 해 온 쇠고기만 쳐 먹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정운디는 막산이를 잡을 궁리만 했다.

대정읍 보성에서 동광리 쪽으로 삼십리쯤 가면 ‘무더미왓’이 있다. 하루는 정운디가 ‘무더미왓’으로 몰래 내려와서는 막산이를 잡을 계책을 대정현감과 약속을 했다.

“초가을이 되거든 술을 독하게 해서 서너 항아리에 담아두고, 소와 돼지를 잡아두면 막산이를 잡을 수 있도록 유인하겠습니다.”

“막산이를 잡는다는 데 그것 정도야 어렵겠느냐?”

단단히 약속을 한 정운디는 다시 몰래 막산이에게 돌아가서 아무런 일일 없었다는 듯이 지냈다. 가을이 되어 약속한 날은 막산이를 꾀었다.

“막산이 형님, ‘무더미왓’에서 술 서너 항아리 담그고 소 잡아 잔치한다고 하니 우리도 가서 먹어 봅시다.”

“아니, 안 가겠네. 갔다가 나를 잡아가면 큰일 나게. 잡아갈지 모르니 나는 가지 않겠네.”

“어느 누가 우리를 잡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두 형제의 힘에는 백 명이 덤벼든다 해도 겨룰 수 없을 것입니다. 걱정 말고 가 봅시다.”

정운디가 몇 번 막산이에게 간청하듯이 말하자, 막산이도 안심하고 가기로 승낙을 하는 것이었다.

약속한 날 정운디가 막산이를 데리고 ‘무더미왓’에 가보니 소와 돼지를 잡고 술을 차려 놓아 큰일을 치르는 집처럼 법석이었다. 둘은 자리를 잡고 앉아 술과 고기를 대접 받았다. 막산이는 조그만 바가지로 술을 두어 번 떠 먹은 후 돼지 다리 하나를 들고는 어린 아이가 무우를 씹어 먹는 것처럼 바삭바삭 씹어 먹기를 계속하여 술 세 항아리를 다 먹어 치웠다.

이 때 정운디는 먹는 듯 마는 듯하면서 얼마 먹지는 않고 계속 막산이에게 술을 권하니, 막산이가 비록 힘이 장사라 하여도 드디어 취하고는 쓰러져 코를 골기 시작했다. 막산이가 내쉬는 콧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창문이 훌쩍 열렸다 닫혔다 할 정도였다.

정운디가 살펴보니 막산이는 매우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드디어 쇠줄을 가져다 묶으려고 팔을 돌려도 팔이 움직이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쇠방망이를 가져다 팔꿈치를 두 번 때리자 팔이 움직였다. 그렇게 되자 쇠줄로 꾹꾹 묶은 후에는 대정현으로 잡아다 옥에 가두었다.

정운디가 집에 돌아온 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꼭 막산이가 복수하러 올 것만 같았다.

이놈이 아무튼 술이 깨면 틀림없이 나를 죽이러 올 것이다. 정운디는 잠자리에 들려고 하다 짚으로 허수아비를 만들어 방에 이불을 덮어 두고는 쇠망치를 옆에 차고는 굴묵(재래식 집에서 구들에 불을 피우기 위해 만든 조그만 헛간)에 가서 숨었다.

조금 기다리자 짐작했던 대로 쇠줄로 묶여 옥에 갇혔던 막산이가 쇠줄을 끊고는 복수를 하러 온 것이다. 정운디 이 녀석을 잡아 죽인다고 그 한밤중에 사계(검은질)까지

막산이가 달려 온 것이다. 정운디가 가만히 굴묵에 숨어서 살펴보니 숨을 헐떡이며 마당에 들어선 막산이가 “이놈의 자식이 나를 유인해서 잡아갔지” 하고 중얼거리며 방문을 획 열고 들어가는 것이었다.

막산이는 문을 열고 살펴보니 어두운 방안에 사람이 누워 자고 있었다. “이놈의 자식, 나를 잡아다 죽이려 해” 하고 외치며 달려들어 바락바락 밟아 죽인 뒤에는 술이 덜 깨었던지 눈이 벌겍게 된 채 마루 문턱에 턱하니 드러누워 다시 코를 골기 시작했다.

이 때다 하고 정운디가 달려들어 쇠망치로 앞이마를 잡아 내리치자 나자빠져 뒹구는 것이었다. 정운디는 기회를 놓칠세라 어깨, 다리 등 닥치는 대로 두드리니, 막산이는 술이 덜 깬 탓에 신음소리만 내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곧바로 쇠줄로 묶고는 대정현으로 잡아간 후 현감에게 사형시켜 주십사하고 간청을 하자 현감이 이 요구를 받아 들여 사형시켜 버렸다.

이렇게 해서 막산이는 불우하게 인생을 마쳤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백이십년 전쯤의 일이라고 한다.

대정읍 보성리, 강신생(남) 제보

15. 광정당과 이 목사

숙종 때 영천(永川) 이형상 목사는 평양 감사로 가라는 것도 마다 하고 제주목사를 지원하여 부임하였다. 그것은 제주에는 당과 절이 많아 사람들이 이를 믿으므로 풍습이 흐트러지고 민심이 흉흉하여 이를 바로 잡으려 하였던 것이다.

제주에 부임하여 섬 안을 돌아다녀보니, 과연 당이 많고 절들도 거의가 제대로 구실을 못 하고 있는 상태였다. 당과 절에는 매일 굿하는 소리가 그칠 때가 없었고, 사람들은 농사 지을 생각은 않고 굿하기에만 바빴다. 관가에서 백성들을 모으려 해도, “나는 절에 간다. 나는 당에 간다” 하여 모을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

어느 날 이 목사는 변복을 하고 굿하는 곳에 몰래 들어가 굿을 구경하다가, 밤이 되자 무당 한 사람을 데리고 관아로 돌아왔다. 그는 무당을 마당에 꿰어앉히고 문초하기 시작하였다.

“여봐라, 굿을 하면 귀신이 나타나느냐?”

“예, 저와 같은 처지에 어찌 귀신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저 벽을 향해 헛소리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굿을 하는데도 귀신을 못 볼 리 있느냐!”

“큰 심방들은 볼 수 있다고 합니다만, 저 처지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귀신이 있긴 있는 것이냐?”

“예, 그러하다 하옵니다.”

이 목사는 그 무당을 돌려보내고, 제주를 한바퀴 돌면서 절들을 부수기 시작하였다. 우선 신령이 세지 않은 절이나 당부터 부수기로 하였다. 무당들에게 굿을 하게 하고 신령이 나타나지 않으면 부수곤 하였다. 그러노라니 당에 과연 신령이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섬 안에 있는 모든 당과 절을 부수려고 결심하였다.

목사 일행이 지금 안덕면 덕수리 지경에 있는 광정당에 이르렀다. 이 때 시종은 목사에게 말에서 내려서 걸어가기를 권유하였다.

“이곳 당은 신령이 세기로 유명합니다. 하마를 하셔서 지나가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이 섬에서 내가 하마를 하여 지나가야 할 곳이 있다니.”

목사는 시종의 말을 듣질 않았다. 오히려 화를 내기까지 하였다.

“목사님, 이 곳을 그냥 지나가면 큰 일이 일어납니다. 말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시종이 아무리 간곡하게 말해도 목사는 듣질 않고 그냥 말을 탄 채 지나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말이 더 걷질 못했다. 화가 난 목사가 호령하여도 말은 끄떡도 못하였다. 그러다가 말은 그만 그 자리에 꼬꾸라져 버렸다.

“여봐라, 여기 다른 말을 대령하여라.”

화가 치민 목사가 시종들에게 호통을 치며 위엄을 내세웠으나 누구도 얼른 이행하질 않았다. 목사는 다른 말을 타고 그 단 앞을 지나가는데 다시 그 말이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말았다.

목사는 과연 이 당에 신령이 센 귀신이 있구나 생각하였다. 그래서 시종들을 시켜 이 당에 매인 심방을 불러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큰굿을 할 준비를 하도록 하였다. 심방이 오고, 이웃 마을에 가서 재물을 마련하여 굿 준비를 하였다.

“네 이놈, 네가 굿을 제대로 하여 저 당의 귀신을 내 앞에 대령하도록 하여라.”

추상 같은 영이 무당에게 떨어지자 무당은 어떤 영이라 거역할 수 없어 굿을 시작하였다.

미친 듯이 굿이 계속될 동안 목사는 이웃에서 유명한 포수들을 대령시키도록 하였다.

얼마 동안 굿을 하자 과연 큰 구렁이가 차려 논 제물 상 앞으로 나왔다. 그 때 목사는 명을 내려 그 구렁이를 처치하도록 하였다. 포수들이 총을 쏘고 창으로 쳐서 결국 그 구렁이를 퇴치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태워 버렸다. 이렇게 광정당 신을 퇴치한 이 목사는 당 귀신을 퇴치하는 데에 자신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전 섬을 돌아다니며 당이란 당은 모두 부수어 버리고 그곳에서 무당 노릇하는 남녀 무당들을 모두 농사를 짓게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목사가 혼자 잠자리에 들려하는 참인데, 비몽사몽간에 하얀 백발노인이 나타났다.

“목사 어른 주무시오?”

“예, 뉘시온지?”

“나는 저 김녕 마을에서 왔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목사는 아무래도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공손하게 대하였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인데, 내가 사는 곳이 누추하여 살기가 여간 불편하지 않아. 울담도 모두 허물어져 버리고 말이 아니오. 그래서 내 목사께 이렇게 원을 하는 것이오.”

노인이 사라지자 목사는 정신을 차려보니 그것은 꿈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동안 당들을 부숴 버린다고 꿈자리가 늘 사나운 터인데, 그 노인을 만나고 나니 생각이 이상해졌다.

목사는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 날이 새자 통인을 불러 앞세우고 말을 달려 김녕으로 갔다. 몰래 이리저리 마을 지경을 찾아다니다가 골충을 발견하였다. 큰 무덤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폐충이 되어 있었다. 산 담 흔적도 없었다. 목사는 마을 경민장을 불렀다. 이 무덤의 내력을 물었으나 모른다고 했다. 어쨌든 이 무덤을 잘 치산하기로 생각하고 마을 사람들을 모으도록 했다.

사람들을 모아 예를 갖추어 치산을 하였다. 그리고 얼마 후였다. 목사는 꿈에 전에 왔던 그 백발노인을 다시 만났다.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님 덕분에 이제는 좋은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울담도 마련해 주시고 해서 이제는 마음 놓고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노인은 말을 마치고 사라져 버렸다. 목사는 기이하게 여기면서도 꿈에 들은 그 노인의 원을 들어주기를 잘했다고 생각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후였다. 밤중에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났다.

“목사님, 급히 제주를 떠나십시오.”

노인은 다른 말을 더 하지도 않고 이 한 마디만을 남기고 총총히 사라지는 것이다. 목사는 엉겁결에 깨어보니 꿈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다. 세 번이나 나타난 그 백발노인의 말을 그냥 넘겨버릴 수 없었다. 목사는 황급하게 행장을 차리고 몰래 화북 포

구로 나갔다.

“배를 어서 띄워라.”

급히 배에 올랐다. 바람이 설렁설렁 불면서 뱃길이 순조롭게 트여갔다. 순풍에 배는 먼 바다로 잘도 미끄러져 나갔다.

제주 바다를 넘어서서 뒤를 돌아보니 뽕양게 구름이 끼어서는 돌풍이 일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 돌풍이 점점 가까이 쫓아오는 것이 아닌가. 이 목사는 밤에 만난 그 백발 노인을 생각하고는 필시 무슨 곡절이 있구나 생각하였다. 그래서 더 급히 배를 몰았다. 바람도 더 급히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었다.

이 목사가 탄 배가 막 육지에 당도하다마자 그 뒤를 쫓아오던 바람도 막 쫓아와선 금방 목사가 내린 그 배를 뒤집어 놓고 말았다. 목사는 가슴이 끔찍하였다. 조금만 늦었어도 그 바람에 배가 뒤집혀 죽을 뻔하였던 것이다. 그제야 목사는 밤에 나타난 그 노인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다. 산을 치산해준 은혜 갚음으로 화를 면하게 해 준 사실을 비로소 안 것이다.

목사는 급히 서울로 올라갔다. 그런데 집에는 더 큰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이 급질에 걸려 죽었던 것이다. 그 죽은 날을 헤아려 보니 바로 목사가 무사히 육지에 당도한 바로 그날이었다. 목사는 비로소 자기를 해치려던 그 바람이 자기가 부숴버렸던 당신(堂神)임을 알았다. 그들은 결국 자기에게 복수를 못하자 그 아들들에게 복수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안덕면 덕수리, 송경은(남) 제보

16. 명당에 얹힌 이야기

옛날 한 2백 년 전쯤 될 것이다. 화순리 양택(梁宅) 선조가 애월 광령에서 옮겨와 살았다.

처음에 정착을 하여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자주 아버지를 만나러 광령을 드나들었다.

어느 겨울날이었다. 눈이 많이 와서 산길이 온통 눈 속에 쌓여 있는데, 그는 광령에 가서 제사를 보고 돌아오고 있었다. 산길을 걸어서 오는데, 지금 한경면과 대정 경계인 ‘넓은 팡’이라는 데 이르렀을 때였다. 길가에 어떤 사람이 눈을 뒤집어쓰고 실신하여 쓰러져 있었다. 가까이 가보니 아직 죽지는 않고 있었다.

그는 그를 업고 그 험한 눈길을 걸어 동광리에 이르러 한 인가에 들어가 우선 응급처치를 하였다. 그곳에서 며칠을 보낸 후 정신을 차리자 다시 데리고 화순으로 왔다. 그리고 그 집에서 별로 하는 일 없이 머물러 살기 시작하였다.

한 두어 해를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정말 하늘이 도우고 인연이 닿아서 죽을 지경에서 살아나고 또한 이렇게 신세까지 졌으니, 이번에는 제가 무슨 보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손님은 진정으로 고마워하면서 말했다.

“무얼 그런 말을 하시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도와주는 일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소.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주인은 손님에 말이 미안한 데서 하는 이야기로만 생각하였다.

“아닙니다. 제가 뭐 가진 것은 없고 하니까, 저 댁에서 원하신다면 제가 부족하지만 뭇자리나 한 자리 봐 드리지요.”

“말만 들어도 고맙기 그지없소.”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냇개라는 데 거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산 한 자리 쓰기에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은 그 곳을 찾아 나섰다. 그런데 그 냇개란 곳엘 가보니 그 앞에 산이 한 자리 이미 있었다. 옛날에는 뭇자리 싸움이 심하던 때라 감히 그 자리에 다시 묘를 쓸 수 있는

형편이 못되어 있었다.

“좋은 자리인 것 같소만 이미 이렇게 다른 집안에서 먼저 묘를 썼는데야 어쩔 도리가 있어요.”

“그것은 걱정을 마십시오. 다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다.

“여기 묘를 쓰려고 할 때에 저 산 임자가 나타나면은 그저 타는 말 한 필 마련하고 안장이랑 잘 차려서 주면 될 겁니다.”

하고 그 방법을 말하여 주었다. 그러나 도무지 그러한 말이 주인에게는 믿기지 않았다.

다음 또 한 곳을 봤다. 바로 ‘권돌’이라는 데였다. 거기도 가보니, 그 옆에 이미 묘가 한 자리 있었다. 그런데 그 권돌이라는 데는 얼른 보아도 명당자리같이 보였다. 그래서 더욱 주인은 안타깝게 생각하였다.

“좋은 곳인데 또 산이 이미 써버렸으니.”

“염려 마십시오. 이곳에 묘를 쓰려고만 하면 그날 저녁에 저 산은 틀림없이 이장을 해가버릴 것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모든 이야기가 아리송하기만 했다. 모든 말들이 이해할 수 없었다. 그 ‘권돌’이라는 데는 연갑 같은 큰 돌이 떡 버티어 있는데, 그 주위에는 연적이 버려져 있고 어쨌든 명당자리였다.

“그런데 이거 하나는 명심해 들어둬야 할 것입니다. 그날 장사를 지내는데 틀림없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제열을 고쳐 하라고 할 것이니 그 말을 믿지 말고 그대로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였다.

얼마 없어 광령에 사는 그의 부친이 돌아갔다. 상주는 그가 정해준 그곳에 장사를 지내기로 하였다. 권돌이라는 곳에 장사를 지내기로 하고 그 전날에 가서 개광을 미리 마련하는데, 그 윗편에 이상한 불이 비쳤다. 그리고 조금 있더니 놀랍게도 그 윗자리에 있었던 묘를 이장해 가버렸다. 계획대로 그곳에 묘를 쓰는 데는 별 문제가 아니 되었다.

뒷날 바로 제열을 하고 장사를 지내는데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

“이 제열은 큰 화를 가져올 것ियो. 조금만 동쪽으로 비켜서 제열을 하면 아주 명산이 될 겁니다.”

허수레한 젊은이의 말은 상당히 완강하였다. 상주된 입장에서든 큰 화가 미칠 것이란 데는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말대로 제열을 바꾸어 장사를 지내 버렸다. 그러니까 그저 별 볼일 없는 산이 되어 버렸다.

안덕면 화순리, 양성필(남) 제보

17. 산방산 금장지(禁葬地)

안덕면 화순리 지경에 있는 산방산은 거의 돌로 된 돌산이다. 이 산은 예로부터 장사를 지내서는 안 되는 곳으로 알려져 왔다. 그것은 그 산이 꼭대기에 평평한 곳이 있는데 이 곳에 산을 쓰면 그 집안 대대로 장수가 난다는 이야기도 전했으며 또 산을 쓰면 가뭄이 계속되어 흉년이 든다고도 전해 내려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뭄이 계속되거나 하면 마을 사람들이 그 산에 올라가 혹 몰래 장사지내지 않았는 가 살살이 조사하기도 하였다.

어느 해 몹시 가뭄이 계속되었다. 보름, 한 달, 두 달……, 이렇게 가뭄이 계속되자 마을에서는 산방산에 누가 몰래 무덤을 썼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부근 마을 사람들이 모여 산방산으로 올라가 새로 쓴 무덤을 찾기 시작하였다. 몇 날 며칠을 찾아다녀도 헛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새로 쓴 무덤을 찾게 되었다. 그 무덤은 보통 무덤이 아니었다. 산방산 한 귀퉁이에 굴을 파고 그 속에 시체를 묻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그 시체를 꺼내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었다. 그 시체는 조금도 상하지도 않고 그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아 있었다. 사람들은 그 시체의 날개를 찍어 끊어버렸다. 그리고는 다른 곳에 옮겨 장사지내 주면서, 하늘에 올라가 정말 큰 장수가 태어날 뻔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무덤

을 찾아내어 비가 내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고 말하기도 하였다. 사람들은 장소가 더없는 명당 터이므로 일반 평민들이 산을 쓰면 역적이 날 우려가 있으므로 하늘이 역적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뭄을 내려 마을 사람들 스스로 그 금장지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안덕면 덕수리, 윤추월(여) 제보

18. 광정당 말 무덤과 영천 이 목사

안덕면 덕수리에 광정당이 있고, 그 주변에는 말무덤이 많이 있다.

이 말 무덤은 모든 사람들이 말을 타고 광정당 앞을 지날 때는 말에서 내리고 지나가야 하는데, 내리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려다 말의 다리가 꺾어져서 죽자 묻은 무덤인 것이다. 그만큼 광정당신의 위력이 세었던 것이다.

제주에 영천 이형상 목사가 부임했다. 이 목사는 눈정기가 번득여 번개 같았고, 힘도 장사처럼 세었다. 제주도에 부임한 후 지역 실정을 살펴보니, 당 오백 절 오백으로 해서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이 목사는 이러면 안 되겠다고 결심하고 먼저당을 부수기 시작했다. 제주도 서쪽으로 당을 부수며 드디어 안덕면 덕수리 광정당에 이르렀다.

광정당 앞을 지날 때면 반드시 말에서 내리고 지나야 한다는 소문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이 목사 역시 광정당에 이르러 그 앞을 지나려고 하자 말 다리가 부러지고 또 지나려면 부러지곤 했다. 말에서 내리지 않고 말을 탄 채로 건너가려니 말 다리가 부러지는 것이었다.

군졸들에게 엉겁결에 물었다.

“이게 웬일이냐? 어떤 사유로 이렇게 되느냐?”

“예, 광정당의 영기가 매우 세어서 이곳을 지나갈 때는 하마(下馬)하지 않으면 말 다

리가 부러집니다.”

“이 당을 관장하는 무당을 불러라.”

목사의 호령에 군졸들은 급히 무당을 불러 목사 앞에 데려왔다.

“어떤 일이 있기에 말다리가 부러지느냐?”

“당 주변에 있는 무덤이 모두 말 무덤입니다. 당 신령이 노했기 때문이지요.”

광정당 양쪽에는 쪽 말 무덤이 있었는데, 전에 신작로를 만들 때 노란 말뼉들이 무수히 나왔다 한다.

무당의 말을 들은 이 목사는 무당에게 명령을 했다.

“이 당의 귀신을 내 보여라. 내가 직접 구경 한번 해보겠다.”

이 목사는 구한국 시절 육군대장들이 차고 다니는 것과 같은 큰 군도를 가지고 다녔다. 군도를 빼어든 목사는 곳을 하도록 호령을 하고 독촉했다.

무당은 목사의 군도를 보자 겁에 질려 곧바로 곳을 치뤘다. 곳을 한참 하는 중에 그 무계가 한 스무 관(貫)쯤 뒹직한 큰 뱀이 꿈틀거리며 기어 나왔다. 이 목사는 큰 칼로 기어 나오는 뱀의 목을 확 끊어버렸다.

“숯을 가져오너라.”

군졸들이 급히 가져온 숯으로 뱀을 불사르기 시작했다. 불타던 광정당 큰 뱀은 두 마리의 꿩이 되어 한 마리는 서쪽으로, 한 마리는 남쪽으로 날아갔다. 서쪽으로 날아간 것은 안덕면 덕수리 ‘일레당’에 가서 앉고, 남쪽으로 날아간 것은 안덕면 사계리 ‘큰물당’에 가 앉아 당 신이 되었다.

영천 이 목사는 당과 절을 부수고 정리한 후 또 제주도를 돌아보니 무덤들이 정리되지 않고 있었다. 무덤마다 가시나무들이 얹혀 있고, 돌담도 헐려 있는 골충이 무수히 많았다. 도민들에게 골충(가손이 끊겨 단장이 되지 않은 채 방치된 묘)을 정리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이 목사도 직접 돌아다니면서 골충을 청결하게 정리하고 혼령들도 위로해 주었다.

그런데 이 목사로부터 피해를 입은 당 귀신과 절 귀신 들이 하늘로 올라가 옥황상제에게 등장을 드렸다. 이것을 알게 된 골충 귀신들도 등장 드리러 옥황상제에게 올라갔다.

“너희 당과 절귀신 들은 잘 얻어먹은 놈들인데 무엇이 부족해서 손 목사를 해치려 하느냐? 우리는 얻어먹지도 못하면서 가시나무 뿌리에 온 몸이 성하지 않을 정도로 못 견디게 살아왔다. 그 분이 이런 우리를 조금이나마 편하게 해준 은혜 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죽이려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재판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는 아마도 골충 귀신들이 이겼던 것 같다. 골충 귀신들이 밤이 되자 손 목사를 찾아가 꿈에 현몽(現夢)을 드렸다.

“이제 곧 여기 떠나십시오. 떠나지 않으면 당귀신 절귀신이 쫓아와서 목사님을 해칠 터이니 곧 떠나야 합니다.”

이 목사도 주역을 잘 아는 양반이었다. 손가락을 헤아리며 주역 점을 쳐보니 이상한 징조가 나타났다. 그러면 아무 날 떠나기로 했지만 일찍 제주를 떠나자 해서 배를 탔다. 제주를 떠나 배가 육지에 이르러 이 목사가 내리려는 찰나 배에 디디고 섰던 한쪽 발이 병신이 되었다고 한다. 아마 당 귀신 절 귀신이 쫓아가서 발 병신을 만든 것이라 한다. 한양 집에 이 목사가 돌아가 보니 당 귀신 절 귀신으로부터 아들 세 형제가 모두 죽음을 당해 있었다. 이 목사는 골충 귀신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제주에서 죽었을 것인데, 일찍 피신해서 떠나는 바람에 발 한쪽만 병신이 되었다 한다.

대정읍 보성리, 강신생(남) 제보

19. 소 목사와 오택 묘

소 목사는 풍수지리에 능통한 목사였다. 그는 제주목사로 부임한 즉시 지(池) 참사의 묘를 보고 싶다고 역리방에게 말하였다. 지(池) 참사는 평소 소(蘇) 목사가 존경하던 인물이었다.

역리방의 안내를 받으면서 목사는 지 참사의 무덤이 있는 대정(大滯)지방으로 갔다. 대정 고을을 넘어 감산(甘山)리 지경에 바로 지 참사 묘가 있었다. 목사 일행은 지 참사 묘역에 이르렀다.

“말을 멈춰라.”

목사는 말에서 내렸다. 그리고 묘소에 참배하기 위하여 제물을 준비하도록 준비하였다. 목사는 제물을 준비하는 동안 묘역을 휘 돌아보고는 탄복을 하였다.

“우리 선생님께서도 이런 자리를 차지하여 묻혔구나..”

이러한 탄복을 그 곁에서 늘 따라다니는 통인(通引)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듣고 있었다.

목사는 옛 스승인 지 참사 무덤에 성묘한 다음 돌아오다가, 지금 산방산 뒤 일주도로 변에 이르자 갑자기 말을 멈추도록 명령을 내렸다.

“말을 멈추어라. 잠깐 쉬어가게.”

말에서 내린 소 목사는 그 높직한 동산에 떡 버티어 앉아서 사방을 휘휘 돌아보더니,

“야, 좋구나. 좋아!”

혼자 중얼거리면서 눈은 계속 한 곳에 머물고 있었다. 통인이 바짝 긴장을 하고 목사의 눈치만을 살폈다. 그 곳에는 군물이라는 뜻이 있었는데 그 주위를 휘휘 돌아보면서 감탄을 계속하였다.

“맹호출림(孟虎出林)! 좋으니라. 좋아.”

그 지역이 바로 범이 숲 속에서 나오는 지형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누구도 그 통인 말고는 목사의 중얼거림에 관심을 갖는 자가 없었다. 그렇게 소 목사의 지 참사 묘 참배는 마쳐졌다.

얼마 후에 그 때 소 목사를 따라 나섰던 통인이 아버지 상을 만났다. 그는 바로 대정 고을 오댕이었다.

통인은 문득 그 언제 목사를 따라다닐 때 목사가 탄복하던 그 땅이 생각났다. 그는 상주의 몸으로 염치불구하고 목사에게 달려갔다.

“나으리, 제 아버지 누울 자리를 하나 봐 주십시오.”

목사는 안면이 있는 통인의 간청을 물리칠 수가 없었다. 빈천한 통인이 감히 들어와서 부친의 뒹자리를 구해달라는 청이 너무나 당돌하지만 또한 절실한 것도 같아서 차마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 용감하고 염치없는 통인이 한술 더 떠서는,

“나으리, 지난번 나으리께서 말씀하신 그 군물머리에 산 한 자리를 소인에게 주시면 백골난망이겠습니다.”

“뭣이라고? 군물머리?”

목사는 정신이 번쩍 뜨였다. 자기 혼자 몰래 봐 둔 그 명당자리를 벌써 누가 알았다는 게 기가 막힐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놀랄 일만은 아니었다. 그런데 자기의 비밀을 이 보잘 것 없는 통인 주제에 알았다는 게 더욱 놀랄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놀랄 일만은 아니었다. 목사는 통인을 다시 건너다보았다. 통인의 간절한 소원이 바로 그의 눈에 나타나 있었다. 이왕 이렇게 된 것 어디 누울 자리 하나쯤 마련해주고 싶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곳은 그의 처지로서는 당할 자리가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망설였다.

“그곳은 안 된다. 그곳은 네 처지에는 감당할 수가 없다.”

“아니옵니다. 소인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그 은혜는 제 집안 대대로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통인의 간절한 청이 목사의 마음을 움직이고 말았다.

“그래, 내 그곳을 네게 주마. 그런데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을 해야 한다. 장삿날 개광할 때 네가 그 곁에 서서 꼭 지켜야 한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통인은 물러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누구에게도 그런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장사 준비를 서둘렀다.

장사 날이 돌아왔다. 통인은 마음을 조아리며 그 목사의 분부를 잊지 않으려고 자꾸 다짐하였다. 개광을 할 동안도 바로 그 옆에 꼭 붙어 서서는 모든 것을 지켜봤다. 별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때였다.

“형님, 저 군수 나으리께서 조문 왔습니다.”

매부 즉 일난집 사위가 통인에게 말하였다. 긴장을 하고 개광하는 것을 지켜보던 통인은 군수가 조문을 왔다는 바람에 그만 목사의 당부를 깜박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저 군수까지 이 빈천한 집의 장례에 조문 왔다는 게 감격스러워 후다닥 나갔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매부가 틀림없이 봤다고 말한 그 군수는 없었다. 통인은 이 곳 저 곳 두

리번거리면서 조문 왔다는 군수 나으리를 찾아 돌아다녔다.

그렇게 통인인 상주가 조문 왔다는 군수를 찾아다닐 동안에 일은 벌어지고 말았다. 개광을 하는데 그 큰 암석이 나왔다. 모여선 일꾼들과 상제들과 일가들 사이에는 의견이 분분하였다. 이왕 봐놓은 자리이므로 바위가 나왔든 무엇이 나왔든 그냥 그 위에 장사 지내자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돌 위에 시신을 모실 수 있느냐는 의견들이었다. 그런데 큰 상제는 나타나질 않았다. 할 수 없이 그 바윗돌을 일궈내기로 결정을 내렸다. 일꾼들이 모여들어 그 바위를 일궈내려는 그 순간이었다. 바위 아래에서 비둘기 두 마리가 푸드득 하니 날아올랐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그러나 이미 일은 그르쳐버린 후였다.

군수 나리를 찾다가 못 찾아서 장지로 돌아온 큰 상주는 일이 이미 그르친 것을 알고는 땅을 치며 안타까워했다. 그러고 보니 목사의 말이 다시 불현듯 생각났다. “네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자리다.” 그렇다면 매부가 봤다는 군수 나으리도 허깨비가 아닌가.

“그렇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늘의 뜻이다. 이왕지사 그르친 일 후회한들 어찌리. 이미 정해진 일이니, 자, 어서 그 돌을 치워내고 그 자리에 아버님을 모셔라.”

결단을 내리고 그 파혈이 되어버린 자리에 장사를 지내고 일궈낸 바윗돌은 그 묘 옆에 세웠다. 그 바위 모습이 흡사 큰 빗돌 같았다.

그 후 그 통인 집안에는 힘센 사람들이 많이 나왔고, 그중에는 선달 벼슬한 사람도 몇 있었다. 그렇게 비록 파혈은 했으나 명당 터 못지않게 인물들이 나왔다.

안덕면 덕수리, 송경은(남) 제보

20. 소 목사와 강위빙

소 목사와 강위빙과의 이야기로 다음과 같은 구전이 있다.

지리를 잘 아는 소 목사가 강위빙에게 집터를 정해주고 말하되 “집터 마당에 반석이 하나 있는데 집을 모두 지을 때 까지는 이 반석을 열지 말라” 했다.

강위빙은 집을 짓는 동안 마당의 반석 위에 앉아 반석을 지켰다. 한번은 강씨가 소변을 보러 자리를 뜬 사이에 종놈이 무슨 이유로 주인 강씨가 이 반석을 지켜 앉아 거기에서 밥을 먹고 새끼도 꼬고 그러는지를 알고 싶어서 반석을 열어봤다. 그러나 그곳에는 말개미(큰개미)만이 있었기에 그냥 덮어버렸다.

소변을 보고 돌아온 주인은 아무런 사실도 모르고 매일 그 반석 위에 앉아 이를 지키며 집짓는 것을 감독하였다. 집을 모두 짓고 나서 인사차 소 목사를 찾아갔더니 ‘보기도 싫으니 들어오지 말라’ 하며 호통을 치는게 아닌가. 이유를 물어보니 왜 열지 말라는 반석을 열었냐는 것이다.

소 목사는 말 천 마리, 소 천 마리를 이미 놓쳐버렸다고 한탄을 하였다. 그리고 후에 소 목사가 집터를 볼 때 집을 지은 다음에 사람 하나가 상할 것이나 그 뒤에는 발복할 것이라 했는데, 흙질하던 남 걸인 하나가 죽었다 한다.

21. 병악(竝岳)과 강별장

감산 강씨 선대에 영웅이 있었다. 이 분이 강 별장이다. 강 별장은 성격이 괴팍스러웠다. 어느 날 한 스님이 그의 집에 시주를 받으러 갔다가 박대를 받고 그 분풀이를 할 생각으로 피를 내어 ‘강 별장 선묘의 지형이 개 형체인데 노력으로 이것을 고쳐 잘 만들어야 합니다’ 하고 강 별장에게 말하였다. 또한 그 묘가 있는 오름은 큰 봉우리가 둘인데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으니 이것이 크게 불길하여 큰 오름을 깎아 같게 해야 후손이 발복하겠다는 것이다.

강 별장은 그것을 깎아 버리기는 어렵지 않다 하여 인력을 동원하여 그 산을 깎아버렸더니 산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나왔다고 한다.(병악은 붉은 흙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지금도 붉다.)

이 사건이 중앙에 알려지자 나라에서는 역적이 날 것 같다 하여 강 별장과 동시대의 창천 강씨 선세를 잡아올리라고 하였다.

조정에서는 감산 강씨 선대인 강 별장과 창천 강씨 선대를 잡아올리기 위해 내려와 창천 강씨 선대의 집을 보니, 네 개의 기둥이 네모 기둥이고 처마에 매달린 네 개의 풍경은 전부 소라 껍질이였다.

창천 강씨 선대에는 조정에서 잡으러 올 것을 미리 알고 집 네 기둥이 둥근 것을 미리 깎아 네모기둥으로 만들고 가난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풍경은 전부 소라껍질로 만들어 단 것이다. 옷도 겹옷은 명주옷을 입고 속에는 전부 명주옷을 입었다.

조정에서 잡으러 온 사람이 갈옷을 보고 이 옷은 어떤 옷이냐고 하니 창천 강씨 선대가 말하기를 “제주도에는 감나무가 많아서 그 감즙을 짜서 무명옷에 물들여 농사할 때 입게 되는데, 이 옷을 입고 밭에서 일을 하는데 홀연히 불려나왔습니다”고 아뢰니 이것으로 면죄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산 강씨 선대는 화를 면할 수가 없었다. 감산 강씨 선대는 겹으로는 갈옷을 입고 옷을 벗겨 갈수록 명주옷만 입고 있어 관원의 눈을 속이려 했다 하여 노여움을 샀던 것이라 한다.

강 별장이 서울로 잡혀갈 때는 아들도 잡혀갔다. 강 별장은 아들이 잡혀온 것을 보고,

“작은아들이었으면 나도 살고 집안이 발복한 것인데, 큰아들이 왔으니 이제 내 집은 망했다.”고 탄식했다. 작은아들은 의지가 강하고 똑똑한데 비해, 큰아들은 마음이 약하고 미련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번갈아가며 국문(鞫問)을 받았다. 그러나 누구도 굴복을 아니하였다. 국문하는 자는 피를 내었다.

“네 애비가 이미 토설을 했는데, 네가 왜 공연히 우기느냐?”

아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아들은 아버지가 굴복했다는 말에 할 수 없다고 굴복하고 말았다. 이번엔 강 별장에게 같은 수법으로 했다. 그러나 강 별장은 끝내 굴복하지 않아 죽여버렸다고 한다.

원래 병악(竝岳)은 신산(新山)이라 하였고 두 봉우리가 같지 않았으나, 강 별장에게 박대받은 승의 피임에 넘어가서 큰 봉우리를 깎아 나란히 만듬으로써 병악이란 이름이 생기게 되었으며, 산을 깎았을 때 선혈이 흘러 나왔고 그 산을 깎은 죄로 강 별장은 조정에 잡혀가 죽었는데, 산을 깎은 흔적은 아직도 생생하다고 한다.

22. 도채비 전설

도채비들의 본부는 진도 벽파진이다. 도채비의 성은 진씨인데 나주 금성산이 고향이다.

이 진씨는 워낙 불량하여 관가에서는 이 사람을 잡아 진도 벽파진으로 귀양 보냈는데 그곳에서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어 도채비가 된 것이다.

하루는 제주 김녕에 사는 강씨가 장사하러 육지로 가다가 진도 벽파진에 들르게 되었는데 멋진 옷을 입은 영감이 나타나서 배를 타고 제주에 가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같이 왔는데 바로 도채비가 제주로 들어 와 버린 것이다.

김녕에 사는 신산 사람이 있어 배를 타고 이삿짐을 나르려고 하는데 이 도채비가 나타나서 배를 태워 주길 원했다. 신산 영감은 짐이 많아서 태워 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도채비는 그 영감을 바닷물에 담갔다 꺼냈다 하며 괴롭혔다. 할 수 없이 태워졌는데 신산에 도착하니 어디론가 가버려 행방을 알 수 없었다. 지금도 삼달리 사람들은 신산리는 도채비 마을이라 해서 사돈이 되는 걸 꺼린다.

신산 폭낭물은 도채비 당으로 일년에 한 번 돼지를 잡아 제사를 지내는데 원래는 김녕 본향이 도채비당이 된다.

23. 까치 소리 해득한 김해 김씨

감산리 입촌조인 두현의 장남 우흥의 배(配)에 얹힌 전설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3백년 전의 일이다.

우흥 조부님이 9세 되던 해에 청혼하여 혼약을 한 가운데 조부님이 병환으로 돌아가시게 되었다. 당시 모친 친가에서는 보리 장만이 한창이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골목 어귀 팽나무에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아 “까옥 까옥 까옥”하고 세 번을 울고 날아갔다. 그러자 김씨 처녀는 일을 하다 말고 세수를 하고 몸을 단정히 하였다. 이를 보고 부모들은 심하게 꾸중을 하였다. 그러나 김씨 처녀는 “이제 곧 대정촌에서 부음이 오게 됩니다” 하고 말하였다. 아닌 게 아니라 잠시 후에 대정에서 부고가 이르렀다.

아가씨는 바로 부고를 전해 준 사람과 함께 감산으로 가 이미 작고한 우흥 님의 배우자가 되었다. 이리하여 오늘 현재 입양 후손 200여 손(孫)이 있으나 열녀로 사모하지 못한 점이 한이 되고 있다. 우흥 할아버지의 묘소는 감산리 서쪽 ‘빌레왓’에 있고, 9세에 작고하였다 하여 ‘도령산’이라 전하기도 한다. 김씨 할머니 묘소는 감산리 서북쪽 ‘옥웨이루’ 동쪽 150m 지점인 ‘소식이동산’에 있는데, 이 곳은 전설처럼 까치로 인해 남편 될이의 부음을 전해 들었다 하여 ‘소식이동산’이라는 지명이 붙었다고 한다.



제6장 표선면 편



탐라순력도의 정의조점

제6장 표선면 편

1. 용궁 아들 삼형제와 매오름

옛날, 제주 섬이 오늘날의 모습으로 되기 전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한다. 바로 그때의 일이다. 남해용궁(南海龍宮) 아들 삼형제가 남해 용왕국의 국법을 어긴 죄로 제주 섬으로 귀양을 오게 되었다. 그러나 가난한 제주 섬사람들은 그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도 제대로 주지 못했다.

아무리 잘못은 저질렀지만 제주 섬으로 귀양 보낸 아들들을 생각하니 용왕님의 마음도 편안할 리가 없었다. 조용히 용왕의 사자인 거북을 불렀다.

“거북아 --.”

“예--.”

“너, 지금 제주 섬에 올라가서 귀양 보낸 내 아들들이 어떻게 귀양지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보고 오너라.”

“예,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거북사자가 제주 섬으로 오고 보니, 아무리 귀양살이 온 용왕의 아들들이지만 그 고생은 이루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다. 제주 섬사람들도 가난하여 목에 풀칠하기가 어려운 판에 귀양살이하는 용왕의 아들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니, 입다 남은 옷 한 벌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판이었다.

거북사자는 용궁으로 돌아가 용왕에게 사실대로 일렸다.

“용왕님, 가고 보니 아무리 귀양 간 죄인이지만 그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편이 옵니다. 이제 그만 죄를 사하여 용궁으로 오도록 조치를 하옵소서.”

“지금 당장 귀양을 풀어버리는 것은 국법을 어기는 결과이지만,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니 어쩔 수 없겠구나. 지금 당장 제주 섬으로 가서 내 아들 삼형제를 데리고 오는 것도 좋겠지만, 그보다 먼저 신세를 진 사람이 있거든 단단히 은혜를 갚아두고 오는 게 우리 용왕국의 도리이니, 그것부터 알아보고 오너라.”

“예--, 분부대로 행하겠습니다.”

거북사자는 제주 섬으로 와서 여기저기를 다니며 염탐해 봐도 겨우 박씨 성을 가진 한 사람만 먹다 남은 마 뿌리 한 사발을 줬을 뿐, 귀양살이 온 용왕의 아들들에게 제대로 대접해준 사람이라곤 없었다.

거북사자는 다시 남해용궁으로 들어가 용왕을 만나 사실대로 일렀다. 용왕은 기분이 매우 언짢았던지,

“제주 섬사람들 꽤 씹하구나, 당장 그 땅을 모조리 돌발과 가시덤불로 쌓이게 만들어 버리기 위하여 한 며칠 동안만이라도 물로 잠겨 버려라.”

“마 뿌리 한 사발을 줬던 박씨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음, 그 제주 섬을 물로 잠기게 만든 동안만 산꼭대기로 잠시 도망가 있도록 일러 몸을 피하도록 조치해라.”

거북사자는 다시 제주 섬으로 나와 우선 박씨에게 가 귓속말로 속삭였다. 섬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 온 섬이 야단법석이 날 것이기 때문이다.

“내일 아침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 봉(표선면 표선리 경상에 있는 지금의 매표소)에 올라가서 앉아 있으시오.”

박씨는 거북사자의 말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 내가 아침 일찍 그 산으로 올라가서 부처님처럼 앉아 있는단 말이요?”

박씨가 제대로 말을 듣지 않자 거북사자의 입장이 이만저만 딱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거북사자는 요술을 부려 박씨를 매로 환생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사람으로 환생시킬 속셈이었다. 거북사자는 박씨를 매로 환생시켜 두고는, 지금의 매표소(峰)으로 가서 3일만 고기가 보이더라도 쪼아 먹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면 좋은 세상을 만날 것이라고 타일렀다. 그 때야 매로 환생한 박씨도 고개를 끄덕였다.

거북사자는 바로 그날 아침, 남해용궁에서 귀양 온 아들 셋을 데리고 남해용궁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바닷물 속으로 풍덩 빠지는 순간 당장 바닷물을 불러 제주 섬은 온통 물 바다로 들어가는 찰나였다. 그만큼 타일렀는데, 매로 환생한 박씨는 매표소에 앉아 있으면서 바로 앞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고개를 내밀고 있는 것이다. 그 고기를 잡아먹는 날이면 용궁에서 벌이 내려질 것은 뻔한 일이었다. 거북사자도 당황하지 않

을 수 없었다.

“안 되겠군!”

거북사자는 매로 환생한 박씨가 고기를 잡아먹으려고 고개를 앞으로 쏙 내민 순간 요술을 부려 다시 바위로 만들어 버렸다.

그랬기 때문에 표선리(表善面 表善里) 매오름 꼭대기에는 매가 바다를 향하여 고개를 앞으로 쏙 내민 듯한 모습의 바위가 서 있고, 그 때 용궁에서 요술을 부려 한동안 제주 섬을 온통 바닷물로 잠겨 버렸었기 때문에 지금도 제주 섬은 가시덤불과 돌밭으로 가득 한 거친 땅으로 변해 버렸다는 것이다

.

성산을 신평리, 오문복(남) 제보

2. 괴야

가시리(表善面 伽時里) 마을에서 서쪽으로 200m쯤 가면 ‘괴야’라고 불리는 굴이 하나 있다. 지금은 굴이 막혀서 그 깊이를 알 수 없지만, 무척이나 긴 굴일 것으로 보인다.

그 굴은 이 마을 오씨 선조들이 막아 버렸는데, 거기에는 그럴 만한 사연이 전해지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년 전 오씨 집안에 한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한 지관(地官)이 굴 앞에 뒹자리를 마련해 주면서 상주에게 의견을 물었다.

“저 앞에 보이는 굴(괴야)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보기가 싫어서 막아 버리는 게 좋을 듯하네요.”

“그렇거든 그렇게 하시오.”

오씨 선조들은 뒹자리 앞의 굴이 보기 싫다고만 생각하여 막는 작업을 시작했다. 작업이 거의 끝날 무렵에야 지관은 혀끝을 차며 탄식했다.

“저 굴을 막아 버리지 않았더라면, 후손들 중에는 만석군(萬石君)이 날 텐데…,

그러나 자손은 많겠네.”

지관의 뉘두리에 오씨 선조는 실수했음을 알아챘다. 그제야 지관에게 다시 굴을 파면 어떻겠느냐고 묻자, 상주가 죽을 액(厄)을 당할 것이므로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이 마을 오씨 집안에는 만석군 같은 부자는 없지만, 자손은 많이 벌어지게 되었다 한다.

3. 탈산봉

탈산봉은 하천(表善面 下川里)마을 서쪽에 있어, 바로 이 마을을 포근히 에워싸 주는 듯한 산이다.

제주도에는 한라산(漢拏山)을 중심으로 하여 그 주위에 크고 작은 산(오름)들이 웅기 종기 모여 있는 듯하지만, 이 봉(峰)만은 그 대열에서 완전히 이탈하여 뚝 떨어져 서 있는 듯이 보인다. 그래서 이탈하여 산(‘서다<立>’의 방언) 봉이라는 뜻에서 탈산봉이라 이름이 붙여졌다 한다.

그런데, 이 탈산봉의 맵시가 곱기 때문에 그 정기를 받아서 이 마을에서 태어나는 동남동녀들은 모두 미남미녀들 뿐이라 한다.

표선면 하천리, 강안봉(남) 제보

4. 개무덤

성읍리(表善面 城邑里) 경내에 개 무덤이 하나 있다. 이 개 무덤에는 매우 영리한 개가 묻혀 있다고 한다.

옛날 성읍리에 사는 어떤 사람이, 살림이 궁해서 서촌(西村) 어느 동네에서 양식을 꾸어 다 먹었다. 가을이 되어 추곡을 거두어들이자, 그 빛을 갚으려고 서촌 그 동네로 가고 있었다.

들판에는 아직 늦은 추수들이 남아 있었고, 길가 어떤 밭을 보니 메밀을 한창 타작하고 있었다.

서촌에 와서 빛을 갓고 성읍으로 돌아가는 길엔 날이 거의 저물고 있었다.

일찍 메밀을 타작하던 밭까지 이르렀다. 메밀을 타작하여 사람들은 돌아갔고 집채만큼 쌓인 메밀짚 더미에선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있었다.

성읍리 사람은 그저 불이 타나보다 생각하며 그 곁을 지나치려 했다.

이때였다. 타오르는 연기 속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줄랑줄랑 뛰어 나왔다. 강아지는 반쯤은 털이 그을려 있었다. 주인이 타작을 할 때, 메밀짚 더미 속에서 잠을 자다가 주인이 가는 줄도 모르고 그만 불 속에 휩싸인 것이 분명했다.

강아지는 몸을 털며 이 사람을 따랐다. 강아지는 정성스레 키워졌다.

이 개는 사냥을 이만저만 잘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가기만 하면 노루나 사슴을 한두 마리씩 꼭꼭 잡아 왔다.

이 개 소문이 점점 퍼졌다. 어느 예촌(禮村: 南元邑 新禮里) 인가 효돈(지금의 西歸浦市 孝敦洞) 예선가 온 사람이 이 개를 팔아 달라고 찾아왔다. 몇 번 찾아와도 개 임자는 팔아 주지 않았다.

개 임자에게는 여든이 가까운 노친이 있었다. 몇 해 후에 이 노친의 상을 만났다.

‘부모의 상을 만나면 사냥을 못하는 법이므로 이제야 개를 팔아 주겠지’생각하고, 그 사람이 다시 찾아왔다. 하도 사정을 하니,

“팔지는 않을 터이고, 그저 데리고 가서 사냥을 시키다가 내 탈상하거든 돌려보내시오.”

하고 주었다. 그 대신 사냥을 하거든 뒷다리 하나씩을 보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는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다.

개는 역시 사냥을 잘했다. 첫날 사냥을 나가서 노루 한 마리를 잡아 왔다. 뒷다리 하나는 베어 내어 성읍의 개 주인에게 보내려고 뒷문에 걸어 두었다.

날이 밝아서 보니, 걸어 둔 뒷다리가 없어졌다.

‘이상하다. 다시 사냥을 해서 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사냥을 나갔다. 역시 잡았다. 뒷다리를 또 뒷문에 걸어 두었다

가 날이 새어서 보니 없어졌다. 몇 번 되풀이해도 개 주인에게 보내려는 고기는 꼬박꼬박 없어져 버리는 것이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이번엔 직접 가져가기로 했다. 노루와 사슴이 한 마리씩 잡혔다. 사슴은 간수해 놓고 노루 한 마리를 둘러메고 직접 성읍으로 갔다. 뒷다리 하나씩을 꼭꼭 보내려고 했는데, 자꾸 잃어버려 못 보냈다고 사과했다.

“어, 난 벌써 먹고 있네(먹엄서).”

개 주인은 매일 고기를 받아먹었다는 것이다. 개가 꼬박꼬박 뒷다리를 물어다 준 것이다. 감탄이 저절로 나왔다.

삼년상이 끝나 개 주인이 탈상하는 날, 가라 오라 말도 없이 개는 주인에게 가 버렸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주인이 병이 났다. 병이 점점 무거워져서 주인은 꼬박 자리에 누게 되었다. 주인이 일어날 수 없게 되자, 개는 주인 방의 창문 밖을 떠나지 않았다. 정말 쫓쫓이 앉아서 밥도 아니 먹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주인의 임종을 지켜보는 것이었다.

하도 오래 굶어선지, 너무 슬퍼해서인지 주인이 죽자 개도 같이 죽어 버렸다. 개 입자 친족들이 너무나 기특하다 하여, 그 개를 주인의 묘소 옆에 같이 묻어 주었다. 그래서 ‘개 무덤’이라고 전하는 것이다.

구좌읍 동북리 김두익(남) 제보

5. 천년수 팽나무

성읍리(表善面 城邑里) 마을 북판에는 큰 팽나무가 있는데, 그 수령은 천년이나 됐을 것이라고 한다. 위낙 오래된 나무여서 속이 텅 비어 있으며, 그 속에 고인 물은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눈병에 특효약으로 쓰이기도 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에서 순이 먼저 나는 방향을 보고 점도 치곤 해왔다. 동서남북 중 제일 먼저 순이 나기 시작하는 방향이 동네에 풍년이 들게 되고, 나무 가운데서부터

순이 돌기 시작하면 성읍리 전체가 풍년을 맞는다는 속신(俗信)도 전한다.

지난 날 이 마을이 현청(縣廳) 소재지였을 때 김면수라는 현감(縣監)이 부임한 적이 있었다. 그에게는 유출이와 유득이라는 두 아들과 금전으로 불리는 딸이 하나 있었다.

어느 날 김씨 현감은, 느티나무 가지가 너무 뻗어 현청에 드는 햇빛을 가린다고 하여 그것을 잘라 버렸는데, 그 동티로 인하여 딸이 죽고 말았다.

그 후로는 이 나무에 함부로 손을 대려는 사람이 없어 오늘날에는 천연기념물 제161호로 인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표선면 성읍리, 김인방(남) 제보

6. 김덕이 여

제주 방언으로 바닷물 속에 잠겨 있거나 물 위로 노출되기도 하는 반석(磐石)을 ‘여’라고 한다. 하천리(表善面 下川里) 포구(浦口)에서 바다로 4km쯤 가면 ‘김덕이여’가 있다. 조수의 간만에 관계없이 늘 물속에 잠겨 있는 것으로 김덕이라는 해녀(海女)가 발견한 ‘여’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옛날 김덕이는 동네 해녀들과 함께 ‘테왁’을 짚고 해녀작업(물질)을 나갔다. 그들은 갑자기 불어 닥친 북풍을 만났다. 큰일이었다. 모든 해녀들이 힘써 해변으로 헤엄쳐 나왔다.

나와서 보니, 김덕이 해녀만 보이지 않자 온 동네가 야단법석이었다. 동네 청년들은 ‘어서 배를 준비해라’, ‘김덕이는 바람에 쓸려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등 걱정을 할때, 한 청년이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를 찬찬히 바라봤다. 물결 틈으로 까마귀만큼 작은 물체가 멀리서 보이는 듯한데, 도저히 움직거릴 줄을 몰랐다. 이상한 일이다. 일단 그 곳을 향하여 강풍이 세차기 전에 어서 가서 보자는 의견들이었다.

청년들은 그 곳을 향하여 힘차게 노를 저었다. ‘이옛사 여이도싸나!’ 아직도 까마귀만큼 한 물체는 사라지질 않았다. 혹시 김덕이의 시체인지도 몰랐다. 더욱 세차게 노를 저

었다.

거의 가까이 이르렀을 때였다. 꿈인지 생인지 모르지만 그게 바로 김덕이었다. 그녀는 다행히 썰물을 만나서 ‘여’에 곳곳이 발을 디디고 서서 몸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아니, 아주머니! 어째서 거기...?”

“아이구, 고맙습니다. 그냥 설 수 있는 탭니다.”

그후, 그 ‘여’를 두고, 김덕이라는 해녀에 의해 발견된 ‘여’라고 하여 오늘날까지도 ‘김덕이여’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 ‘여’의 넓이는 무려 1만 평 정도에 달하는데 지금 큰 어장을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해초도 많아 이 마을의 보고(寶庫)로 여겨지고 있다.

표선면 하천리, 강안봉(남) 제보

7. 거스샘이와 늑단샘이

토산리(表善面 兎山里) 웃마을과 아랫마을 사이에 ‘거스샘이’라는 샘물과 ‘늑단샘이’라는 샘물이 흐르고 있다. 같은 구멍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인데, 한 줄기는 한라산 쪽으로 거슬러 흐르고, 한 줄기는 바다 쪽으로 흘러내린다. 그래서 전자를 거스샘이, 후자를 늑단샘이라 부른다. ‘거스샘’이란 거슬러 흐르는 샘, ‘늑단샘’이란 우측(右側), 곧 오른쪽으로 흐르는 샘물이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이 두 샘물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옛날 제주도에 날개 돋친 장수가 태어났다. 그 소식은 점점 퍼지기 시작하였다. 중국 황실(皇室)에서는 제주도에서 장수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자, 두려운 마음에 호종단(胡宗坦)을 제주도에 급파시켜 산혈(山穴)과 물혈(水穴)을 모두 뜨고 오도록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종달리(舊左邑 終達里) 포구에 들어 온 호종단은 차츰차츰 명혈을 뜨기 시작하면서 거의 토산리에 이를 무렵이었다. ‘너븐밭’(廣田)에서 한 농부가 밭을 갈고 있었는데, 어

편 고운 처녀가 허겁지겁 밭가는 농부에게로 달려오는 것이었다. 처녀는 매우 급하고 딱한 표정으로 하소연했다.

“저기 물을 요 늑그릇(행기)에 떠다가 저 길마 밑에 잠시만 숨겨 주십시오.”

농부는 처녀의 말대로 거스샘이와 늑단샘이로 달려가서 늑그릇에 물을 떠다가 길마 밑에 놓아주었다. 처녀는 그물 속으로 뛰어들더니, 곧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바로 그 처녀는 늑단샘이와 거스샘이의 수신(水神)인 것이다.

농부는 심상치 않은 일이라고만 생각하며 밭갈이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호종단이가 왼손에 책 한권을 들고 농부에게로 다가오는 것이었다. 그 책은 중국 황실에서 작성해 준 제주도의 명혈(名穴)을 그린 산록(山錄)이었다.

“여보, 말 좀 물어봅시다.”

“그러시오.”

“여기 ‘꼬부랑낭(고부라진 나무) 아래 행기물(늑그릇물)’이 어디 있소?”

“그런 물은 없는데요.”

“아, 들은 바도 없단 말이요?”

“그렇소.”

‘꼬부랑낭(고부라진 나무) 아래 행기물’이란 ‘길마 밑에 있는 늑그릇물’이란 뜻으로 산록에는 수신이 이미 거기와 숨을 것까지 알고 적어 놓은 것이다.

호종단은 그것도 모르고 다시 한번 더 갖고 온 산록을 살펴보다니, “여기가 틀림없는데, 여기가 틀림없는데...” 투덜대며 주위를 계속 살살이 찾아보기 시작했다. 찾다가 지친 그는 ‘쓸데없는 문서로고!’ 하며 산록을 태워 버린 후, 서쪽으로 떠나 버렸다.

그래서 종달리에서 부터 토산리까지는 호종단이가 물혈을 모두 떠 버렸기 때문에 생수가 솟는 곳이 없지만, 이 마을의 거스샘이와 늑단샘이만은 다행히 살아남아서 지금도 솟고 있다.

표선면 토산리, 김문옥(남) 제보

8. 곱은소(Ⅰ)

성읍(表善面 城邑里)마을과 신평(新豊) 마을 사이에 ‘곱은소’라는 큰 못이 있다. 그 물은 맑고 깊으며 언덕 밑에 처녀가 곱아서(숨어서의 방언)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몸을 숨기는 듯한 모습의 물이라 하여 ‘곱은소’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한다. 그런데, 이 물은 신령이 살고 있는 물이라고 하여 소문이 자자하다.

이 물에는 가끔 이변(異變)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 이변이란 사람이 그 옆을 지나다가 이 소(沼)를 내려다보면 어떤 때는 낚그릇 두껍(가지깽이)이 물위에 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전혀 보이지 않기도 하는 것이다. 또 이 낚그릇 두껍이 보이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니, 가령 두 사람이 가 보았을 경우, 그것이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 낚그릇 두껍은 바로 이 물의 신령이 보이는 이변이라는 것이다.

표선면 하천리, 강안봉(남) 제보

9. 곱은소(Ⅱ)

옛날 하천리(表善面 下川里)에 어떤 처녀가 계모 밑에서 살고 있었다. 계모는 심술이 대단했다. 딸에게 빨래를 시켜도 꼭 이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곱은소’에 가서 옷을 빨아 오도록 했다. 그 물은 이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물이 매우 곱기 때문이다.

어느 해 몹시 추운 겨울 날 이었다. 그 날도 계모는 꼭 그 물에 가서 빨래를 해 오라고 지시했다. 처녀는 추위에 손발이 시려 도저히 빨래를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계모 밑에서 고생하며 살아서 무엇하랴’고 낙심하여 그 물에 빠져 죽어 버렸다. 원혼이 된 것이다.

그 후로, 그 물에서는 밤마다 빨래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던 어느 날 총각 도봇장수가 ‘곱은소’옆을 지나게 되었다. 그 곳을 들여다 보니,

놋그릇 두껍(가지깡이)이 둥둥 떠 있었다. 이상히 여긴 도봇장수는 그것을 잡으려고 물가로 갔었는데, 갑자기 물귀신이 나와서 도봇장수의 목덜미를 잡고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물귀신은 바로 처녀의 원령인 것이다.

그 총각 도봇장수가 처녀 물귀신에게 잡혀 들어간 후로는 거기에서 빨래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성산읍 신평리, 吳文福(남) 제보

10. 냇기 송씨 댁 며느리

‘냇기’는 하천리(表善面 下川里)의 옛 이름인데, 제주도에서 길이가 가장 긴 냇가에 자리잡은 마을이라는 뜻에서 그런 이름이 나오게 된 것이라 한다.

옛날 이 마을 송씨 집안에 성읍리(表善面 城邑里)에서 시집 온 며느리가 하나 있었다. 그 며느리의 힘은 대단하여 이 마을의 장사들도 모두 깜짝 놀라 버린 적이 있었다.

이 마을 청년들은 상덕동산에 모여서 ‘듭돌’을 들으며 서로 힘자랑하곤 했다. 뚝돌이란 둥그렇고 큰 바윗돌로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길거리에 놓아두어서 청년들이 힘내기로 힘을 겨루는 돌이다.

어느 날 송씨 댁 며느리가 물을 길어 나르기 위해서 나가는데, 어차피 청년들이 모여 서서 뚝돌 들기 시합을 하고 있는 상덕동산 앞을 지날 수밖에 없었다. 좀 딱한 기분이 없지 않으나 어쩔 도리 없이 빈 허벅(물을 길어 등에 지어 나르는 항아리)을 등에 지고 그 앞을 지나고 있었다.

한 청년이 그 광경을 보고서는 기분이 썩 언짢았던지,

“아침부터 재수 없이 빈 허벅을 지고 우리 앞을 어지럽히는 건 누구야?”

그 말을 들은 송씨 댁 며느리는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았던지 빈 허벅을 진 채 뚝돌 위에다 툇 걸터앉고 말았다. 모여 선 청년들은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서로 어이가 없

다는 듯 쳐다보고만 있었는데, 그 중 한 청년이 불쑥 나서며,

“이거 아침부터 재수 없이…, 그 돌이 어떤 돌인데 계집년이 걸터앉아?”

“여잔 이만한 돌덩어리 위에 앉아보지도 못하나요?”

“아니, 그게 보통 돌덩어리야?”

“그렇다면 뭐예요?”

“한번 들어나 봐.”

“그래요.”

송씨 댁 며느리는 빈 허벅을 진 채 뚝돌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그 돌을 들고서는 상
디동산 밑으로 획 던져 버렸다. 온 청년들은 서로 입만 딱 벌린 채 서로 멀뚱멀뚱 쳐
다보고만 있었는데, 송씨 댁 며느리는 “사내라는 것들이…” 중얼거리며 샘으로 내려가
버렸다.

한참 후에 청년들은 동산 밑으로 내팽개쳐진 뚝돌을 제자리로 옮겨 놓으려고 했으
나, 부피가 한정된 것이어서 네 사람이서는 도저히 옮겨 놓을 수가 없었다. 하는 수 없
이 송씨 댁 며느리에게 부탁할 도리밖에 없어서 청년 몇 사람이 공손히 찾아갔다.

“아주머니, 이것을 어떻게…?”

“그러세요.”

송씨 댁 며느리는 어렵지 않게 뚝돌을 제자리에 갖다 놔 주었다.

그 후로는 송씨 댁 며느리가 빈 허벅을 등에 지고 아침 일찍 그 앞을 지나도 빈정거
리는 청년이 한 사람도 없었다.

표선면 하천리. 강안봉(남) 제보

11. 정의 홍 형방(旌義 洪刑房)

정의 홍 형방은 이름이 석기(碩其)이고, 그 7대손이 현재 표선리(表善面 表善里)에 살고 있다.

홍 형방은 어렸을 때 고성리(城山邑 古城里)에 살았었는데, 표선리 강(康)씨 덕에 장가를 들었다. 그 후 표선리에 와서 살았다.

키는 자그마한데다 얼굴은 박박 얇아서 그 인물은 볼품 없었지만, 글재주 하나만은 뛰어났다.

처부(妻父)는 한학을 잘해서 아이들을 모아 훈학을 하고 또 이방(吏房)까지 지냈다. 처부가 글이 능하니 홍 형방도 장가들어서 처부에게 글을 배워 대문장가라는 소문이 삼읍(三邑)에 자자하였다.

당시 제주·정의(旌義)·대정(大靜) 세 읍면 향교에서 강(講)을 했는데, 홍 형방은 언제나 장원을 하여 세 읍 문사(文士)들에게 알려진 것이다.

어느 해 마침 피미(南元邑 爲美里)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사건의 내용인 즉, 사람을 밧줄로써 팔 · 다리 · 머리를 한곳으로 당기어다 몸이 둥그스름하게 되도록 꿰뚫어 놓고, 먹돌(색이 까맣고 단단하고 둥그런 돌)로 쳐 죽인 것이다. 물론 누가 어떻게 죽였는지 알 수가 없었다.

형방(刑房) · 이방(吏房)들은 발미(跋尾)를 꾸며 보내야 하겠는데, 그 살인 정황이 기이해서 문장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웠다. 세 읍의 형 · 이방들이 모여 앉아 며칠 의논을 했지만, 그 피살자가 묶어진 모습이라든지, 먹돌로 쳐 죽인 상황을 한문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웠다. 발미는 급히 올려야 하는데, 꾸밀 수가 없어 목사까지 근심이었다.

의논을 거듭한 끝에 세 읍의 문사들을 불러들이기로 하였다. 한 이방의 정의 홍석기(洪碩基)라면 능히 작문할 수 있으리라고 추천하였다. 목사도 이에 응했다.

당시 홍석기는 처가에 살고 있었는데, 목사의 부름을 받은 것이다. 처가의 울타리에는 칙덩굴이 무성하여 축 늘어지고 있었다. 홍석기는 이 칙덩굴을 뜯어서 돌로 두들겨 부드럽게 하고 땃가지에 묶어 붓을 만들었다. 그래서 행전 귀에다 붓을 꽂고 제주 성안으로 들어갔다.

남문으로 성안에 들어가니 보는 사람마다 웃었다. 박박 얹고 키가 작은 시골 선비의 물골 행색이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이다. 영문에는 세 읍의 형·이방 들이며 문사들이 모여들어 와와 떠들고 있었다. 홍석기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이들도 피식피식 웃는 것이었다.

목사는 앉았다가 들어오는 시골 선비를 보고는“저기 들어오는 것은 누구냐?” 했다. 추천한 이방이 곧 “정의 홍석기올시다”고 아뢰었다. 목사는 “저놈이, 저놈이…?”하며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었다. 인품을 보니 글을 할 것 같지가 않다는 눈치였다.

추천했던 이방은,

“당유자는 박박 얹어도 제 상에 먼저 오르는 법입니다.”고 목사에게 응수했다. 어떻든 발미를 꾸며 보도록 하자고 했다.

홍석기가 목사 앞아가 엎드리니, 목사가 사실을 설명하고 발미를 꾸며 보라고 했다. 홍석기 앞에는 큰 백지가 펼쳐지고 먹을 가는 사람, 붓을 들어 바치는 사람, 대우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홍석기는 먹을 적서 바치는 붓도 그만 두고, 행전 귀에 꽂은 찢 붓을 꺼내어 먹을 적셨다. 순간에 붓을 휘둘렀다.

필자(必字)로 격지(擊之)하고 불릉석(不陵石)으로 타지(打之)라
운운

목사에게 바치니, 목사가 한참 들여다보다가 무릎을 탁 쳤다. 반 듯 필(必)자 모양으로 몸을 오그라지게 묶어 놓고, 모가 없이 둥그런 먹돌로 쳐 죽인 모습을 재치 있게 표현해 놓았다. 이리하여 어려운 발미가 완성된 것이다.

목사는 홍석기의 글재주를 크게 칭찬하고, 즉석에서 형방 벼슬을 내리었다. 그리고 표선리의 ‘연디벙뒤’라는 지명에 가랑 좁씨 한 섬지기를 끊어 주었다. 이 토지는 지금도 그 종손(宗孫)이 갈아먹고 있다.

표선면 성읍리, 홍성홍(남) 제보

12. 가시오름 강 당장

옛날 ‘가시오름’(表善面 가시리) 강 당장(康堂長)이라는 큰 부자가 살고 있었다. 부근 일대의 밭들이 모두 그의 것이어서 남의 밭을 밟으며 걷는 일이 없을 정도의 부자였다.

어느 명 지관(名地官)이 이 마을을 지나다가 이 마을에서 제일가는 부잣집일 듯한 강 당장의 집엘 들렀다.

“주인장, 지나는 나그네이온데 하룻밤만 묵고 갑시다.”

“잘 방이 없소이다.”

강 당장은 냉정하게 고개를 돌려 버렸다.

지관은 강 당장 집에서 바로 나와 바로 그 앞집인 오막살이로 들어갔다. 그 집은 경주 김씨(慶州 金氏)댁이었는데, 너무나 가난한 집이었다.

“주인어른, 지나는 나그네이온데 하룻밤만 묵고 갈 수 없을까요?”

김씨 주인은 망설였다.

“손님이 보다시피 묵고 갈 만한 집이 못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앉아서라도 하룻밤만 보내고 싶사오니,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딱한 사정이라면 저와 함께 같은 방에서 하룻밤을 잡시다.”

가난한 김씨 집은 방이 하나밖에 없어 주인과 나그네가 같은 방에서 자야 할 형편이었다. 그러나 김씨 부인은 지달피(地癩皮)로 만든 쌀주머니(결랑)에다 제사 밥이나 지어 올리려고 소중히 간직해 둔 쌀을 꺼내어서 저녁상을 마련해 올렸다.

그날 밤이었다. 지관은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부자로 잘 살지만 자신을 박접한 강 당장 집을 망하게 만들고, 가난하지만 인심이 좋은 김씨 집을 부하게 만들어 줄 궁리만 하고 있었다.

날이 밝았다. 지관은 김씨 주인에게,

“죄송하오만, 강 당장 집에 가서 우리 집에 유명한 지관이 와 있다고만 전해 주시겠소?”

지관의 말대로 김씨는 강 당장에게 가서 사실대로 일러 바쳤다. 과연 강 당장은 더욱 부자로 살고 싶은 욕심에서 그 지관이 우리 집을 방문해 주도록 전해 달라고 김씨에게

당부하는 것이었다.

강 당장은 어제는 박접했던 그 지관을 오늘에는 집안으로 초대해다가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대접 상을 차렸다. 툭툭히 대접을 받고 난 지관은 강 당장에게 물었다.

“뭇이 소원이옵니까?”

“밭이나 집은 남부러울 것이 없습니다만, 황소 백 두를 부리고 싶은 게 나의 소원이오.”

“그렇다면, 그만한 자릴 봐 드리지요.”

“하, 고맙소.”

“우선 당신네 선묘(先墓)들이나 논산(論山)해 봅시다.”

강 당장은 지관의 말대로 여러 선묘들을 보이기 위하여 산으로 안내했다. 지관은 정말 좋은 명당자리에 한 선묘가 자리잡고 있음을 보았다. 강 당장이 이렇게 잘 사는 것도 이 묘의 음덕(蔭德)임이 분명했다. 슬슬 이 뭇자리를 당시멸망지지(堂時滅亡之地)로 옮기게 할 계책(計策)으로,

“이 뭇자리를 다른 데로 옮기기만 하면, 당신의 소원은 곧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오 하고 말했다.”

“고맙소이다.”

“그리고, 이묘(移墓)하게 될 때에는 명심해야 할 게 하나 있소.”

“무엇이옵니까?”

“이묘하는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고 군소리를 해서는 덕이 없을 것이니 명심하시오.”

지관은 속셈대로 강 당장에게 뭇자리 하나를 선정해 줬다. 그 자리는 바로 당시멸망지지였다.

이 마을을 떠나면서 가난한 김씨에게로 갔다. 강 당장이 지금 곧 선묘 한 자리를 옮기게 될 것이니, 바로 그 자리에다가 집을 짓도록 하라고 일렀다. 김씨는 강 당장이 두려워서 그럴 수 없다고 하자, 그러지 못하도록 미리 조치까지 해 뒀다는 것이다.

강 당장은 선묘의 덕으로 황소 백두를 거느리고 싶은 일념에서 뭇자리를 파기 시작했다. 거의 시신까지 파 내려 갈 무렵이었다. 갑자기 묘 속에서 청 비둘기 한 쌍이 하늘로

날아가 버렸다. 그래도 강 당장은 지관이 정해 준 밋자지로 이묘를 강행했다.

이묘가 거의 끝났다. 묘의 울타리를 곱게 치장하기 위하여 큰 돌덩이를 옮기다가, 그만 그것이 떨어지는 바람에 지관의 계책대로 강 당장은 즉사하고 말았다.

가난했던 김씨는 지관의 말대로 이묘해 버린 밋자리에다가 집을 지었다. 얼마 없어 명 지관의 말대로 큰 부자가 되었다.

지금도 당시멸망지지(當時滅亡之地)에는 강 당장네 선묘가 그대로 있지만, 그 후손은 한 사람도 없이 망해 버렸고 경주 김씨 집안은 그 곳으로 집 자리를 옮긴 후 오늘날 12대 후손들까지 부자로 내려오고 있다.

이 일화는 제주도 어느 곳에서나 여인들이 부르는 밧돌 · 방아노래에서 곧잘 불려지고 있다.

가시오름 강 당장 집의

셋골방애① 새글러간다②

(※주 ①세 사람이 마주 짚는 방아. ②여러 사람이 절구로 방아를 짚는 경우, 짚는 리듬이 맞지 않는다는 말.)

이 노래 가사에서 ‘셋골방애’라는 말은 강 당장, 지관, 김씨 세 사람의 관계에서 명 지관의 농간에 강씨 혼자서만 망해 버렸다는 뜻에서 불려지기 시작한 것으로 본다.

표선면 가시리, 오국희(남) 제보.

13. 오 별장((吳別將)

옛날 토산 1리(表善面 兎山一里)에 오 별장(吳別將)이라고 하는 영웅이 태어났었다. 그의 눈동자는 보통사람들과는 달리 한 눈에 두 동공이 들어 있어서 늘 눈을 반쯤 감고 다녀야 할 정도로 무서운 존재였다. 만일 그가 눈을 번쩍 뜨기만 하면, 마당에서 모이를 쪼던 닭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사람이 말을 탄 채 그의 앞을 지나치다가는 말발이 절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의 눈 속에는 분명 살기(殺氣)가 들어 있었다.

어느 날 오 별장은 이 마을 정자(메뚜기 먹루)에 앉아서 눈을 반쯤 감고 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정자 앞을 지나는 것이었다. 정자에서 오 별장과 같이 앉아서 놀고 있던 동네 청년들은 못마땅한 눈빛으로,

“별장님, 저렇게 건방진 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당장 가서 하마(下馬)시키겠습니다.”

“가만 놔두지. 지나는 사람을 잡아다 놓고 무엇을 하겠단 말인가?”

오 별장과 동네 청년들은 그대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말을 탄 채로 정자 앞을 지나간 나그네는 저편 언덕길로 다시 올라가는 것이 보이질 않았다.

오 별장은 동네 청년들에게

“거 이상하다! 가서들 보지.”

청년들이 달려가서 보니, 말 타고 가던 사람은 말과 같이 죽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오 별장이 그쪽으로 향하여 눈을 번쩍 뜨자 눈에서 살(殺)이 쏘아졌기 때문이다.

오 별장은 눈살만 무서웠던 게 아니라 힘도 장사였다.

이 마을 동북쪽에는 지금도 오 별장네 선묘(先墓)가 하나 있다. 이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 오 별장네 선묘 근처에 가서 선친의 뒤통자리를 마련하고 싶었지만, 오 별장의 강단이 무서워서 망설이다가 행여나 하고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별장어른, 당신네 선묘 옆으로 저의 선친을 모시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가까이는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매를 가지고 오면 위치를 정해주지.”

그 사람은 듚직한 물매를 하나 마련했다가 오 별장에게 줬다. 오 별장은 선묘 앞에서 빙빙 휘두르다가 획 던지니, 300m쯤 떨어진 곳에 가서 떨어지는 것이었다.

“떨어진 밖으로 가서 뒤통자리를 마련하게.”

모두들 한동안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사람은 하는 수 없이 오 별장의 선묘에서부터 300m쯤 떨어진 밖으로 가서 뒤통자리를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

이 세상에서 오 별장에게 무서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어느 여름 한나절에 옷

옷을 훌랑 벗어 버린 채 마룻바닥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었다. 어디서 나왔는지 큰 구렁이 한 마리가 기어 나와 잠자는 오 별장의 등 밑으로 슬금슬금 빠져나가는 것이었다.

별장은 눈을 뜨고 슬금슬금 기어가는 구렁이를 바라보면서,

“야, 그놈의 짐승이 등 밑을 지나더니만, 시원기도 하다.”

이렇게 말하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눈을 붙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영웅 같은 오 별장네 집안도 지관(地官)의 지시를 거역했기 때문에 결국은 망해 버리고 말았다.

이 마을 동북쪽에 오 별장네 선묘가 하나 있는데, 그 지세는 오백룡(五白龍)과 오작(五鵠)이 어우러져서 노는 격이었다. 지관은 오 별장의 선친에게 뒤편 자리를 마련해 주고 나서, 저 가시오름(表善面 細花里와 兎山里 사이에 있는 峰) 만큼 한 자손이 태어나거든 꼭 이묘(移墓)하라고 말했었다. 바로 이 선묘의 정기를 받고 영웅 같은 오 별장이 태어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오 별장의 선친은 욕심을 부려 지관의 말대로 이묘하지 않았다.

오 별장이 성장한 후, 어떤 노승이 지나다가 오 별장네 집엘 들렀다. 오 별장의 얼굴을 보니 선묘의 운기를 타고난 명당 자손이 분명했다.

“지나는 노승이온데, 이 마을 동북쪽에 있는 어느 어느 뒤편자리가 당신의 선묘가 맞소?”

“그렇소.”

“이제는 그 뒤편 자리를 옮길 마음이 없소?”

“고안 중놈이네, 썩 나가, 선친의 묘를 옮기라니…”

“그렇다면 소인이 실수했소이다.”

노승은 말없이 지나 버렸는데, 결국 오 별장네 집안은 망하고 말았다. 만약, 처음 자리를 마련해 준 지관이나 지나던 어느 노승의 말대로 이묘를 했더라면, 오 별장네 집안은 망하지 않고 대대로 그런 영웅이 태어났을 것이다.

지금 오 별장네 집안은 한 사람의 후손도 없이 망해 버렸지만, 그 선친의 뒤편자리는 그대로 남아 있다.

표선면 토산리, 金文玉(남) 제보

14. 어진 고 형방(高刑房)

옛날 정의현(旌義縣)에 ‘어진 고 형방’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다. 형방이면서도 남달리 성품이 어질고 인자한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고 형방이 살았던 시대에는 양민이나 관군들이 마음 놓고 산길로 나들이 할 수 없을 정도로 도적 떼들이 온 섬 안에 득실거리고 있을 때였다. 정의 관군들은 영문(營門:지금의 제주시)에 무슨 불일이라도 있으면 산길을 다녀야 했고, 그 고을의 양민들은 춘궁기를 무사히 넘기기 위해서 한라산 너머 먼 마을까지 가서 쌀을 빗저다 먹어야만 했던 때였다. 이럴 때마다 산길을 다니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골칫거리는 도적 떼들이었다. 도적 떼들은 산길 가까이 있는 굴에 살면서 오고 가는 양민들이나 관군들까지 잡아다가 쌀과 돈을 털어먹어 버릴 뿐만 아니라 저항하였을 때에는 잡아 죽이기까지 했었던 것이다.

그런데 어느 해, 제주 섬에 온통 흉년이 들고 말았다. 도적 떼들은 더욱 득실거렸다. 먹고 살기 위하여 도적이 된 것이다. 그리하여 정의현에서는 이만저만 걱정거리가 아니었다.

여러 관원들이 모여앉아 대책을 숙의했다. 대부분의 의견은 관군들이 모두 산으로 올라가서 도적 떼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죽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계획대로 일은 잘 진행되었다. 관군들이 한 소굴을 찾아 습격하고 보니 도적 떼들이 삼십여 명이나 모여 있었다. 모조리 결박해다가 하옥시키는 데 성공했다. 내일은 모조리 살해할 날이었다.

바로 그날 밤이었다. 삼경서부터 고 형방이 옥문을 감시할 시간이었다. 고 형방은 아무리 도적들이지만 목숨을 죽이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다. 슬그머니 옥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도적 떼들은鼾소리마저 죽이고 모두 고 형방을 응시하고 있었다.

“너희들, 내가 이 옥문을 열 테니 이 숨으로 내 입을 틀어막고 이 기둥에다 나를 잡아 묶어라. 밝는 날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묶어두고 도망쳤다고 이를 테니, 어서!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도둑놈들은 고 형방의 명령대로 숨으로 입을 틀어막고 손목을 기둥에다 틀어 묶은 다

음 무사히 옥문을 빠져 나갔다.

“이게 어찌 된 영문인고!”

원님의 호통이 터졌다. 여러 아전들과 관군들은 옥으로 달려갔다. 도적 떼들은 고 형방을 묶고 모두 도망쳐 버렸던 것이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뒤 몇 년이 흘렀다. 정의고을에서는 제주 목에 급한 장계(狀啓)를 가지고 가야 할 일이 생겼다. 모두들 꺼려하는 눈치였다. 도적 떼들이 무서웠기 때문이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불쑥 나타난 것은 고 형방이었다.

“음, 도적 떼들에 들키지 말고 조심히 다녀오도록 하려무나.”

원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곧 고 형방은 산길을 따라 제주 목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어느덧 깊은 산길에 접어들어설 즈음이었다. 부대오름(峰) 옆을 지날 무렵에 한 무리가 눈앞에 나타났다.

“아, 잘 만났구나!”

고 형방은 도적 떼들에게 붙들려 굴로 들어가고 있었다. 굴 입구에는 두 도둑이 창을 들고 서 있었다. 초병인 것 같았다. 굴 안으로 막 들어설 즈음이었다. 도적 두목인 듯한 인물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의젓하게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그 두목의 눈동자가 휘둥그레지기 시작했다. 슬며시 고 형방 앞으로 나오더니 손목을 잡고 상석으로 모셔 큰절까지 올렸다.

“어진 형방 어르신님을 저희 부하들이 몰라 뵈어 이렇게 박접했사오니 용서하옵소서.”

도적의 우두머리는 어진 고 형방을 상석으로 모셔 놓고 여러 가지 음식은 물론 주안상까지 풍성히 차려 대접하기 시작했다. 바로 생명의 은인에 대한 극진한 대접이었다. 고 형방은 하룻밤을 도적들과 그 소굴에서 같이 보냈다.

날이 밝자 두목은 여러 부하들에게 고 형방 님을 제주 목까지 잘 모셔 다녀오라고 지시했다. 다른 도적 떼들에게 붙들려 봉변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었다.

어진 고 형방은 도적 떼들로부터 호위를 받으며 제주 목에 도착하여 소임을 다할 수

있었다. 돌아올 때도 도적 떼들로부터 호위를 받았다. 두목은 산길까지 마중 나와 어진 고 형방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시 굴속으로 모셔다가 후하게 대접했다.

어진 고 형방이 정의고을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두목은 고 형방에게 집에 가서 반찬이라도 하십사고 자루 가득 쇠고기를 싸 주었다.

어진 고 형방은 굴 밖을 한참 나와서는 두목으로부터 받은 쇠고기를 모두 내던져 버리고 말았다. 불쌍한 양민들로부터 도둑질해 온 것을 먹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후로 아무리 죄가 많은 도둑놈들이라지만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고 하여 모두 살려 보내 버린 고 형방 만이 정의고을의 모든 장계를 제주 목까지 가져가게 되었고, 그 고 형방을 두고, ‘어진 고 형방’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표선면 성읍리, 송지준(남) 제보

15. 고 부윤(高府尹)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 삼읍(三邑)에는 향교가 하나씩 세워졌다. 향교마다 글 읽는 소리가 높아갔다. 그 중 정의향교(旌義鄕校)에서 제주 고씨 한 사람이 벼슬의 꿈을 안고 열심히 글을 읽고 있었다. 고씨는 문장이 뛰어났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과거를 볼 때마다 낙방이었다. 그것은 제주 섬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어느 해였다. 그해에도 조정에서는 인재들을 등용하기 위하여 방방곡곡에 방(榜文)을 붙였다. 정의향교에서 글을 익힌 고씨는 부푼 꿈을 안고 한양으로 향했다. 이번이 열 번째 보는 과거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낙제였고, 낙심하여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한양에서는 천둥과 벼락이 내리치면서 폭우가 쏟아졌다. 그 때 장안에서 장사하던 한 상인이 벼락에 맞아 죽고 말았다. 이상한 일이었다. 벼락을 맞고 죽은 시신의 등덜미에서 새겨진 글씨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이었다.

방구팔삼월(方口八三月)

임금은 큰 변이라고 하면서 그 글을 해석해 올리도록 명령하기에 이르렀다. 조정의 관리들은 모여 앉아 그 글을 해석하려고 애써 봤지만 어느 누구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었다.

급기야 조정에서는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여러 문무백관들을 불러다 놓고 그 뜻을 해석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기에 이르렀지만, 모두 허사였다. 어느 누구도 그 뜻을 해석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한 선비가 불쑥 나타나더니 임금님께 다음과 같이 아뢰는 것이었다.

“이름은 확실히 모르겠사오나, 아마 제주도에서 과거보러 올라 온 고씨만은 그 내용을 알 것으로 믿사옵니다.”

“어떤 사람인고?”

임금의 목소리는 천지를 진동하듯 궁궐을 울렸다.

“그 사람은 금년 과거를 보러 한양에 올라왔었으나 낙방하여 곧 제주로 내려가는 줄로 아옵니다.”

“지금쯤 어디에 있을꼬?”

“아마 인천 포구에서 배를 기다리는 줄로 아옵니다.”

“어서 가서 그 사람을 데려오도록 하여라.”

뛰어가서 보니, 제주 고씨는 포구머리에서 제주로 떠나려는 배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 신하들로부터 임금의 뜻을 전해들은 제주 고씨는 신하들을 따라 궁궐로 향했다.

궁궐에 들어선 고씨는 임금 앞에 엎드렸다. 당장 임금의 목소리가 궁궐 안을 진동하기 시작했다.

“그대가 금번 과거에 낙방하여 제주도로 향하던 중 나의 부름을 받고 되돌아온 제주 고씨인가?”

“그러하옵니다.”

“그대 문장 해독에 남다른 바가 있다고 하던데, 어디 한번 이 글을 해독해 보려무나.”

제주 고씨는 천천히 벼락 맞고 쓰러진 시신 앞으로 다가갔다. 모두들 숨소리를 죽인 채 바라보고만 있었다. 물끄러미 시신 등덜미에 새겨진 글씨를 살피고 있던 제주 고씨는 자신의 등 뒤에 꽂아뒀던 담뱃대를 빼어들고는 “바로 이렇습니다!” 고 크게 외치는

것이였다. 주위를 둘러 선 채 바라보고만 있던 눈동자들이 모두 휘둥그레졌다.

고씨는 천천히 ‘方’자 가운데에다 담뱃대를 톱 놓았다. 바로 ‘市’자로 둔갑되였다. 다시 ‘口’자에다 담뱃대를 얹어 놓으니 이내 ‘中’자로 바뀌었다. ‘八’자에다 놓으니 ‘小’자로 변했다. ‘三’자 에다 놓으니 ‘斗’자가 되었다. ‘月’자에다 놓으니 ‘用’자가 되었다.

이 뜻은 바로 벼락 맞아 죽은 사람이 생전에 시장 가운데서(市中) 쌀을 팔 때마다 사는 사람이 눈을 속이기 위하여 작은 되(小斗)를 썼기(用) 때문에 죄 값을 받고 벼락에 맞아 죽었다는 것이다. 임금은 크게 감복했다.

“제주 고씨야말로 인재로다. 이렇게 훌륭한 인재가 과거를 치를 때마다 낙방했다니...”

임금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제주 고씨에게 부윤(府尹)벼슬을 하사했다. 그 후로 그 사람을 고 부윤(高府尹)이라 부르게 되었고, 제주도 여러 선비들에게도 과거에 합격하기만 하면 벼슬자리를 내려주게 되었다고 한다. 제주 고씨 덕으로 제주도도 변방이라는 서러움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16. 토산 뱀

안덕면 창천리를 경계로 하여 제주도 서쪽 지역에서는 토산의 뱀 신앙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따른다.

옛날 안덕면 감산리 어떤 사람이 표선면 토산리 여자를 며느리로 데려왔다.

토산은 제주도에서 뱀신(蛇神)을 위하는 본택(本宅)으로 여자가 시집을 가면 어느 곳 이든 따라간다고 한다.

토산 며느리가 시집와서 살게 되자 집안 식구들이 병에 걸리고 여위기 시작했다.

감산리 사람이 이상하다고 여겨 점쟁이를 불러다 까닭을 물었다. 바로 토산 뱀을 잘 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뱀신(蛇神)을 위하는 곳을 해야겠어.”

무당을 불러 곳을 시작했다. 부친이 아주 고집이 센 양반이라 뱀 귀신이 나오도록 곳을 하라고 한창 곳을 하는 무당에게 요구했다.

“귀신이 나오게끔 굿을 하라.”

무당들이 굿을 계속하자 뱀이 마당으로 기어 나오는 것이었다. 부친은 조그만 항아리를 가져다 놓고 무당에게 뱀이 항아리에 들어가게 굿을 하라고 요구했다.

무당이 부친의 요구를 받아들여 계속 굿을 하자 뱀이 항아리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이제는 굿을 그만두라. 귀신을 잡아 버렸으니 굿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는 항아리 뚜껑을 닫고 깊이 땅을 파서 묻어 버렸다.

무당들이 굿을 그만두고 돌아갔다.

이렇게 되자 토산리 친정집에서 사람들이 아프기 시작했다. 토산에서는 점을 치고 굿을 하자 무당이 그 까닭을 말했다.

“너의 집 한 조상이 감산리에 가서 잡혀 있구나.”

무당이 감산리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말했던 것이다. 토산 친정집에서는 감산리 사돈댁을 찾아가서 조상을 묻은 항아리를 내어놓으라고 간청을 했다.

“항아리에 든 뱀신을 모셔 갈 테니 어서 주십시오.”

감산리 사람이 땅을 파서 항아리를 건네주자 다시 뱀신을 토산으로 모셔갔다. 그 이후부터는 감산리 서쪽에는 뱀신을 위하는 집이 없다 한다. 그렇게 된 것은 뱀신들이 감산리 창천내에 가면 잡혀 묻힐 것이라 믿고 중문지경까지는 따라가나 감산리 너머로는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서귀포시 강정동 김정호(남) 제보

17. 양남택과 구렁뿔 당신(堂神)

양남택은 지금의 ‘구렁뿔’(表善面 城邑二里)을 설촌한 사람이며, 또 그 마을의 본향당(本鄕堂)을 설립한 사람이기도 하다.

‘구렁뿔’에는 아주 오랜 옛날에 이미 동네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중간에 무슨 이유에 서인지 모르지만 폐촌되었다가 다시 그에 의해서 재건된 마을이다.

양남택은 원래 정의고을에서 이방(吏房)살이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어느 해 정의고을을 원님이 3년 임기를 마치고 떠나게 되었다. 원님을 배웅해 드리기 위하여 화북(濟州市 禾北洞) 포구로 갔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연일 태풍이 불어 배를 띄울 수 없어서 며칠 동안 화북에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태풍은 보름 동안이나 계속되어 이만 저만한 걱정이 아니었다.

어느 날 밤 꿈에 하얀 소복으로 단장한 할아버지가 나타났다.

“나는 한양 남대문 밖 도정승(都政丞) 아들이노라! 제주도에 왔다가 고향엘 가지 못할 신세가 되었다. 이 화북에서 그래도 있고 싶어도 해감 냄새가 지독하여 도저히 머물러 있지 못하겠으니, 나를 어느 깊은 산골로 가서 잘 모셔 달라. 그러면 너에게 부(富)를 내리겠노라.”

깨고 보니 꿈이었다. ‘개꿈이려니’ 생각하고 지나쳐 버리려고 했었는데, 이튿날 밤 꿈에도 그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다. 큰 고민거리였다.

‘아, 귀신이 꿈에 나타나서 나에게 잘 모셔달라고 부탁을 한다고 하면, 무슨 증거물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그날 밤 꿈에도 서울 남대문 밖 도정승 아들이라는 할아버지는 다시 나타났다. 이상한 일이었다. 꿈에 나타난 할아버지는 양남택의 걱정을 이미 들었다는 듯이나,

“날 모셔 가려거든 원님이 타고 가려는 배의 나무 조각을 하나 뜯어다가 거기에서 화상을 그리되, 코 위로는 떠나는 원님의 얼굴만 그리고, 그 밑으로는 새로 부임해 오는 사포의 모습을 그리면 나의 혼이 그리로 들어가서 너를 따라가겠노라.”

양남택은 어찌 해 볼 도리가 없었다. 배로 가서 널판대기 하나를 떼어다가 꿈에 나타난 할아버지의 지시대로 화상(畵像)을 그렸다.

귀신의 조화인지는 몰라도 갑자기 날이 화창해졌다. 원님을 배웅하고 나서 화상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 온 양남택은, ‘어디로 가서 모실까’ 망설이다가 ‘구렁팻’으로 가서 모시기로 작심했다. ‘구렁팻’으로 화상을 모시고 집이라기보다 날가리 비슷하게 초옥을 만들어 그 안에 모셔 내버렸다.

몇 해 후였다. 어느 날 밤 꿈에 다시 그 할아버지가 나타났다.

“아, 나를 구렁팻으로 모셔줘서 고맙긴 하다마는 어느 누구 밥 한 그릇 대접하는 이도 없고 해서 내가 살아갈 수가 없으니, 네가 내 곁으로 와 살면서 나를 잘 대접해 주면, 당장 너를 부자가 되게 해 주마.”

‘들은 게 병’이란 격으로 귀신이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말했는데, 어쩔 도리가 없었다. 양남택은 인가(人家)라고 한 채도 없는 ‘구렁팻’으로 가서 농사를 지으며 살기 시작했다.

아닌 게 아니라 귀신의 조화인 듯이나 농사를 짓기만 하면, 팔씨 다섯 방울만 부려도 다섯 말이 날 정도로 해마다 풍년이었다. 양남택은 이내 곧 부자가 되었다. 이는 귀신의 도움이라고만 여겼다.

이 소식이 퍼지고 퍼졌다. 차츰차츰 인근 마을 사람들은 너도나도 구렁팻으로 모여들어 살기 시작해가자, 큰 동네가 형성되었다.

그래서 양남택은 그 마을(城邑二里)의 설촌자가 되었고, 서울 남대문 밖 도정승 아들이노라며 꿈에 나타난 할아버지는, ‘구렁팻’으로 모여든 마을 사람들의 제반사(諸般事)를 수호해 주는 본향당신(本鄕堂神)이 되었다.

성산을 신통리, 吳文福(남) 제보

18. 백 목사(白牧使)와 토산 당(兎山堂)

조선시대 이형상 목사가 제주도에 부임할 당시에 섬 중에는 당 오백과 절 오백이 있었다.

부임하자마자 관덕정(觀德亭)에 이르고 보니, 커다란 신목(神木)이 두 그루 있었는데, 여러 백성들이 모여들어 소까지 잡아 놓고 제 지낼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이상하게 여긴 목사는 이방(吏房)을 불러 세워 놓고, 백성들이 제를 지내기 위하여 법석대는 원인을 물었다.

“왜 이리 야단법석이고?”

“이 섬 중에서는 어느 목사님이건 부임하게 되면, 관덕정 밑에서 이렇게 제를 올려야 하옵니다.”

“그래? 그렇다면 이 섬 중에서 일등 무녀(巫女)를 불러 와라.”

“예.”

목사는 불러 온 무녀에게 신(神)이 내 앞에 나타나도록 굿을 하라고 지시했다.

아침부터 굿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녁 때쯤 되어서야 큰 뱀이 슬금슬금 기어 나와서는 관덕정 앞마당에 사려 누웠다.

“이게 귀신이냐?”

“예.”

목사는 이방에게 활을 당겨 저 뱀을 쏘아 죽이라고 하명했다. 목사의 명령대로 뱀은 죽었다.

목사는 다시 이방에게 이 섬 중에서 유명한 목수들을 불러들이라고 하명하자, 수 십명의 목수들이 모여들었다. 목사는 여러 목수들을 세워 놓고 신목을 죽여 버릴 방법을 묻기 시작했다. 도끼로 쳐야만 된다는니, 불을 붙여야 된다는니 의견이 분분하던 중에, 다라콧(제주시)강 목수가 불쑥 나섰다.

“거 도끼 없이도 죽일 수가 있습니다.(거 도치 어시도 죽일 수 이실꺼우다.)”

“그러면 네가 죽여 봐라.”

강 목수는 신목(神木)에 사다리를 세워 놓고는 먹통 줄만 갖고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서 꼽아 놓고 내려왔다. 먹줄을 한번 탁 튕기고 나서는 목사에게 신목은 죽었다고 일러 바쳤다.

“음, 과연 일등목수로다.”

목사는 이러한 방법으로 섬 중에 있는 당과 절들을 부숴나가기 시작했다. 어느 날 토산리(表善面 兎山里)에 이르러 이 마을의 당을 파괴할 차례가 되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애걸하기 시작했다.

“목사님, 제발 이 당만은 살려주옵소서.”

“그러면 내 앞에서 굵을 해라. 그러되, 신의 위력으로 저 당기(堂旗)의 깃대가 저절로 일어설 경우에는 당을 파괴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기 못할 때에는 영험(靈驗)이 없는 것으로 믿고 부수고야 말겠노라.”

심방은 애써 굵을 쳐나갔다. 깃대가 별별 떨리면서 반쯤 일어서려고 할 때면 목사의 두 눈이 번쩍거렸다. 그럴 때마다 일어서려던 깃대는 쓰러지고 말았다.

‘과연 영험이 있는 당이로다.’

목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당만은 영험이 있으므로 파괴하지 말고 그대로 지나자고 순력꾼들에게 지시했다.

그랬기 때문에 토산당의 위력은 전도에 걸쳐 번성하게 되었다.

조천읍 북촌리, 신승빈(남) 제보

19. 영주산과 무선돌

표선면 성읍민속마을 북쪽으로 약 2km 떨어진 곳에 영주산이 있는데, 바로 그 아래 무선돌이라 불리는 큰 바윗돌이 있다.

이 산은 여자가 앉아 있는 모습과 흡사하고, 무선돌은 남자의 모습을 닮았는데, 여기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아주 먼 옛날 이 마을에 어느 부잣집의 딸과 쓰러질 듯한 초가에 어머니 한분만 모시고 근근하게 살아가는 총각이 살고 있었다.

총각은 늙은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여 동네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다. 그런데 어느 날 산에서 나무를 하고 돌아오다가 허벅(물을 길어 나르는 옹기)에 물을 지고 가는 고운 처녀와 마주치고 나서부터는 늙은 어머니를 보살필 생각은 않고 그 처녀 생각만 하게 되었다. 나무를 하러 가다가도 멈춰 서서 그 처녀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곤 했다. 이와 같은 일이 잦아지자 동네 사람들도 눈치 채게 되었고, 드디어는 이웃 여러 사람들도 그를 불효의 자식이라고 욕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위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총각의 연정은 깊어만 가서 정신병자처럼 행동하게 되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그 총각의 어머니는 외롭게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동네 사람들은 더욱 그를 비난했다.

무심한 생활 속에 여러 날이 흘렀다. 어느 날 그 처녀가 아버지 심부름을 다녀오는 길에 우연히 그 청년과 마주치게 되었다. 둘이 만나서 얘기하다가 처녀의 아버지에게 들키고 말았다. 그녀의 아버지 또한 그 총각의 처사에 대하여 늘 못마땅하게 생각해 오던 터였다.

그 후, 처녀는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하는 수 없이 그 총각과 같이 살게 되었으나, 동네 사람들의 차가운 눈초리 때문에 그 마을에서는 살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가서 살려고 그 마을에서 빠져나오는 길에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쿵하는 벼락 소리가 나더니, 둘은 갑자기 산과 바위로 변해 버렸다.

처녀는 지금의 영주산이 되고, 총각은 무선돌이 되고 만 것이다. 총각은 늙으신 어머니를 잘 모시지 못하여 죽게 한 죄로 무선돌 바위가 되어 산이 된 처녀를 쳐다만 보고

서 있으라는 벌을 내린 것이고, 처녀는 죄가 없으나 산으로 변하여 다시는 성읍마을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을의 처녀 총각들을 보살피는 수호신이 되라는 하늘의 명령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전해 오고 있다.

學術調查報告書 (1976 : 제주대학 국어국문학과)에서 인용

20. 현 행방 이야기

옛날 ‘고호장’이 돌아가셔서 장사를 치르러 갔는데, ‘조천에서 산 다투러 온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하천리 리민들에게 알려 장정들을 모집하게 되었는데 바 장정 중에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는 ‘현 행방’이란 이가 같이 가겠다고 나오니, 하천리 장정들은

“너는 가도 소용이 없으니 가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현 행방은

“나도 가겠다”고하니 할 수 없이 같이 가게 되었다.

가서 보니 묘를 쓸 자리에는 벌써 조천 청년들이 몇 십명이 나와 있었다. 그 때 현 행방은 한쪽 절뚝거리는 다리에도 불구하고 담뱃대를 물고서는 조천서 온 장정에게 담배 한 대를 달라고 했다. 그러자 조천 장정들은

“저 불구자가 온 거 보니 하천리에서는 모두 온 것이다. 우리가 싸워도 이길 수 없으니 그대로 돌아가자”하고는 싸움도 하지 않고 돌아가 버렸다. 조천 장정들이 조천에 가서 이 사실을 얘기하니

“하천리를 이기려면 상동에 어경물이 있는데 그것을 부수고, 중동에 가면 올한이물이 있는데 그것을 부수고, 바닷가에 가면 고춧당(당이름)이 있는데 그것을 부수어서야 하천리를 이길 수 있다. 그러니 그것들을 먼저 부수어라”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부수지를 못해서 하천리를 이기지 못했다 한다.

21. 일렛당 전설

웃송당 당신(堂神) 금백주와 알송당 당신 소천국 사이의 셋째아들은 표선당신인데, 그의 큰아들은 하천당신, 둘째 아들은 세화당신이며 세째 아들은 토산당신이다..

이 토산당신의 큰 부인은 사당팻 일레(七日) 중정이고 작은 부인은 용궁황제국의 작은딸이다.

토산당신이 어렸을 때에 여러 가지 죄목으로 무쇠 석갑에 담겨 바다에 띄워졌는데 용왕국에 닿게 되었고 용왕의 셋째딸을 둘째부인으로 맞게 되었으나 용왕국에서는 해가 있을까 두려워하여 이 부부를 무쇠 석갑에 담아 바다에 띄웠다. 이 석갑은 구좌읍 하도리에 떠올라 그 후 용왕의 딸은 시부모에게 효도를 다하여 인정을 받는 반면 큰부인은 부정하다 하여 마라도로 귀양을 보냈다. 작은부인인 용왕의 딸이 사정을 하여 손수 큰부인의 귀양을 풀기 위하여 마라도에 가고 본즉 큰부인은 벌써 일곱 아이를 낳아 있었는데 이를 모두 데리고 사당팻에 당신이 되어 좌정한 것이다.

22. 여드렛당 전설

옛날 나주(羅州) 금성산(錦城山)에 월궁(月宮)의 선녀(仙女)가 있어 그의 정체를 추구 하였던 바 큰 뱀으로 화신(化身)하므로 구사포수(驅蛇砲手)를 시켜 불질을 하니 그 뱀은 금(金)바둑, 옥(玉)바둑, 돌로 변하여 서울 종로(鐘路) 거리에 떨어졌다.

이때 제주의 강씨(康氏) 형방(刑房)과 오씨(吳氏) 형방, 한씨(韓氏) 형방 삼인이 미역, 전복 등을 진상하러 서울에 갔다가 우연히 이 바둑돌을 주웠는데 삼인의 형방이 돌아올 때 이 바둑돌은 따라와서 온평리(溫坪里)로 들어왔으나 이 마을에도 당신(堂神)이 있어 붙어 있을 수 없으므로 서쪽으로 행하던 중 하천당신(下川堂神)이 달산봉(達山峯)에 앉아 바둑을 두다가 월궁선녀같은 아가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왕골까지 달려가서 팔목을 잡자 껄썩하고 더러운 놈이라 하면서 잡혔던 팔목을 장무칼로 깎아버리고 인사차 용왕국으로 가서 이야기했더니 오히려 잘못된 짓이라고 꾸짖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 선녀 아가씨는 이를 후회하고 토산으로 올라서며 하천당신을 불러 보았지만 소식이 없었는데 그로부터 토산알당(兎山下堂)에서 연화(煙火)가 오르면 하천리고척당(高處堂)에선 신화(神火)가 오르곤 하여 서로 연불, 신불로 언약을 하고 지냈다.

이 선녀 아가씨는 빨래를 하러 해변가에 다니다가 때마침 왜선(倭船)이 이 바다에서 파선이 되자 그 선원들이 도둑으로 화하여 선녀를 겁탈, 치사(致死)케 했으니 그 신령(神靈)을 여드렛당에 모신 것이다.

23. 송 감찰

옛날 정의현에 머리가 영특하고 무술에도 능한 송 이방이 있었는데 어느 날 불현듯이 현감을 하고 싶어 한양에 올라갔다.

한양에 도착한 송 이방은 상시관(上試官, 과거를 주관하는 시관의 우두머리)을 만나 현감 교지를 바라는 과거 합격까지의 숙식비와 모든 비용으로 많은 돈을 주었다.

과거가 빨리 실시가 안 됨으로 인하여 기다리는 도중 고향에서 모친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그당시는 3년상 도중에는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상시관에게 사정 얘기를 하고 비용으로 줬던 돈을 돌려달라고 청하였다. 그러자 상시관은 받았던 돈 대신 제주에서 올리는 조공으로 받으라고 하여 제주에 내려온 그는 많은 곡식을 쌓아두게 되었다.

그 다음해인 갑인년에는 가뭄이 극심하여 온 섬이 흉년이 들었는데 주민들은 물론 이 옷주민과 멀리서는 대정에서까지 양식을 얻으러 왔으며 한 사람 당 한 되씩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되자 나라에서도 그 일을 알고 무술에도 능하고 백성을 구제한 공으로 임금께서는 모친의 삼년상을 치른 다음해(1893년)에 사헌부 감찰(조선시대 정6품 벼슬) 교지를 내렸다고 전해진다.

24. 설촌조의 선묘 이야기

가시리는 지금으로부터 600여년 전인 1392년 7월 고려조의 멸망과 동시에 고려조의 충신으로 예문관 대제학을 지낸 청주 한씨 서제공(恕齊公) 한무(韓茂)께서 불사이군의 충절을 지켜 부인과 두 아들을 거느리고 개성을 출발, 정읍 해남을 거쳐 해로로 성산포에 도착하여 여러 곳을 돌아보다가 인가가 없는 가시리에 정착, 설촌하였다고 한다.

가시리를 택한 이유로는 땅이 비옥하고 주위를 둘러싼 산세가 아름다웠으며 특히 전경으로 삼은 가시오름과 깊은 인연이 있는 것 같다.

풍수설에 의하면 가시오름은 가사장삼형으로 마치 중이 법복을 입은 것과 같다는 뜻인 바 이 가사봉이 그 동안에 어떻게 마을 이름과 함께 가시봉 또는 가시리로 변칭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처음으로 집을 지어 살던 곳에 한씨 문중회에서 충의사를 지어 입도선조인 서제공의 유업(遺業)을 기념하고 있거니와 지금도 그 집자리의 주변에 있는 지명들(큰뒷밭, 조근뒷밭, 안위연, 동박남밭, 중의왓, 정구터, 서당밭 등)이 이를 대변해 주고 있다.

이 충의사에는 서제공 한무(韓茂) 유허비(遺墟碑)가 오래된 모습으로 세워져 있으나 이상하게도 오랫동안 입도선조이신 서제공의 묘소를 찾지 못해 한씨 문중회에서 당황하던 중 옛날에 이웃 성산읍 신산리에 거주하는 고재관 씨의 꿈 속에서 계시를 받아 잃었던 묘를 찾았다. 이에 대하여

고씨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요약해 본다.

나는 서제공 할아버지를 영감이라고 불러왔다. 지금의 충의사는 지은 지 몇 해 안 되었지만 예전에 이 자리에 있는 제각이 오래되어 허물어지고 있어 한씨 문중회에서 이를 보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 1953년 2월에 이를 수락하고 정성을 다하여 보수작업을 끝냈다.

그러나 보수공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날부터는 온 몸이 나른하고 기운이 모두 빠져 환자가 된 것 같으나, 무슨 병인지 알 수도 없고 자리에 눕게 되었다.

이튿날 꿈에 영감님이 나타났다, 장소는 서제공의 제각 보수공사장이다.

사립문을 열고 들어가니 넓은 마당이 나오고 정면에는 큰 기와집이 꽤 단장되었다. 대

청마루 서남쪽편에 앉아 일을 시작하려는데 집 주인인 듯한 영감님이 나타났다. 영감님은 내가 하는 일을 한참 동안 지켜보다가 집 뒷편으로 돌아가 버렸다. 눈을 뜨고 보니 꿈이었다.

온 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아내는 걱정하면서 몸이 쇠약해서 그런 것이니 마음을 안정하고 푹 쉬어야 한다고 권하였다.

또한 전날 밤부터 두 살난 딸이 열기가 있더니만 병원에 다녀 보아도 효과도 없이 뒷날 밤 자정쯤 죽고 말았다. 아내는 가시리 제각공사 때문에 일어난 변고라고 하면서 돌연장 등을 바닷물에 집어 던져 버렸다.

죽은 딸을 이웃사람과 더불어 산에 가 파묻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서 초죽음으로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두 번째로 꿈을 꾸었다.

홀연히 딸아이가 죽자 나는 딸아이를 안고 파묻으려고 한길을 막 나서는데 웬 노파가 길을 막아서며 하는 말이 "그 아이를 나에게 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무심코 딸아이를 건네주고 노파는 딸아이를 안고 서남쪽을 향해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걸었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가다 보니 남향으로 지은 네 칸짜리 큰 기와집이 있었다.

노파는 아이를 안고 부엌쪽으로 들어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노파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이를 찾아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부엌엘 가보니 십 팔구세 된 처녀들이 흰모자에 앞치마를 두르고 떡을 만들고 있었다.

혼자말로 "웬 떡을 이처럼 많이 만드느고" 하는데 전날 꿈에서 본 그 영감이 들어왔다. 영감은 방식을 권하면서 앉으라고 하였다.

내가 "무슨 떡을 저렇게 많이 만드십니까?"하고 물으니 영감은 "저 떡은 내 집 늙은이가 아이를 안고 와서 잔치를 하려고 만드느 것"이라 하였다.

"그 아이는 내 딸인데 찾아가겠다"고 하니 영감은 "이제 시간이 늦었으니 포기하고 돌아가라"면서 그만한 덕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 영감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서쪽 구석이 헐어 비가 새고 있으니 네가 고쳐줘야 하겠다"고 부탁을 하면서 오늘은 늦었으니 그대로 돌아가고 이 다음에 만나자고 하였다. 영감의 재촉에 사립문을 나와 큰길로 발을 옮기면서 눈을 뜨고 보니 꿈이었다. 온몸 뿐아니라 자리에까지

땀이 흥건히 배어 있었다. 이제 내가 꼭 죽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하다보니 날이 밝았다.

다음날 밤에 세 번째로 꿈을 꾸었다. 창밖에 가랑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었다. “고재관이 있느냐”하는 고함소리를 들었다. 벌써 일어나 보니 문밖에 영감님이 와서 “어째 무심하게 잠만 자느냐?”하고 꾸짖는 것이다.

“예, 몸이 아파서 자고 있습니다.”

“아프다고 잠만 자면 되나, 걸어다녀야지. 그리고 부탁한 일은 어떻게 하였느냐?” “예, 지금 몸이 아파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하고 같이 가야 한다면서 영감이 문밖으로 나가기에 나도 뒤에 따라 가려고 첫발을 내딛는데 잠이 깨어보니 꿈이었다.

“참 이상도 한 일이다. 영감이 내 잠자리를 떠나지 않는 걸 보니 필경 곡절이 있을 법한 일이야”그로부터 이틀이 지나고 다시 꿈을 꾸었다.

가시리 마을을 막 들어서는데 영감님이 길을 막아서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였다. 나는 영감의 명령대로 그 뒤를 쫓아 마을 서남쪽으로 가로질러 곧장 걸었다. 앞서가는 영감님과 서너 걸음 쯤의 거리인데 아무리 힘을 내어도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다.

넓다란 초지가 나왔고 그 동북쪽으로 외담을 두른 묘가 있었는데 묘 앞에 큰 돌이 하나 튀어나와 있었다. 묵묵히 앞서가던 영감이 “저 외 산담 한 묘와 돌을 잘 보아 두도록 하라”고 말하자 “예, 잘 보아 두겠습니다”하고 대답했다.

다시 한참 걷다가 오른편으로 동산 하나가 나왔다.

그 동산 건너편으로는 넓은 초원이 전개되었는데 멀리 소나무 한 그루가 버티고 있었다. 그 소나무 사이를 곧장 걸었는데 편편한 새왓이 나왔고 새왓 담벽을 붙여 오름 하나가 있어 영감을 따라 돌담을 뛰어 넘으니 앞서가던 영감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영감을 찾기 위해 사방을 살펴보았으나 허사였다.

나는 길 표적을 해두라는 영감님의 말대로 표적을 하려고 오름으로 올라갔다, 오름 동남편 양지바른 곳에 옛 무덤이 하나 있었는데 무덤 서남쪽에는 불에 타다 남은 멩게나무 한 뭉텅이가 있었고 무덤 주위에는 방묘(方墓)에 제절을 만들 때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잘 다듬어진 제절돌이 하나 있었다.

아하! 영감님이 분명 여기에 살고 있음이 틀림없지. 그래서 나보고 집을 고쳐달라고

했구나 하면서 눈을 뜨고 보니 꿈이었다. 꿈속이지만 표적을 해둔 방묘가 서제공 할아버지의 산소가 분명하다고 느껴졌다. 그 후부터는 꿈도 꾸지 않고 몸도 좋아졌으며 애들도 건강하게 자라는 등 모든 일이 마음먹은 대로 슬슬 풀려나갔다.

이러한 말이 나자 한씨 문중회에서 찾아왔다.

꿈에서 본 것을 참고로 선묘를 찾아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그래서 고씨가 꿈속에서 비친 방향을 따라 조금도 틀림없는 서제공의 묘소를 찾게 되었다.

지금도 고씨는 산소를 찾았을 때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한다.

한씨 문중회에서는 묘를 찾고 보니 옛 비석이 땅속에 묻혀 있었으며, 주위 담장을 새로 만들고 비를 새로 세웠으며 주위의 조경을 아름답게 꾸미는 등 후손들의 정성을 모아 관리하고 있다.

오대현 저 · 표선면 향토지

25. 설맹디 할망과 백사장

옛날에 지금의 표선해수욕장 자리는 깊은 바다였고 남초곶은 아름드리 나무들이 들어서 있는 큰 숲이었다. 이 원시림의 숲에는 특히 볼래(보리장) 나무가 많았으며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쉽지 않았다.

하루는 설맹디 할망이 해수욕장 자리의 바다를 메우려고 남초곶의 나무들을 모두 베어다가 바다에 집어 넣었는데 그날 표선리 마을 모든 집의 도끼와 소들이 다 동원되었다고 한다. 이튿날 일어나 보니까 바다는 모두 메워져 있었는데 집에 보관했던 도끼와 팽이의 날이 모두 무디어지고 길마를 지웠던 소들은 등이 터지고, 벗겨져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 백사장, 해수욕장이 조성된 9만여 평의 이 패사 모래판은 50여년 전까지도 멸치잡이를 하던 어장이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최근까지도 이 백사장에서 까맣게 탄 나무 등걸들을 찾아낸 적이 있었다고 전해 온다. 말하자면 이 설맹디할망과 백사장, 남초곶의 전설은 이 고장 창조의 설화인 셈이다.

26. 선산이왓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이다. 토산에 ‘선산이왓’이라는 너른 밭이 있었다. 당시 이 밭의 원소유주는 김종권의 부친이었다.

그 무렵 이 마을에는 성산, 구좌 근방에서 소금장수들이 많이 드나들었다.

어느 날 심돌에서 온 소금장수가 자신이 이 밭 주인이노라고 나섰다. 주장하는 바 이유는 자신의 아버지 이름이 선산이라는 것이었다. 김종권네 집에서는 장난인 줄 알고 상대를 해 주지 않으니 그는 관에 호소했다. 관에서는 심돌 소금장수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그에게 밭의 소유권을 인정해 줬다.

밭 소유주는 너무 억울했다. 그러나 어찌 관을 상대로 싸울 수가 있단 말인가.

어찌 해 볼 도리가 없어 억울한 그대로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데, 열여섯 살 난 서당 학동 김경희가 자신이 관에 소지(訴紙)를 바쳐 김씨네 억울함을 하소연하겠노라고 나섰다. 한번 관에 잘못보였다가는 신세가 망하는 세상이니 제발 남의 일에 나서지 말 것을 동네 사람들은 말렸다. 그래도 그는 신념을 버리지 않고 소지를 써 원님에게 올렸다.

“토산리에 있는 선산이왓이 저 먼 심돌 사람 선산의 소유라면 이웃 마을 가스름에 있는 전단이왓은 중국 제나라의 전단이라는 사람의 소유가 되어야 마땅하며 또 토산리 무당왓은 모든 무당들의 공소유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라고 썼던 것이다. 원님은 소장을 보고는 소지를 쓴 장본인을 불러들이라고 명했다. 사람들은 김경희가 관가에 불려가 경을 칠 줄만 알았다.

그와는 정반대로 원님은 김경희의 논리정연한 소지의 내용에 감복하여 그를 보고자 했던 것이다. 선산이왓은 결국 김종권네 집안으로 소유권이 되돌려지고 김경희는 원님이 아껴 그의 임기가 끝나고 서울로 돌아갈 때 데려가니 그의 문필은 나날이 일취월장하여 승정원 사서직에까지 올라가는 벼슬을 살았는데 이곳 출신으로서는 최고 관직을 보했던 터이다.

이 후부터 사람들은 욕심을 부려 자기 것이라고 터무니없이 주장할 때, ‘선산이왓은 다 심돌 선산이 거냐?’라고 나무란다고 한다.

27. 말 다루는 솜씨로 동생을 출옥케 한 송씨

하천리 송씨 집안에 부자로 사는 할아버지가 살았었다.

어느 해에 현감과 돌루내기 하였는데 이방인 송씨가 현감의 독지(어깨)를 치면서 승리점을 넘었다. 그에 노하여 정의현감으로 부터 불경죄(존경아니한 죄)를 쓰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그래서 형이 되는 이가 동생이 붙잡혀 간 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 옥에서 뺄어낼까’하고 궁리를 하였다. 여러 날을 궁리해 보았으나 별 뾰족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하루는 ‘공문동산’(성읍리 소재 천연기념물 느티나무가 있는 동산)에 앉아 돌세기(돌맹이)만 만지작거리며 생각을 하고 있었다.

마침 원님이 타고 다니는 말이 하도 사나워서 탈 수가 없었으므로 하인은 ‘이 말을 순하게 가르칠 사람이 없을까’하고 걱정을 하며 공문동산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하인이 지나치다 말고 살펴보니 웬 사람이 쭈그리고 앉아 돌맹이만 만지고 있었던 것이다.

하인이 “이 말을 순하게 가르칠 수 없느냐.” 하자,

“나는 동생이 잘못도 없이 잡혀와서 옥에 감금되어 있는 처지인데 말(말)을 가르치면 뭘 하느냐”고 대답했다. 하인이 다시

“그러지 말고 이 말을 잘 가르쳐주면 당신이 원하는 동생을 출감케 해주겠노라”하자,

“정말이나?” 하고 다짐받고 다시 물었다.

“이 말이 사납지?”

“꽤 사납다.”

“그러면 내 말을 들어라. 저 나무 높은 데로 올라가서 말 녹대를 나무에 매어라. 그리고 너는 내려오라.”

하인이 시키는 대로 다하고 나자 송씨가 말 위에 올라타서 말했다.

“내가 이 말 위에 올라탔으니 너는 나무에 올라가서 녹대를 풀어라.”

하인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녹대를 풀자 말이 나는 듯이 영주산쪽으로 달려갔다. 정의고를 사람들이 그 말이 달리는 것을 보고 있는 사이 말은 벌써 영주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송씨는 다시 말을 이끌고 천천히 내려와서 마을에 도착하였다. 송씨는 녹대를 나무에 매고

“이만하면 되었지”

하면서 말을 하인에게 인계하니 하인은 말을 끌고 원님에게 돌아가서는 자초지종을 고하니 원님도 송씨의 동생을 풀어주도록 허락하였다.

감옥에 갇혀있던 동생은 형의 덕분에 풀려나서 함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 당시 형이 송 감찰이었다고 전해진다.

28. 도채비 잡은 보말 하르방

보말 하르방은 과거 표선리 던드리못 지경에 살았던 김원종씨 부친의 별명이었다. 이 하르방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는데 키는 작았지만 원성이 탄탄하고 영글었다.

이 할아버지가 젊은 때 장가들어 아이들을 낳으며 사는데 옛날에는 빈 밭에 마소를 에워 똥과 오줌을 싸게 해서 지력을 돋구는 일을 했는데 이것을 소위 "바령시꾼다" 혹은 "바령들인다"고 했다.

이 일은 주로 밤에 하게 되는데 어느 날은 보말 하르방이 연디뱅뒤에서 이일을 돌보고 있었다. 이 때는 비가 오려면 도채비도 나오고 '그스새'도 나왔다. 그스새는 하늘이 가득 하게 앞을 막아서는 허깨비인데 이것이 나타났을 때 아래로 뺨 사람은 살아나고 위로 빠져나간 사람은 죽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날은 날이 채 어둡지도 않은 때부터 도채비가 나와서 소들은 안 놀래는데 말들은 놀래서 와당탕 와당탕 사람쪽으로만 다가서는 것이었다.

‘오라, 요놈의 도채비, 내가 널 잡아주마.’

답이 센 보말 하르방은 도채비가 가까이 오면 하나씩 잡아서 가지고 다니던 동고령차에 담아 뚜껑을 딱 닫아 두었다. 집에 와서, 벽장 위에 놔 뒀다가 밝은 날에 꺼내 보니까 말똥 부스러기와 사기막주기(사기사발 조각)가 들어있었다고 한다.

보말 하르방의 무덤은 지금도 하천오름 서넉밭에 묻혀있다.

표선리 박창국(朴昌國, 남) 제보

29. 괴야동산

표선면 가시리(加時里) 마을에서 서쪽으로 200m 쯤 가면 ‘괴야’라고 불리는 굴이 하나 있다. 지금은 굴이 막혀서 그 깊이를 알 수 없지만, 무척이나 긴 굴일 것으로 보인다. 그 굴은 이 마을 오군위(吳軍威)씨 선조들이 막아 버렸는데, 거기에는 그럴 만한 사연이 전해지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여 년 전 오씨 가문에 장사(葬事)가 났다. 지리에 능한 풍수를 청해다가 뭇자리를 잡았다 그곳이 괴야동산 앞자리다. 장례를 치르는데 뒷편에 있는 괴야(동굴)를 가리키며 풍수가 상주를 불러놓고 물었다.

“저 괴야 입구를 어떻게 보십니까?”

괴야 입구는 사람이 능히 출입할 수 있을 정도였다.

“보기에 흉하다 생각되면 입구를 막아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두는 게 좋겠다”고 하였다.

상주는 풍수의 말을 듣고 유심히 동굴 입구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상주의 심중에는 무슨 괴물이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상주는 풍수에게 “보기가 흉하니 막아 버리는 게 좋겠다”고 하였다. 풍수는 그러면 상주의 마음대로 입구를 막으라고 일렀다.

역사(役事)꾼들은 상주의 뜻대로 괴야의 입구를 막았다.

그런데 풍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음. 이 뭇자리에서 저 괴야는 창고이며 보고인데, 그러므로 큰 부자가 나서 수 대에 이어갈 것인데 아깝도다.”

이 말을 들은 상주는 풍수에게 “아니, 진작 그렇다고 알려주지 않고 입구를 막은 다음에 그런 말을 하면 괜히 헛수고를 한 것이 아니냐”면서 지관에게 다시 굴을 파면 어떻겠느냐고 물으면서 다시 허물려고 하였다.

그러나 지관은 풍수는 이미 끝난 일이며 상주가 죽을 액을 당할 것이므로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이제 다시 입구를 허물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며 이것은 천운(天運)이니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자손은 많겠으며 대대로 먹고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이 마을 오씨 집안에는 만석군 같은 부자는 없지만, 자손은 많이 벌어지게 되었다 한다.

30. 강 엉덩눈 이야기

옛날 하천리에 ‘엉덩눈’이라는 장군(일명 강장군)이 있었다.

어느 해에 열운이(오늘날 성산을 온평리) 고장의 영감이 돌아가셔서 수산오름(수산봉)에 묘를 쓰기로 했다. 이 소식을 들은 수산리 김씨들이 모여 앉아 “우리가 앉고 남은 데를 산(묘)으로 쓰시오.” 했다.

이렇게 하여 산을 못쓰게 되니 상주되는 이가 하천리에 와서 엉덩눈이를 찾아 그 사실을 말하며 산을 쓸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을 하자, 엉덩눈이가

“너희들이 산을 쓰도록 해 줄 테니 걱정말고 가라” 하고 약속을 했다.

엉덩눈이는 하천리 장정 30여 명을 모아 수산 김씨의 산좌전에 도착했다. 엉덩눈이가 사방을 한번 둘러보고는 말하기를

“상주들은 이 앞에 꿇어라. 내가 산을 쓰도록 하겠으니 책임을 질 수가 있느냐?” 그러자 상주들은

“산만 쓰게 해주시면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하니 엉덩눈이는

“한 발짜리 몽둥이를 백 개만 가져오라”했다.

상주들이 급이 몽둥이를 만들어 가져오자 엉덩눈이가 김씨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좌전이라고 다 앉아 버렸으니 산 쓸 곳이 없다. 하지만 너희들이 없는 데 산을 쓰겠다.” 라고 말하고는, 데리고 간 장정 한사람을 산 밑으로 내려가 있도록 하고 엉덩눈이는 산 위에서 몽둥이 하나에 한 사람씩 묶어서 발로 차서 아래로 굴렸다. 그러면 밑에 있던 장정 하나가 몽둥이를 산으로 올리고 엉덩눈이는 몽둥이에 사람을 묶어서 아래로 굴렸다. 그러면서 빈 자리가 생기는 곳에다 산을 쓰도록 했다.

얼마 후에 산은 다 만들어 지고 앉아 있던 김씨들은 다 언덕 아래로 굴러와 버렸다. 그러나 김씨들은 엉덩눈이의 위세와 30여 명의 장정들이 있는 앞이라 큰 소리 한 번 못치

고 당하는 형편이 되었다.

엉덩눈이가 상주들과 같이 온평리에 도착하여 보니 상주의 사돈 된다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 서로가 음식들을 먹고 있었다. 상주들이 발로 상을 차면서 다 가도록 하고는 엉덩눈이 일행을 방으로 안내하여 모든 음식을 장만하여 대접했다. 뒷날 소를 잡아서 말에 실어주니 하천미(‘하천리’의 옛이름)에 돌아와서 마을 잔치를 벌였다 한다. 강 엉덩눈 본명은 강영권인데 ‘엉덩눈’이라 함은 눈이 커서 또는 눈이 언덕같이 들어가서 얻어진 별명이라고 한다.

31. 강씨 하르방의 환상곡

하천리 상도에 강씨 할아버지가 한 분 살았었다. 동네 안에서도 영리하다고 소문이 난 할아버지였다.

양식이 귀한 때라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나라에서 꾸어주는 환상곡을 빌어다가 먹고는 풍년이 드는 해에 이를 갚아왔다. 어느 해에 풍년이 들어 환상곡을 바치게 되었다. 하천리에는 그 할아버지가 영리하므로 환상 바치는 대표로 뽑아 출장을 보내게 되었다. 당시만 해도 고을 관리들이 환상곡을 꾸어 주고 받는 과정에서 농간을 많이 부렸었다. 환상곡을 가지고 가서 하나씩 계산하며 갚는데 강씨 할아버지가 가만히 살펴 보니 관리들이 숫대(계산하는 판)를 놓아가다가 한 개씩을 일부러 적게 하는 것이었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말은 하지 못하고 한 개를 줄일 때마다 ‘음~’하고 소리를 내었다. 관리가,

“원님 앞에서 무슨 소리냐?”하니

‘흔 섬(한 섬)을 짊어졌으니 무거워서 나오는 한숨입니다.’

그래도 관리는 숫대를 놓을 때마다 한 개씩을 줄였다. 그때마다 ‘음~’하고 소리를 내었다. 그러면서 관리들은 농간을 부렸다.

하천리에서 전량을 가져갔었는데도 석 섬이 미납이 되게 되었다. 강씨 할아버지의 영리함으로도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이다. 강씨 할아버지 일행은 하천리에 돌아와서 다시 곡식을 모아서 갚았다 한다.



제7장 구 서귀읍 편



탐라순력도의 천연사후

제7장 구 서귀읍 편

1. 천지연(天地淵)

서귀포 서쪽 홍로천이 흘러와서 바로 서귀포항 바다를 접한, 얼마 올라가지 아니한 절벽으로 바로 떨어지는 천지연은 울창한 숲속에 싸여 있고 그 아름다운 물소리와 물 떨어지는 모습으로 일대 장관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더구나 그 폭포 바로 아래에는 넓은 못이 있어 더욱 아름다움을 더해주는데 이곳에는 큰 용이 살다가 하늘로 승천했다는 등 많은 이야기가 전한다.

옛날 조선 중엽 쯤 일이다. 이곳 서귀포는 당시에는 서귀진(西歸鎭)이었다. 이 마을에 얼굴이 어여쁘고 마음이 고우며 행실이 얹전하다고 소문이 난 한 여자가 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순천이라 했는데 동네 여러 총각들이 그녀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 그러한 총각 중에 명문이기도 그 중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마음씨 곱고 얼굴이 예쁜 순천이는 나이 열아홉 살이 되자 부모님이 정해준 대로 이웃 마을 법환리 강씨 덕으로 시집을 가 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되자 서귀진 모든 총각들이 서운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더구나 명문이는 하늘이 내려 앉은 듯하고 땅이 꺼져가는 듯하여 그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아팠다. 그로부터 그의 생활은 형편없이 흐트러지기 시작하였다. 술과 노름과 싸움..., 그런 일로 답답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다. 그러기에 이제는 사람들도 명문을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꺼리었다. 차차 명문은 사람들로부터 멀어져갔다. 그럴수록 그의 생활은 점점 더 흐트러져 갔다.

한편 시집을 간 순천은 정말 요조숙녀로서 여자의 도리를 다하는 가운데 화락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동리 사람들의 칭송을 한몸에 받고 있었다. 시부모에 대한 효도와 시집 일가에 대한 예의범절이며, 남편에 대한 공경은 온 마을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 집안 일을 정성껏 처리하고 일가와 시댁 식구들간의 화목을 도모하고 동네 사람들과 화락하게 지내어 일가 친척들은 물론 온 동리에서 소문난 며느리로 정말 시부모와 시동기 간에

칭찬이 자자하였고 남편의 사랑을 온몸에 받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와는 정반대로 그 청년 명문은 밤낮 술과 도박으로 나날을 보내는 가운데 이제는 부모들에 대하여서도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였다. 큰 재산은 없으나 부지런히 일하는 덕분에 살아가는 처지인데도 부모에게 노름 밑천을 대어 달라고 양탈을 부릴 정도로 막돼먹은 존재가 되었다.

어느 가을이었다. 순천은 햇곡식으로 빛은 술과 떡을 마련하고 오랫동안 친정나들이를 떠났다. 오랫동안 와 보는 친정이었다. 지척지간에 있으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드나들지 못했던 친정이었다. 그녀는 흐뭇한 마음으로 친정집으로 갔다. 그런데 그녀가 친정집에 가는 걸 명문이라는 그 건달이 멀리서 봤던 것이다. 명문이는 서귀진에서 법환으로 이르는 천지연 입구에서 그녀가 돌아가는 것을 기다렸다. 날이 어슬어슬할 즈음에 순천이는 친정집을 나섰다. 눈앞에 보이는 법환이니까, 얼른 갈 수 있으려니 생각했던 게 그만 해가 가는 줄도 모르고 늑장을 부린 것이 되어 버렸다. 순천이는 조마조마하면서 걸음을 빨리하였다. 아무 생각도 없이 발끝만 바라보며 걸음을 빨리 옮겼다. 그래서 그녀가 천지연 폭포 바로 위에 이르렀을 때였다. 명문이가 불쑥 나타났다. 얼굴은 별절게 술기에 멍들어 있었고 눈은 휘멀거니 디룩디룩 굴리고 서 있었다. 처음에는 그가 누구인지 몰라 순천은 아무 생각도 하질 못했다.

“순천 씨, 나를 모르겠어요?”

순천은 깜짝 놀라며 상대방을 보았다. 이렇게 외진 곳에서 험상궂은 남자를 만난다는 일에 소름이 오싹 일었다. 순천은 대답을 못하고 바들바들 떨기만 하였다.

“나요. 나 명문이요.”

순천은 정신을 차리고 앞에 버티어 선 사람을 물끄러 바라보았다. 안면이 있는 사람 같기도 하였다.

“누구신데요?”

“나를 모른단 말ियो? 나는 순천씨를 얼마나 생각하였는데, 지금같이 내가 이렇게 건달이 된 것도 다 순천씨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이란 걸 모른단 말ियो?”

그 순간 순천의 마음이 뛰기 시작하였다. 상대방을 보니 전에 같은 동리에 살았던 총각이란 정도는 알고 있다. 그러나 서로가 이렇다 할 이야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

런데 이제 사랑이니 뭐니 하는 말이 도무지 놀랍기만 한 일이었다. 순천이 몸이 더 떨리기 시작하였다.

“난 당신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यो. 난 당신 없이는 죽어 버릴 작정이요.”

이렇게 소리치며 그 청년은 여자의 손을 와락 잡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애 걸하다시피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점점 손을 더 힘주어 쥐더니 눈에 이상한 빛이 이글거리기 시작하였다. 순천이는 그냥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오들오들 떨기만 하고 있었다.

“순천이, 나와 같이 살아, 난 순천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이제 남의 아내가 된 몸ियो. 이게 무슨 행패예요?”

순천은 사정하는 얼굴로 가느다랗게 겨우 말을 하였다.

“나는 이제 당신을 놓아줄 수 없어. 순천은 내 것이야.”

남자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변하면서 그의 입가에는 비웃는 듯한 웃음이 번졌다. 순천은 사태의 급박함을 느끼고는,

“이 손을 놔요. 그렇지 않으면 소리치겠어요.” 눈을 부라리고는 남자를 향해 반항하며 말했다.

“이거 왜 이래? 여긴 지금 아무도 없어. 그리고 누구라도 나타나 내 일을 방해한다면 난 말야, 너를 끌고 저 폭포로 뛰어내려 같이 죽을 거야.”

남자는 더욱 세게 여자를 붙들고 몇 번 흔들더니, 와락 순천을 껴안는 것이었다.

“악, 사람 살려요!”

여자가 있는 힘을 다하여 비명을 질렀다. 그때였다. '우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바로 아래 천지연 물에서 무엇이 솟구쳐 올라오더니 순식간에 여자를 붙들고 있는 명문이를 후다닥 나뒹개고는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이었다. 여자는 너무 순식간에 있었던 일이었기에 그만 깜빡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깨어났다. 하늘이 환하게 밝아 있는데 한 마리 교룡이 올라가고 있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순간 이렇게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자그만 목소리로 외치면서도 그녀의 귓바퀴에는 자기에게 사랑을 호소하던 그 젊은이의 목소리가 자꾸만 들려왔다. 그리고 다음 순간이

었다 하늘을 향했던 하늘로 올라간 교룡이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던 그녀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눈을 자기 주위로 돌렸을 때였다. 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반짝이는 구슬이 그의 발밑에 구르고 있었다.

“이거, 여의주 아닌가?”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구슬을 손에 넣었을 때 그것은 바로 임자를 만난 듯이 그녀의 손바닥 안에서 가만히 반짝이고 있었다.

“하느님, 제게 이것을……?”

그녀는 그 여의주를 가지고 밤길을 걸어 시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그 저녁에 있었던 일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여의주를 몰래 간직하고 있는 그녀는 모든 일이 잘 되지만 하였다. 집안이 차차 넉넉해 갔다. 아들딸을 많이 두었다. 아들들은 모두 똑똑하였다. 모든 일이 형통하자 그 집안에 서나 일가에서는 이 모든 일이 며느리 덕이라고 칭송이 자자하였다.

제주시 삼도동, 진원일(남) 제보

2. 썩섬과 뱀

서귀포 앞에 썩섬이 있다. 이 섬은 정방폭포 동쪽 보목리 앞에 있는데 여러 열대성 식물이 많이 자생하여 있는 섬으로 유명하다. 또한 이 섬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하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아주 오랜 옛날 이 썩섬에는 큰 뱀이 살고 있었다. 그 뱀은 용이 되려다 못된 뱀이었다. 그래서 그 뱀은 항상 언제고 자신은 용이 될 수 있다는 바람을 갖고 살고 있었다.

뱀은 매달 정월 초하룻날과 여드렛날이면 용이 되기 위하여 용왕에게 기도를 드리곤 하였다. 달마다 그러기를 삼년, 끈질기게도 뱀은 기도드리는 것을 계속하였다. 그러기를 삼년 동안 계속하는데, 어느 날 바로 용왕이 그 기도에 감응하여 응답을 하였다. 그래서 용왕이 모습을 나타내어서는 뱀에게 말하였다.

“네 정성이 하도 기특하여 내가 이제 너를 용이 되도록 해주겠다.”

“감사합니다!”

뱀은 기뻐 어쩔 줄을 몰랐다. 자기의 기도가 이제야 효험을 본다고 생각하였다

“저기, 쉼섬과 지귀섬 사이에 구슬을 숨기어 두겠다. 그러니 네가 그것을 찾아내면 바로 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용왕은 뱀에게 용이 되는 비결을 은밀하게 알려주었다. 그날부터 뱀은 용왕의 말대로 숨겨둔 구슬을 찾으려고 두 섬 사이를 뒤흔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것은 실로 뱀으로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바다 밑을 살살이 뒤졌으나 구슬은 얼른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았다. 그러기를 백 년 동안이나 뱀은 용왕이 숨겨두었다는 그 구슬을 찾기 위하여 애를 썼다. 그러나 구슬을 찾지도 못한 채 뱀은 죽고 말았다. 원통한 일이었다. 그 후부터 비가 내리려고 하면 쉼섬에는 늘 짙은 안개가 끼곤 하였다. 그것은 바로 죽은 뱀의 혼이 안개가 되어 그 쉼섬 꼭대기에 서리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였다. 용이 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그 한스러움이 지금도 비가 내리려면 그 섬 위에 서리는 것이다.

서귀포시 대륜동, 현병생(남) 제보

3. 정방폭포와 서불과차(徐市過此)

아주 오랜 옛날이었다. 중국 진시황은 세상을 모두 자기 손아귀에 넣고 권세를 부리며 술과 여자와 노래 속에 살면서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려고 하였으나 차차 자기 육신이 늙어감에는 어쩔 수가 없었다. 막강한 군사를 키워 놓고 만리장성을 쌓아 외국의 침노를 막을 수는 있었으나 생명을 연장하는 일은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왕으로서의 체면에도 불구하고 괴로워하기 시작하였다.

왕은 모든 신하들을 모아놓고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방법이 없는가 하고 물

었다. 누구도 그 해답을 말하는 자가 없었다. 사람이 영원토록 죽지 않을 방법이 없는 것은 물론이지마는, 설마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방을 진시황에게 알려드릴 누구도 없었다. 오히려 왕이 어서 죽기를 모두 기다리는 판국인데 누가 그 비밀을 왕께 아릴 것인가.

그런데 피많은 서불이라는 신하가 있었다. 그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이 폭군인 진시황의 휘하에서 떠나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이 기회를 이용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소인이 듣건대, 저 동쪽 나라 작은 섬 영주라는 곳의 영산 한라산에 사람이 먹으면 영원토록 살 수 있다는 불로초(不老草)가 있다고 하옵니다. 소인이 성심을 다하여 그 약초를 캐어오고자 하나이다.”

왕은 귀가 번쩍 뜨였다.

“오, 과연 네가 가장 나를 섬기는 충성스러운 신하로구나. 만약 네가 그 불로초를 캐어 온다면, 내가 이 나라의 땅 절반을 너에게 주겠다.”

왕은 정말 서불이 자기를 위해 불로초를 캐 오려는 줄 믿고 기뻐하였다.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그것을 캐어오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오니 황송하옵나만, 동남동녀 오 백을 차출하여 주시면 합니다.”

“동남동녀 오 백이라, 그 많은 사람들은 무엇에 쓰려는고?”

“예, 한라산이라는 그 산은 험하기가 이를 데 없음은 물론 그 험한 산속 깊이깊이 숨어 사는 그 불로초라는게 아무 눈에라도 띄는 게 아닙니다. 마음과 몸이 정결하고 흠이 없는 동남동녀들의 눈에만 띈다 하오니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가 합니다.”

서불의 이야기는 모두 거짓말이었다. 그에게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다. 그러나 이 지경을 당하여 왕이 서불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왕은 서불이 원하는 대로 동남동녀 오 백에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먹고 쓸 모든 물건을 준비하고 곤륜산에서 좋은 재목을 베어다가 큰 배를 여러 척 만들고 하여 서불 일행을 내 보내었다.

이렇게 진시황의 휘하를 떠난 서불 일행은 제주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한라산에 올라 불로초를 캐기는커녕 산구경만 하였다. 한라산뿐만 아니라 제주의 여러 절경을 구경하면서 섬을 한 바퀴 돌다가 지금 정방폭포에 이르러 구경을 하고 다시 동쪽으로 떠나면서 정방폭포 바위 위에 그들이 이곳을 지나갔다는 글귀를 새겨두었다. 서불과차(徐市過

此)란 글귀이다. 지금도 폭포 상단 바위에는 그런 글 흔적이 있다고 한다. 그들 일행은 동쪽으로 가서 어느 땅에 정착하여 그들 대로 작은 나라를 이루었을 거라고 여겨진다. 애초부터 불로초를 캐겠다는 것은 공연한 구실이었다.

서귀포시 대륜동, 현병생(남) 제보

4. 고종달의 단혈

고종달은 중국에서 온 풍수사였다. 그는 제주가 장차 왕이 날 땅이라, 그냥 놔 두면 중국이 위협받을 것을 두려워한 중국왕이 파견한 신하였다. 그는 제주도에 입도한 즉시 그가 갖고 온 지리서(地理書)에 의하여 동쪽으로부터 땅의 맥을 끊어오고 있었다.

그가 지금 서귀포시 홍리 지경에 이르러 끊을 지맥을 찾고 있었다. 지리서에 의하면 ‘꼬부랑 나무 아래 행기물’이라는 데를 찾아야 했다. 그는 그런 곳을 찾으려 그 주위를 수없이 돌아다녔다.

그때 그 가까운 곳에서 어떤 농부가 밭을 갈고 있었다. 그때 백발노인이 헐레벌떡 달려와서는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였다. 농부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쳐다보고만 있는데,

“저 물을 한 그릇만 떠다가 저기 있는 소 길마 밑에 놔 주십시오” 하고 그 백발노인은 다시 사정하였다.

농부는 무슨 사연인지는 몰랐으나 노인의 다급한 사정을 봐서 그렇게 해주었다. 얼마 있더니 그 지리서대로 지맥을 찾던 고종달이 밭을 가는 그 농부에게 다가와서는, ‘꼬부랑나무 아래 행기물’을 물었다. 농부는 그런 곳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곳이라,

“나는 이곳에 한 삼십 년 살았으나 그런 이름 가진 땅은 처음 듣는 바요” 하였다. 사실 농부도 그런 곳을 알 리가 없었다.

“틀림없이 이 부근인데…….”

고종달은 고개를 가웃거리며 그 주변을 몇 번 돌다가 돌아가 버렸다. 그때 아까 떠다

놓아둔 물그릇 속에서 그 백발노인이 나와서 고맙다고 몇 번이고 머리를 조아리곤 어디론지 사라져 버렸다. 그 노인은 바로 수신(水神)이었다. 그리고 ‘꼬부랑나무 아래 행기물’이, 지리서의 땅이 바로 소 길마 밑에 놓여진 물그릇이었던 것이다. 수신은 그렇게 발가는 농부의 도움으로 살아나게 되었고 그래서 고종달은 홍리 지경의 지맥을 끊지 못하였다. 그래서 홍리 지경에는 샘물이 계속 잘 나게 되었다.

이 지역에서 단혈에 실패한 고종달은 다시 서쪽으로 가면서 지맥을 끊어나갔다. 그래서 그가 안덕면 사계리 지경 산방산 부근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리서에 왕후지지(王侯之地)로 되어 있다. 즉 왕이 날 지맥이라는 것이다. 중국 왕은, 제주는 왕이나 장군이 날 지세라는 것을 알고 늘 근심하던 차에 고종달을 보내었던 것이다.

고종달은 지리서를 살피면서 왕후지혈을 찾았다. 그것은 바로 용머리였다. 용의 머리처럼 생긴 지형이었다. 만약 이 땅이 살아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 틀림없다고 믿었다. 고종달은 용의 잔등을 끊었다. 바로 그 끊는 데서 시뻘건 피가 솟아났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 힘을 내어 잔등을 토막토막 끊어나갔다. 용머리는 마치 산 사람의 잔등같이 땅이 꿈틀거리면서 신음 소리를 내다가 그쳤다. 그 잔등에서 흘러나온 피가 그 주변을 물들였고 결국 제주에는 왕도 용감한 장수도 나지 못하여 다른 지역의 지배만 받으며 어렵게 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지금도 그 곳 용머리라 불리는 곳에는 꼬리와 잔등이 찢려진 것 같은 모양의 지형이 있다. 그렇게 제주도의 인물 날 맥을 끊고 나가던 고종달은 한경면 지경 차귀섬으로 배를 타고 나가려 하다가 한라산 산신의 노여움을 받아 태풍을 만나 죽게 되었다.

안덕면 감산리, 김하규(남) 제보

5. 열녀 바위

지금, 서귀포시 호근리 북쪽 한라산 쪽으로 바라보면 한라산 한 줄기마냥 큰 바위가 눈에 띈다. 그 바위를 열녀바위라 하는데, 거기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 온다.

옛날 이 부근 마을에 귀한 집안 젊은 며느리가 몸에 태기가 없어 고민을 하였다. 양반 집안이요, 삼대 독자인 형편이라 후사를 잇기 위하여 아기를 낳아야 되는 일은 급하고 중요한 일이었다. 그런데 가정을 가진 지 여러 해가 되어도 아기를 얻지 못하니 걱정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집안 어른들과 의논을 하여 절에 가서 백일 기도를 드리기로 하였다. 그래서 찾아든 곳이 바로 지금 그 바위가 있는 호근리 북쪽 한라산 중턱에 있는 절이었다. 며느리는 목욕재계하고 정성을 다하여 밤낮으로 불공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시일이 지나는 사이에 며느리는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어 마음 든든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열심히 불공기도를 드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그 며느리는 그 절 중에게 몸을 빼앗기게 되었다. 깊은 밤, 외따로 떨어진 절에서 급기야 당한 일이라 어쩔 수 없이 당하기는 당하였으나 생각할수록 분통하고 어이없는 일이었다. 더구나 귀한 가문의 대를 이으려 이 산중에까지 와서 이 불공기도를 드리는 처지로서 생각할수록 난감한 일이었다. 그렇게 고민을 하는 중에 어느덧 여자의 몸에서는 태기를 느끼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한편 반가운 일이긴 하였으나, 그 아기가 바로 그 중의 아기인 것을 생각하면 죽고 싶을 뿐이었다. 하루 하루 날이 갈수록 괴로움은 더하기만 하였다. 기약한 백일은 거의 가까워지고 있었다.

백일이 다 되어 집으로 돌아가야 할 그날 밤에 여자는 시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절 뒤에 있는 그 바위에 올라가 하늘을 향하여 울부짖으며 자기의 잘못과 운명의 가혹함을 통탄히 여기며 밤새껏 울다가 자진하여 죽어 버렸다. 그렇게 그 여자가 죽자 얼마 없어서 그 자리에 이상한 바위가 섰다. 그걸 후세 사람들은 바로 그 여인의 원통한 넋이 바위로 화하였다고 일러오게 되었다.

서귀포시 법환동, 현병생(남) 제보

6. 막숙의 지명 유래

막숙이라는 곳은 서귀포시 대륜동 법환리 바닷가의 한 지경을 이르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눈 앞에 범섬이 보이는데, 바로 이곳은 옛날 군사들이 야영지로 이용했던 곳이라서 막숙(幕宿)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다.

옛날 삼별초가 북제주 애월 고성에서 토성을 쌓고 여·몽 연합군에 대항하여 항쟁을 계속하다가, 결국 패배하여 거의 그곳에서 전멸하고 그 잔류병이 이곳 범섬까지 와서 마지막 항쟁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에 여·몽 연합군은 이들을 토벌하기 위하여 이 법환리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배로 군사가 나가 싸우면서 항상 바람이 거세게 불고 바다가 심하게 노하여 자꾸 실패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래도록 범섬에 잔류해 있는 삼별초 잔병들을 토벌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법환리 해안가에 군막(軍幕)을 치고 장기전으로 군사가 주둔하게 되어서 막숙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옛날부터 이곳에는 왜구들이 자주 침공하였다. 왜놈들은 해적행위를 하려고 제주도에 자주 쳐들어 왔는데 그들은 들어오며는 제주 여러 지역에 도둑질을 하려고 이곳에 아예 주둔을 하듯이 막(幕)을 치고 있었다고 해서 막숙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이 막숙의 위에 있는, 산길 가까운 곳에 ‘웨는 동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바로 왜구들이 쳐들어 왔을 때에 그 사실을 여러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큰소리로 외치는 곳이었다 한다. 그래서 웨는 동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서귀포시 법환동, 현병생(남) 제보

7. 여 우 물

서귀포에서 법환에 이르는 사이에 여우물이란 곳이 있다. 이 물가에는 늘 여우가 나타나다 하여 여우물이라고 사람들이 불러왔다.

옛날에 어떤 관리가 이 물가를 지나게 되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는데 혼자 몸이라서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어정쩡한데 이곳에 이르렀을 때에 반갑게도 혼자 가는 어떤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혼자라 쓸쓸하고 무섭기조차 한 때인데 잘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아주버님, 어디까지 가십니까? 같이 벼을 하여 가십시다.”

여자가 먼저 말을 걸어오면서 함께 벼을 하여 가자는 데는 더욱 반갑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그 여자가 꽤나 어여쁘는데 더욱 마음이 흡족하였다.

“예, 어쩐 일로 이런 밤중에 혼자 밤길을 가십니까. 저도 마침 혼자길이라 심심하던 차에 잘 되었습니다.”

남자인 선비는 오히려 잘 되었다는 듯이 여자의 청을 그대로 받아들이었다. 그래서 여자를 , 타고 가는 말에 태우려 하였다.

“불편하지만 이 앞에 타시지요.”

여자를 앞에 타도록 권하였다.

“아이고, 여자 몸에 어떻게 남자 앞에 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뒤에 타겠습니다.”

그래도 앞에 타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면서 앞에 탈 것을 권하였으나 여자는 끝끝내 뒤에만 타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몇 번이나 실랑이가 오가는 가운데 관리는 그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님을 느꼈다. 이는 필시 여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곳에서 종종 여우가 나타난다는 옛말이 생각났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여자 말대로 그녀를 뒤에 태웠다. 그리고는 말을 마구 달렸다.

“아이쿠 떨어지겠습니다. 그렇게 달리지 말아 주십시오.”

얼마쯤 가니 여자가 천천히 달려달라면서 애원을 하였다.

“나는 길이 바쁜 사람ियो. 천천히 달릴 수는 없는데, 아, 좋은 수가 있소.”

관원은 도포 고름을 풀어 그 여자와 자기 몸을 푹푹 하나로 묶고는 다시 말에 채찍을 놓아 달렸다. 여자는 마을이 가까울수록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관리를 혼내주려던 애초의 생각에서 혹시 이 관리에게 당하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일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마을에 들어서자 내려달라고 졸랐다.

“나으리, 고맙습니다. 제 갈 길에 다 이르렀으니 이제는 절 놓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관리는 못들은 척 더욱 빨리 말을 달리는 것이 아닌가.

“나리, 여기서 내려주십시오. 내릴 곳을 지나 왔습니다.”

아무리 사정을 해도 내려줄 생각은커녕 더 빨리 말을 달리는 것이었다. 여우인 여자는 관리의 등에서 몸질을 치기 시작하였다. 이대로 있다가는 어떤 변을 당할지도 모를 일이라는 겁이 일었다.

관리는 재빨리 말을 달려 그의 집으로 들어섰다. 그의 집에는 큰 개가 두 마리 있었다. 그 개는 주인이 집안으로 들어설 때면 언제든지 나와서 주인을 맞이하곤 하였다. 이 날도 주인의 말방울 소리를 듣자 마당으로 나와서 주인을 맞았다. 그때 관리는 등에 단단히 동여매었던 끈을 풀었다. 여자가 마당에 휙 나둥그라졌다. 그 순간이었다. 개가 그 여자 앞으로 쏜살같이 내닫고는 여자를 물어 흔들었다. 그 순간 여자는 별안간 한 마리 여우로 변하고는 피를 흘리며 마당 가운데 나둥그라졌다. 관리는 그의 지혜로 그 여우를 처치한 것이다. 그 후로는 여우물에 여우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서귀포시 법환동, 현병생(남) 제보

8. 현 유학(玄幼學)

조선조 말 효돈(西歸浦市 孝敦洞)에 현 유학(玄幼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를 두고 현 훈장이라고도 했는데, 기지가 남달리 뛰어났다. 현 훈장은 어릴 때부터 머리가 아주 비상했다. 그의 나이 일곱 살 때였다. 한번은 어떤 노인이 물었다.

“야, 너 몇 살이야?”

“곱!”

어린 현 훈장은 아주 짝박하게 대답해 버리니, 노인의 기분이 썩 좋을 리가 없었다.

“야, 이놈아! '곱' 이 뭐야?”

어린 현 훈장은 더 이상 대답이 없었다. 노인은 가만히 혼자서 숫자를 세어 보기 시작했다. 열까지 세었는데, '곱'자가 툭 걸리는 것은 일곱밖에 없었다.

“야, 이놈아! 어른에게 버릇없이 '일곱'이라고 대답하지, '일'자 하나를 아껴 뒀다가 뒷에 쓰려고 '곱'이라고만 대답하느냐?”

“혀 한 번 꼬부리는 데는 힘이 안 듭니까?”

현 훈장은 이럴 정도로 어려서부터 순간적인 재치와 기지가 비상했다.

그 시대에 훈장 노릇을 하는 양반들은 아집이 대단하여 함부로 천한 사람들과는 가까이 지내기를 꺼려했다. 그러나, 현 훈장은 정의(旌義) 고을에서도 술장사나 하며 살아가는 퇴기(退妓)와 '누님', '동생'하며 부를 정도로 친한게 지냈다.

집에 있는 양반들은 물론, 높은 자리에 있는 고을 사람들이 현 훈장에게 혀를 찼다.

“아이구, 저 훈장이나 된 어른이 저 퇴기(退妓)에게 가서 '누님, 누님' 부르면서……”

어느 해 정초 때였다. 현 훈장은 퇴기 누님에게 가서 넉죽이 세배를 올렸다. 그 늙은 기생은 훈장에게 세배를 받았으니 기분이 우쭐하여 상다리가 부러지게 잘 차려 술을 대접했다. 술이 만취되어 밖으로 나올 때였다. 어느 훈장이 그 광경을 봤다.

“아니, 훈장이나 된 양반이 퇴기에게 세배까지 올렸소?”

“내가 여편네에게 세배하다니요? 술 항아리에게 절했지.”

어이가 없어서 웃고 말았다.

옛날 정의 고을에 '보성(保城) 김 생원'이라고 하는 외방인이 와서 살고 있었다.

그는 양반 행세가 너무 지나칠 뿐 아니라, 고을 사람들을 못살게 굴어서 같은 양반들로부터도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외조카가 바로 이 고을의 군수이기 때문에 그 배경을 믿고 거들거리는 판이었다.

이 고을에 양반 몇 사람이 우연히 모여 앉을 기회가 있었는데, 화제는 자연히 보성 김 생원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하, 저놈의 영감 버릇을 고치기는 해야 할 터인데, 이거 군수의 외숙이니 이거 원……”

그 말을 듣고 있던 현 훈장이 선뜻 나섰다.

“그놈 버릇을 내가 고치고 말겠소! 그러니 염려들 놓으시오.”

모두들 눈이 휘둥그레졌다.

현 훈장은 이 고을 '공문동산'에 앉아서 보성 김 생원이 나타나기만을 고대하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김 생원은 부채를 들고 거드럭거리면서 지나는 중이었다.

“야, 거기 사령놈들 있느냐?”

현 훈장이 힘주어 외친 일성(一聲)이었다.

“예, 예, 여기 있사옵니다.”

“저 놈을 당장 잡아 묶어라.”

군수 외삼촌을 잡아 묶으라고 하니, 사령들이 머무적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군수 외삼촌님을……?”

“잔말 말고 묶어라.”

사령들은 현 훈장의 명령을 따라 잡아 묶을 수밖에 없었다. 보성 김 생원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여보시오, 현 유학! 그 어찌 날 이렇게……. 내가 누군질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

“아, 내가 보성 김 생원 아니요?”

“지금 제주목(濟州牧)에서 통문(通文)이 오기를, 지금 우리 제주도에 왜배(倭船)가 들

어서 일본놈들이 올라왔는데, 본지방 사람이 아닌 사람은 모두 잡아다가 문초(問招)를 하라고 하니, 보성 김 생원이든 광주(光州) 허 생원이든 모두 잡아 묶게 되었오. 그래서 묶는 것이니 섭섭히 생각 말고 있으시오.”

보성 김 생원은 여지없이 당하는 판이었다. 조카인 군수를 데려다 달라고 해도 막무가내였다.

“아, 염려 마시오. 한 시간 이내로 풀어 드리지요. 통문에 의하면, 왜놈들은 살 밑에 큰 사마귀가 두 개씩이나 돋았다고 하니 검사해 봐서 없으면 곧 보낼 테니까 염려 말고 가만히 있으시오.”

보성 김 생원은 몸둘 바를 몰라했다. 현 훈장은 다시 사령들에게,

“그 놈 아래뒷방(아랫도리)을 모두 벗겨서 사마귀가 있는가를 확인해 보라.”

사령들은 보성 김 생원이 군수의 외숙인 줄을 뻔히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아랫뒷방을 벗겼다.

“살 밑에 사마귀가 하나도 없사옵니다.”

“아, 그래. 사마귀가 없으면 됐다. 그러나 우리만 봐서는 증거를 댈 수가 없고, 혹이나 이 다음에 윗 관청에서 확인하러 오더라도 분명히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 고을의 중인(中人) ·방장(坊長) ·풍헌(風憲)들을 모두 불러다가 '이 분은 분명히 살밑에 사마귀가 없습니다'한 문서에 서명하도록 해서 그 사람을 풀어 줘라.”

갈수록 태산이었다. 드디어 이 고을에 있는 관원살이하는 양반들이 몰려들어서 보지 못할 곳을 봐 버렸으니, 그 후로 보성 김 생원은 창피스러워서 조카인 군수를 배경삼아 이 고을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떠나고 말았다.

그러나, 현 훈장은 그렇게 기지와 재치가 뛰어났지만, 조선조 말 우리 나라 매국노로 유명한 이완용(李完用)에게는 한번 당했다고 한다.

조선조 말 이완용이가 예조좌랑(禮曹佐郎)으로 있을 때, 제주도에 순력(巡歷) 왔던 적이 있었다. 이때, 제주도 세 고을—濟州 ·旌義 ·大靜—에서는 고을 대표를 보내어 영접하기로 했다.

정의 고을에서는 여러 관원들이 숙의 끝에 재치와 기지가 뛰어난 현 훈장을 보내기로 합의했다. 현 훈장도 응했다.

“내가 가서 뭔가를 보여주지.”

현 훈장은 우선 몸치장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모시두루마기에 경남 통영(統營)에서 만든 갓, 합죽선(合竹扇), 은장도까지 잘 치장하여 이완용 앞에 나타나 우선 수인사부터 나누는 중이었다.

“당신은 정의 고을에서 왔다고 하니, 그 고을의 홑수는 얼마나 되요?”

이완용의 첫 질문이었다.

“아무 호가 됩니다.”

“당신네 집 재산은 얼마나 되요?”

“아무 정도 됩니다.”

“당신은 과히 선비가 못 되요.”

이완용이가 내던진 한 마디에 현 훈장은 펄쩍 뛰지 않을 수 없었다.

“왜 내가 선비가 아니란 말이요?”

“선비일 것 같으면, 그 정도의 재산을 갖고 그만한 적은 홑수를 가진 고을에서 훈장질 하면서 이렇게 좋은 모시두루마기, 통영갓, 은장도, 합죽선을 몸에 꾸릴 수 없고, 필히 어디가서 험잡해서 얻어 입었지,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차려 입을 수 있겠소?”

현 훈장은 이 한 마디에 이완용이에게 만든 톡톡하게 당한 적이 있다.

성산을 신평리, 오문복(남) 제보

9. 오 서자(吳庶子)

옛날, 지금 서귀포시 홍로 오택(吳宅)에 한 서자가 있었다. 이 청년은 성산면 고성리 남문집에 양자로 들어갔다. 당시는 적서 차별이 심한 때여서 그는 생가의 여러 형제 친척들에게 괘시를 많이 받아오던 터라 멀리 양자로 들어가 버린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도 하였으나 이따금 제사 때나 생가에 오면 역시 그에 대한 괘시는 여전함에 늘 원통하게 생각하였다. 제사 때가 되어 생가에 들렀을 때라도 그는 여러 형제들과 같은 반열에 서서 배례를 하지 못하고 혼자서만 마당에서 배례를 하곤 하였다. 그러면서 한없이 자기 신세를 한탄하였다. 그러면서도 조상에 대한 그의 효성은 극진하여 그러한 굴욕을 참아가면서 늘 생가의 기일 제사를 잊지 않고 참례하였다.

어느 해 일이었다. 어느 때같이 오 서자는 생가집에 제사를 보려고 아침 일찍이 집을 떠나 홍로 생가로 떠났다. 아침부터 흐릿한 날씨는 산길에 접어들었을 때부터 갑자기 험악해지더니 소나기가 퍼붓기 시작하였다. 그는 소나기를 피하려고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별로 피할 곳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이리저리 찾아다니다가 어떤 골충 안 숲이 우거진 곳을 찾아들었다 그는 거기서 잠시 비를 피하려고 생각하였다. 갖고 있던 칼로 가시덤불을 캐고 몸 둘 자리를 만들어 잠시 쉬고 있었다. 그러면서 비가 멎기를 기다렸다.

비는 꽤 오래도록 계속하여 내렸다. 비 개이기를 기다리는 사이에 깜빡 잠이 들었다. 그때 그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어떤 하얀 백발 노인이 나타나서는,

“나는 이 무덤에 묻힌 사람입니다. 당신이 내 집을 깨끗이 정리하여 주시니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습니다. 하찮지마는 오늘 저녁 당신 아버님의 제사라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러니 이것을 제사의 제수로 드리니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한 말을 마치고 그 노인은 사라져 버렸다. 깨고 보니 꿈이었다. ‘이상한 일로군’ 하고 생각을 하면서 그 무덤에서 나왔다. 어느덧 비는 개고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그는 급히 다시 홍로를 향해 급히 걸음을 옮겼다. 서귀에 이르기 전 효돈 마

을의 동편에 큰 내가 있었다 비가 내렸던 후여서 내가 크게 치고 있었다. 그때 냇물에 떠내려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무엇인가 다가가서 자세히보니 그것은 바로 노루가 냇가 나무 틈에 끼어 죽어 있었다. 그때 그는 아까 그 꿈에 노인이 한 이야기가 생각났다.

“이것이로구나. 그 노인이 제수로 주겠다는 것이...”

그는 기뻐하며 그 노루를 둘러메고 생가집에 이르렀다. 모여 있었던 친족들은모두 놀랐다. 밤중이 되어서 제사집에 이른 일도 놀랐고, 더구나 제수로 큰 노루까지 쏙어지고 왔으니 더욱 놀라면서 의아해 하였다.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제관들은 그를 방안으로 불러들여 같이 제관으로 배례하도록 하였다. 오 서자에게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었다.

뒷날 돌아오는 길에 다시 그 무덤에 들러서는 더 정성을 드려서 소분을 하였다. 그러는 가운데 묘에 비석을 발견하였는데, 그 묘는 정말 지체있는 집안의 선묘였다. 그래서 그 집안에 알리자, 오 서자에게는 더 많은 사례를 하면서 고마워하는 것이 었다.

서귀포시 대륜동, 김두옥(남) 제보

10. 장사 양 태수

옛날 제주 마을에 양태수란 장사가 있었다. 그는 장수가 될 사람이었으나 장수가 못되어 힘센 장사로 살았는데 그 힘이 어떻게나 세었는지 가히 초인과 같았다. 그가 세상에 태어나서 얼마 없어서였다. 아주 어린애기 때였다. 그런데 그 아기가 다른 아기와 달라서 영리한 것은 물론이고 자라는 것도 어떻게 빨리 자라는지 이상하기만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아기를 눕혀 놓고 나갔다 와보니, 그 아기가 방안 천정에 붙었다가 벽장 위에 올라갔다 하면서 노는 것이었다. 아기가 잠자는 사이에 몰래 살펴보니 겨드랑이에 날개가 돌아서 자라고 있었다. 어머니는 덜컥 겁이 났다. 그렇다고 누구에게 이 사실을 의논할 수도 없었다. 그러다가 남편과 의논을 하였다. 그래서 결국 그 날개를 끊어

버리기로 하였다.

아이는 점점 자랐다. 그 동안 부모들은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조심조심 아들의 동정을 살폈다. 하는 짓이 확실히 다른 아이들과는 달랐다.

어느 날 부부는 계획을 세워 아들의 날개를 끊어 버리려 하였다. 술을 취하게 먹여서 잠이 들게 한 후에 가만히 그 겨드랑이의 날개를 칼로 잘라 버렸다. 그 바람에 잠에서 깨어난 그는 탄식을 하였다. 그리고 날개를 끊어버린 그 부모를 원망하였다. 그러나 집에서 그냥 살면서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내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키도 컸고 힘도 세었다. 그 동리에서는 누구도 그와 힘 상대할 사람이 없었다.

어느 날 그 아들은 조용히 부모에게 청을 하였다.

“제가 도저히 이곳에서 그냥 농사나 지으면서 살 수 없으니 제게 배 한 척만 마련해 주시면 육지로 드나들면서 장사나 해볼까 합니다.”

이런 청을 들은 그 부모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청을 들어 주었다.

그는 그 마을에서 힘이 센 몇몇 청년들과 같이 배를 부리게 되었다.

그때에는 바다에 해적들이 날뛰는 때였다. 더구나 왜놈의 배들을 만나면 물건들을 다 빼앗기고 잘못하다가는 목숨까지 빼앗기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게 육지부와 장사를 하는데, 한번은 왜놈의 배를 만나게 되었다.

“거기에 좀 머물러 있거라.”

왜배가 다가오며 호령을 하였다. 양태수는 배를 머물도록 하였다. 다가온 왜배는,

“너희 배에 있는 그 쌀들을 우리 배에 옮겨 실어라.”

무턱대고 명령조로 호령을 하였다. 그러나 양태수는 얼른 이행하질 않았다.

“목숨이 아깝거든 어서 하라는 대로 하여라.”

아주 위협적으로 말하는 것이었다. 양태수는 일본놈들을 한번 노려보았다. 별로 힘이 나 쓸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들이 하라는 대로 쌀 가마니를 그 배에 옮기는 척하다가 가마니를 그들 머리 위로 확확 던지기 시작하였다. 양손에 두어 가마니씩 들고서 마구 던지는 바람에 그들은 정신을 잃고 허둥대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배가 기우뚱거리기 시작하였다. 그제서야 그들은 양태수를 알아보았다.

“내가 몰라서 무례한 짓을 하였으니 용서하여 주시오.”

그배의 선장이 제발 살려만 달라고 애원을 하였다. 그제서야 양태수는 쌀가마니 던지는 일을 멈추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들을 모두 오랏줄로 묶었다. 그렇게 힘을 써서 장사 행세를 하였다. 비록 날개는 끊어졌으나 장사로서 한 세상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전하여 온다.

서귀포시 영천동, 양원교(남) 제보

11. 가령 양(梁) 장의

가령 양(梁) 장의라는 선비가 있었다. 그는 글에도 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지도 뛰어나, 서울 출입을 하면서도 늘 섬사람으로서 당하는 굴욕을 보복하곤 하였다. 그는 성균관에서 공부를 하였는데, 글에서나 말로나 여러 서울 선비들을 앞질렀기때문에 자연 서울 선비들에게는 두렵고 아니꼬운 존재였다.

어느 날 가령 양 장의가 없을 때에 여러 선비들은 의논을 하였다. 어떻게 하면 그 똑똑한 척하는 그를 골탕먹일까 하는 궁리를 하다가 묘안을 짜냈다. 그들은 양 장의가 늘 앉는 그 자리 마루를 떼어 버리고 그 위에 방석만 덮어두었다.

나갔던 양 장의는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와서는 자기가 앉았던 자리에 털썩 앉았다. 그러자 풀썩하니 자리에서 빠져 마루 속으로 떨어져 버렸다. 모여앉아 그 광경을 본 여러 선비들이 배꼽을 쥐고 웃어대었다. 그때였다.

“하관 시를 당하여서 웬 상제들이 곡(哭)은 안 하고 웃기만 하는 거냐!”

마루 아래 빠진 그는 웃는 여러 선비들을 향해 크게 꾸짖는 것이었다. 선비들은 웃음을 그치고 갑자기 조용해졌다.

“너희놈들은 명색이 선비들이라고 하면서 돌아가는 부모를 모시는 예의도 모르느냐. 서울 놈들은 다 그렇게 예의범절에 어두우냐?”

어리둥절하고 있는 선비들을 향해 그는 다시 꾸짖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만들어는 광중에 묻히게 되었으니 너희들은 상제로서 마땅히 곡을 하여야 할 게 아니냐. 너희들은 다 내 아들인 것이야.”

그제야 선비들은 그의 말뜻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양 장의를 골려주려 했던 그들이 도리어 모두 그의 아들이 되어 버렸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아들놈들아 어서 곡소리를 내어라.”

마루 구덩이에서 다시 양 장의는 큰 소리로 선비들을 향해 꾸짖었다. 선비들은 더 할 말이 없었다. 결국 놀려주려던 그들은 모두 양 장의의 아들격이 되고 말았다.

또 이런 이야기도 전해 내려온다.

양 장의가 어느 해에 서울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전라 감영에서, 제주에서 올라간 어떤 사람을 만났다. 동향이라 반가운 김에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이말 저말 하는 가운데 양 장의는 그의 사정을 알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진상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웠다. 진상 물품을 모으는 일도 그랬지마는 물건들을 바치는 일이 더욱 어려웠다. 그런데 그는 바로 흑쇠(黑牛)를 진상하러 오래 전에 왔는데 진상이 잘 안 되어 지금껏 돌아가지도 못하고 노자는 다 떨어지고 사정이 정말 어렵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왜 진상이 잘 안되는 거요?”

사정을 듣고 양 장의가 그 연유를 물었다.

“무슨 이유도 없는데 내일 오라 내일 오라 하면서 받아주질 않으니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돈이라도 있으면 좀 갓다주고 할 것인데, 이제 노갓돈도 없으니 진상소라도 팔아 먹고 죽든지 살든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듣고 보니 딱하였다. 양 장의도 진상하는 데 따른 관리들의 횡포를 약간 들어 알고는 있었지마는 듣고 보니 작은 일이 아니었다. 생각하니 화가 났다. 어떻게 하면 이 진상하는 일을 원만하게 하고 또한 그 목사까지 골탕을 먹일까 생각하였다.

“그저 죽은 척하고 내일 한번만 가서 사정을 해 보시오. 그렇게 해도 진상이 안 되면 소를 팔든지 말든지 하시오.”

뒷날 다시 소들을 끌고 가서 진상을 받아주도록 간청을 하였다. 감사는 비스듬히 누운 채로, 아래 와서 허리를 굽히고 있는 자를 보더니 돌아가라고 호령하는 것이다. 할 수

없이 그는 다시 돌아와서 그 사연을 모두 말하였다.

뒷날은 양 장의가 직접 소를 몰고 감영으로 갔다.

“제주에서 나라에서 쓸 소를 진상하러 왔으니 감사는 나와서 얼른 받으시오.”

양 장의는 들어가면서 큰소리를 쳤다. 나졸들이 속으로는 웃으면서도 어제까지 매일 드나들던 자가 아니고 호령까지 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자하였다.

“어, 저 친구 봐라. 진상이 잘 안 되니까 아 이제는 큰소리까지 지르네.”

“아니, 미친 거 아닌가.”

“미칠 만도 하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소를 팔고 도망을 치든지, 밭을 팔고 와서 진상일을 성사시키든지 해야지 어떻게 할 거야.”

“진상을 한 번 두 번 해봤나. 왜, 다 알면서 처음부터 좀 잘 할 일이지.”

저마다 한 마디씩 지껄여 대었다. 그러나 양 장의는 그들의 떠드는 소리에 마음을 쓰지 않고 다시 한번 큰소리로 말했다.

“나라에 진상할 소를 대령하니 어서 나와 받으시오.”

아닌밤중에 홍두깨식으로 어디 초라한 선비가 나타나서 큰소리 치는가 하고 목사가 내다봤다. 귀찮아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이때였다.

“감사는 그 행색이 뭐요? 우리가 상감님께 소를 진상하러 하는데, 그 물품을 받는 신하로서의 그 태도가 아니 되었소. 향을 피우고 의관을 정제하고 받아야 된다는 건 어느 관리들도 모두 아는 바요, 바로 그게 올바른 예도가 아니요? 어이 무엄도하다.”

양 장의가 감사를 던지시 바라보며 한 마디 하였다. 감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안색이 싹 변하였다.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보통 보아 넘길 사람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당신 같은 신하에게는 상감께 바칠 소를 대신 바칠 수 없소. 나는 이 사실을 조정에 아뢰어야 하겠소.”

양 장의는 소를 몰고 나오려 하였다.

“여보시오, 뭘 그리 하시오. 몰고 온 소를 그냥 두고 가시오.”

감사의 눈치를 살피던 호방 나인이 달려 나와서 말했다.

“이놈, 어디서 하던 버릇, 아랫놈이 어디다 대고 상감께 바칠 물건에 대하여 함부로 나

불거리느냐? 감사가 나와서 사정을 해도 안 될 일인데.”

이렇게 꾸짖고는 소를 몰고 돌아와 버렸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감영에서 전갈이 왔다. 지난날에는 분수를 모른 아랫것들이 경거망동하여 물리친 모양인데, 어서 갖고 오면 예를 갖추어 받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양 장의는 듣질 않았다.

“한 사흘만 기다리다가 그 때 바치도록 해도 늦지 않으니 꼭 마음놓고 있으시오.”

양 장의는 여유있게 진상소를 갖고 온 사람에게 말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감영에서는 매일 사람을 보내어 소를 진상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노자에 쓰라고 돈까지 마련하여 사람을 보내곤 하였다. 그러나 양 장의는 고개를 저었다.

“이번 참에 저 놈들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 놓아야 되오. 그래야 다음부터 소 진상하는 일이 쉬워져요.”

그렇게 말하면서 사흘을 기다렸다. 그 동안 매일 사람이 와서 간청하였다.

사흘째 되던 날 소를 몰고 감영으로 갔다.

“내 감사의 딱한 처지를 생각하여 이번에는 그냥 바치고 가지마는 다음부터 이러면 우리는 직접 서울로 올라가 연유를 아뢰고 바칠 생각이오.”

양 장의는 못 이기는 척하고 소를 바쳤다. 그렇게 하고 나오는데 노자에 보태쓰라고 엽전 꾸러미까지 건네주는 것이 아닌가, 제주 사람은 그 엽전을 가지고 며칠을 폭 쉬고는 의기양양하게 돌아왔다.

그 후부터는 전라감영에서 소를 진상하는 일이 아주 수월하였다.

서귀포시 영천동, 양원교(남) 제보

12. 변 인 태

변인태는 서귀진(西歸鎭) 진졸(鎭卒)이었다. 그는 비록 낮은 신분이긴 하였으나 말재간이 좋아서 항상 위기를 넘기거나 뒤편사람들의 잘못을 꼬집곤 하였다. 또한 거짓말을 잘 하였다. 한번은 그가 서귀진에서 목안(牧內)으로 급한 일이 있어 가고 있었다. 어느 길가 밭에서 김을 매던 일꾼들이 변인태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서로 수군거리기시작 하였다.

“저기 변인태가 지나간다.”

“저 놈에게 거짓말을 시켜볼까.”

이렇게 수군거리는 걸 그는 모두 듣고 있으면서도 시치미를 떼고 그 곁을 지나려 하였다.

“야, 변인태, 자네 거짓말을 잘 한다는데 거짓말을 좀 해봐라.”

일꾼 중 한 사람이 고약스럽게도 놀리는 투로 말하였다. 변인태는 속으로 화가 불끈 일어났다. 그러나 참았다. 세상에 나서 거짓말을 좀 해보라는 사람을 처음 대하였고, 또한 자기를 놀림감쯤으로 생각하는 게 심히 못마땅했다.

“자, 심심도 한테 거짓말 한마디 해 보지.”

다른 사람들도 같이 끼어들어 지껄였다.

변인태는 버럭 화를 내면서,

“나 지금 바빠서 거짓말이고 뭐고 귀찮소.”

통명스럽게 그냥 지나치려 하였다 일꾼들은 이 변인태를 그냥 보내지 않을 듯이 다시 장난삼아 말했다.

“그 거짓말 뇌똥다가 무엇에 쓸 거야. 어디 한번 해보라구”

이렇게 다시 다그치는 것이었다.

“이 사람들 일어나 할 일이지 무슨 거짓말을 그리 들겠다는 거요. 난 지금 바빠요.”

“바쁘다니, 무슨 일인데.”

사람들은 바쁘다는 말에 다시 관심을 나타내면서 다그쳤다.

“지금 서귀진에 왜놈의 배가 여러 척 쳐들어 오고 있소. 어서 목안에 가서 알려야 하기

때문에 난 바쁜 사람이요.”

변인태는 한 마디 뻔듯이 말하고는 갈 길을 그냥 가려 하였다.

“아니, 여보.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시오. 왜놈의 배가 쳐들어 왔다니요?”

사람들은 놀라며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였다.

“말도 마시오. 왜놈의 배가 수십 척 쳐들어와서 지금 서귀진은 대난리요.”

변인태는 이 한 마디를 남기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길을 부지런히 걸어갔다.

변인태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일하던 것을 내버려두고 혼비백산하여 산 속으로 내닫기 시작하였다. 왜놈이 쳐들어온 이 정황에 일이고 뭐고 생각할 게 없었다. 그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모두 달아나 버렸다 그 모양을 보던 변인태는 혼자 '낄낄' 웃으면서,

“멍충이 같은 놈들, 거짓말을 하라 해놓고, 놀라기는 왜 놀라.”

그는 배꼽이 끊어질 정도로 웃으면서, 달아나는 사람들을 재미있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변인태에 대한 다음과 같은 또 다른 이야기가 전한다.

그때는 제주 목사가 제주도에 도임하면 꼭 섬 전체를 한 번 돌아보았는데 그때마다 정방폭포를 꼭 구경하였다. 그럴 때마다 쇠로 만든 방석을 따스하게 불에 쪼여 목사에게 갖다 드리는 게 하나의 관례처럼 되어 있었다. 그럴 때 그 쇠방석이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식어도 안 되었다. 또한 계절에 따라 그 뜨거운 정도 또한 차이가 있어야 하였다.

목사가 순력차 서귀진(西歸鎭)에 온다는 소문이 나자, 변인태는 자기가 맡은 그쇠방석 일을 잊어버린 채 그만 목사 순력에 따라온 그 많은 사람들을 구경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엔지 목사가 정방폭포를 구경하려고 이르렀다.

“여기에 쇠방석을 대령시켜라.”

조방장의 명령이 떨어졌다. 쇠방석을 따스게 구워 드리는 일을 책임맡은 변인태는 아무런 준비를 해놓고 있지 않았다. 잘못하다가는 볼기를 맞게 되었다. 그래서 조방장이 들으라는 듯이 냉랭한 쇠방석에 손을 갖다대 보면서, “엇 뜨거워” 하고 소리를 질렀다.

“너무 뜨겁게 말고 좀 식혀서 가져오너라.”

조방장은 변인태의 엉뚱한 짓을 알기에 너무 뜨겁게 구워서 가져올까 걱정이 되어 이

렇게 말하였다. 그러자 변인태는 잘 되었다는 듯이 그제서야 급히 따스게 만들어 대령하여 그 어려운 처지를 넘겼다는 이야기도 있다.

변인태는 늘 조방장에 대하여 불만이 많았다. 특히 그는, 조방장이 다른 진졸(鎭卒)보다 더 맛있는 식사를 하는데 대하여 불만을 가졌다. 모두들, 오히려 진졸들이 더 고생을 하는데 먹는 것은 천양지차가 있다는게 늘 불만이였다. 그래서 그의 동료인 같은 진졸 몇 사람과 의논을 하였다.

“아, 자네는 이름을 '엇떠바리'라고 하게. 그리고 자네는 '게두어리'라 하게.”

이렇게 두 친구에게 '엇떠바리', '게두어리' 라는 이름을 붙여 서로 불렀다.

하루는 새 조방장이 부임하여 첫번째로 아침식사를 차려가는 때였다. 흰쌀밥에 고기국을 끓여 놓고 많은 반찬에 정말 진졸로서는 한번 먹어보지 못한 성찬이였다. 그 성찬을 보니 더욱 부아가 일었다. 더구나 새로 들어온 조방장에게 변인태는 좀 괴롭히고 싶은 생각이 났다. 그래야만 앞으로 조방장이 자기네를 대하는 게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름을 지은 그 친구들과 의논을 하였다.

변인태가 조방장의 식사를 드리게 되었다. 그는 식사상에서 숟가락을 꺼내어서 뜨겁게 만들며 상에 놓고서 상을 갖고 들어갔다. 조방장은 시장기가 있어서 식사를 하려고 얼른 숟가락을 집어 들었다. '엇 뜨거워라'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 '엇떠버리'라는 놈이 달려들어 먹으려는 밥상을 얼른 갖고 나갈려는 것이였다. 의외의 사태에 직면한 조방장은 정색을 하고는 '게 두어라'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그 옆에서 식사 시중을 들고 있던 변인태가 큰소리로,

“야, 게두어리와 같이 나누어 먹으시란다”하고 큰소리로 외치는 것이였다. 그러자, '게두어리'라는 진졸이 얼른 나타나서는,

“조방장님, 고맙습니다. 배고픈 김에 잘 되었습니다.”하고 아뢰고는 나가버렸다.

일이 이렇게 되자 조방장도 어쩔 수가 없었다. 다시 그 식사를 가져오랄 수도 없었다. 그대로 둘 수밖에 없었다.

밖에서는 이들 음모를 꾸민 셋이서 맛있게 조방장을 위해 마련했던 식사를 하면서 '깰깰' 웃었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조방장이 하도 변인태를 못살게 굴었다. 보아하니 꾀가 비상하고 거짓말도 척척 해대는 이 놈을 그냥 놔 두었다가는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였기에, 늘 그를 괴롭히며 그러한 엉뚱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럴수록 변인태는 이 조방장을 골탕 먹일 일만을 생각하게 되었다.

하루는 조방장이 변인태를 불러들이고는 자기 집에 심부름을 시키려 하였다.

“변인태, 자네가 우리집에 뭘 좀 갖다주게.”

이렇게 말하면서 그에게 시키는 것은 큰 나무로 만든 쟁기를 성안에 있는 자기 집까지 갖다 달라는 것이었다. 속으로는 심히 못마땅하였으나, 그렇다고 거절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우리 집을 자네 모르지? 성안에서 제일 큰 집이야.”

제일 큰집이란 말은 허풍이었다. 자기네가 잘 산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하여 한번 해본 말이었다. 그런 다음에 조방장은 성내 자기 집의 위치를 소상하게 설명하였다. 그러나 변인태는 듣는 둥 마는 둥 '예, 예'하고 대답만 하였다.

변인태는 그 무거운 쟁기를 지고 길을 나섰다. 길을 가면서도 어떻게 하여 조방장을 골탕먹일까 생각만 하고 있었다. 등에 짊어진 쟁기는 보아하니 이제 곧 만든 새것이었다. 이것은 필시 어느 백성에게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면 진줄을 시켜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더구나 요즈음 소나무나 가시나무를 함부로 베지 말라는 목사의 엄명이 내려진 때인 것이다. 변인태는 고개를 끄덕이었다. 이 쟁기 하나면 조방장쥘을 골탕먹일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안에 다다랐다. 그는 대충 귀넘어 들어서 조방장네 집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으나 모른 척하고 그 쟁기를 지고 사포가 일 보는 동헌으로 들어갔다. 성안에서 제일 큰 집이라면 틀림없이 이 집이 아니겠는가, 동헌에 이르자 수비를 보던 나졸들이 창을 들이대며 막아섰다.

“이 놈, 어디를 들어가려고 하느냐”

“나는 서귀진 진줄 변인태인데, 우리 조방장님이 이걸 집에 가져가라 해서 왔소.”

나졸들은 그가 갖고온 쟁기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이 놈아, 여기는 느네 조방장네 집이 아니다. 여기는 목사께서 사무를 모시는 동헌이

다. 어서 썩 물러가라.”

“무슨 말씀, 우리 조방장이 성안에서 제일 큰 집이 바로 자기네 집이라고 하였는데”

변인태는 물러서질 않았다. 그러자 나졸들은 그 조방장의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이젠 필시 이상한 음모가 서려 있는 말일 거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변인태를 데리고 들어갔다.

“이 놈, 이 서귀진 조방장은 서귀진을 지키는 일에는 마음이 없고 사가의 일에만 마음을 쓰고 있으니, 이것은 엄히 다스려야 할 일이 아닌가. 더구나 허가없이 나무를 베어 사가의 물건이나 만들어 그것도 국록을 먹는 진줄을 시켜 집에까지 가져가도록 한 일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므로 이를 엄히 다스리도록 하시오.”

목사의 명이 떨어지자 야단이 났다. 이를 보던 변인태는 겉으로는 겁을 먹은 척하였으나 속으로는 ‘이 놈 잘되었다. 나를 못살게 하더니’하면서 킬킬 웃었다.

서귀포시 영천동, 양원교(남) 제보

13. 홍리 고 대각

홍리(烘里)에 고대각이라고 힘이 장사인 사람이 살았었다 그 부친은 소를 여러 마리 기를 정도로 여유있게 살았다. 단지 그에게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힘센 아들을 하나 얻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임신을 하자 그는 힘센 아들을 얻기 위하여 소를 열두 마리나 잡아 먹였다. 그러나 낳고 보니 아들이 아니고 딸이었다. 실망이 매우 컸으나 다음을 기약하고 참았다. 그 후에 다시 임신을 하자 이번에는 열 마리만 잡아 먹였다. 열두 마리를 잡아 먹이면 다시 딸을 나올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온 것은 아들이었다. 고대각 부친은 매우 흡족하게 생각하였다.

오랜날 잘 자랐다. 외모도 남달리 뛰어났고 힘도 세었다. 고대각 부친은 여간 다행으로 생각하질 않았다. 고대각의 힘은 그 주위에서 알아줄 정도로 소문나 있었다.

어느 가을이었다. 고대각은 밭에 산디밭(陸稻)을 지키려고 갔다. ‘큰굴왓’이란 밭에 산디를 갈아 잘 여물었는데 베어 놓고는 밤에 지키지 않으면 도둑놈들이 다 가져가버리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이었다. 저녁을 먹고 온 고대각은 밭 한편 구석에 비스듬하게 기대어서는 담배를 피워 물고 있었다. 밤이 이슬하니 쌀쌀한 냉기가 옷깃으로 스며드는 게 으스스하게 춥기도 하였다. 그 때였다. 어떤 사람이 밭안으로 통 하고 뛰어들었다. 그래도 고대각은 가만히 동정만 살폈다. 그 괴한은 밭 한가운데로 들어가더니 주위를 한번 휘둘러 보고는 엎드려 베어놓은 벼를 묶기 시작하였다. ‘이놈야’하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하는 거동이 너무나 당당하고 대담하여 좀 두고 보기로 하였다. 그 사람은 어느 새인지 밭 가운데 있는 벼를 거지반 묶고는 한가운데로 모아놓아 짐을 꾸리기 시작하였다. 짐 꾸리는 것을 보고서야 그 사람도 보통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었다. 고대각은 그냥 두었다. 그리고는 몰래 그의 뒤를 따라 가 보았다. ‘언제고 내가 값을 톡톡히 받을 때가 있을 테지’하고 생각은 하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었다. 날이 흰하게 자자 그 산디 가져간 사람을 만났다.

“왜 남의 곡식을 물어보지도 않고 가져갔소.” 좀 통명스럽기는 하였으나 조용하게 물었다. “곡식은 떨어지고 물어봤자 가져가라고 할 것 같지는 않고 해서 내가 한 짐 지어왔소. 나중에 내가 값을 갚을 것이니 그리 아시오.”

상대는 미안한 기색이 하나도 없이 아주 의젓하게 말하는 것이었다. 고대각은 더 따지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

몇 년 후였다. 그 산디 지어간 사람에게서 산디값을 받아가라는 기별이 왔다. 그는 육지와 쌀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번 쌀장사가 잘 되었으니 와서 받아가라는 것 이었다.

고대각은 때를 맞추어 갔다. 무곡 실은 그의 배는 갯가에 쌀을 실은 채로 그냥 있었다. “오래간만입니다. 전에는 제가 실례가 많았소. 오늘 그 값을 갚을 테니, 가져갈 만하게 가져 가시 오.”

그는 배를 가리키며 마음대로 지어가라고 고대각에게 말했다. 고대각은 아무 말 없이 쌀 실은 배로 올라갔다. 그리고는 자근자근 쌀가마니들을 포개놓고 세워놓고 짐을 꾸렸다. 그러다 보니 배안에 있는 쌀가마니들이 겨우 한 짐밖에 되질 않았다. 고대각은 배

안에 있는 쌀을 몽땅 한 짐에 지어나오면서,

“더 가져가려 해도 쌀이 없어 이것밖에 못 가져갑니다.”

이렇게 한 마디 하자 그를 바라보고 있던 배 임자는 가슴이 뜨끔하였다. 그날 밤에 자기가 너무 당돌하게 그 집 산디를 지고 온 게 미안하였다. 저 힘에 한번 싸움이라도 붙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니 가슴이 오싹하였다.

“쌀값은 제대로 갚는군.”

배 임자는 혼자 중얼거렸다.

이렇게 힘이 센 고대각도 그 누이에게 들면 힘을 못 썼다. 어느 해 겨울이었다.

모관 동촌(東村)에서 온 섬 장사들이 모여 씨름대회가 벌어졌었다. 고대각은 여기에 참석하였다. 아직 그의 힘이 널리 알려지기 전이었다. 한참 씨름이 고조를 이룰 즈음에 고대각이 썩 나셨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그렇게 이겨가는데 그를 당할 사람이 아무도 나타나질 않았다. 모여든 사람들은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저 친구 안 보던 사람인데…….”

“남의 지역에 들어와 건방지게 힘을 자랑하여 빠기는 꼴 보기가 안 좋군.”

아무도 고대각과 상대하는 사람이 안 나타나자 분위기는 이상하게 돌아갔다. 그때였다. 어떤 사람이 씨름판 안으로 달려들어 고대각과 맞붙었다. 순식간에 승부는 나고 말았다. 고대각이 지고 그 사람이 이겼던 것이다. 사람들의 환호가 씨름판을 흔들었다. 고대각은 분을 못 이겼으나 어쩔 도리가 없었다.

새로 이긴 그에게 상이 주어졌다. 소 한 마리와 무명 세 필이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씨름 대회는 무사하게 끝마쳤습니다. 내가 오랜만에 장사가 됐으니 이 소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잡아서 우리 잔치나 합시다.”

장사는 의연하게 무명만 가지고 사라져 버렸다.

집에 돌아온 고대각은 자리를 펴고 누워 바깥 출입을 안 했다.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지는 일이었다. 다 이긴 싸움터에서 웬 놈이 나타나 휘방을 놓다니, 생전 그런 치욕을 당해보질 않은 것처럼 억울해 하였다.

그때였다. 마당으로 들어서는 사람이 있었다. 그것은 고대각의 누이였다. 외갓집에 간다고 어제 집을 나갔는데 오늘 돌아오는 것이다.

“고대각 어디 갔니?”

그는 들어오면서 고대각을 찾았다. 방안에 틀어박혀 있다는 말을 듣고는, 그 누이는 고대각이 자는 방을 획 열었다.

“사내가 대낮에 자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한마디 하면서 무명필을 고대각의 머리맡으로 획 던졌다. 깜짝 놀라 일어난 고대각은 자기 앞에 떨어져 있는 무명을 보았다. 그것은 틀림없이 씨름판에서 장사로 뽑힌 자가 상으로 탄 그 무명이 아닌가. 순간 고대각은 누이의 얼굴을 다시 자세히 보았다.

“아, 누님 !”

고대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 씨름판에서 만났던 그 낯모른 장사가 바로 누님이란 걸 순간 깨달았다.

“이제야 알겠느냐?”

누이는 이 한마디를 하고는 문을 소리나게 닫아 버렸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 누님말고 또 누가 나를 이기겠나”

이렇게 소리치며 고대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누님을 붙잡았다.

“힘을 쓴다고 함부로 다니지 말아라. 더 조심을 해야 하는 거야. 내가 네게 그걸 알려 주려고 씨름판에 나간 거야, 앞으로는 더욱 조심하여 힘을 써야 한다.”

고대각은 누이의 말에 고개를 숙였다.

고대각은 힘을 쓸 때마다 누님의 충고를 생각하곤 하였다. 그래서 고대각은 오래도록 장사로서 그 힘을 쓰면서도 큰 화를 당하지 않았다.

서귀포시 호근동, 김두옥(남) 제보

14. 보목리(浦木理) 조록이당(堂)

서귀포시 보목(浦木)에는 이 마을의 설촌(設村)과 관련된 마을 수호신을 모신 조록이당이 있다. 이 당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아주 오랜 옛날, 이 마을에 겨우 몇 가구가 모여 처음 부락을 이루고 살아갈 때이다. 이들은 거의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였다.

이들 중에 일곱 형제를 가진 집안이 있었는데, 그들 모두가 고기잡이에 종사하였다. 어느 날 그 일곱 형제가 모두 함께 바다로 고기잡이를 나갔다. 같이 배를 타고 멀리까지 나가 고기를 잡다가 안개가 끼고 바다가 어지러워서 우선 가까운 섬에 대피하게 되었다. 대피하기보다는 그렇게 멀리 표류하여 갔던 것인데, 그 섬은 제주도에서 멀리 떨어진 외눈백이 섬이라는 데였다.

이 섬은 그들 일곱 형제에게는 생소한 섬이었다. 여러 해 동안 바다에서 생활하였고 이따금 이렇게 바람과 풍랑에 쓸려 표류되기도 여러 번이었으나, 이 섬은생전 처음 와 보는 곳이었다.

섬에 이른 그들은 우선 인가를 찾아 나섰다. 사람이 사는 섬같기도 하고, 무인도같기도 하였다. 그러나 얼마를 가다가 그들은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하고는 안심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인가를 찾아 헤매었다. 그러다 날이 거의 저물녘 쯤하여 겨우 자그마한 초가집을 발견하였다. 섬의 한편 구석에서 그들은 자그만 불빛을 발견하였던 것이다. 그 불빛을 따라갔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가까이 이르고 보니 초가는 정말 자그마한 집이었다. 주위가 조용하니 단지 불빛만 흘러 나올 뿐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다. 주위는 우거진 나무숲으로 싸여 있어 조용하니 필시 무슨 귀신이 사는 집 같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저러한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 중 형이 주인을 찾았다.

“계십니까. 풍랑을 만나 이곳에 도착한 사람들인데 하룻밤 묵어가게 해주십시오.” 몇 번이나 부른 다음에 나타난 늙은 노파에게 형편을 말하고 도움을 청하였다. 노파는 일

곱 형제의 모습을 위 아래로 찬찬히 훑어 내려보더니,

“집은 누추하지마는 들어와서 유하시오.” 하고 그들을 청 하였다.

들어가 보니 밖에서 보던 것과는 다른 그래도 깔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고, 안에는 방도 꽤 넓었다. 그들 형제는 집의 맨 끝 방에 모두 같이 들어갔다.

방에 들어간 그들은 갑자기 엄습해 오는 잠에 잠깐씩 어느 사이에 눈을 붙였다. 그런데 맨 막내는 잠이 오질 않았다. 피곤한 것도 몰랐다. 오히려 의식이 더욱 또렷또렷하니 맑아졌다.

얼마 후에 저녁이 들어왔다.

“이곳 음식이 입에 맞을는지 모르지만 배고픈 대로 요기나 하시오들.”

그 노파가 손수 저녁상을 차리고 돌아와, 눈을 비비쓸며 일어나 앉은 젊은이들에게 말하면서 상을 내놓았다.

그러자 형제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어 저녁을 들기 시작하였다. 반찬이 없고 밥과 국만 차려있는 저녁이지마는 그들은 며칠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먹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막내만은 아무래도 그 국맛이 마음에 꺼렸다. 고기국 같기도 한데, 그 맛이 이상하였다. 생전 처음 먹어보는 그런 국이었다. 그대로 여러 형들은 그저 잘만 먹었다. 그러나 막내는 먹는 시늉은 조금 하다가 그만 물리쳐 버렸다.

식사가 끝난 이들은 그냥 이리저리 쓰러져 잠이 들었다. 막내만 그냥 벽에 몸을 의지하여 잠을 자는 척하였으나, 속으로는 이상한 이 집의 분위기에 여러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게 얼마가 지난 후였다. 밖이 웅성웅성하더니 누가 온 것 같았다.

“아이고 영감, 이제야 오십니까?”

“오늘은 재수가 없는 날이오. 사냥도 못하고.”

“아니 한 마리도 못하였수과? 난 집에 앉아도 일곱 마리나 하였는데…….”

“일곱 마리? 아니 그것들 어디 있어?”

“저 안방에 가둬 두었습니다.”

막내는 어렴풋이 잠이 들락말락 하였는데 밖에서 들려오는 두 늙은 부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오는데 정신이 바짝 차려졌다.

막내는 일어나서 문을 살그머니 열려고 하였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문이 잠겨 있어 열 수가 없었다. 좀더 힘을 써서 열어보려고 하였으나 그것은 허사였다.

“이거, 우리는 영낙없이 간헐구나. 그러면 저들은 사람이 아니다. 사냥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사람을 잡지 못하였다는 말이 아닌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막내는 옆에서 세상 모르고 자는 형들을 깨워서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며 여러 가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였다.

“뭐? 우리를 잡아먹기 위하여 가두어 놓았다고?”

모두들 놀랐으나 서로들 얼굴만 쳐다볼 뿐 별 도리가 없었다. 막내는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도구를 꺼내었다. 형들도 같이 도구를 꺼내었다. 고기를 잡으려던 그들이었기에 자그마하나 날이 있는 망치가 있었다. 그들은 그걸 갖고 밖으로난 벽을 부수기 시작하였다. 형들 둘이 밖을 살피고 나머지들은 조용조용히 벽을 뚫는 일을 하였다. 그렇게 얼마를 하는 중에 겨우 사람이 하나 기어나갈 만한 구멍을 뚫을 수 있었다. 그들은 급히 그 구멍을 통하여 밖으로 빠져 멀리멀리 노망을 치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어디를 가야 할지 몰랐다. 무작정 달려 나왔을 뿐이었다.

얼마를 가는데 어떤 백발 노인이 길가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노인 어른, 말씀 좀 문졌습니다.”

막내가 공손하게 말하였다. 노인은 말없이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고기잡이 왔다가 풍랑을 만나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혹시 이 섬에서 배를 댈 만한 데가 어딴니까.”

사실 그들은 그들이 배를 타고 내렸던 곳을 찾을 수 없었다.

그때였다. 저 먼 데서 어떤 자가 말을 달려 이곳으로 오는 게 눈에 띄었다. 그것은 필시 그들을 가두어 놓았던 노인네 같았다. 사태가 급박하였다.

“노인 어른,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저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제일 큰 형이 황급히 말하였다. 노인은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고 옆에 있는 큰바위를 굴러서 그들을 그곳에 숨겨주었다.

얼마 있더니 말을 타고 개를 끈 노인이 다가와서는, 노인에게 물었다.

“이 근방으로 젊은이 일곱이 지나가는 걸 못봤습니까?”

노인은 머리를 흔들었다. 개가 그 바위 주변을 돌면서 코를 벌름거렸다. 그러나 아무 것도 찾을 수 없었다. 말을 탄 자는 그 주위를 몇 번이나 돌면서 젊은이들을 찾다가 그냥 돌아가 버렸다.

노인은 다시 그 큰 바위를 일으켜 세워서는 일곱 형제를 나오도록 하였다. 일곱 형제는 그 동안 당하였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였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머리를 끄덕이더니, 바닷가로 이르는 길을 알려주면서,

“배를 타거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면서 가는데 입을 꼭 다물고 가야 하네. 만약 뒤를 돌아보거나 말을 하면 다시 이곳으로 되돌아와 버리네. 부디 내 말을 명심하고 어서 떠나요.”

말을 마치자 손을 저으면서 어서 떠나기를 재촉하였다.

형제들은 바닷가에 이르러서 급히 배를 찾아 타고는 바람에 배를 띄웠다. 배는 순풍에 돛단 듯 미끄러져 나갔다. 그들 형제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들이 떠났던 고향 보목리가 눈앞에 어리더니, 순식간에 마을 개말에 이르렀다. 그들은 배를 막 개말에 대면서,

“아이고 이제는 살았구나.”

큰형이 아직 채 내리기도 전에 한마디 하고 말았다. 그러자 눈깜짝할 사이에 그 타고 왔던 배가 획 하니 다시 그 섬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들은 기가 막혔다. 어쩔 수 없이

다시 그 노인을 찾지 않을 수 없었다.

“왜 말을 허수룩게 듣는 거요.”

겨우 이 한마디를 하고는 노인이 그 청년들을 앞장섰다. 직접 그들을 배에 태우고 배를 띄워 같이 오는 것이다. 얼마나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랐다.

그렇게 그들을 무사하게 고향까지 데려온 그 노인은 그 청년들과 함께 보목리에서 지내었다. 그 노인은 사람의 모습을 한 신이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은 마을에서 적당한 곳을 물색하여 그 노인을 모셨다. 그것이 절오름 아래 당집을 지은 것이다.

그 후 오래도록 그 당에 모신 그 노인은 바로 이 보목리를 지켜주는 신으로 대대로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서 숭앙을 받아오고 있다. .

서귀포시 보목동, 한무섭(남) 제보

제8장 구 중문면 편



탐라순력도의 현폭사후

제8장 구 중문면 편

1. 천제연과 효자 청년

중문 서편에 있는 절경인 폭포를 천제연이라 부르는데 이런 이름의 유래는, 이 폭포의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맑은 물로 온갖 제기를 씻고 제물도 만들어 하늘에 제사를 지내었다 하여 붙여졌으나 그러한 풍습이 없어진 지는 오래다.

그런데 이곳은 절경이라 수많은 시인 묵객들이 시를 남겼고, 어떤 때는 이 하천의 서쪽에 과녁을 만들어 놓고 동편에서 화살을 쏘아 맞히는 활내기를 하기도 하였는데, 특히 목사가 이곳에 구경온 때에 이런 행사를 벌여서 구경하는 목사의 흥을 더욱 돋구었다고도 한다.

또한 이곳에 얹힌 다음과 같은 전설은 상당히 흥미롭다. 옛날 이 중문이라는 동네에 한 농부가 살았는데, 그들은 결혼을 한 지 십여년이 지나도 슬하에 자식이 없어 무척 걱정을 하였다. 그래서 그들 부부는 이 천제연에 밤이면 밤마다 찾아와서 그 맑고 깨끗한 물에 목욕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늘에 기도를 드렸다. 부부가 그 바윗돌 반반한 위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지성으로 기도를 드리니 두어 달 후에 다행스럽게도 그 부인에게서 태기가 있어, 그 부부는 하늘에 감사하면서 기뻐하였다. 열 달 후에 옥동자를 분만하였으니 그들의 기쁨이야 이루 형언할 수 없었다.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서당엘 다니기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그 부모들의 기대도 사뭇 크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아이는 재주가 비상하여 천자문부터 사서삼경에 이르기까지 남보다 빠르게 깨치었음은 물론, 행실이 양전하고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여 그의 부모는 물론 온 마을과 이웃 마을에서까지 칭송이 자자한 형편이었다.

그런데 정말 불행히도 그 아들이 17세가 되던 해에 그 아버지가 이름도 모를 괴질로 세상을 뜨고 말았다. 청년은 책을 던져두고 부친의 관을 부여잡고 통곡을 하면서 서러워하였고, 장사를 지낸 후에 묘소에 움막을 짓고 삼년을 죄인으로 지내다가, 삼년상을 지낸 후에 내려와 다시 글을 읽기 시작하였다.

청년이 나이 스물두 살이 되는 해에 그는 큰 뜻을 품고 서울로 올라가 과거에 응시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낙방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 자기 글이 모자라다고 생각하고는 내려와 다시 글읽기를 계속하였다. 그런데 다시 그에게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불행이 따랐으니 그 어머니가 이상한 병으로 며칠을 못져 눕더니 그만 실명을 하고 말았다. 정말 청천의 벽력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과거에는 낙방을 하고, 이제 어머니까지 이 지경이 되었으니, 그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들이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세상이나 하늘을 원망하지는 않았다. 오직 어머니 병간호에 정성을 다하였다. 성심을 다하여 어머니를 간호한다면 하늘도 그 값을 꼭 주시리라고 믿었다. 그는 다시 하던 글공부를 그만두고 오직 병간호에만 전심을 다하였다. 그는 새벽이 되기 전부터 그 천제연으로 나아가 맑은 물소리를 들으면서 바위 위에 꿇어 앉아서는 하늘에 기도를 드렸다.

“천지신명님, 소인의 죄를 꾸짖어 주시고 제 모친의 병환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인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헛된 영화에 눈이 어두워 글공부를 헛되이 한 것을 소인이 이제 깨달았사오니, 소인의 죄를 저에게 돌려주시옵고 제 어머님에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의 기도는 끝나지를 아니하였다. 열흘이 지나고 스무날이 지나도 기도는 계속되었다. 낮이면 어머니께 정성으로 병간호를 하면서 효험이 있다는 약은 백 리를 가서도 구해다가 드리고, 새벽이면, 이 천제연 폭포 앞에 꿇어 엎디어 기도를 드리기를 하루도 쉬질 않았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기를 눈이 오나 비바람이 부나 3년을 계속하였다. 그 동안 청년은 하루도 거르는 날이 없었다.

눈발이 휘날리며 살을 가르는 매운 바람이 부는 이른 겨울 새벽이었다. 여느 날처럼 그는 그 차가운 바윗돌 위에 꿇어 엎디어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바람과 눈이 멎고 사방이 고즈넉해지면서 눈 앞에 섬광이 번쩍 하였다. 하도 이상하여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을 수 없었다. 멀리 하늘에서 이상한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기특하다. 네 그 정성이 바로 네 어머니를 구할 것이다.”

청년은 이 소리가 혹시 꿈이 아닌가 하고 눈을 비벼봤다. 틀림없이 생시였다. 더구나 무릎 아래의 찬 냉기를 느끼고서 꿈이 아니란 걸 알았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는 다시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고개를 쳐들었다.

“네 정성이 하도 가륙하여 내가 네 어미의 병을 낫게 하겠노라. 이로써 모든 사람들의 네 효심을 본받아 세상의 풍습을 아름답게 이루기를 바라노라. 이는 네가 과거를 보고 벼슬을 하여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보다 더욱 소중한 일이니라.”

청년은 그 음성을 들으면서 다시 눈을 감고 간구를 하고 있었다.

“오 하느님,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그러하오면 모든 것을 하느님 뜻대로 따르겠나이다.”

“다시 이르노니 너는 이제 글에만 뜻을 두지말고 그 글을 직접 행하는 일에 마음과 몸을 바쳐라. 아는 일은 쉬우나 행하는 일은 어려우니라.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 아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되어 자신을 사악하게 만들고, 백성을 못살게 만들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실로 간악한 사람이 되어 오히려 세상을 더 어지럽히는 죄까지 범하게 되느니라,” 그 우렁차고 진실되고 사무치는 말이 청년이 뼈속까지 스미어드는 것 같았다.

“나는 이제 너와 하직하고 하늘로 가노라. 내 말을 명심하고 세상에서 옳은 일을 하도록 하여라.”

말이 끝나자마자 다시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니 차차 그 찬란한 빛이 스러지면서 잠시 후에는 전과 같이 눈바람이 들이치는 그 추운 날씨로 변하였다. 청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 아까 들었던 소리와 하늘이 환하게 빛나던 일들을 새기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있는 게 아닌가.

“어머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아들은 어머니를 부여잡고 어쩔 줄을 몰라 허둥거렸다.

“글쎄다. 어쩐지 일어나고 싶더구나.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그렇게 몸이 가볍고 마음이 상쾌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 앞에 무엇이 번쩍하고 빛이 지나가는 것 같더니, 이상하게 손으로 눈을 쓸어지더구나. 그런데 아니 앞이 환하게 보이는 게 아

니니? 꼭 오랜 잠에서 깬 기분이더구나.”

어머니는 어디 외방이라도 다녀와서 이야기하는 투로 말하는 것이었다.

청년은 아까 그 천제연 폭포 앞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가 생각났다.

“어머님, 이는 하느님이 우리를 도와 주신 겁니다. 제게 큰 일을 하도록 명령을 해주셨 습니다.”

청년은 아까 들었던 모든 이야기를 어머님께 드리고, 이제부터 글 공부를 그만두고 자 기가 할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래, 너는 바로 하늘이 준 자식이다. 그 천제연 폭포에 가서 하늘께 기도를 드려 너를 얻었으니, 너는 마땅히 하늘의 명대로 살아야 하는 거다.”

그로부터 청년은 과거를 보려던 글공부를 그만두고 몸소 착한 일을 찾아 하면서 살기 시작하였다. 남이 싫은 일을 혼자 맡아 하며, 글 모른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고, 어린 아이들을 모아 옳은 행실을 보여주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고 마을 사람들의 사소한 싸움에 끼어들어 화해를 이루어주며, 그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어떤 때는 바보 와 같이, 어떤 때는 성난 말과 같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부지런히 살아나갔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그를 따르게 되었고, 그렇게 되자, 마을에는 차차 아름다운 미풍양 속이 결들여지게 되었다.

제주시 삼도동, 진원일(남) 제보

2. 이천장물 여우귀신

옛날 강정리 ‘드릿동네’에 강씨 형제가 옷집(한라산쪽 집), 알력집(바다쪽 집)에 살고 있 었다. 형제는 아주 건장하고 부자로 살았다.

옷집에 사는 형이 말을 타고 대정고을 현청에 일을 보러 출입을 했다. 대정고을로 출입 하는 길 중간에 ‘이천장물’이 있는데 여기는 가시나무로 꽉 둘러싸여 있었다.

하루는 형이 말을 타고 대정고을로 들어갈 때 ‘이천장물’에 이르자 고운 소복차림의 여

인이 나타나서 졸라대는 것이었다.

“오라버니, 함께 가겠습니다.”

강씨는 여우가 변신한 귀신임을 알았다. 이렇게 자꾸 희롱을 걸자 잡아 죽여야 하겠다고 결심했다.

대정고을에서 일을 마치고 노끈을 허리에 감추고서 돌아오는데 또 고운 여인이 나타나 수작을 부리는 것이었다.

“오라버니, 데려다 주십시오.”

“그렇게 해라, 말을 타라.”

여인이 말을 오르자마자 숨기고 있던 노끈을 풀어 여인의 허리를 묶고는 자신의 몸에 꼭꼭하지 못하게 얹어매었다.

여인은 깜짝 놀라면서도 태연한 척 사정을 했다.

“오라버님, 이 줄을 풀어주십시오.”

“그래, 그래, 조금만 기다려.”

풀어주질 않고 말을 달려 집으로 달려 왔다.

강씨 형 집에는 사나운 사냥개 두마리를 기르고 있었다. 개들이 주인을 맞이하여 달려나오자 묶었던 줄을 풀었다. 이때 개 두 마리가 달려들어 여인을 물어 죽였다. 죽고 난 다음에 살펴 보니 머리에는 백년 묵은 해골을 썼고, 옷을 벗겨 보니 몸은 늙은 황식(고양이)이었다.

강씨 어른이 여우 귀신을 잡아 버리자 ‘이천장물’에는 고운 여인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서귀포시 강정동, 장기방(남) 제보

3. 새당 할망

중문면 강정리 본향당 하르방은 부인을 데리고 살았다. 그런데 본향당 하르방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다.

부인이 임신을 하고 입덧을 하게 되자 돼지고기를 무척이나 먹고 싶어 했다. 하루는 부인이 남편에게 사정애기를 했다.

“입덧으로 돼지고기를 무척이나 먹고 싶습니다.”

남편은 부정한 년이라고 욕을 하며 돼지고기를 사다 주지도 않고 먹지도 못하게 했다. 부인은 무척이나 돼지고기를 먹고 싶어하던 중 통시(변소)에 갔다가 보니 돼지가 있었다. 부인은 즉시 돼지털을 뽑고는 콧구멍에 끼워 불을 붙였다. 돼지고기 냄새라도 맡아 보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다. 남편이 드디어 이 냄새를 맡고는 버럭 화를 내었다.

“부정한 년. 당장 집을 나가라.”

부인은 어쩔 수 없이 본향당을 떠나 집을 나와 ‘새당’이라는 곳에 와서 혼자 살았다 한다. 이러한 전설로 본향당에 갈 때에는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고 가져 가지도 않으나 새당 할망에게 갈 때에는 돼지고기를 먹기도 하고 가져 가기도 한다는 것이다.

서귀포시 강정동, 홍인희(남) 제보

4. 대포리(大浦里) 설촌 이야기

서귀포시 중문동에 속하고 있는 대포(大浦) 마을은 전에는 중문면 대포리라고 불리어졌다.

이 마을에는 먼저 원(元) 씨가 들어와 마을을 이루었다 처음에는 '큰재물'이라고 하는 바닷가 동네에 한 서른남은 호로 마을을 이루었다가 지금의 대포리 지역으로 옮겨와 마을을 이루었다. 마을을 이루었던 원(元)댁은 매우 호사롭게 살았는데 마을 맨 안쪽에 고대광실 큰 기와집을 짓고 살았다. 그 집 이름을 '안집'이라 하였다.

그 집이 얼마나 웅장하였던지 집 처마마다 네 귀에 풍경을 달았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 풍경소리가 온 마을에 들릴 뿐 아니라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걸음까지 멈추게 하였다. 하루는 지나가던 목사가 이 집에 들렀다. 풍경소리에 따라 들어왔는데 집을 보니 사가로서는 너무나 웅장하니 목사가 마음이 뒤뜰릴 정도였다. 당장 집을 헐라고 호령을 하고 싶었으나 이 지역 토호로서 그 세도가 막강한 것을 생각할 때 선불리 그럴 수도 없었다.

“참 집이 훌륭합니다. 혹 이 집에 대한 당호(堂號)라도 있는지요?”

목사는 집이 훌륭함을 감탄하고 나서 은근히 어떤 무엇을 얻어보려고 집의 당호를 물었다. “예, 뭐 보잘 것 없이 초라하여 부끄럽습니다. 선친께서 저희 여덟 형제를 두시어서 팔룡당(八龍堂)이라 불려온 줄 압니다.”

집주인은 아주 공손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하였으나, 마음 속으로는 어떤 오만함이 서려있는 어투였다. 당신이 아무리 목사라고 하지마는 내 재력(財力)을 따르겠느냐는 마음이었다. 그것을 간파하지 못할 목사도 아니다. 더구나 여덟 아들을 두었다 하여 감히 '용(龍)'자를 써서 '팔룡당(八龍堂)' 운운한 것이 괄씸하기 그지 없었다.

“팔룡당이라, 당호 치고는 매우 훌륭합니다만…….”

목사는 말끝을 맺지 아니하고 설레설레 저었다. 집주인이 바짝 긴장을 하였다. 아까는 아무리 오만한 마음으로 의젓하게 말을 하였지마는 목사의 표정을 보니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무슨 말씀이온지, 혹시 잘못이라도 되었으면…….”

주인의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하였음을 눈치챈 목사는 옳다구나 하였다. 그만 하면 내가 능히 저 무엄하게 큰 집에 대하여 목사의 위엄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예, 당호는 훌륭합니다만 일반 백성의 당호로서는 너무 센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혹 그 당호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가문에…….”

말끝은 맺지 아니하고 안타깝다는 얼굴로 집주인을 바라보고는 자리를 뜨려 하였다.

“나으리, 이왕 말씀을 꺼내신 김에 적당한 당호를 하나 마련하여 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주인은 목사의 말을 듣는 중에 불현듯 불안이 엄습하였다. 어떤 액운이 서서히 다가오는 느낌이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용(龍)은 우리 같은 백성들에게는 너무 과분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는 집주인의 얼굴을 이번에는 아주 정면으로 쏘아보듯 하였다. 목사 자신의 신분으로도 그러한 글자를 써서 당호를 지을 수 없다는 말은, 왕이 아니면 그런 당호를 쓸 수 없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고 주인은 갑자기 송구한 마음이 일어 몸둘 바를 모르게 되었다.

“예, 이렇게 하십시오. 용(龍)자를 뱀사(蛇)자로 바꾸십시오.”

목사의 말은 아주 단정적이었다. 이미 주인은 심리적으로 목사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알겠습니다.” 주인은 곧 당호를 팔사당(八蛇堂)이라 바꾸었다.

그런데 목사가 다녀가서 그렇게 집의 당호를 바꾼 지 불과 한 달만에 집안에 굶은 일이 일어나면서 망해가기 시작하였다. 얼마 오래 못가서 그 많은 재력이 축이 나면서 가세가 기울어지더니 결국은 다시 그 옛날의 부를 도모할 수 없게 망하였다고 한다.

서귀포시 하원동, 김택효(남) 제보

5. 힘과 기예가 뛰어난 강씨

대포마을(서귀포시 중문동)은 토지가 다른 마을에 비하여 협소하고, 척박하여 농사가 잘 되지 않아서 가난하게 살아온 마을이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주로 무명을 짜서 그것을 팔로 바꿨다 먹고 살기 위하여 제주 섬안을 누벼 다녀야만 했었다. 바로 그 시절에 이 마을에 어떤 강씨가 무명을 잔뜩 지고, 동네 청년들이 거세다고 소문난 냇기(지금의 성산면 신평리, 신천리와 표선면 하천리) 마을로 들어갔다. 이 골목 저 골목을 누비며 다니다 보니 다리도 피곤했다. 마침 눈 앞에 ‘듭돌’이 있었다. 뚝돌이란 둥그렇고 큰 바윗돌로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길가에 놓아두어서 그 마을 젊은이들이 힘 내기로 항상 들어 힘을 기르는 돌이다. 이것은 큰 것을 동네에 놓아두면 반드시 그것을 들 수 있는 힘센 사람이 난다고 하고, 그것은 동네 힘의 상징물이어서 큰 뚝돌이 놓여 있으면 딴 동네 사람들이 감히 넘보지도 못하는 것이다. 강씨는 바로 그 돌 위에 무명을 진 채로 앉고 말았다. 그때 마침 냇기마을 한청년이 바로 그 앞을 지나고 있었는데, 조용히 지나갈 리가 없었다.

“자네, 어찌 거기에 앉았는가?”

청년은 강씨의 거만한 거동을 보자 홀담기 시작했지만, 강씨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대답했다.

“왜 그렇소? 아, 내가 먼길을 오다보니, 다리가 아프고 해서 좀 쉬자고 여기에 앉았소만...”

“이 돌이 어떤 돌인 줄을 몰라요?”

“난 모르겠소만, 도대체 어떤 돌이요? 난 이 돌이 뭔지 몰라서 앉았소이다만...”

그 돌이 어떤 돌인 지를 강씨가 모를 리가 없었다.

당신, 그 돌을 한번만 들으시오.

“난 이 돌 못들겠소.”

“못 들 테면 당신이 앉았던 자리를 혀로 핥으요.”

“돌을 어떻게 혀로...?”

바로 그때였다 부리부리하게 생긴 동네 청년들이 우르르 몰려들기 시작했다. 강씨의

입장도 난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거 헐로 훔을 수는 없고, 정 그렇다면 이 돌을 좀 들어보지요.”

강씨는 무명 진 채로 그 돌을 선뜻하게 들고서는,

“이것을 어디로 가져다 놓을까요?”

강씨 이 말에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무 말이 없자, 옆에 있는 대밭으로 뺄 내 던져 버렸다. 이 동네에서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겨우 들까 말까 하는 돌인데, 그것을 지켜 보던 청년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모두들 슬금슬금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강씨는 온 종일 행상다니다가 다른 마을로 넘어갈까 했지만, 해도 저물고 해서 냇가마 윗에 있는 방 한 칸을 빌어 투숙하기로 마음먹었다. 예전처럼 저녁 식사를 끝내고 곧 잠 자리에 들까 하는 찰나였다. 동네 청년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방 가득 들어앉아 자기네들 끼리만 말을 주고 받기 시작했다. 이 모두가 강씨를 골려 줄 계책임에는 틀림없는 처사였다.

“우리 이 저녁에 그대로 심심하게 있을 게 아니라 무슨 내기를 해서 술먹기로 하는 게 어떤가?”

우락부락하게 생긴 한 청년의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강씨를 제외한 모든 청년들이 이 말에 응수했다. “거 좋지!”

“무엇으로 내기를 할까?”

“통소 불기 내기 하자, 못 부는 사람이 술을 내기로.”

“참 좋다.”

계책대로 착착 진행되어가는 판이었다. 동네 청년들이 통소를 불기로 내기한 까닭은 강씨가 언청이었기 때문이었다. 바로 그것을 노린 것이었다.

강씨는 우두커니 방구석에 앉아 있으면서 쳐다볼 뿐이었다. 한 사람씩 앉은 순서대로 통 소를 불어 나갔다. 순서대로 한다면 강씨는 맨 나중에 불 판이었다. 제각기 제법들 불어 나갔다. 소리의 고비를 겪어가며 조용히 불어나갔다. 어느덧 강씨 앞에 통소가 턱 놓였다.

“당신도 불어 보시오.”

우락부락하게 생긴 바로 그 청년의 말이었다.

“난 통소 못봅니다.”

“불어보라면 불어보시오. 뭐 그리 잔말이 많소?”

“그래도 난 불지 못해요.”

“못 불겠거든 술 내시오.”

강씨는 입장이 난감했다. 이러나저러나 통소를 불지 않을 경우에는 무슨 소란이 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 하는 수 없이 불기로 작심했다. 입술에 찢긴 부분을 무엇으로라도 막아야 할 판이었다. 강씨는 소피를 보고 와서 통소를 불겠다고 말해두고 밖으로 열린 나왔다. 마침 그 집 변소로 가는 길에 호박잎이 보였다. 그것을 열린 뜯어내어 방으로 들어갔다. 찢긴 입술에 호박잎 조각을 톱 붙이고는 통소를 입에 물고는 불어나가기 시작했다.

‘부우 - 우, 응...’

한숨에 열두 고비를 꺾었던 것이다. 통소를 땅바닥으로 통 내려 놓는 순간, 모든 청년들의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다.

“아이고, 선생님 어디 사십니까?”

“나, 대포 마을에 살아요.”

“당신 그런 힘에 그런 재주를 갖고 여기에 뭐 하러 오셨습니까?”

“아, 이 무명을 지고 와서 양식이나 바꿔다 먹고 살려고 왔소.”

“아, 그렇습니까. 선생님 내일 아침에 우리가 전부 나서서 이 무명을 쌀로 바꿔드리겠으니, 여기 가만히 계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이곳으로 올 때는 꼭 우리들을 찾아 주십시오. 선생님께서 모시겠습니다.”

이튿날, 강씨는 냇기마을 청년들이 모두 나서서 바꿔 준 쌀을 잔뜩 지고 텔레텔레 집으로 왔다.

서귀포시 중문동, 김재현(남) 제보

6. 김명헌(金命獻) 참판

옛날 중문리에 김명헌(金命獻)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벼슬에 뜻을 두고 부지런히 공부를 하여 여러 번 과거를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과거를 보는 족족 낙방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꼭 과거에 급제하려고 계속 공부를 하였고 과거에도 계속 응시하였다. 그래서 그가 아홉 번 낙방을 하고 열 번째 응시하려 할 때는 벌써 그의 나이 여든한 살이 되었다.

팔십 노인이 된 김명헌은 새파란 젊은이들과 같이 과거장에서 시험을 보게 되었다.

새삼스럽게 자기가 지내온 일생을 생각하니 감개가 한량 없었다. 그러나 후회되거나 한스럽거나 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과시(科試)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여서 주어진 시제(詩題)에 따라 시를 지은 후에 덧붙여서 자기의 일생의 처지를 시로 엮어 썼다. 그 중에 한 줄이 바로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나이 이미 81세인데, 그 동안에 낙방만 아홉 번이라’는 내용이었다. 이 시를 받아든 상시관이 즉각 이 글을 자기의 자리 밑에 몰래 숨겨두었다. 그 상시관은 생각하기를 이런 글 재주였으면 지금까지 낙방할 리가 없는데 이는 필시 어떤 연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한 내막을 그 상시관은 은근히 알고 있었기에 그 글을 몰래 숨겨두었던 것이다.

사실 김명헌은 매년 과거 때마다 합격할 만한 시를 지어 내었다. 그러나 그 시첩이 마지막 상시관까지 가는 사이에 이름이 바뀌어져서 다른 사람의 글이 되는 바람에 급제를 빼앗겼던 것이다. 당시 과거를 돈 주고 사던 그 시대에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상시관은 그런 사정을 어렴풋이나마 느꼈기 때문에 즉석에서 그의 이름을 적고 이어 그를 합격시키려 하였다.

김명헌은 그 길로 집에 돌아와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다. 과거에는 급제를 하였으나 벼슬은 얻질 못하고 그냥 병석에 눕게 되었다. 병은 점점 더하여져서 뒷해에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관을 짜고 막 입관을 하려할 때에 먼 문밖에서부터 관원의 행차 기척이 났다. 참판의 관직을 갖고 온 대정현감이었다. 과거에 급제하였다고 당장 판관이 되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에게는 특별히 그런 높은 관직을 임금께서 직접 내린 것이다. 그

가 그동안 썩은 과거제도의 운영에 따라 희생된 것을 감찰하고 내리신 것이었다.

관원이 영전(靈前)에 분향을 하고 그 교지를 관 위에 올려놓자 관이 파르르 떨면서 그 교지가 방바닥에 떨어졌다.

그 후에 사람들은 김명헌에 대하여 비록 판서일은 말아보지 않았으나 참판의 교지를 받았기에 김명헌 참판이라고 불려왔다.

서귀포시 중문동, 고영홍(남) 제보.

7. 날개 돋은 아기장수

아주 오랜 옛날 일이다. 강정 김택(金宅)에서 있었던 일이다.

젊은 부부가 아기를 낳았는데 보니까 쌍둥이였다. 집이 가난하여서 부부는 아이들을 놔두고 밭일을 가곤 하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종종 벌어졌다. 부인이 와서 보면 두 애가 눕혀진 채로 있는 게 아니었다. 쌍둥이지마는 그 어머니는 눕혀 놓을 때 그 차례를 다 살펴서 눕히는데 돌아와 보면 서로 엇갈리곤 하였다.

아기 어머니는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하루는 몰래 숨어서 아기들이 노는 것을 살피었다. 밖으로 일하러 나가는 척하고는 문 앞에 숨어서 방안을 창틈으로 들여다 보았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아기 구덕에 눕혀논 아이들이 푸드득 푸드득 날아 천장에도 붙고 벽장에도 붙고 하면서 노는 것이 아닌가. 아기 어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것은 큰일이었다.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았다는 건 바로 역적이 될 인물이란 것이 아닌가.

한참이나 그렇게 방안을 들여다보다가 그만 자신도 모르게 헛기침을 하였다. 그러자 아기들은 후다닥 구덕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는 가운데 서로 엇갈려 눕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날 저녁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온 그 남편에게 그런 사실을 말하였다.

“역적이 나면 우리 가족은 물론 일가친척까지 모두 몰살을 당할 판인데 이 일을 어찌

면 좋아요?”

남편은 묵묵부답이었다. 어떡하면 되느냐는 해결책이 남편에게인들 있을 수가 없다. 한참만에야,

“할 수 없지 않소? 세상 법이 그러니 할 수 없지요. 우리 손으로 그 자식을 죽일 수밖에 별 도리가 있겠습니까?”하고 말했다.

“자식을 어떻게 우리 손으로 죽인단 말이오? 나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겠소.”

어머니는 완강하게 반대하였다. 차라리 자식들과 함께 죽는 게 낫다 하였다. 곰곰히 생각하던 남편이 말했다.

“이 일은 아버님 묘소 때문인지 모릅니다. 그 산혈이 아마 장군대좌형(將軍對坐形)이란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 손으로 자식들을 죽이기보다는 그 산을 이장하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래서 날을 정하여 이장을 하기로 하였다.

산을 파서 막 씌어빠진 개판들을 막 헤집어내려 할 때였다. 그 관속에서 큰 황새가 막 날려고 뒷발을 일으키고 날개를 벌려 있다가 쿵 꼬꾸라져 죽어버렸다. 어떻든 그렇게 된 후에 아버지 시신을 차려 이장을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그 아이들은 벌써 죽어 있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바로 그 아이들은 장수가 될 뻔하였다.

서귀포시 하원동, 김택효(남) 제보

8. 변 당장과 그 아들

옛날 중문에 변 당장이란 사람이 살았었다. 집안이 가난하여 별로 글을 읽지도 못하였고 겨우 근근히 생환을 꾸려 가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그는 항상 마음으로는 남과 같이 글도 읽고 큰 밭에서 농사도 지어 배고프지 않고 살기를 항상 소원하였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하여 부지런히 일을 하였다. 그래서 돈이 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하였다. 그러자 어느만큼 돈을 모을 수가 있었다. 그는 그 돈으로 어디 자그마한 밭이라도 사서 제 밭에서 농사를 짓고 싶었다.

그러던 차에 중문 옆 마을인 예레 하동에 밭 팔 것이 나왔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마침 찾아가보니 그는 별로 넉넉한 처지가 아니고 또한 신분이 낮은 사람이었다. 그들은 흥정을 하였다. 그러나 문서를 꾸밀 수가 없었다. 변 당장이나 밭을 판 그사람이나 모두 글을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하여튼 흥정이고 또 돈을 주고 받은 이상 문서 때문에 일이 잘못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문서는 그에게 맡겨 버렸다. 결국 그는 시골 인심에 밭을 보지도 않고 흥정을 마쳤다.

뒷날 그는 밭문서를 만들어 왔었다. 문서에 보면, “동은 족다리, 서도 족다리, 북은 뱃도롱동산, 남은 허구대양.” 이렇게 밭의 위치를 정하여 문서를 만들어 왔다. 변 당장은 생각하기를 꽤나 큰 밭이라고 생각하였다. 족다리란 지명도 다 아는 곳이니, 어디 그 지경에서부터 바닷가에 이르는 너른 땅이라고 생각하였다. 단지 뱃도롱동산이라는 데는 처음 듣는 곳이었으나 그게 대수이겠느냐고 생각하였다.

“그러면 내 산 논을 가봅시다.”

변 당장은 문서를 받으면서 직접 밭을 가보자고 하였다.

“봐서는 무얼 하겠습니까. 내년 밭 갈 때 쯤에 가보지요.”

듣고 보니 그럴 것도 같았다. 바쁜데 가고 오고 번잡스러울 것 같아서 그러기로 하였다.

뒷해 봄이 돌아왔다. 변 당장은 쟁기를 지고 소를 몰아 그 집으로 갔다. 마당에 들어서자, 그 부인이 쪼르르 내달아 나오더니,

“밭 갈러 오셨습니까. 주인은 잠깐 나갔으니 들어와 좀 기다리십시오.”

여자는 아주 상냥하게 변 당장을 안으로 안내하고는 급히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변 당장은 그저 아무 생각없이 벽에 비스듬히 기대어 잠시 쉬고 있었다. 그때 여자가 술상을 차리고 들어왔다. 이상하게 생각한 변 당장은,

“이거 어떤 일어요? 아니 술은 무슨 술입니까?”

“아니 그 발을 흥정하였는데 술 한 잔 아니하고 되겠습니까?”

여자는 아주 익숙하게 술을 따라 건네는 것이었다. 변 당장은 마음이 꺼림직하였으나 그렇다고 그렇게 싫은 것도 아니어서 몇 잔을 들이켰다. 그래서 취기가 점점 올라갈 때였다. 갑자기 여자가 옷을 활활 벗더니 말릴 틈도 없이 그 옆에 벌렁 눕는 것이 아닌가.

“이거 어떤 일어요?”

변 당장은 기겁을 하며 말했다.

“아니, 왜 놀라십니까. 발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 문서를 좀 보십시오. 사신 발이 바로 여기가 아닙니까.”

여자는 손으로 자기 사타구니를 가리키며, 샀으니 어서 마음대로 하라는 얼굴이었다. 그 순간 문서에 명기된 그 발을 생각하였다. “동으로 족다리, 서로 족다리, 북은 뱃도롱 동산, 아래로는 허구대양……” 그것은 틀림없는 그 여자의 그 곳임에 틀림이 없었다.

변 당장은, “이거 속았구나”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르고 속았으니 분해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대로 소를 끌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

그로부터 그는 자기가 글을 읽지 못한 것을 통한히 여기면서 그 아픔을 아들에게는 물려 주지 말자고 결심을 하였다. 그래서 어려운 살림에서도 아들에게만은 열심으로 글을 읽게 하였다. 그래서 후에 그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였다. 그 아들이 만경 군수가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일화들이 전하는데 그 중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그가 만경 군수로 부임하여 얼마 없어 범씨 모종을 낼 때가 되었다. 그런데 어떻게나 가뭄이 심했던지 모판에 물이 말라 범씨를 뿌릴 수 없게 되었다. 아무리 비를 기다려도 비는 내리질 않았다. 정말 큰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생각하던 군수는 제주에서 하던 방법을 생각하였다. 그래서 영을 내렸다. ‘벤줄래’라는 따비를 만들라고. 사람들은 들으려 안 했다. 그런 걸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고 코웃음을 쳤다. 그러나 원의 영이라 그러한 보습을 만들어 내었다. 이번에는 그러한 보습으

로 눈을 갈도록 하였고 거기에 볍씨를 뿌리도록 하였다. 사람들은 믿질 않았으나 이미 망쳐논 농사이니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마지 못해 따라 했다. 그러자 그런 중에서도 볍씨는 싹이 트고 자랐다 물이 웬만큼 모자라도 자랄 수 있는 방법이었다.

얼마 없어 비가 내렸다. 다행히 그해 논농사는 그러한 방법으로 할 수 있었다.

논의 소출도 여전했다. 그후부터 그 ‘벤줄래’라는 따비가 종종 쓰여졌고, 그것을 만들 어낸 변 군수의 공덕을 칭송하곤 하였다.

서귀포시 중문동, 고영홍(남) 제보

9. 무우남밭 이 좌수(I)

옛날 중문 ‘무우남밭’에 힘이 장사이고 학식이 있었던 이 좌수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제주 삼읍에서 손꼽는 영웅이었다. 특히 그는 눈 정기가 날카롭기로 소문이 나 있었다. 한번 눈을 번쩍 뜨면 마당에서 놀던 닭들이 핑핑 넘어질 정도였다.

그는 대정고를 좌수로서 늘 중문에서 말을 타고 나들었다. 어느 날 밤이었다. 마침 일이 늦어 밤이 이슬해서야 이 좌수는 말을 몰아 중문으로 오고 있었다. 밝은 달이 몇 잔 마신 술의 취기를 알맞게 돈귀 주므로 흥겹게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말을 달렸다. 그렇게 얼마를 가는데 길가에 어떤 여인이 나타나서는, 갈 길이 멀고 다리는 아프고 하니 말에 같이 타서 갈 수 없느냐고 하였다. 보아하니 아름다운 처녀이고 기분도 그렇지 않고 해서 꽤히 응낙하였다. 그래서 그의 뒤에 타도록 하고는 늘 비상용으로 갖고 다니는 오랏줄로 떨어지지 않게 자기 몸에 묶었다. 그리고 더 신이 나서 말을 달렸다.

한참 말을 달리다 생각을 하니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여우인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자 마음을 더 단단히 먹었다. 그리고는 여자와 자기 몸을 묶었던 오랏줄을 바짝 조이었다.

집이 점점 가까와 가자, 그 여자는 이제 그만 내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좌수는 말을 들어 주질 않았다. 등 뒤에서 여자가 내려 달라고 보채기 시작하였다. 그럴수록 이

좌수는 더 말을 빨리 달렸다. 이제야 여자는 이 남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란 걸 눈치채고는 그의 등을 손톱으로 마구 할퀴면서 내리려고 발버둥을 쳤다. 그러나 이 좌수가 그 여자를 내려줄 리 없었다.

그럭저럭 이 좌수네 집에까지 이르렀다. 그때 이 좌수네 집에는 큰 개 두 마리를 기르고 있었다. 개들이 주인의 말발굽 소리를 알아보고 나왔다. 이 좌수는 오랏줄을 풀고는 그 여자를 잡아 마당으로 획 내던졌다. 개가 사람과 여우를 알아보고 달려들어 콧물었다. 그 순간 곱게 보였던 여자는 간데 없고 마당 가운데 큰 여우한 마리가 개에 물린 채 피를 흘리며 죽어 있었다.

이 좌수의 눈정기는 하도 유명하였다. 그때는 제주 목사가 도임을 하면 꼭 제주 삼읍을 시찰하였다. 이런 일이 행해질 때면 그에 따른 백성들의 어려움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소위 순력에 따른 여러 시종들을 백성들이 잘 받들어야 하였고, 그에 따른 민폐와 관리들의 행패도 심하였다. 이 좌수는 비록 좌수일을 보는 입장이었지만 이런 일에 따른 민폐는 영 마음에 불만으로 남아 있었다.

목사가 도입하여 첫 순력이 시작되었다. 대정 지역에 속하였던 중문 동편 서귀포 경계에서부터 목사를 모셔서 와야 할 형편이었다. 이 좌수는 다른 관리들과 같이 정의 고을과 대정 고을 경계에서 목사 맞을 채비를 하고 기다렸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목사가 순력하는 동안 민폐를 덜 끼치고 돌아가게 할까 생각하였다.

목사가 이르자 대기했던 대정 관아의 관리들이 모두 내달아 정성을 다하여 맞아들였다. 목사의 위엄도 대단하였고, 그보다는 그를 안내하여 같이 온 시종들의 거만한 태도가 더욱 마음에 거슬렸다. 이 좌수는 그냥 한편에 비켜서서는 눈은 가만히 감고 있었다. 모든 관리들이 나아가 고개를 숙여 공손하게 예를 표하면서 원로에 수고로움을 말하였다. 그러나 이 좌수는 여전히 구석지에서 서서 목사에게 가벼운 목례만 보낼 뿐이었다. 그러는 그에 대하여 누구도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 어쩌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전에도 그가 목사가 순력할 때 그 눈 때문에 목사가 곤혹을 치렀던 때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발 이 좌수가 저렇게 한편 구석에서 있어주기만을 바랐다. 그런데 일이 이상하게 되었다.

“저기 서 있는 자는 누구고?”

목사가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자기에게 아무 관심도 보내지 않고 서 있는 자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예, 그 자는 대정 고을 좌수이옵니다.”

아전이 가슴이 뜨끔하면서도 거짓말을 할 수 없어 사실대로 이 좌수를 소개하였다.

“좌수는 어찌 눈을 그렇게 감고서 나를 한번도 바라보지 않는고.”

목사는 마음이 꽤나 언짢았으나 직접 내색을 할 수는 없고 해서 그래도 빼있는 말을 하였다. 주위에 있는 시종들이 뭐라고 대신 변명을 하여야 할 텐데 그 말이 얼른 생각나지 않아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이 좌수는 그래도 못들은 척 고개를 약간 옆으로 돌리고는 목사를 바라보지 않고 있었다.

“좌수는 목사의 말이 들리지 않는 거요?”

목사가 약간 큰소리로 다시 말했다. 그것은 핀잔의 소리였다.

이 좌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로 천천히 목사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똑바로 목사를 바라보고 눈을 떴다. 그 눈에서 불이 번쩍하였다. 목사는 순간 눈 앞에 큰호랑이 부릅뜬 눈을 대하는 착각에 정신이 아찔하였다. 다시 정신을 수습하여 앞을 내다보니 그것은 바로 앞에 서 있는 이 좌수의 눈에서 내쏘여지는 눈정기였다.

순간 목사의 가슴이 뜨끔하였다. '아 이 인물 보통치는 아니구나.' 목사는 고개를 돌렸다. 그래도 위엄은 잃지 않으려 하면서. 그러나 이 좌수의 불꽃 같은 눈정기는 여전히 목사의 얼굴에 퍼부어지고 있었다.

“목사 나리, 대정 고을 이 좌수 문안 드립니다. 원로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좌수의 목소리는 우렁우렁하니 들을 찌렁찌렁 울렸다.

“이 좌수, 내 노독으로 심신이 피로하니 그 눈을 좀 감고 나를 대해 주시오. 눈이 하도 부셔서 어지러워요.”

목사는 손을 내저으면서 말했다. 그러나 이 좌수는 짐짓 눈을 부릅뜬 채 그대로 목사를 바라봤다.

“이 좌수, 어서 눈을 좀 자그만치 뜨고 나를 보시오. 내가 어지러워서 그래요.”

목사는 애걸하다시피 말했다. 속으로는 이 좌수란 사람 보통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이 좌수는 그제야 눈을 스르르 감으면서 자리를 피했다. 목사는 겨우 정신을 차리

고는 시종들에게 어서 이 고을을 대강대강 순력하고 어서 떠나자고 하였다. 이 좌수의 그 눈정기 덕분에 목사 순력이 무사하게 마쳐졌다.

이 좌수는 자기가 죽는 날까지 미리 알아 맞췄다고 하며, 죽은 친구의 혼령과 만나고 그 원을 들어 풀어 줬다고 한다.

이 좌수는 대포리 현 형방과는 막역한 친구 사이였다. 그런데 현 형방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 어느 날 밤이었다. 이 좌수는 잠결에 들려오는 말방울 소리를 어렴풋이 들었다. 꿈인 것도 같고 생사인 것도 같았다. 더구나 그 말방울 소리는 현 형방이 살았을 때 그 말방울 소리였다.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담배를 한 대 피워 물었다.

“이 좌수 자는가?”

아니나 다를까. 밖에서 이 좌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것은 바로 현 형방의 목 소리였다.

“거 누군가?”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현 형방이 말에서 내려 들려오고 있었다.

“아니, 이거 어쩐 일이요.”

이 좌수는 그를 방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는 길이 바쁘니 어서 가야겠다고 하면서 찾아온 사연을 말하였다.

오늘이 바로 제삿날인데 집에 와보니 제사를 받을 마음이 없어서 간다는 것이었다.

“무슨 사연인지 좀 소상하게 말해 주게. 그래야 내가 어떻게 할 것이 아닌가.”

“메밥에 구렁이가 들어있고 자식놈들의 정성이 부족하니 내가 마음만 상하여 그냥 가는 것이네.”

그러고는 현 형방은 말방울 소리를 울리면서 돌아가 버렸다. 이 좌수는 곰곰이 생각하니 이상하였으나 어쩌면 모든 게 사실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다음날 이 좌수는 대포리에 사는 현 형방네 큰 아들을 집으로 불러 들었다.

“어제 저녁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좌수는 현 형방의 큰아들이 오자 무슨 사연을 알고자 물었다.

“예, 자그만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저녁은 바로 돌아가신 아버님 제삿날인데 그만

어린 아들놈이 탕국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 바람에 제사고 뭐고 약간 소란이 있었습
니다.”

곰곰히 모든 내력을 듣던 이 좌수,

“그럼 그 메밥을 가서 보게, 혹 부정한 거라도 있는 게 아닌가.”

현 형방 아들은 이 좌수가 이르는 대로 급히 집으로 달려가 엿저녁 메밥 남은 것을 조
사하여 보았다. 그 밥 속에는 여자의 긴 머리카락이 있었다. 아들은 그런 사실을 곧 이
좌수에게 알렸다. 이 좌수는 엿저녁 현 형방과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그 아
들은 자기네의 정성이 부족했음을 깨달았다.

그 다음해였다. 밤중에 다시 현 형방이 그 말방울 소리를 내며 찾아왔다.

“자네 덕분에 금년에는 정성스런 제사를 받고 가네.”

진정 고마운 말을 전하려 왔다고 하면서 돌아가려 하였다.

“현 형방, 자네 지금 저승에서 왔으니 내가 저승으로 갈 날이 언제인지를 자네도 알
수 있을 것 아닌가. 그것 좀 알려 주게”

“그것만은 알려줄 수가 없네.”

“그래도 친구 사이 아닌가. 또 그 일만은 내가 절대로 비밀로 지켜 나만 알고 있겠네.”

간곡하게 몇 번이고 사정하는 바람에 현 형방은 그 사실을 알려 주었다. 그래도 이 좌
수는 그 날을 자신만 알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바로 그날이 왔다. 며칠 동안 병석에 누워 있던 이 좌수는 살아 계신 어머니 앞에 의
관을 정제하고 나아가 마지막 하직 인사를 드리고 곧 종명하였다.

또 이런 일도 있었다. 그 당시 제주섬에는 13개의 목장이 있었다. 여기에서는 나라에
서 쓸 말들을 기르고 있었다. 당시 목장은 상·하장으로 나누어 한 해씩 돌아가며 상·
하장에서 방목을 하였다. 해마다 말이 방목하지 않는 목장은 그 주위에 사는 백성들에
게 농사짓게 하여 땅값을 세곡으로 받아들이었다. 그런데 그 세곡이 너무 많아서 사실
백성들의 노동력만 착취하는 것이 되곤 하였다. 어쩌다 흉년이 들면 소출은커녕 세곡
바칠 곡식도 거둬들이지 못하여 관가에 빚을 지는 경우도 흔하였다. 더구나 이를 빙자
하여 관리들의 횡포가 심하였다. 목사가 이런 일에 마음을 쓰지 않을 것 같으면 아래 관
리들의 횡포는 말이 아니었다.

어느 해 팔월이었다. 이때 쯤이면 곡식들이 어느 정도 여물어 그 소출을 점칠 수 있을 때이다. 그해에는 농사가 괜찮게 되었다. 관리들은 사포를 속여 백성들의 곡식을 굶어낼 일을 생각하였다.

“목사 나으리, 시절은 좋은데 큰 일이 있습니다.”

어느날 이방이 목사 앞에 나아가 음흉한 계책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무슨 일인가?”

“목장이 가물어 목초가 자라지 않기 때문에 상장에 있는 말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가물었던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종단 말이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국마를 죽여서야 그 책임을 어떻게 면하겠습니까. 하장을 혈어 백성들이 농사짓는 데서 얼마 동안 먹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들이 농사짓는 하장을 혈어서……?”

목사로서는 얼른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이었지만 국마가 죽어간다는 데는 어쩔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 목사의 결재를 받고 각 고을에 공문을 띄웠다. 하장을 혈어 그 곳에서 상장의 말들을 먹이라고, 각 고을에서는 야단이었다. 피둥피둥 살찐 말들을 놓고 굶어 죽는다고 목사를 속여 백성들이 곡식을 굶어내려는 관리들의 검은 마음을 모를 리가 없었다. 이렇게 되면 돈이나 곡식을 모아서 갖다 바쳐야 했던 일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대정 원도 이 공문을 받고 걱정이 말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 좌수가,

“이 일은 제가 알아서 다 처리할 테니 걱정을 마십시오.”하고 현감을 안심시켰다. 그리고는 하장을 혈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래도 현감의 마음은 답답하였다.

이 좌수는 걱정하는 현감이 따분하여서 직접 목사를 찾아갔다. 그리고 눈을 감은 채 옆디어 사정을 말하였다.

“사포 나으리, 지금 국축(國畜)들은 살이 피둥피둥 찌 있는데 하장을 혈어 백성들이 피땀 흘려 지어논 곡식을 먹이는 일은 부당한 일입니다.”

목사는 대정 좌수의 이러한 진정이 괄씸하였다. 영을 내렸으면 이행할 일이지 무엄하다고 생각하였다.

“좌수는 왜 그런 일에 그렇게 마음을 쓰시오, 어서 물러가 다른 공사에 임하도록 하시오.”

목사는 한마디로 물리치려 하였다. 아무래도 안되겠다고 생각한 이 좌수는 고개를 번쩍 들고 눈을 부릅떠 목사를 쏘아보며 말했다.

“사또, 가서 보십시오. 국마가 굶어죽고 있나. 백성들이 굶어죽고 있나.”

목사는 우렁우렁한 이 좌수의 목소리에도 놀랐으나, 그 부릅뜬 눈을 보고는 정신이 아찔하여서는, “이 좌수, 눈을 조금 감고 이야기를 하시오. 좀 고정하고……”

이 좌수는 결국 하장을 헐지 않을 것을 다짐받고 돌아왔다.

서귀포시 중문동, 고영흥(남) 제보

10. 무우남밭 이 좌수(Ⅱ)

서귀포시 중문동(무우남밭)이란 동네에 이 좌수라는 양반이 살았다. 이 양반의 눈에 는 눈동자가 둘씩이라 눈정기가 아주 빛나서 번개눈이라 했다.

이 좌수는 나중에 훈장까지 지내다가 죽었지마는, 그 아버지가 여든 살에 새 장가 들어서 난 아들이다.

이 좌수 부친이 자식이 없어 양자를 데려서 사는데, 그 양자의 나이도 예순 살이었다. 하루는 이 좌수 부친이 양아들을 불렀다.

“아들, 거기 있느냐?”

“예.”

“너, 이리 오너라.” “어떤 일로 아버님이 저를 부릅니까?”

부친이 조용히 말하기를 “색달리 군항터에 열일곱 살 난 처녀집에 가서 그 딸을 구해 오라. 내 장가 들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옛날에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하면 불효자라고 해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동네를 돌리면서 창피하게 만들어 마음 놓고 살지 못하게 했었다. 양아들이 “예!”하고

우선 대답을 했지만 ‘안거리’에 돌아와 생각을 해보니 어이가 없는 노릇이었다.

아, 아버지가 나이 여든인데 장가를 들겠다니.

양아들은 하는 수 없이 한탄하며 드그락거리며 군항터엘 찾아갔다.

군항터에 사는 열일곱 처녀의 부친은 임씨로 국마(國馬)를 지키는 목자(牧子)로 상놈에 속하는 신분이었다. 그런 까닭에 임씨는 양아들을 정중히 맞아들이는 것이었다.

“아, 이 죄수님. 어떻게 해서 이런 누추한 집에 오십디가?(오셨습니까?)”

양아들은 늙은 아버지의 작은부인으로 그집 딸을 구하러 오지 않았더라면 그저 다니러 왔노라고 할 것인데, 딸을 구하러 온 까닭에 상놈이지만 공손히 예도를 갖추어 답례 인사를 했다.

“죄수님, 안으로 드십시오.”

“아니, 괜찮습니다.”

양아들이 임씨와 방에 앉아 있을 때 임씨의 부인이 메밀 칼 국수를 한 사발 대접하였다. 대접을 받고 난 후에도 양아들은 입을 실룩거리며 뭐라고 말을 하려다 멈추고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차마 여든 살된 할아버지가 장가가려고 딸을 구하러 왔다고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양아들이 머뭇거리자 임씨가 먼저 말을 꺼냈다.

“죄수님, 오신 말씀을 험서(하세요).”

“이 말을 해서 좋을지 말아야 좋을지 몰라서 못 하겠네”

“사정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못할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금년 아버님 나이가 팔십인데, 댁에 계신 열일곱 살 난 딸을 구해오면 장가를 가겠다고 해서 찾아오긴 왔습니다만 차마 말을 하기가 민망합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말이었다. 그때 임씨 딸이 작은 방에서 손님과 하는 말을 듣고 있다가 문을 열고 나와서는

“그 할아버지의 오줌을 가서 받아오십서(오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었다”

중문과 색달 사이는 거리가 그리 멀지 않다. 양아들은 할아버지의 오줌을 받아오라는

말을 듣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님, 방에 계십니까?”

“여기 있다. 어떻게 하겠다고 하더냐”

“그 처녀가 아버님 소변 본 것을 받아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당시 양반집에는 방안에 조그만 요강을 놓고는 오줌을 눈 다음 뚜껑을 덮어 두곤 했었다.

양아들은 부친이 오줌을 누어둔 요강지를 보자기에 싸서 다시 색달 처녀네 집으로 갔다.

“가서 소변 받아 왔습니다.”

보자기에 쌓인 요강을 드리자, 그 처녀는 보자기를 풀고 뚜껑을 열어봤다.

“아들 하나 낳겠습니다. 아버지, 허흔허십서(하세요).”

임씨는 허흔하라는 딸의 말에 아니 할 수가 없었다. 이제는 이 좌수 댁에 택일을 했는데, 그 때가 시월 보름 가을이었다. 택일한 날을 색달리에 전하고, 그 날은 할아버지 혼자 예복을 차려입고 하인들만 데리고 가서는 암창개(신랑이 신부집에 들어가지 않고 신부가 신랑댁으로 시집오는 혼례의 한 형태)로 그 처녀를 모셔왔다.

그 처녀는 워낙 영리했다. 식을 올리고 난 후 얼마 없어 그 할아버지가 부인의 배 위에서 죽고 말았다. 작은부인이 양아들을 불러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은공 잘 갚고 곱게 장사지내라”고 지시했다. 장사를 지내고 난 후부터 작은 부인에게 태기가 있어 배가 부르기 시작했다.

아들을 낳았는데, 눈을 뜨지 않고 가만히 감고만 있었다. 부인은 이거, 혹시 봉사가 되려는가 하고 냉가슴을 앓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기는 사람이 없을 때는 눈을 떠서 주위를 살피고, 사람이 곁에 있을 때는 눈을 뜨지 않았다. 이 아기가 바로 훈장을 지낸 이 좌수이다.

유복자이지만 귀여움을 받으며 자랐다. 다섯 살이 되자 서당에 글 공부를 보냈다. 원래 영리한 까닭에 얼마 배우지 않아도 모두 통달했다.

이 좌수가 성장하면서 눈정기는 매우 세어져 갔다.

하루는 멍석을 마당에 펴고 보리를 말리는데, 닭이 모여들어 보리를 마구 쪼아 먹었다. 그래도 이 좌수는 닭을 내쫓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부인이

“어째서 닭이 보리를 마구 쪼아 먹는데 쫓지를 않느냐?”고 야단을 쳤다.

“여보, 닭고기 먹고 싶은가?”

“닭고기 먹고 싶은 안 먹고 싶은 간에 닭을 내쫓아야 할 게 아닙니까?”

이 좌수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닭고기 먹게 되었구나”하면서 일어서서 “후-”하고 소리를 치며 눈을 반쯤 뜨자 닭들이 납작하게 엎드린 채 모두 죽는 것이었다. 개도 달려들면 “이놈의 개”하고 눈을 반쯤 뜨면 죽곤 했다. 이 좌수의 눈정기가 아주 세었기 때문에 개나 닭 정도는 눈을 반만 떠도 바짝 겁에 질려 죽는 것이었다.

그런데 마침 제주목사로 눈정기가 뛰어날 정도로 센 양반이 부임을 했다. 대정원에 눈정기가 센 이 좌수가 있다는 소문을 들은 목사는 이 좌수와 눈싸움을 해보기로 마음 먹었다. 그리고는, 대정원 이 좌수를 찾아와서 “나하고 눈싸움 한번 해보자”고 청했다.

이 좌수는 이에 자신을 갖고 “그렇다면 무엇이든 내기를 해야 합니다. 눈싸움을 재미 없이 그냥 할 수 있습니까?”하고 제의를 했다. 목사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승낙을 하고서 황소 한 마리와 술 열 통에 돼지 세 마리를 내기로 걸고 드디어 눈싸움이 벌어졌다.

이 좌수가 먼저 말했다.

“목사님, 어서 눈을 뜨십시오.”목사는 있는 힘을 다해 눈을 동그랗게 떴다.

“다 떴습니까?”

“음, 나는 이 정도 뿐이다.”

“눈정기가 그것뿐입니까? 나도 눈 좀 뜨겠습니다.”

이 좌수가 목사를 바라보며 눈을 반쯤 떠가자 목사는 손을 내저으며 “아서, 아서라”고 손을 내저으며 그만 뜨도록 했다. 이 좌수가 눈을 떠가자 바로 호랑이가 눈을 뜨고 달려드는 것 같아 목사는 몸이 오싹함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아서, 아서라. 그만 프라.”

“목사님 눈정기가 그리 세지 않습니다.”

목사는 “이 좌수가 한양에 태어났더라면 어영대장을 할 만한데 아쉽다”고 말하며 자신의 눈정기가 약함을 한탄했다 한다.

이 좌수가 좌수 벼슬을 얻어 대정 현청에 출입할 때의 일이다. 대정현으로 가는 길에 산방산 근처에 ‘굿물’이라는 우물이 있고, 그 우물을 조금 지나면 길 양쪽에 콧(뜸불이 우거진 들)이 있다. 그 ‘굿물’은 구제중생(救濟衆生)한 물이라고한다.

이 좌수가 대정 현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갈 때면 이곳에 여우가 고운 여인으로 둔갑해서 희룡을 걸었다. “좌수님, 저의 집에 들러 놀다 가십서(가세요)”하면서 자꾸 따라오곤 했다. 이 좌수는 밤마다 여인이 나타나 희룡을 해도 들은 체도 안 하고 왕래를 했다.

하루는 ‘여우놈을 잡아야지. 안 잡고 놔 뒀다가는 후대에 가도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라 생각한 이 좌수는 여우귀신을 잡을 궁리를 했다. 여우가 공격할 것에 대비해서 가시나무 판조각을 등에 맞게 잘라 붙이고, 옷은 개가죽으로 만든 두루마기를 차려입고 긴 췌얏배(소의 머리를 걸러 잡아매여 쓰는 줄)를 준비하였다.

여느 때나 마찬가지로 대정현에서 일을 마치고, 해가 저물 무렵 이 좌수가 돌아오는 데 역시 여우가 둔갑해서 나타났다.

“좌수님, 쉬어 가십시오.”

“쉬어 갈 게 뭐 있느냐? 나하고 함께 가서 살아야지, 내 말에 올라타라.”

이제까지 여인의 희룡을 들은 체도 안 하던 이 좌수가 여인에게 말을 타라고 호령을 했다. 여인이 말에 타자마자 가지고 있던 <췌얏배>로 여인을 결박하고는 말을 달려 마을로 돌아오는데 개짚는 소리가 들리자, 뒤에 타고 있던 여인은 겁이 나서 내려달라고 떼를 썼다.

“가만히 있어라. 내 집에 이르러야 내린다.”

말에서 내려 주지 않고 막 집으로 달려가자, 여인은 자신이 위기에 처했음을 알고는

여우로 변신해서 옷이 다 헤어질 정도로 물어뜯고 발톱으로 핏줄이며 달아나려고 발버둥을 쳤다.

이 좌수는 집에 다다르자마자 얼른 말에서 내려 “황개야 옥돔개야”하고 개를 불러 물어죽이도록 했다. 이 일이 있은 뒤부터 굿물 근처에는 여인으로 둔갑해서 지나가는 사람을 유혹했던 여우 귀신이 나타나지 않았다 한다.

무우남발 이 좌수는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알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것은 이 좌수 자신의 통찰력으로 안 것이 아니라 신성방이란 사람의 영혼이 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신성방은 살았을 때, 대정현에서 호적계장을 지낸 사람으로 이 좌수와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신성방이 죽은 뒤, 대·소상이 지나고 제삿날에 이 좌수가 잠을 자고 있는데 말방울 소리가 와랑와랑 들려왔다. 이 좌수가 잠을 깨어 가만히 귀 기울이니 신성방의 말방울 소리임을 알 수 있었다.

옛날에는 직급에 따라 말방울 소리가 달랐다. 말방울 소리로 아전이니 좌수니 구별을 했다 한다.

그 소리는 바로 죽은 신성방이 살았을 때 타고 다녔던 말을 타고 말방울 소리로 자신의 제사를 보러오는 참에 이 좌수 댁에 들른 것이다.

“좌수님, 자지 않고 계십니까?”

“음, 여기 있다. 어찌해서 왔느냐?”

방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 완전히 산 사람이었다. 들어온 뒤 “너희들 거기 있느냐? 말 이끌어다 매어라”고 하인들에게 명을 내리고는 인사하고 앉았다.

옛날에 부자로 사는 양반은 꼭 앉는 자리 옆에 술병을 차 놓고 마시고 싶을 때 한 잔씩 마시곤 했다.

이 좌수가 저녁 때 마시던 술을 찾아 한 잔 비우고는 “술 한 잔 하세”하며 술을 권했다.

“예, 그런데, 저승 사람은 인간세계 사람이 마셨던 술은 마시지 않습니다.”

“아, 내가 실수했네.” 일어서서는 봉해 두었던 술을 가져다 한 잔 비워주자 쪽 소리까지 내며 마셨다. 그리고는 안주도 집어 먹었다.

조금 있자 신호장(직함)이 눈물을 흘렸다. 이 좌수는 그가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자 이상한 생각이 들어 “어찌해서 울고 있느냐?”고 물었다.

“저, 오늘 제가 이승을 하직한 기일이라서 기일제를 보려고 제 자식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런데, 좌수님께 부탁할 일이 있어 왔습니다.”

“무슨 부탁인가?”

“내 생전에 월평 강씨 말들이 내 보리밭에 들어가 보리를 먹어버린 대가로 보리 30여 석을 대신 받았었습니다. 그것이 죄가 되어 완전히 저승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좌수님이 제 아들에게 금년 보리를 수확하거든 월평 강씨 댁에 갇아준다면 무사히 저승에 갈 수 있다고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네.”

이 좌수는 신성방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약속을 했다. 그리고 밤은 깊었으나 잠이오지 않으니 “갈 때에는 다시 들렀다 가게”하고 말했다.

신성방은 어느 새 제사 지내는 아들집으로 갔다. 잠시 후 제사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말방울 울리는 소리가 와랑와랑 들려왔다. 신성방이 안으로 들어왔다.

“어떻게 대접은 잘 받았는가?”

“언감도 못하고 돌아옵니다.”

“에잇거, 그럴 줄 알아서 내 미리 식사를 준비해 놔뒀네.”

밥상을 차려다주자 신성방은 식사를 했다. 먼저 마셨던 술잔을 한쪽으로 밀어두고 다른 술잔에 술을 부어 쪽 들이마시고, 밥도 숟가락 소리를 내며 먹는 것이었다. 이 좌수는 가만히 앉아서 신성방이 식사하는 모습만 바라보는데, 모두 먹어치웠다.

귀신은 언감만 한다고 하는데 이상하다고만 생각했다.

“아, 이젠 돌아갈 시간이 다 되니 이만 떠나겠습니다.”

“자네가 부탁한 것은 아들에게 말할 터인데, 어찌해서 언감을 하지 못했는가?”

“채소에 뱀이 걸려 있어서 못했습니다.”

사람의 머리털이 귀신에게는 뱀으로 보이는 것이다. 바로 머리털이 제삿상에 오른 채소에 들어있었던 것이다.

“아들네 집에서 언감은 못했으나, 내 집에서 했으니 조금은 섭섭할 테지만 그냥 가게. 그런데, 저승에 갔다 다시 올 때는 내가 언제 죽을지 알아올 수 있겠는가?”

“예, 그것은 알아올 수 있지요.”

신성방은 이 좌수에게 하직인사를 하고 말머리를 돌려 돌아갔다. 이 좌수가 뒷날 살피보니 밥도 그대로 술도 그대로 있었다. 다 먹은 것처럼 보였는데도 달라진 게 없었다. ‘아, 귀신은 이렇게 언감만 하는구나’하고 생각했다. 신성방이 떠난뒤 이 좌수는 곧바로 장남을 불렀다.

“신성방네 집에 가서 세 형제를 불러오라, 고약한 놈들. 기일을 지내면서 채소에 뱀을 걸치다니 될 말이나! 내 할 말이 있으니 곧 데려 오라.”

장남이 달려가서 보니 그때야 제사는 다 지내고 철상을 하고 있었다. 아들을 불러 채소를 가져오도록 해서 젓가락으로 휘휘 젓고 살펴보니 머리털이 감겨 나왔다. 머리털이 감긴 젓가락을 보이며 “너희들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호통을 쳤다.

“너희 부친이 왔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언감도 못하고 가노라 해서 너희들 세 형제를 좌수님이 부른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세 아들은 곤장이나 맞을까 염려해서 음복도 하지 않고 말을 타고 곧장 좌수에게 달려갔다.

“너희들을 부른 것은 다름 아니라 채소에 뱀이 들었다고 했는데...”

“예, 머리털이 세 개 들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명심하렷다. 네 부친이 음복도 못하고 돌아가면서 내게 부탁한 것이 있다. 이리저리 해서 빚을 갚아주면 편히 저승에 갈 수 있겠다고 하더라.”

“예, 과연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 후 세 아들이 보리를 수확하고 열 섬씩 모아 서른 섬을 월평 강씨에게 건네 빗을 갚았다.

다음해 제삿날이 되자 신성방이 다시 이 좌수택에 들렀다. 이 좌수도 잊지 않고 술을 차려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좌수님, 자고 있습니까?”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자네 올 것을 기다리며 자지 않고 여기 앉아 있네. 들어오게.”

신성방이 방으로 들어와 앉은 후에는 1년간 못 다한 사연을 털어 놓았다.

“보리 서른 섬 빗을 갚아주니 내 편히 저승엘 들어갔습니다. 또 저승에 가셔도 역시 호적계장을 맡고 있지요.”

살았을 때 인간세계에서 하던 직무는 죽어서 저승세계에 가도 그대로 하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내가 언제 죽을지에 대해 알아왔는가?”

“예, 일흔 셋 되어서 아무 날 아무 시가 되면 저승으로 가게 됩니다.”

“아, 그런가?. 고맙네.”

사람이 저승에 완전히 들어가면 십 년에 한번 밖에는 제사보러 나오지 못하는 모양이다.

“이번 가면 십 년은 되어야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신성방은 이 말을 남기고 제사 지내는 아들집으로 떠났다. 신성방이 저승에서 호적계장을 맡고 있는 까닭에 이 좌수는 자신이 죽을 날을 알았던 것이다.

아마도 아주 무더운 칠월쯤 된 시절이었다. 하루는 이 좌수가 자식들에게 부탁을 했다.

“어디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데 있어라.”

모든 식구들에게 일러두고 날씨는 더워서 햇볕이 과랑과랑 나는데 도복을 차려입고 모친을 찾아갔다.

“어머님, 뵈러 왔습니다.”

“어떤 일로 날 만나러 왔느냐?”

“제가 오늘 아무 시가 되면 떠나가게 되어 하직 인사하러 왔습니다. 불효자식이라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잘 안장을 해야 하는데, 황천의 명령이라 어머니보다 먼저 떠나게 되어 하직인사 드리게 되었습니다.

“늙어가니 노망을 하는 말로구나.”

“아닙니다. 그런 말은 마십시오.”

“그러면 내가 노망을 하는건가?”

“어머님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직인사 드리니 받으십시오.” 하직인사를 마치고 돌아와 보니 벌써 저승사자가 와서 발 한쪽으로 마루를 딛고 서 있었다.

“음, 고약한 놈들, 내가 자식들 불러 하직하고 난 다음 가야 하는 법인데, 그렇게 서두르면 되겠는가? 가만히 거기서 기다려라. 내, 시간이 되면 갈 것이다.”

이렇게 호통을 치자 저승사자도 어찌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 좌수가 죽을 무렵이 되자 그렇게 빛나던 눈정기가 없어졌다 한다. 이 좌수는 하인을 불러 “내가 타던 말에 안장을 씌워라”고 한 후 세 사자에게 드릴 술상을 차리도록 했다. 저승사자에게도 술 한 잔씩 드리고 진지상을 받아서 밥을 먹었다. 저승사자들은 몹시 서둘렀다.

“다 먹었는가? 이제 갈 시간이 다 되었네.”

“알았네, 말머리 돌려서 잡아라.”

하인에게 말하고 난 후 턱 들어눕자 그만 목숨이 끊어졌다. 그러자 하인도 말도 동시에 쓰러져 죽었다. 이 좌수가 죽을 때 같이 죽은 하인과 말도 이 좌수 무덤 가까이에 묻혔다. 이렇게 일생을 마친 이 좌수가 제주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지, 한양 지체 높은 가문에서 태어났더라면 어영대장은 한번 했을 것이라 한다.

대정읍 보성리, 강신생(남) 제보

11. 중문 고부(高阜) 이택(李宅) 선묘와 태종 강 훈장

옛날 고부(高阜) 이택(李宅) 선조가 제주에 들어와 얼마 되지 아니 한 때 일이라 전한다. 그 집은 가계가 어려웠는데 또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 버리니 집안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그래도 홀로 된 그 집 부인은 집안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였다. 그 여자는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 집안을 발복시킬 길만을 생각하였다. 그렇게 생각한 나머지 남편의 뒷자리를 잘써야 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열두어 살 난 아들을 불러 앉혔다.

“얘야, 남들은 가계가 넉넉하니 아버지를 잘 모시려 육지부에 나가서 지관을 모셔다가 산터를 본다고도 하는데 우리는 그럴 여력은 없으나 어떻게 힘 닿는 데까지 해보아야 할 게 아니냐.”

어머니는 아직 분수를 모를 아들을 앞에 놓고 말했다. 그러나 아들은 선뜻 나설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빈곤하게 살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아버지 모시는 일에 마음을 안 써서야 되겠느냐.”

다시 어머니는 다그쳤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디 잘 아는 지관을 모셔와야 하지 않겠느냐.”

“어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저, 도원리에 강 훈장이란 이가 잘 보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가 혼자 몸인 여자로서 직접 청하러 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네가 가서 청해 오도록 하여라.”

어머니는 아들을 강 훈장에게로 보냈다. 열두 살 밖에 안된 어린 처지였으나 어머니의 간곡한 말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강 훈장이란 지관을 청해들이게 되었다.

강 훈장이 어린 아이를 따라 집안으로 들어서더니 곧바로 방안으로 들지 않고 뒷간으로 가서 잠시 있더니, 다음에는 외양간으로 가서 마굿간 속을 한동안 살피고 들어오면 서, 자기를 모시고 온 그 아이에게,

“얘야, 저 소를 잡으십사고 어머니께 말씀드리라.”

정말 엉뚱한 이야기를 하였다.

그때 그 집에서는 소 한마리를 키우고 있었다. 그것도 그들네 소가 아니라, 어머니가 친정에 가서 병작으로 얻어다 기르는 소였다. 그런데 그 소를 잡으라니 어린아이 마음에도 어처구니 없고 이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 하지만 저희 집엔 소가 없습니다. 저 소는 외삼촌댁에 가서 병작으로 얻어다 기르는 것이라서 잡을 수 없습니다.”

아들은 솔직하게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그때 모시고 오는 손님을 맞으려 부엌에서 일을 보던 그 어머니가 나와서 손님을 맞으려는데, 아들과 주고받는 손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얘야, 이리 좀 와라”하고 아들을 급히 부엌으로 불러들였다.

“얘야, 아무 말 말고 소를 잡겠다고 하여라.”

어머니는 다급하게 아들에게 지시를 하였다.

“아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에게 소가 어디 있습니까. 저 소는 외삼촌네 소가 아닙니까?”

“그래도 잡겠다고 그래라. 이 에미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아들은 어머니 말에 따라 부엌에서 나와서는 강 훈장에게 소를 잡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 동안 어머니는 친정으로 출달음쳐서 갔다. 손 아래인 동생을 보고 사정을 하였다.

“동생 딱한 사정이 있어 왔네.”

“누님, 무슨 일입니까?”

“저 매부의 뫼자리나 보려고 지관 어른을 청해왔는데, 하 글썸, 소를 잡으라 하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

동생은 누님의 마음을 곧 알아차렸다.

“누님, 잡으라고 하면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소를 잡으십시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동생에게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면서 집으로 달려왔다. 그런데 뒤이어 그 동생이 백정을 데리고 누님네 집에 나타났다. 그래서 소를 잡았다.

강 훈장은 소를 잡아 대접하는데도 한마디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방안에 들어 앉아서 대접만 받았다. 뫼자리를 보려는 눈치도 보이질 않았다. 그렇게 하면서 소 한 마리를 혼

자서 몽땅 먹어치우고서야,

“어서 들에 갈 차비를 차리게”하면서 그 어린 아이에게 말했다.

강 훈장은 어린 아이를 데리고 들로 나섰다. 그는 아무런 말도 없이 지금 안덕면 창천리 윗 지경인 ‘거린오름’이란 데에 이르러서 한 곳을 정해 주면서,

“야, 소 백 마리는 치를 곳이다. 그런데 내가 한 마리를 먹어버렸으니, 어떻든 소 아홉 아홉 마리는 부릴거야.”

이렇게 딱 한마디 해두고 자기가 앞장을 서서 내려와 버렸다. 아이는 그 곳에 아버지를 이장하여 모셨다. 그런데 과연 그 당대에 부자가 되어 소 백여 마리를 집에서 기를 정도로 발복하였다. 지관은 먹은 만큼 뒀자리를 봐준다는 말이 바로 이런 데서 온 것이다.

서귀포시 영천동, 정운선(남) 제보

우리고장의 석화

2010년 12월 24일 인쇄

2010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 서귀포문화원장 김 병 수

발행인 : 서귀포문화원

서귀포시 동홍동 453-1

Tel : (064)733-3789

인쇄처 : 도서출판 오디콤

Tel : (064)762-0745

〈비매품〉

* 본 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으로 발간하였습니다.

